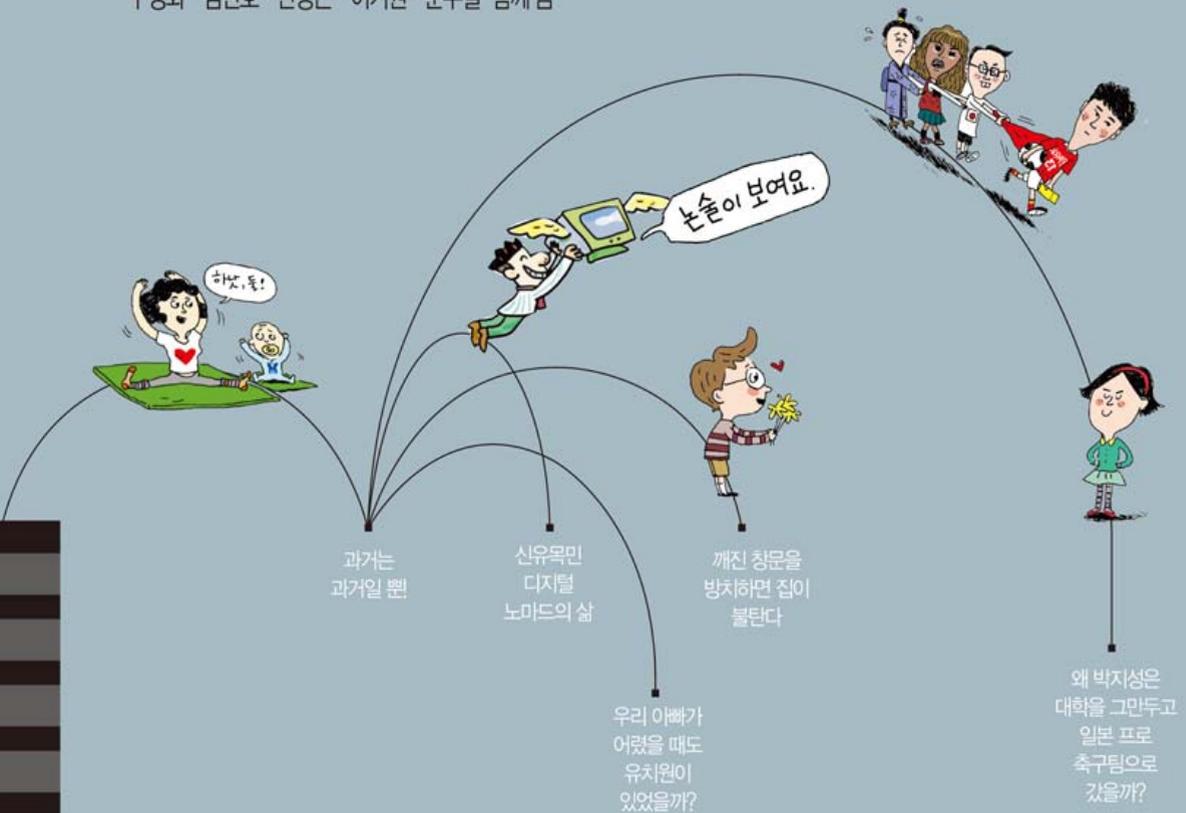


통계 속의 재미있는

세계 이야기

2012년 개정 증보판

구정화 · 김찬호 · 안병근 · 이기원 · 문우일 함께 씀



1371

%88



이 면은 빈 공간입니다.



통계 속의 재미있는



세상 이야기

2012년 개정 정보판



이 면은 빈 공간입니다.



통계 속의 재미있는 세상 이야기

2012년 개정 증보판

구정화 · 김찬호 · 안병근 · 이기원 · 문우일 함께 씀

통계는 현실을 보는 눈

통계는 과거의 자료들을 근거로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통계’라고 하면 단순히 숫자를 연상합니다. 그것도 네모난 칸들에 뺄뺄하게 쓰여 있는 숫자들의 집합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는 지루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요. 그러나 통계를 의미 없는 숫자들의 집합으로만 볼 때는 죽은 글자들에 불과하지만, 그 속에서 의미를 찾기 시작하면 숫자들은 스스로 살아 움직이면서 자신들이 알아낸 비밀들을 풀어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통계의 사전적 의미는 ‘집단의 현상을 숫자로 나타낸 것’입니다. 숫자를 통해 집단의 규모나 분포가 어떠한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한 집단과 다른 집단의 차이는 어떠한지 등을 알아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대로 들여다보기만 하면 높은 산에 올라 시내를 내려다보듯 사회 전체를 조망할 수도 있고,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통계 변화를 통해 앞으로의 변화를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들 때문에 현대 사회에서는 곳곳에서 통계가 유용하고도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선거에서의 여론조사나 출구조사를 비롯하여 정부의 정책을 진단하고 결정하는 데, 기업에서 상품의 판매와 수요를 예측하는 데, 수많은 임상실험들의 결과를 판정하는 데, 가깝게는 내일의 날씨를 예측하는 데 등 수많은 곳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이런 통계를 젊은이들, 특히 중·고등학생들에게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자는 것이 이 책의 기본 취지입니다. 그러나 이 책은 통계에 대한 지식을 늘어놓는 책은





아닙니다. 이 책에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 고령화 문제, 이주 노동자 문제, 여성 문제, 쌀 시장 개방 문제를 비롯하여 기부문화나 다이어트 열풍, 애완동물, 스마트폰 문제 등이 그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이 책은 여러분의 눈술 능력을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 글들이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의 견해일 뿐이지요. 그러나 이 다양하고 흥미로운 글들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사고력을 길러 나가고, 동시에 통계가 지루하고 딱딱한 학문이 아니라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사회를 보는 눈이 되어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통계 속의 재미있는 세상 이야기』가 나온 지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독자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 쇄를 거듭하여 이미 많은 독자들에게 알려졌으나, 좀 더 많은 독자들에게 좀 더 충실한 내용으로 다가가기 위하여 현실에 맞는 새로운 내용들을 추가하고 오래된 내용을 털어내는 손질을 했습니다. 또 통계 수치가 바뀐 것은 수정을 하고 새롭게 조사된 것은 덧붙이고, 내용상으로도 좀 더 충실하게 손을 보았습니다. 이 노력이 우리 생활과 통계가 가까이 있다는 것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나오기까지 노력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책이 나오기까지 음으로 양으로 도움을 아끼지 않으신 많은 분들 께도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 12월
통계청장 우기중

사고의 폭을 넓혀 주는 흥미롭고 유익한 책

『통계 속의 재미있는 세상 이야기』는 지난 5년간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아왔던 책입니다. 통계청에서 이번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고 자료와 디자인을 많이 보완하여 개정증보판을 발간하는 것에 대해 초판의 추천사를 쓴 사람으로서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거의 매일 신문이나 방송 보도, 또는 조사보고 등을 통하여 각종 통계와 접하며 살아가면서도 막상 통계는 관공서나 학자들의 관심사일 뿐 보통 사람들과는 별로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더욱이 통계란 복잡하고 지루하고 재미없는 숫자 놀음이라고 생각하기 쉽지요. 그런데 이 책 『통계 속의 재미있는 세상 이야기』는 그런 우리의 통념을 크게 바꿔 놓은 아주 흥미로운 책이었습니다.

우선 이 책의 필자들이 각자 자기 분야의 전문가로 아주 맛깔스러운 글을 쓰시는 분들인데다, 통계를 이용해 글을 쓰면서도 통계 이야기라기보다는 이 시대에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다양한 문제들을 요리조리 헤집어 분석하고 종합하고 판단의 근거를 제시해 주는 매우 유익한 글을 써 주셨습니다.

그리고 표지부터 매우 산뜻한 외양을 하고 있으며, 책 속의 글 내용과 잘 어울리는 흥미로운 각종 그림과 또한 간간이 만화를 섞어 놓아서 지루하지 않고 이해하기에도 아주 좋게 되어 있지요. 이 책은 오늘날 시각매체에 익숙한 청소년들의 구미에 딱 맞추어 흥미와 호기심을 끌고 있어서, 글을 읽으며 사고의 깊이를 더하고 폭을 넓혀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책이 일반 출판사나 잡지사가 아니라 통계청이라는 정부기관에서 나온 책이라니! 관공서에서 발간한 책들은 대부분 정부 홍보 일변도의 딱딱하고 일방적인 내용일 것이라는 고정관념도 후련하게 날려주는 참신한 시도여서, 이 책을 기획한 통계청 관계자들을 새삼 경이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관공서가 평소에 축적해 놓은 풍부한 자료와 정보를 일반 대중과 나누는 아주 바람직한 사례를 보여준 일이었지요.

이 책을 만들기 위해 여러 사람들이 정성을 들였고 그 정성만큼 책 또한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발간된 책을 그냥 놓아두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되는 통계 수치들을 새롭게 고쳐 맞춰 주고, 또한 그 내용에 살을 붙이고 수정하고 하면서 보이지 않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책을 만드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계속 관심을 가지고 수정·보완의 노력을 지속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님을 책을 내본 사람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점에서 통계청장님을 비롯한 통계청 관계자들의 열정과 노력에 또 한 번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변의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문제에 관하여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짧지만 예리하게 분석한 글들로 구성된 이 책은 누구든지 부담 없이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논리적 사고력과 사물에 대한 통찰력을 향상시키는 데도 아주 효과적일 듯싶어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에게도 한번 읽어 보시기를 적극 권장합니다. 좀 더 알차고 새로워진 『통계 속의 재미있는 세상 이야기』 2011 개정증보판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사랑받기를 바라면서, 이 책이 나오기까지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사의를 표하며 거듭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현 충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이 중 승

1

생각은 합리적으로

박지성은 왜 대학을 그만두고 프로 축구팀으로 갔을까? 10

행복한 삶을 위해 필요한 것들 16

만화 : 아빠가 어렸을 때도 유치원이 있었을까? 23

깨진 창문을 방치하면 집이 불 탄다 31

신유목민, 디지털 노마드의 삶 38

과거는 과거일 뿐 46

만화 : 말발굽에 채여 죽은 군인은 얼마나 될까? - 평균값과 중앙값 50

조삼모사? 조사모삼? 58

스프링복과 오유지족 63

쉬어가는 코너 : 사랑은 영원할 수 있을까? 70



2

사회에 관심을

우리에게 자동차는 무엇인가? 74

자본주의의 꽃, 쇼핑은 어디서? 80

아이를 낳으세요, 돈을 드립니다 87

만화 : 선거 개표 방송을 보면서-여론조사와 출구조사 96

이사를 몇 번 더 해야 우리집이 생길까? 103

나는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 110

만화 : 소아마비 예방백신의 비밀 114

소득으로 본 난쟁이와 키다리 120

당신은 어떤 직업을 원하시나요? 125

사라진 밀밭에서 얻은 교훈 133

쉬어가는 코너 : 우리의 선택은? 138



3

함께 만드는 큰 세상

- 민주주의를 위한 밑거름, NGO 142
- 1%로 만드는 큰 세상 149
- 우리의 이웃, 외국인 이주 노동자 158
- 만화 : 흡연이 폐암을 일으킬 확률은? 166
- 소년소녀 가정은 줄고 있지만... 172
- 새로운 가족, 반려동물 178
- 만화 : 한 반에 생일이 같은 친구가 있을 확률은? 184
- 물과 공기는 얼마만큼 나빠졌나? 191
- 고령 사회에 대비하자 198
- 엄지공주와 단군 할아버지, 그리고 다문화 206
- 쉬어가는 코너 : 통계와 관련된 있을 수 있는 오해 2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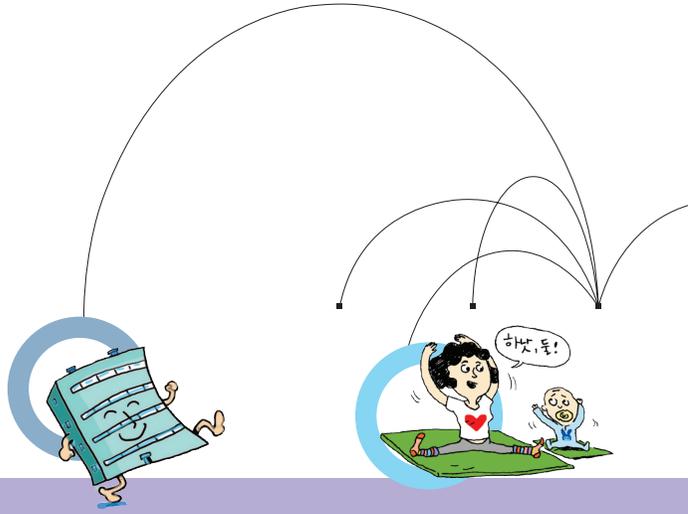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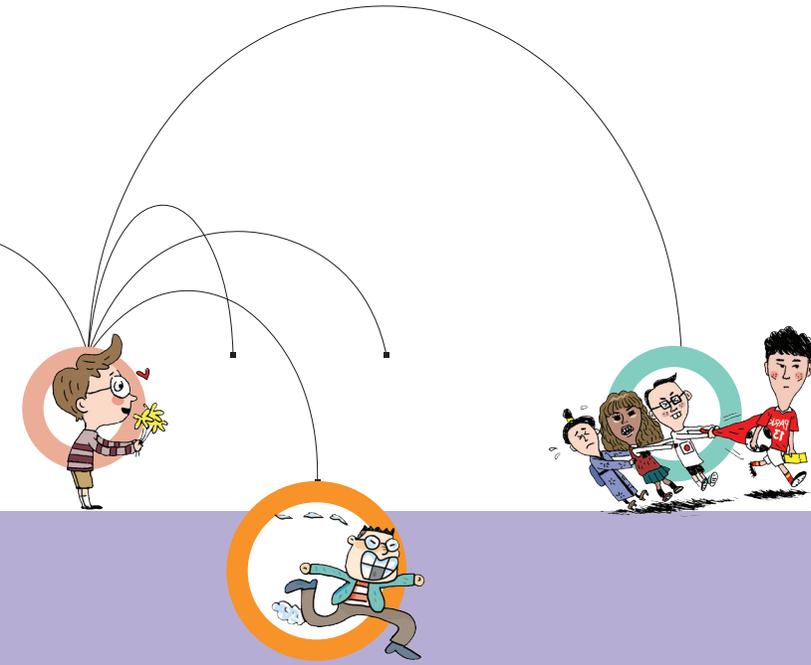
4

우리 시대 우리 이야기

- 스마트폰 세상에서 220
- 만일 한글이 없었다면? 227
- 외모지상주의 사회에서 살아남기 234
- 만화 : 나의 진짜 몸무게는? -평균값 구하기 242
- 지금 무슨 책 읽고 있나요? 250
- 만화 : '책을 많이 읽는다'에 는 두 가지 뜻이 있다? 256
- 여자의 인생, 어떻게 바뀌었나? 262
- 우리나라의 성씨는 몇 개나 될까? 269
- 통계로 읽는 대한민국 276
- 우리 생활, 어떻게 바뀌었나? 280
- 쉬어가는 코너 : 맹모삼천지교가 집값을 올린다? 288
- 자료 : 통계를 더 보고 싶다면 이렇게!! 290







1

생각은 합리적으로

- 박지성은 왜 대학을 그만두고 프로 축구팀으로 갔을까?
- 행복한 삶을 위해 필요한 것들
- 만화 아빠가 어렸을 때도 유치원이 있었을까?
- 깨진 창문을 방치하면 집이 불 탄다
- 신유목민, 디지털 노마드의 삶
- 과거는 과거일 뿐
- 만화 밑발굽에 채여 죽은 군인은 얼마나 될까
- 조삼모사? 조사모삼?
- 스프링복과 오유지족
- 쉬어가는 코너 사랑은 영원할 수 있을까?

박지성은 왜 대학을 그만두고 프로 축구팀으로 갔을까?



노란 숲 속에 길이 두 갈래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다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풀이 더 있고 사람이 걸은 자취가 적어,
더 걸어야 될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걸으므로 해서
그 길도 거의 같아질 것이지만.

- 중략 -

훗날에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



앞의 시 <가지 않은 길>은 미국의 국민시인이라고 일컬어지는 로버트 프로스트의 유명한 작품이다. 이 시에서 작가는 한순간의 선택으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달라지는가를 숲 속의 두 갈래 길에 비유하여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다.

우리의 삶은 이 시가 말하듯이 '선택'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우리는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계속 선택을 한다. 우선, 아침에 잠이 깨면 바로 일어날 것인가 아니면 조금 뒤척이다가 일어날 것인가를 선택한다. 또 아침은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학교는 몇 시에 갈 것인가, 친구와 놀 것인가 공부할 것인가, 잠은 몇 시에 잘 것인가 등등 하루 종일 아주 사소한 것들을 선택하게 된다. 그런가 하면 한 번의 선택이 인생을 좌우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대학에 진학할까 말까, 진학한다면 어느 대학 어느 학과로 갈 것인가, 결혼을 할까 말까, 한다면 누구와 할 것인가 등은 자신의 인생을 크게 바꿔 놓을 수 있는 선택이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인생을 좌우할 선택들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한 선택은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할까? 축구선수 박지성의 경우를 예로 들어 생각해 보기로 하자.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박지성 선수는 강인한 체력과 타고난 근성으로 2002년 월드컵에서 한국 팀이 4강에

진출하는 데 큰 공헌을 했다. 특히 16강 진출을 결정할 포르투갈과의 경기에서 그가 차넣은 환상적인 결승골은 많은 축구팬들의 뇌리에 선명하게 남아 있다. 그런데 박지성 선수는 명지대학교 2학년 때인 2000년 5월, 휴학을 하고 일본 프로 축구팀(J리그) '교토 퍼플 상가'에 입단하였다. 왜 박지성 선수는 대학을 마치지 않고 프로팀으로 갔을까?

당시 박지성 선수의 일본 J리그 진출에 대하여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의 일본행이 너무 빠르다는 것이었다. 일본에서 성공한 선수들은 대개 국내 프로 축구에서 자기 스타일을 완전히 굳히고 응용할 수 있는 홍명보, 황선홍, 유상철, 하석주 같은 노장 선수들이었다. 박지성 선수처럼 자신의 축구 스타일이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경이 다른 일본에 진출하면 혼란을 겪게 될 우려가 있었다. 또 박지성 선수가 입단할 교토 퍼플 상가는 J리그의 최하위 팀이다 보니 그 팀이 2부 리그로 추락할 가능성도 있고, 그럴 경우 2류 선수로 전락할 위험도 있다는 게 또 다른 이유였다. 박지성 선수 역시 이런 점들을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교토 팀에서 입단 제의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고심했을 것이다.

이때 박지성 선수가 선택할 수 있는 첫번째 길은 대학에 계속 다니면서 축구 실력을 닦아 훌륭한 선수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그러면 대학 졸업 후에 별 위험 요인 없이 한국이든 일본이든 더 좋은 조건으로 프로팀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체육 특기자로 등록금을 내지 않아도 되니 대학 학비도 들지 않는다.

두번째 길은 휴학을 하고 일본 교토 팀으로 가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일본 축구에 적응하지 못하여 2류 선수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토 팀이 제안한 연봉 5천만 엔(약 5억 원)과 경기마다 지급되는 출전 수당 30만 엔(약 3백만 원)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이 두 갈림길에서 박지성 선수는 두번째 길을 선택했다. 왜냐하면, 첫번째 길을 가면 등록금 부담 없이 훌륭한 선수로 성장할 수 있는 편익이 있지만, 두번째 길을 갈 때 얻을 수 있는 연봉 5억 원과 출전 수당은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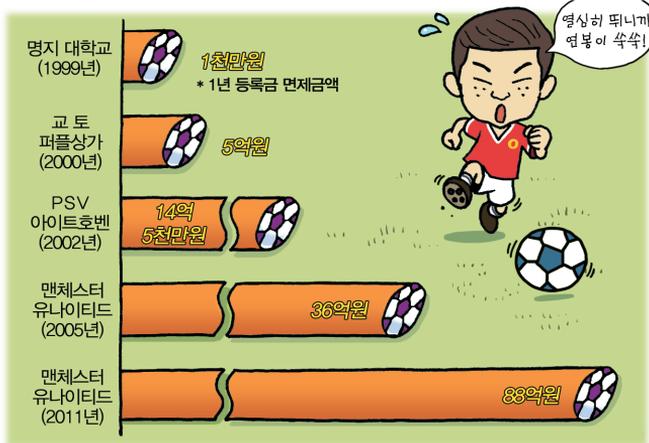
이와 같이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개 그로 인해 잃는 것(이것을

경제학에서는 ‘기회비용’이라고 한다)이 무엇이나 하는 것이다. 실제로 박지성 선수가 2000년 초에 J리그의 시미즈 S펄스 팀으로부터 첫 제의를 받았을 때는 대우가 C급 이라서 거절했지만, 이번 교토 팀의 경우에는 주전급(A급) 대우를 약속해서 제의를 받아들였던 것이다. 즉, 시미즈 S펄스 팀에는 가지 않아도 잃는 것(기회비용)이 크지 않았지만, 교토 팀에 가지 않을 경우에는 잃는 것이 더 컸기 때문이다.

2002년 말, 박지성 선수는 또 다시 두 갈래 길에 섰다. 2002년 월드컵에서 한국 대표팀을 4강으로 이끌었던 히딩크 감독으로부터 ‘네덜란드 프로 축구팀 아인트호벤으로 이적할 것’을 제안받았기 때문이다. 당시 일본의 팬들은 박지성 선수가 일본에 남아 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는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교토 퍼플스에 남을까, 아니면 새로운 기회를 선택하여 네덜란드로 갈까? 이번에도 역시 기회비용*을 따져 보면,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기회비용 : 어떤 선택을 할 때 포기되는 기회의 가치

구단별 박지성의 연봉



아인트호벤은 박지성 선수에게 3년 6개월에 420만 달러(약 51억 원)라는 거액을 제안했다. 이것은 박지성 선수가 교토 팀에서 받고 있는 연봉의 약 2.9배에 달하는

엄청난 액수이다. 따라서 교토 팀에 남아 있게 되면 그로 인해 포기해야 하는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교토 팬들의 열렬한 사랑에 감사하지만, 박지성 선수는 결국 네덜란드행을 선택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다. 실제로 박지성 선수는 2003년 1월 7일 아인트호벤 팀과 입단 계약을 하였다.

박지성 선수는 아인트호벤 팀에서 탁월한 기량으로 맹활약을 펼쳤다. 2005년 5월에는 아인트호벤 팀이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 리그 4강에 진출하였는데, 박지성 선수는 4강 진출의 주역이었다. 이러한 활약을 바탕으로 박지성 선수는 2005년 7월에 연봉 200만 파운드(36억 원)를 받고 영국 프리미어리그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팀으로 이적하였다. 그는 유럽 진출 2년 6개월 만에 한국인 최초의 프리미어 리거가 되었다. 그리고 2011년 8월에 그는 2013년 6월까지 최대 500만 파운드(88억 원)를 받는 조건으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팀과의 세번째 재계약에 성공하였다. 팀 내에서 박지성보다 몸값이 비싼 선수는 웨인 루니와 리오 퍼디낸드뿐인 것으로 알려진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박지성 선수와 같은 선택을 했을까, 아니면 일본이나 네덜란드에 남았을까? 아마 십중팔구는 그와 같은 선택을 했을 것이다. 개인적 이익의 측면에서 보나 국위 선양의 측면에서 보나 그게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박지성 선수는 일본과 네덜란드에서처럼 영국에서도 기량을 한껏 발휘하며 소속 팀에서 없어서는 안될 존재로서 맹활약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유럽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은 그를 보면서 외로움을 달래고 가슴이 자부심을 심는다.

2011년 11월 현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팀에서 일곱번째 시즌을 맞고 있는 그는 영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맨유 팀에서 선수 생활을 마감하고 싶다는 바람을 밝혔다. 박지성 선수는 “맨유가 나의 마지막 클럽이 됐으면 좋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진가를 계속 입증해야만 한다. 매일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그가 건강한 모습으로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성원을 보내자.

박지성, 파이팅!

교토 팬 페이지 : 박지성 떠나지 마...

2002년 12월 22일 일본 《굿데이 신문》에는 박지성 선수가 네덜란드 팀으로 이적하지 않고 일본 팀에 남아 주기를 원한다는 일본 팬들의 간절한 바람을 전하는 기사가 실렸다. 그 기사의 내용이다.

교토 서포터스가 “오~ 필승 코리아!”를 부르며 박지성의 잔류를 애원하고 있다. 박지성이 J리그 피날레 골을 터트린 지난 달 30일 이치하라전 이후 야후재팬의 교토 퍼플상가 팬 홈페이지 게시판은 박지성에 관한 글들로 연일 메워지고 있다.

‘astonhilla’라는 ID의 한 일본인 팬은 “이치하라전에서 박지성의 동점골이 터진 뒤 교토 서포터스가 ‘오~ 필승 코리아!’를 불러 그의 부모를 감동시켰다”면서 “만일 박지성이 잔류를 결정한다면 그때 목놓아 노래를 불렀던 서포터스의 힘이 크다”고 주장했다. 교토팬들은 박지성의 잔류를 애타게 기원하였다. 그들은 “2002년 월드컵 스타가 교토를 떠나면 교토의 내년 시즌 2부 리그 추락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주장하며, 구단에 “박지성을 붙잡기 위해 노력하라”고 위협(?)하고 있다.(중략)

물론 박지성의 이적을 못 믿겠다는 팬들도 있다. 이들은 아직 잔류 가능성이 남아 있다며 “박지성 선수의 결단을 기다려 보자”고 말했다. 특히 ‘power_roh’라는 ID를 쓰는 팬은 “박지성의 아버지가 아들의 잔류를 권유했다”는 《닛칸 스포츠》 2일자 기사를 게시판에 링크하며 “한국은 유교의 나라이므로 박지성이 부모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박지성의 잔류를 원하는 일본인들의 간절한 바람은 지금도 게시판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행복한 삶을 위해 필요한 것들

1



내가 생각하는 행복한 삶은?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첫째,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도 많이 번다. 둘째, 하고 싶은 일을 하지만 돈은 적게 번다. 셋째, 하기 싫은 일이지만 돈은 많이 번다. 넷째, 하기 싫은 일인데 돈도 많이 벌지 못한다.

위의 네 가지 삶 중에서 가장 가고 싶지 않은 길을 선택하라면 대개 네번째를 꼽을 것이다. 그리고 가장 가고 싶은 길은 당연히 첫번째일 것이다. 누구나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경제적인 풍족함을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마는, 이는 현실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다면 대개의 경우는 두번째와 세번째 길을 놓고 어디로 갈 것인지 그 선택에 대해 고민할 것이다.

불과 십여 년 전만 해도 우리 사회에서 예술은 춥고 배고픈 일이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부모는 자식들에게 예술적 재질이 보여도 그 길을 포기하고 판검사나 의사 혹은 교수가 되기를 권했다. 하고 싶은 일을 해서는 밥 먹고 살기 힘들다는 것이었다. 이렇듯 두번째 길을 택할 경우 돈을 조금밖에 벌지 못하기 때문에 정작 하고 싶은 일도 하지 못하게 되는 수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산다는 자존심은 지킬 수 있다. 그러나 세번째 길의 경우, 비록 하기 싫은 일을 하지만 요즘 같은 세상에 돈이 많으면 그래도 행복할 것 같기 때문에 선택할 수도 있다.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는 옛말에 위안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두번째와 세번째 선택의 갈림길은 행복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그 길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 삶의 행복을 하고 싶은 ‘일’에 두느냐, 아니면 그 대가로 받는 경제적 여유에 두느냐의 문제이다. 이것은 나이가 한 살씩 먹을 때마다, 또 자신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따라서 어떤 것이 더 좋고 나쁘냐의 객관적인 평가는 있을 수 없다. 행복은 다른 사람에 의해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이 스스로 느끼는 바에 의해 평가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각자가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행복지수 102위의 대한민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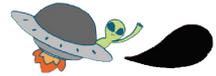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오래 전에 인기리에 상영되었던 영화 제목이다. 행복의 크기가 학창 시절에 받은 성적순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데 많은 사람들은 공감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라.”고 말한다. 다른 한편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돈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가난하면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선택의 기회조차 갖지 못하므로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은 꿈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한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래도 좀 더 상위권의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너도 나도 입시공부에



매달리고, 성적을 좀 더 올리기 위해 과외 수업에 엄청난 시간과 돈을 지불하기도 한다. 이것은 사람들이 ‘행복이 성적순’이라고 생각한다는 증거가 아닐까? 아니, 행복은 성적순이라기보다 학벌순이라고 하는 게 더 맞을 듯하다. 사실 우리 사회에는 상위권의 대학에 들어가면 남 보기에 번듯한 직장 또는 직업을 가질 수 있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경제적 안정을 누릴 수 있다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말 성적이, 학벌이 그리고 경제력이 각자의 삶에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줄 수 있을까?



나라별 행복지수 순위

영국 신경제학 재단	영국 레스터 대학
1. 바누아투	1. 덴마크
2. 콜롬비아	2. 스위스
3. 코스타리카	3. 오스트리아
4. 도미니카	4. 아이슬란드
5. 파나마	5. 바하마
6. 쿠바	6. 핀란드
7. 온두라스	7. 스웨덴
8. 과테말라	8. 부탄
9. 엘살바도르	9. 브루나이
10.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10. 캐나다
...	...
102. 대한민국	102. 대한민국

※ 자료 : 영국 신경제학 재단과 영국 레스터대학, 2006년.

2006년에 영국의 신경제학 재단과 레스터 대학은 세계의 각 국가별 국민 행복지수를 각각 조사발표하였는데, 매우 충격적이게도 우리나라는 양쪽에서 모두 102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현재 지구상에 몇 개의 나라가 있는지는 조사기관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세계 지도정보 237개국, 세계은행 통계 229개국, 국정원 자료 231개국), 아무튼 200개가

넘는 나라들 중에서 겨우 102등으로 중간에 속한다니 OECD 가입국으로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두 기관의 평가기준은 조금씩 달라서, 신경재학재단의 경우 삶의 만족도, 평균수명, 생존에 필요한 면적과 에너지 소비량 등에 바탕하여 계산을 하였고, 레스터 대학의 경우 건강상태, GDP*, 평균수명, 교육 여건 등을 바탕하여 계산하였는데, 어쨌든 양쪽에서 모두 102위에 있었다.

GDP : 국내 총생산. 일정 기간 국내에서 생산한 모든 것을 합한 것으로 국민 경제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국민소득 : 한나라의 국민 전체가 일정한 기간 동안(보통 1년) 에벌어들이는 소득

영국 신경재학 재단의 조사를 보면 조사대상국 178개국 중 행복지수 1위의 나라는 바누아투이다. 바누아투라니?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조차 생소한 이 나라는 남서태평양 솔로몬제도와 뉴질랜드 사이에 있는 작은 섬(제주도보다 약간 크다)으로, 1인당 국민 소득이 2,000달러에도 미치지 않는다. 1인당 국민 소득이 우리나라에 비해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의 행복지수가 1위라니, 일반적인 생각으로 보면 뭔가 이상해도 한참 이상하지 않은가? 보통 사람들의 상식과는 정반대인 것 같은 이 결과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좋은 직업의 조건은?

직업은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편이다. 하지만 직업을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으로만 보기에선 우리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다. 특히 하루 중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을 계산해 보면 더욱 그렇다. 많은 사람들은 24시간 중 8시간 이상, 그러니까 3분의 1 이상을 직장에서 보낸다. 출퇴근 시간에도 직장 동료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까지 합치면 하루 중 절반이 넘는 시간을 직장에서 보낸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직업은 한 사람의 행복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중요한 직업을 선택할 때 사람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까?

2008년 리쿠르트(취업 포탈 사이트)의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 1,238명 중 30.5%가 직업 선택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조건으로 안정성을 선택했다. 안정성이란 오래도록 변함없이 일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위의 소득(연봉)은 27.9%이다. 이들은 별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신적 만족보다 현실적으로 안정된 경제생활을 유지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대학생들이 직업 선택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조건



안정성	377명	30.5%
소득(연봉)	345명	27.9%
발전 가능성(비전)	309명	25.0%
흥미 적성	161명	13.0%
명예	46명	3.7%
합계	1,238명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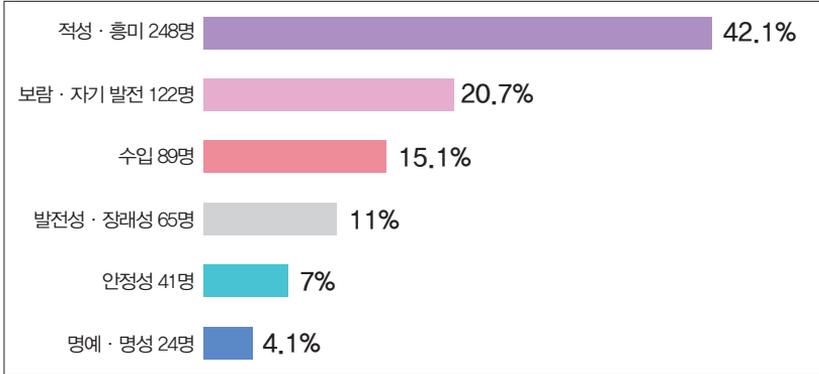
※ 자료 : 리쿠르트(취업포탈사이트), 2008년

※ 주 : 대학생 1,238명에게 질문지법으로 조사했음

이 통계치로 보면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비전)이나 자신의 흥미, 적성 따위보다 안정적이거나 보수가 많은 직업을 선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인적인 성취보다 생활의 안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다.

그런데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보면 그 결과가 이와 정 반대이다. 이들은 직업을 선택할 때 적성과 흥미를 직업 선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으로 꼽았다. 안정성과 수입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치를 보인다. 대학생들의 경우와는 사뭇 다른 결과이다.

초·중학생이 직업 선택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2007년

※ 주 : 초·중학생 450명을 대상으로 조사(중복 허용)

사람마다 다른 행복의 기준

그러면 현재 직업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일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을까? 상상하기 어려울지 몰라도, 자신의 일에 가장 만족하며 살아가는 직업의 1위는 ‘사진작가로 조사되었다. 돈도 많이 벌고 안정적인 직업에 속하는 의사는 오히려 꼴찌에서 두번째이다.

안정적이면서 경제적인 여유도 누릴 수 있다고 생각되는 항공기 조종사가 상위 3위에 든 것을 빼면, 나머지 상위 그룹에 속한 직업은 경제적 안정과 그다지 연관성이 없어 보인다. 어쩌면 자신의 소질이나 적성을 무시한 채 안정성과 소득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직업을 선택할 경우 일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은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직업과 관련하여 보내는 시간은 하루의 거의 절반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직업 속에서 행복을 얻지 못한다면 그 삶이 행복할 확률은 훨씬 낮아진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자신의 적성이나 소질을 바탕으로 직업을 선택했다면 많은 사람들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했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102위로 조사된 것은 어찌 보면 매우 당연한 것이다.

경제적 안정이나 풍요는 일부러 멀리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그것만이 행복의 열쇠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삶에 대한 행복감은 직업이 무엇인지, 돈이 얼마만큼 있는지, 자신이 속한 대학의 순위가 어디인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신이 얼마나 거기에 만족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행복한 삶 찾아 의사에서 요리사로

요리사 노종현(40) 씨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 나파밸리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공상의 나라를 편다.

‘그 골목에는 프랑스 레스토랑이 적당하겠어. 요리는 열 가지는 넘어야겠지?…’

그는 원래 의사가 되기로 되어 있었다. 큰 병원의 후계자인데다 명문대 의대생이었던 그가 하얀 가운을 입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자신에게 의사는 ‘좋지도, 재미있지도 않은’ 직업이었지만, 부모가 모두 의사인 집안에서 그가 할 일은 애당초 그것 말고는 없었다. 미리 정해진 대로 의대를 졸업한 뒤에 떠난 미국 유학길에서 그는 ‘내가 진정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를 놓고 심각한 고민에 빠져들었다. 그곳에서 만난 미국 친구들은 그에게 “자신의 인생을 왜 다른 이를 위해 살려고 하느냐”고 나무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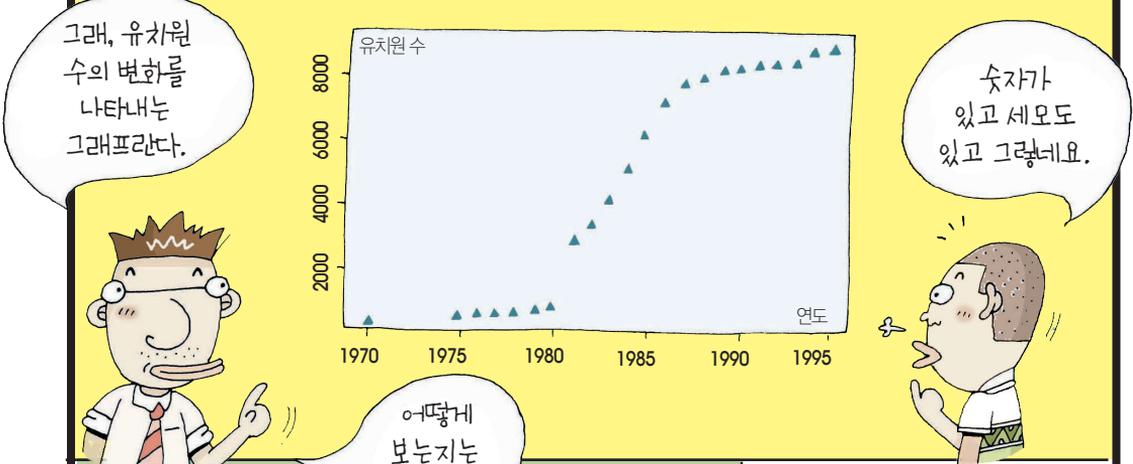
그러던 중 일본 음식점 아르바이트가 그에게 새로운 인생의 길을 열어 주었다. 그곳에서 일하면서 그는 음식 하나로 손님들을 행복에 빠뜨리는 마술 같은 광경에 쏙 빠져 버렸다. “난생 처음으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때 나이 29살. 의학을 미련 없이 버리고 그는 미국 요리학교에 입학했다. 그의 반란은 당연히 부모의 극심한 반대의 벽에 부딪혔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 처음으로 번진 행복한 웃음은 결국 부모의 상난 마음을 가라앉혔다. 자신이 좋아서 택한 일이니만큼 일에 푹 빠져 살았다. 그는 병든 몸을 고쳐주는 의사 대신 행복감을 맛보게 해 주는 요리사가 된 것에 스스로 만족스러워한다. - ○○신문, 2008. 11.



아빠가 어렸을 때도 유치원이 있었을까?











다른 데?!

예~ 여길
보세요.



왜 여기서
갑자기 불어난
걸까요?

응? 정말 그래네?
1980년에는 901개였는데
1981년에는 2,958개구나?



한 해 사이에
엄청나게 많이 늘었네.
왜 그랬을까?

이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날까요?



흠... 1980년에는
광주 민주화운동이 있었고,
그 해에 전두환 정부가
들어섰는데...?



그 다음 해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유치원 수가 이렇게
늘어난 거지?

어디... 유치원
교육하고 관련된
일이니 《교육연감》을
한번 살펴볼까?

교육
연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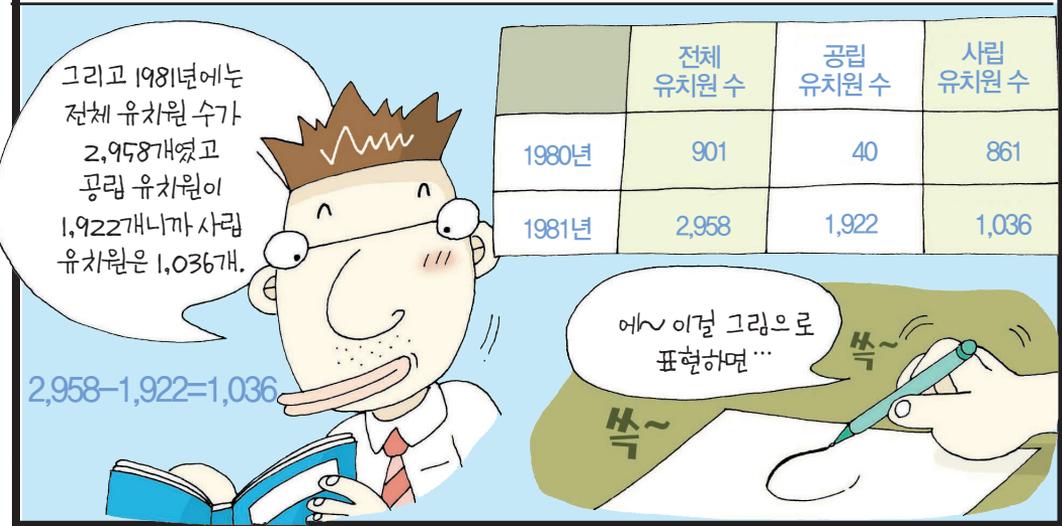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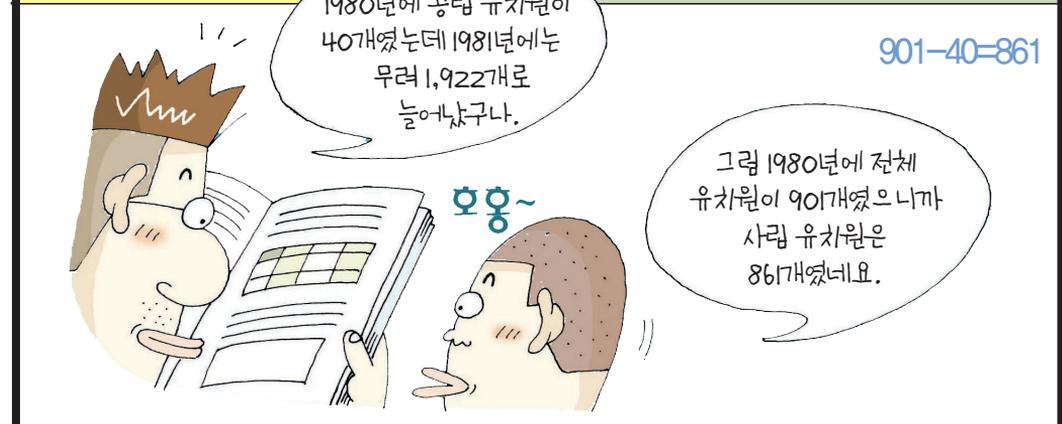


1981년 통계를 알려면 1982년에
발행한 것을 열어 보아야지?
1981년이라... 아! 여기 있구나.
아빠가 읽어 줄 테니
들어 보라.

이 당시의
사회 분위기는
유아 교육이...

이 당시의 사회 분위기는 유아 교육이 국가 발전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인식이 팽배하였다.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1981년 대통령 연두교서에서 조기 교육의 필요성 및 중요성이 거론되었다.
 따라서 1981년은 우리 정부가 유아 교육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개입한 해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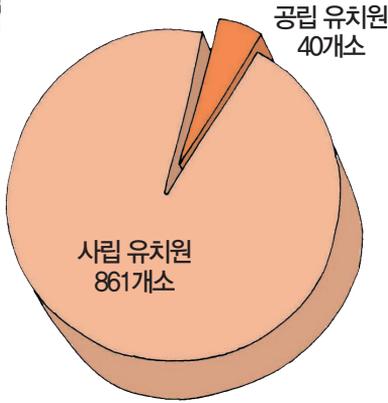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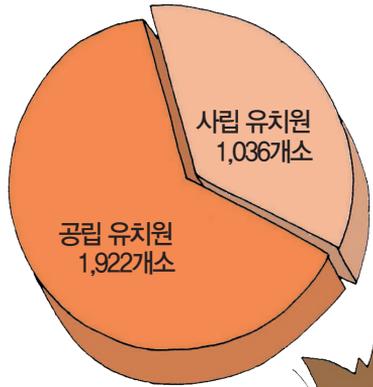
하~ 이렇게
원그래프로 그려
놓으니까 비율의
변화를 한눈에 알 수
있네요~.

공립의 비율이
굉장히 조금이었다가
화~
늘어났어요.

1980년



1981년



그래, 반면에
사립의 비율은
1년 사이에
푹~ 줄어들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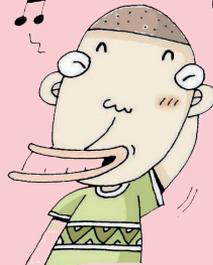
그리고 보니...
통계라는 게 사회의
변화를 쉽게 알 수 있게
해주네요.



하하~ 그럼!
그래서 통계를 알면
세상이 보인다고
하는 거란다.



맞아요~
헤헤헤~.



1

깨진 창문을 방치하면 집이 불 탄다



우리나라에서도 각종 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0년 한 해 동안 발생한 각종 범죄는 총 178만 4,953건이나 된다. 하루 평균 4,890건의 범죄가 발생한 셈이다.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의 5대 범죄는 총 58만 5,637건이 발생하였으니, 하루 평균 1,604건의 5대 범죄가 발생한 셈이다.

중요 범죄는 농촌보다 주로 대도시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010년에 발생한 총범죄 건수의 45.3%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7개 도시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범죄 발생건수의 구성비로 보면 서울이 19.5%로 가장 높고, 울산이 2.3%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것이 곧 도시의 안전성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 이를 범죄계수*로 살펴보면 서울 3,468인데 반해, 울산은 3,778로서 울산의 범죄 발생율이 조금 더 높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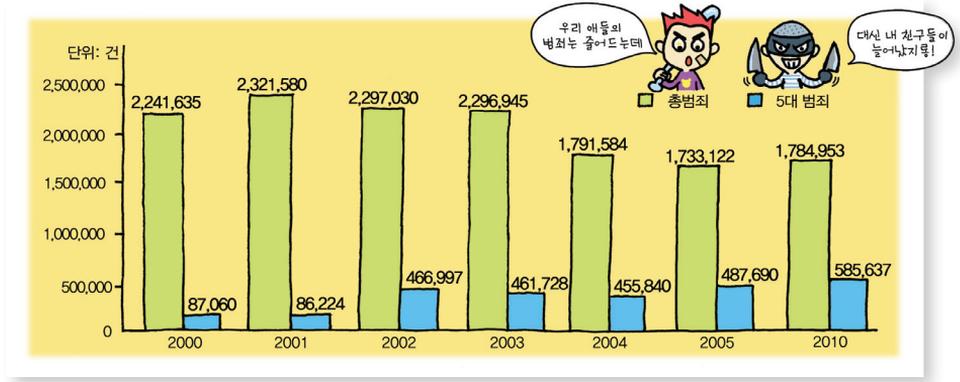
범죄계수 : 인구 10만 명당 1년간 범죄 발생건수

2010년도 우리나라 전체의 평균 범죄계수 3,652보다 낮은 곳은 인천(3,198), 대전(3,238), 서울(3,468) 순이다. 그리고 기타 지역의 범죄계수는 3,718로서 전체 평균보다 더 높으므로, 기타 지역에서도 7대 도시와 거의 비슷한 정도로 범죄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0 경찰통계연보》에 따른 지역별 범죄계수는 제주도가 4,632건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도가 3,082건으로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다. 한편 5대 범죄의 경우는 제주도가 1,918건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광주(1,738건), 울산(1,461건) 순이었다.

우리나라 범죄 발생 건수 추이



※ 자료 : 경찰청

특히 살인의 경우 부산이 인구 10만 명당 3.7건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 제주(3.5건), 충북(3.2건)의 순이며, 경기도가 1.9건으로 가장 낮았다. 그리고 강간 사건은 서울이 49.2건으로 가장 높았고, 경남이 27.3건으로 가장 낮았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범죄를 많이 저지르는 것일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에서 범죄를 줄일 수 있을까?

범죄자들도 합리적으로 행동할까?

경제학자들은 인간은 합리적으로 행동한다고 가정한다.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이 극대화되도록 행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 그로 인해 얻게 될 것(예상 편익)이 더 크면 그

행동을 하고, 반대로 그로 인해 잃게 될 것(예상 비용)이 더 크면 그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범죄자들도 합리적으로 행동할까? 경제학자들은 범죄자들도 합리적으로 행동한다고 본다. 범죄행동으로 얻게 될 예상 편익과 예상 비용을 따져 보고 예상 편익이 예상 비용보다 클 때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이다.

범죄행동의 편익은 범죄행위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금전적 이익, 제도나 타인에 대한 복수 및 그로부터 얻는 심리적 보상 등을 말한다. 범죄행동의 비용은 체포 및 처벌될 가능성과 불안, 형벌의 크기, 형벌 집행의 고통, 기회비용(범죄행동을 하지 않고 합법적 행동을 할 때 얻는 것) 등이다. 이런 범죄행동의 편익과 비용에 구애되지 않고 범죄행동을 하는 범죄자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범죄자들은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을 많은 연구들을 통해 알 수 있다.

따라서 범죄의 편익을 줄이고 비용은 높이는 것이 범죄를 줄일 수 있는 길임을 알 수 있다. 범죄의 편익은 범죄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므로 주어진 것이라고 보면, 형벌을 강화하거나 범인검거율을 높이는 등 범죄의 비용을 높이는 것이 범죄 예방 및 감소의 정책 방향이 될 것이다.



범인검거율을 높이는 것이 효과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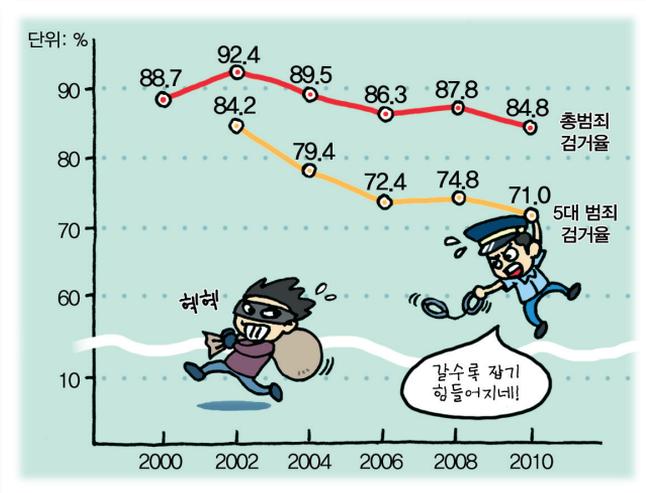
잠재적 범죄자들(즉,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들)이 합리적 인간이라면,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검거되고, 검거되면 유죄가 선고되며 중형이 집행된다고 하면 범죄의 비용이 너무 커서 함부로 범죄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검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검거되더라도 유죄를 받지 않고 빠져나갈 수 있거나, 유죄를 선고받더라도 가벼운 형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면 범행의 유혹을 받기 쉽다.

따라서 범죄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비용이 되는 범인검거율과 유죄 선고율, 형벌 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 중에서도 범인검거율을 높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임을 여러 연구들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범인검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찰 인력을 증가시켜야 한다. 경찰 인력의 증가는 범인검거율을 높여 범죄발생율을 줄이고, 반대로 경찰 인력의 감소는 범죄발생율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그런데 범죄발생 건수 대비 범인검거율은 2000년 88.7%에서 2002년 92.4%로 크게

총범죄 범인검거율과 5대 범죄 범인검거율



※ 자료 : 경찰청

올랐으나, 2004년 89.5%로 떨어진 이후 연속 2년간 하락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2007년에 반짝 올라갔으나, 이듬해부터 다시 하락하여 2010년 현재 84.8%로 크게 떨어졌다.

우리나라의 범인검거율이 하락한 것은 경찰 인력이 부족하다는 데 원인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범죄검거율 하락의 원인으로 2003년 파출소를 순찰지구대로 전환하는 등의 지역경찰제 시행에 따른 경찰 인력 부족이 유력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깨진 유리창 이론의 교훈

미국은 1960년대 초부터 폭력 범죄가 급증하였다. 1980년대 말경에는 1960년대에 비해 폭력범죄가 80%나 증가하였다. 이러한 범죄 증가는 진보적인 판사들에 의한 관대한 판결이 주요한 원인의 하나라는 것이 정설이다. 관대한 판결로 인해 유죄 판결의 비율이 감소했고, 유죄 판결을 받은 죄수의 형벌도 가벼워졌다. 이러한 범죄 비용의 감소가 범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또한 경찰관의 수가 많이 감소한 것도 중요한 요인이다. 경찰관 수의 감소로 범인검거율은 그만큼 떨어졌다.

그런데 1990년대가 되자 범죄율이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했다. 경찰관을 늘려 범죄검거율을 높이고, 유죄선고율을 높이며, 형량을 증가시킨 결과이다. 1990년대에 미국의 국민 1인당 경찰관의 수는 14%나 증가하였다. 그리고 과거에는 그냥 풀려났을 죄목으로도 유죄가 선고되었고 감옥에 가야 했다. 그 결과, 범죄율이 감소하였다.

이 시기에 범죄율이 가장 많이 감소한 곳이 뉴욕이다. 뉴욕은 범죄율이 가장 높던 도시에서 이제는 가장 안전한 도시로 바뀌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발표한 《2005년 예비범죄 통계조사》에 따르면 범죄율이 가장 낮은 도시는 뉴욕 시로 폭력범죄율이 1.9% 하락했고, 절도 등을 포함한 전체 범죄율도 같은 기간 4.3%가 하락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뉴욕 시의 범죄율이 낮아진 이유를 미국 최대의 경찰 인력



덕분이라고 지적했다.

뉴욕 시의 치안 상황은 루돌프 줄리아니(R. Giuliani) 뉴욕 시장의 공헌 덕분에 크게 개선되었다. 1994년 취임한 그는 절망적인 뉴욕의 치안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 경찰관을 대폭 증원하였다. 1991~2001년 사이에 뉴욕 경찰의 수는 45% 증가하였다. 이는 미국 전체 평균의 3배가 넘는 수치이다.

그리고 줄리아니 시장은 새로운 범죄 퇴치 방법을 시도하였다. 그것은 범죄학자 제임스 윌슨(J. Q. Wilson)의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 Theory)'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었다. 깨진 유리창 이론이란 작은 범죄를 관용하면 더 큰 범죄로 발전한다는 범죄 이론이다. 비유하자면, 누군가 유리창을 깨뜨렸는데 집주인이 그것을 바로 수리하지 않고 내버려둔다면 사람들이 그것을 나머지 유리창을 다 깨뜨리거나 심할 경우 집에 불을 질러도 된다는 신호로 여긴다는 것이다.

줄리아니 시장이 임명한 경찰청장 브래튼은 곧바로 깨진 유리창을 때우는 작업에 착수했다. 즉, 이전까지 그냥 눈감아 주곤 했던 사소한 범죄를 모두 단속하기 시작했다. 지하철 무임승차, 노상 방뇨, 노상 음주, 구걸 등을 하는 사람들을 모두 잡아들였다. 그 결과, 뉴욕 시의 범죄율은 다른 어떤 도시보다 획기적으로 감소했다. 줄리아니 시장의 첫 임기 중에 뉴욕 시의 전체 범죄 건수가 40% 감소하였고, 살인 사건은 4년 만에 48%나 감소하였다.

범죄 퇴치에 성공한 뉴욕 시의 사례는 강력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타산지석으로 삼을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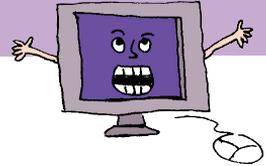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먹고 자라야 한다

미국 시카고 대학의 경제학 교수 스티븐 레빗(S. D. Levitt)은 1990년대 이후 미국의 급격한 범죄 감소의 원인에 대하여 매우 독창적인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1973년 연방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판결'에 따른 낙태 합법화가 범죄율을 낮추는 데 가장 크게 공헌했다는 것이다.

낙태 금지로 원하지 않은 아이를 낳은 경우 그 아이는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다. 원치 않는데 어쩔 수 없이 낳은 자식에 대하여 여성들은 불쾌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들에게 좋은 환경도 만들어 주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낙태 합법화로 인해 태어났더라면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아이들이 그렇지 않게 됨에 따라 그 효과가 1990년대에 나타났다는 것이다.

낙태 합법화로 인해 범죄율이 감소했다는 것은 부모들이 원하는 아이를 낳아 자식을 애정으로 키우고 좋은 환경을 제공하면 아이들이 범죄자로 성장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경찰력 증강, 범인검거율 증가, 유치선고율 증가, 형벌의 강화와 같은 범죄 비용을 높이는 사회적 노력과 동시에 국민들이 자녀에게 관심을 갖고 애정을 쏟아 키우는 것이 장기적으로 범죄를 감소시키는 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새로운 유목민이 등장하다

자신을 소개하는 명함에는 이름, 직장(직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이 적혀 있다. 유목 생활을 했던 최초의 인류가 명함을 가졌다면 거기에는 이름만 덩그러니 있었으리라. 그러다가 정착하여 거주지를 갖게 되면서 인류는 단순히 ‘아무개’가 아니라 ‘어디에 사는 누구’로서 자신을 소개하게 되었으리라. 산업혁명 이후에는 가정과 직장이 분리되고 직업이 분화되면서는 ‘어디에 다니는 누구’라는 명칭이 하나 더 붙었다.

그러나 인터넷 시대를 맞이하여 인류는 다시 유목의 삶으로 돌아왔다고 말한다. 과거 먼 조상들이 먹을 것을 찾아 유목하던 것과는 다르지만, 어쨌든 정보와 관심거리를 찾아서 이메일이나 가상의 이름으로 사이버(cyber)* 공간을 유목하는 것이다. 신유목민의 명함엔 무엇이 적힐까? 닉네임이나 관심거리 그리고 이메일, ID?!

사이버(cyber) : 인공두뇌학을 의미하는 ‘cybernetics’에서 온 말로, 캐나다 출신 공상과학 소설가 윌리엄 김슨이 쓴 소설에서 ‘사이버 공간(cyber space)’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했다. 요즘엔 컴퓨터 안이나 각 컴퓨터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망을 ‘사이버로 포괄해서 부르며, 사이버로 연결되는 공간을 ‘cyber space’ 또는 ‘cyber world’라 부른다.

최초의 인류가 먹이를 찾아 유목했듯 새로운 인류는 네트워크를 통해 필요한 관심이나 정보를 사냥한다. 이렇게 인류를 신유목민으로 살아가도록 만든 장본인은 바로 정보혁명의 시작을 이끌어낸 컴퓨터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개인용 컴퓨터(PC, personal computer)가 상용화된 것은 언제 부터일까? 그것은 1981년 8월 12일 한 컴퓨터 회사가 PC를 상품화시켜 판매하기

시작한 날부터이다. 이날은 엄밀한 의미에서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개인용 컴퓨터의 생일이자, 어떤 의미에선 전 인류에게 새로운 문명의 시작을 안겨 준 날이라고 할 수 있다. PC는 이제 서른 살이 넘었다. 21세기의 오늘 PC는 인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

지금 우리나라엔 각각 주소, 직장, 이메일을 강조하는 세 유형의 인류가 함께 살고 있다. 이들은 각각이 삶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만큼이나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다. 자신의 주소를 강조하며 농경민적 삶을 살았던 6070세대는 농사를 지으며 살아갈 땅을 갖는 것이 삶의 목표였다. 이들에게 중요한 인간관계는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에 의해 이루어졌다. 직장이 자신의 삶을 규정하던 4050세대는 좋은 직장을 갖는 것이 삶의 가치였다. 그리고 이들의 인간관계 또한 직장이나 직업과 관련된 사람들과의 일에 대한 의사소통이 주를 이루었다.

사이버 공간을 떠도는 새로운 유목민들의 삶은 어떤가? 이들은 삶을 한 공간에 한정하지 않을 뿐더러, 주소와 땅이라는 지역적 경계에 의한 삶의 구분에 저항한다. 다른 나라의 전쟁에 반대하는 다양한 사람들, 세계화 및 부의 집중을 반대하는 월가 점령 시위대 등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라. 그들은 반듯한 직장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지 않으며, 자신의 관심과 흥미에 집중하되 타인과의 이해와 감정을 공유하고 확장하는 삶을 설계하고 꿈꾼다. 최첨단 장비를 가지고 어떤 공간에서나 누구와도 자유롭게 소통한다. 그리하여 이 새로운 유목민은 디지털 장비로 무장한 유목민이라는 의미의 디지털 노마드(digital nomad)라 불린다.

우리의 디지털 노마드적 환경은?

우리는 어느 정도의 디지털 노마드적 삶을 살고 있는가? 2002년에 이미 10가구당 8대꼴로 PC를 보유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거의 대부분의 가정에서 PC를 소유하는 것이다. PC방이라는 영업점도 운영되고 있다. 6세 이상 인구 중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10명 중 8명꼴이다. 6~29세의 경우 대부분이 인터넷을 이용하며, 30대의 경우 95%, 40대는 80%, 50대는 46%가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초고속인터넷 보급률은 세계 1위이다. 10명당 24.9명이 가입한 것으로 기록된다. 다음은 네덜란드(19명), 덴마크(18.8명), 일본(15명), 미국(12.8명) 순이다. 2006년 11월 기준으로 전체 가구의 88%에 초고속인터넷이 깔려 있으며, 이 중 38%인 533만 가구는 유비쿼터스가 가능한 환경인 광대역통합망(BcN)에 가입되어 있다. 이렇듯 디지털 노마드를 위한 우리의 인프라 수준은 가히 세계에서 최고 수준이다.

주요 50개국을 대상으로 국가정보화 수준을 비교한 조사에서도 우리나라는 2004년에 7위, 2007년에는 3위를 차지했다. 아울러 2005년 5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국가경쟁력 지수 중에서 IT 부문이 포함된 기술인프라 부문에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2005년 국제연합(UN)에서 발표한 전자정부 지수에서 5위,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SIS)에서 발표한 디지털기회 지수

(DOI)에서는 40개 평가대상국 중 1위를 차지했다.

과거 산업화 사회에서는 자본을 가진 자와 자본을 가지지 못한 자로 나뉘어 부의 격차가 컸고, 이로 인한 빈부의 양극화가 중요한 사회 문제가 된 것처럼, 정보 사회에서도 정보의 격차(디지털 디바이드, digital divide)는 벌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디지털 디바이드는 계층, 성별, 연령, 학력, 지역 등에 따라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력과 능력이 불평등하게 분배 되는 현상을 말한다.

디지털 디바이드를 사회 문제로 본 미국 학자들은 정보 격차로 인해 다수의 노동자 층이 하류생활층으로 전락하면서 계층간 위화감이나 경제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정보 격차의 문제가 새로이 나타나고 있다. 디지털 매체에 익숙한 10대와 성인들 간의 대화와 소통 부재로 인한 새로운 세대차 문제가 만들어지고 있다. 정보 사회의 디지털 환경도 누구에게나 평등하지만은 않은 것이다.

위협당하는 디지털 노마드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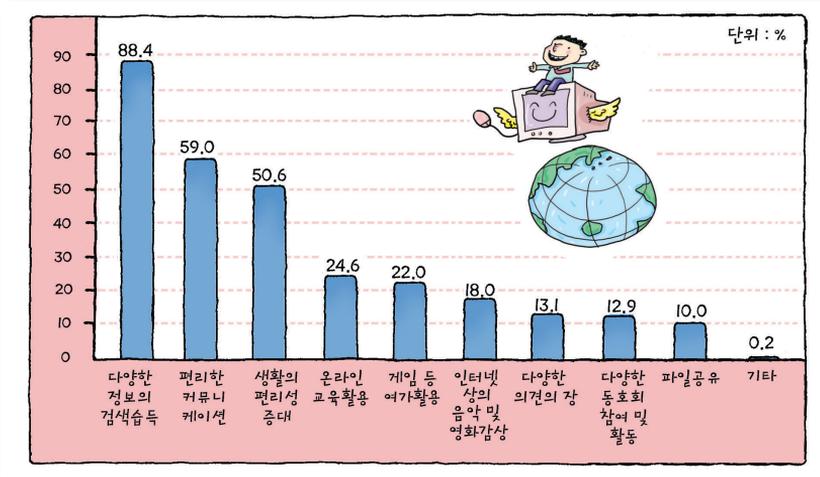
과거 유목민들이 수렵과 채집 생활을 하면서 자연과 맹수들로부터 수많은 습격을 받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노마드도 습격을 받고 있다. 유목민들에게 자연환경이 위협이었다면, 새로운 디지털 노마드에게는 거미줄처럼 얽여 있는 무수한 네트워크가 위협적인 환경이 되고 있다.

2007년에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전국의 만 13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면접조사 결과를 보면 디지털 노마드들이 경험하는 새로운 문제를 알 수 있다. 디지털 시대 초기에는 해킹과 스팸메일이 문제였다면, 최근에는 사이버 폭력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응답자들은 인터넷의 역기능에 대해 ‘욕설·비방·허위사실 유포 등 사이버 폭력’(84.3%)을 가장 큰 문제로 보았다. 다음으로 성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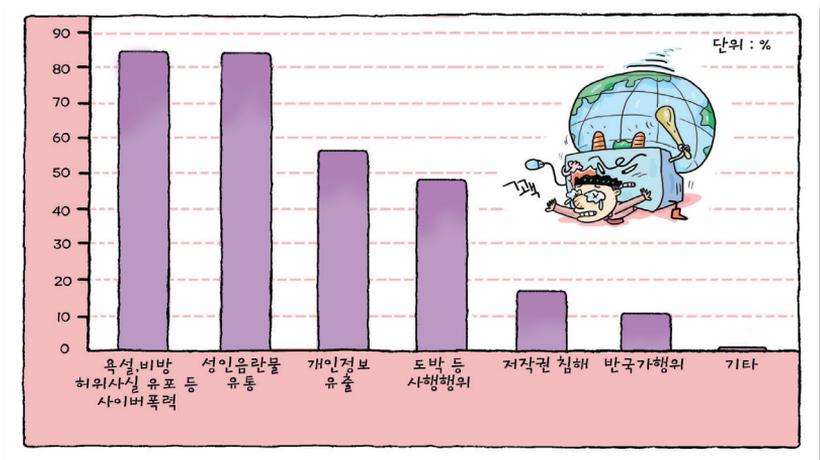
음란물 유통(83.9%), 개인정보 유출(56.2%), 도박 등 사행행위(48.1%) 순이다.

사이버 폭력은 대개 인터넷상의 댓글에서 나타난다. 그 대책으로는 ‘욕설·비난 댓글은 규제하고 다른 댓글은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43.3%)’는 응답이 가장 많았지만

인터넷 순기능



인터넷 역기능



※ 자료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중복 응답)

‘댓글은 욕설·비난이 대부분이므로 없애야 한다(22%)’도 적지 않다. 사이버 폭력을 경험한 경로는 인터넷 뉴스 댓글(53.9%)이 가장 많고, 미니 홈페이지·블로그(30.3%), 커뮤니티·동호회 게시판(23%), 인터넷 채팅·메신저(23%) 등의 순이다.

인터넷의 과다 이용으로 인한 사이버 중독도 큰 문제이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 실시한 인터넷 중독 상담 현황을 보면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여준다. 인터넷 중독 상담 건수는 2002년 2,599건에서 2003년 3,774건, 2004년 1만 8,299건, 2005년 3만 2,833건으로 해마다 급격히 증가했다.

사이버 중독 방지를 위한 인터넷 사용 규칙 10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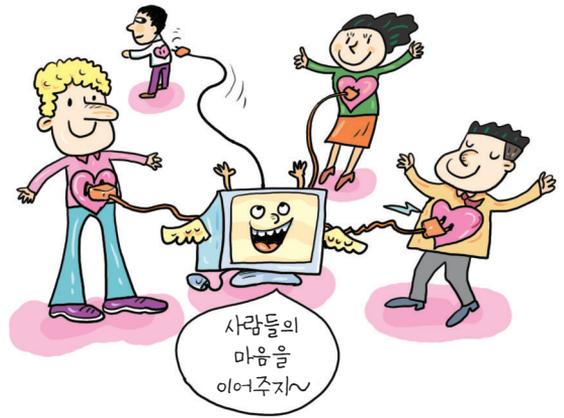
- 1 컴퓨터 거실에 놓아서 가족과 공유하기
- 2 인터넷 사용 시간과 활용 규칙 만들기
- 3 좋은 검색 엔진과 사이트 즐겨찾기 해놓기
- 4 온라인 상에서 가족 허락 없이 개인 정보 노출하지 않기
- 5 온라인 상에서 모르는 사람과 직접 만나지 않기
- 6 부가요금을 내야 하는 정보에 부모의 허락 없이 접근하지 않기
- 7 부모님의 허락 없이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주문하거나 카드번호 알려주지 않기
- 8 건전하지 못한 메일이나 사이트에 접근하지 않기
- 9 부모님을 제외하고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라도 인터넷 비밀번호 알려주지 않기
- 10 나는 좋은 온라인 사용자가 되겠습니다

출전 : 고재학 『내 아이를 지키려면 TV를 꺼라』 2006.

중독 상담 유형 가운데 게임중독 상담이 전체 상담 건수의 78%(1만 8,706건)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2002년부터 2005년 사이 4년 만에 10배나 증가했다. 다음으로 채팅(1,176건)과 메신저(870건), 검색(557건) 순으로 상담 건수가 많았다. 대상별로는 전체 상담 인원 2만 3,979명 중 초·중등학생이 92%(2만 2,159명)를 차지한다. 중학생(1만 1,680명)과 초등학생(7,223명)의 수도 적지 않다.

2005년 정보화에 따른 영향 조사에 따르면 ‘생활이 편리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83.8%, ‘국민의 알 권리가 신장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60.4%를 차지한다. 하지만 ‘사생활 침해가 늘었다’(55.2%)거나 ‘소외감과 비인간화를 많이 느낀다’(34.1%)는 경우도 적지 않다. 즉 디지털 노마드로서 삶이 다 좋기만 한 것은 아닌 것이다.

어느 상업 광고에는 ‘마음을 이어 주는 따뜻한 디지털 세상’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네트워크는 사람들을 가로막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내가 디지털 기계로 인해 고립되고 있다면, 또는 그것으로써 다른 사람을 차별하거나 외면한다면 나는 진정한 디지털 노마드가 아니다. 사람들은 단지 컴퓨터와 접속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너머에 있는 다른 사람, 다른 세상과 접속하는 것이다. 그게 진정한 디지털 노마드로 사는 것이다.



사이버 중독 검사를 위한 문진표

	1	2	3	4	5
1. 컴퓨터를 켜기 전의 예정보다 더 오래 컴퓨터에 붙어 있다.	<input type="checkbox"/>				
2. 컴퓨터 때문에 집안일이나 사무실 정리 등을 게을리 한다.	<input type="checkbox"/>				
3. 온라인 때문에 성적이 내려가거나 숙제를 못 했다.(학생)	<input type="checkbox"/>				
4. 온라인 때문에 일의 생산성이 떨어진 적이 있다.(직장인)	<input type="checkbox"/>				
5. 꼭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메일 박스부터 확인한다.	<input type="checkbox"/>				
6. 온라인 접속을 생각하면서 들뜬 적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7. 인터넷이 없으면 지루하고 공허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8. 누가 옆에서 온라인 활동을 방해하면 짜증이 난다.	<input type="checkbox"/>				
9. 온라인 시간을 줄이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한 적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10. 다른 사람과 밖에 나가는 것보다 온라인 하는 것을 선택한다.	<input type="checkbox"/>				

평가방법

전혀 아니다(1점), 거의 그렇지 않다(2점), 가끔 그렇다(3점), 자주 그렇다(4점), 항상 그렇다(5점)

10~19점 : 사이버 공간을 잘 활용하고 있다.

20~34점 : 온라인이 당신의 생활을 좌우하고 있다.

35~50점 : 상담이 필요하다.

자료 : 국가청소년위원회

과거는 과거일 뿐!



재미없는 영화의 관람료는 매몰비용

영화를 보러 갔는데 예상과 달리 영화가 재미없었던 적은 없는가?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했는가? 재미가 없어도 끝까지 본다, 아니면 그냥 나와 버린다?

영화가 재미없어도 끝까지 보고 나오는 사람은 이미 지불한 영화 관람료가 아깝다고 생각해서일 것이다. 지불한 비용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이다. 반면에 미련 없이 나와 버린 사람은, 재미없는 영화를 보며 시간을 허비하느니 차라리 나와서 다른 일을 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경우 경제적으로 판단을 한다면 영화관을 나오는 것이 합리적이다. 경제적인 사고는 이미 지난 일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어떤 선택으로 인해 얻는 것과 잃는 것을 따져서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이다.

영화가 재미없을 때 영화관에 남아 있으면 얻을 게 없지만, 영화관을 나오면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할 수 있고, 그 일로 즐겁게 보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영화관에 계속 남아 있으면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영화관을 나오는 게 합리적이다.

영화가 재미없다고 해서 관람료를 돌려받을 수는 없다. 이처럼 한 번 지출되고 나면 다시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을 경제학에서는 ‘매몰비용(sunk cost)*’이라고 한다. 물건이 깊은 물 속에 가라앉아 버리면 다시 건질 수 없듯이 과거 속으로 가라앉아 버려 현재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비용이라는 의미이다.

매몰비용은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교훈의 근거는 될 수 있지만, 현재의 의사 결정을 하는 데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현재의 의사 결정에서 중요한 것은 이 선택을 하면 앞으로 얻는 것이 무엇이고 잃는 것이 무엇이나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영화관에 계속 남아 있을 때와 나왔을 때 각각 얻는 것이 무엇이고 잃는 것이 무엇이나 하는 것이다. 즉, 기회비용*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매몰비용 : 이미 지출되었기 때문에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
 기회비용 : 어떤 선택을 할 때 포기되는 기회의 가치

매몰비용은 다시 수중에 들어오지 않으므로 어떤 선택의 기회도 주지 않는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일 뿐, 현재 최선의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시사도 주지 못한다. 과거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므로 연연하지 말고 잊어버려야 하듯, 매몰비용 역시 다시 회수할 수 없는 것이므로 연연하지 말고 잊어버려야 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매몰비용에 집착하여 현재의 의사 결정을 흐트린다. 영화의 예도 마찬가지다. 영화 관람료에 집착하여 재미도 없는 영화를 보고 있으면, 밖으로 나와서 즐길 수 있는 시간만 줄어들 뿐이다.

과거보다는 현재와 미래가 중요하다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때 흔히 있는 일 가운데, 쉬는 시간에 전 시간의 시험문제 답을 맞춰 보느라 다음 시간 공부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도 매몰비용에 집착하여 다른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전 시간의 시험은 잘 봤든 못 봤든 지난 것(즉, 매몰 비용)이므로 돌이킬 수 없다. 그것에 연연하여 답을 맞춰 보고 아쉬워하면 다음 시험을 준비할 시간만 줄어들 뿐이다.

특히 대입 수능시험 제1교시(언어 영역) 시험이 어렵게 출제되는 해에 종종 일어나는 일인데, 1교시를 잘못 본 것을 자책하여 1교시 시험을 마친 후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학생들이 있다. 1교시를 잘못 본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지난 일이다. 이것에 연연하여 시험을 중도에서 포기하면, 그 해에 대학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아예 잃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현재에 서 있고 미래를 지향하고 있다. 현재와 미래에 무엇을 얻고 잃게 되는가가 중요하지, 과거에 무엇을 얻었으며 무엇을 잃었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따라서 매몰비용은 잊어버리고, 현재와 미래의 것인 기회비용에 초점을 맞춰 살아야 한다. 그것이 경제학적으로 현명한 삶의 자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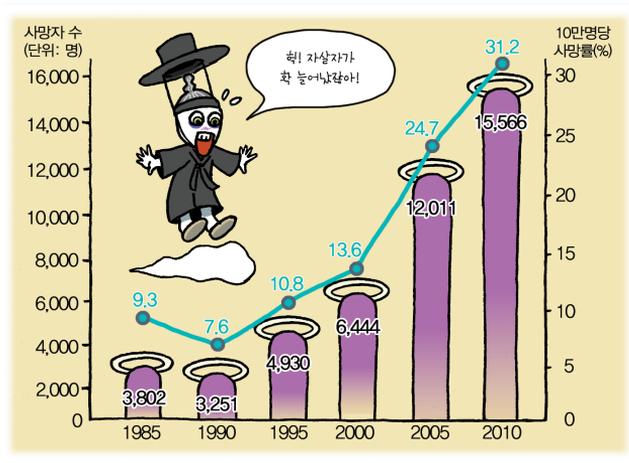
매몰비용으로 생각해 본 자살

이런 관점에서 요즘 늘어나고 있는 자살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2011년 OECD Health Data에 나타난 국가별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을 보면 미국 10.5명, 독일 9.1명, 일본 19.7명에 비해 우리나라는 31.2명으로, 조사대상 33개 국가 중 가장 높았다. 10여 년 전인 1995년에 11.8명이었던 데 비해 거의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특히 10~30대 젊은 층의 자살은 가장 높은 사망 원인이다.

자살의 원인은 주로 정신적 또는 육체적 질병 문제이다. 그렇지만 경찰청에 의하면 2010년에는 사업 실패 등 경제곤란 문제로 자살한 사람이 2,327명, 가정 문제로 자살한

사람이 1,519명에 이를 정도로 많다. 사업 실패는 전형적인 매몰비용에 해당한다. 그것은 이미 지난 과거의 일로서 돌이킬 수 없다. 따라서 매몰비용인 사업 실패를 이유로 자살을 택하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다. 물론 사업 실패의 고통은 참으로 견디기 힘들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사업 실패가 자살이라는 의사 결정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그것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일, 즉 매몰비용이기 때문이다.

연도별 자살자 추이



청소년들 중에서도 성적을 비관하여 자살하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일어나기도 한다. 시험을 잘 못 본 것같은 이미 지나간 일에 집착(매몰비용)하여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돌이킬 수 없는 망친 시험에 집착하기보다 앞으로 성적을 높이기 위해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이다.

물론 자살은 극단적인 예이지만, 사람들은 실생활에서 다양한 형태의 매몰비용에 집착하고 있으며, 그것을 의사 결정의 판단 근거로 삼아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현명하지 못한 선택을 해서 주변 사람들을 안타깝게 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우리는 이미 지나가 버려 돌이킬 수 없는 것에 연연하지 말고,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면서 현재를 살아야 한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말발굽에 채여 죽은 군인은 얼마나 될까?

평균값과 중앙값



무슨 통계데?
어디 한번 보세.

14개 연대에 대해서 20년간 기록해
왔으니까 총 280회 관찰한 중에
사망자가 한 명도 없었던 경우가
144회, 한 명 사망한 경우가 91회,
2명 사망한 경우가 32회...

사망자 수	0	1	2	3	4
해당 횟수	144	91	32	11	2

그렇다네...

그런데...
뭔가 고민인가?

이걸 바탕으로 한
부대에서 사망자 수가
한 회에 어느 정도
달지를
보고해야 하거든.

한 명도 사망하지 않은
경우가 제일 많은데,
그렇다고 한 명도 죽지
않을 거라고
보고할 수도
없고...

물론이지.
4명씩이나 죽어나간
경우도 2번이나
있었는데.

그렇다고 수가 가장 많은 것을
택해서 4명은 넘지 않을 거라고
하기도 그렇고 말야...

아참, 맞대!
그 생각을 왜
못했지?

탕!

이런 경우는
전에 자네가 가르쳐 준
평균을 보고하면 되겠군!

계산법은
기억하고
있나?

하하~ 물론이지.
총 사망자 수를 구해서
총 횡수로 나누면 되는 거
아닌가.

오오~
맞았네!!

자아~ 그럼
어디 계산해
볼까?

총 사망자 수

- 0 × 144 = 0
- 1 × 91 = 91
- 2 × 32 = 64
- 3 × 11 = 33
- 4 × 2 = 8

이 값을 모두 더하면 196

총 횡수는 144 + 91 + 32 + 11 + 2 = 280

그래서 총 사망자 수 196 ÷ 총 횡수 280
= 0.7

흐음~ 계산을 해 보니
한 부대에서 한 해에
0.7명이 나오는데.
좋았어~ 계산 끝.

그래서...
그 결과를
그대로 보고
할 건가?

왜? 무슨
문제라도
있나?

한 부대에서
한 해에 0.7명이라니,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할 텐가?

험~

으음... 1명까진 안 되고,
두 연대에 한 명꼴이라고
해야 하나? 아... 아니,
그것도 아니는데? 으음...

까우똥~

아우~ 어려워!
그럼 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짜증나~

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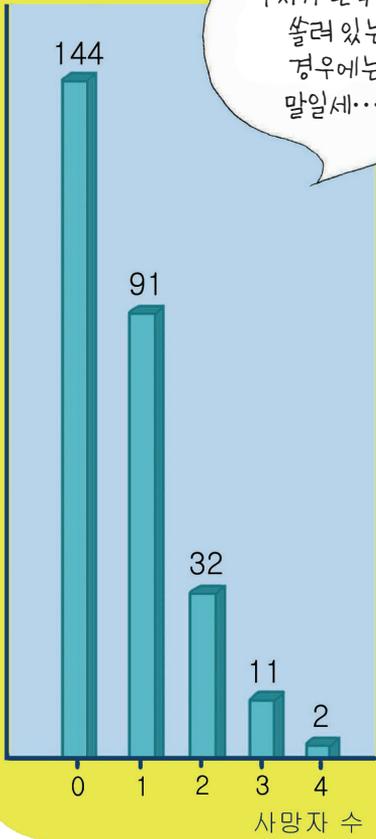
하하~여보게나...
사실 이런 자료를
대표하기엔 평균이
적합치가
않다네.

도리~

자~ 이 자료를 살펴보면
0인 경우가 반 이상이나 되고,
사망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횟수가 눈에 띄게 줄고
있지 않나?

해당 횟수

이렇게 자료의
수치가 한쪽으로
쏠려 있는
경우에는
말일세...



그렇지
...

그 값들을 순서대로
늘어세운 뒤 가운데에
오는 값으로 보고하는 편이
훨씬 나은 법이라네.
그걸 중앙값이라고 하지.

중앙값?



흐흠...
모두 해서 280회니까
140번재하고...
141번재까가 가운데가
되겠는걸?

그럼...
그들 중에 어떤 걸
택해야 되지?

보통은 그들의 평균을 쓴다네.
헌데 이 기록에서는 140번재나
141번재나 모두 0이니까 그
대로 0이라고
하면 되지.



그렇다면 한 명의
사망자도 없을 거라고
해야 되는데...
그랬다가 사고가
나면 어찌나?

하하하~.



이건 단지 대표하는
값에 불과하네.
이 값을 중심으로 얼마나
퍼져 있나를 보고하면 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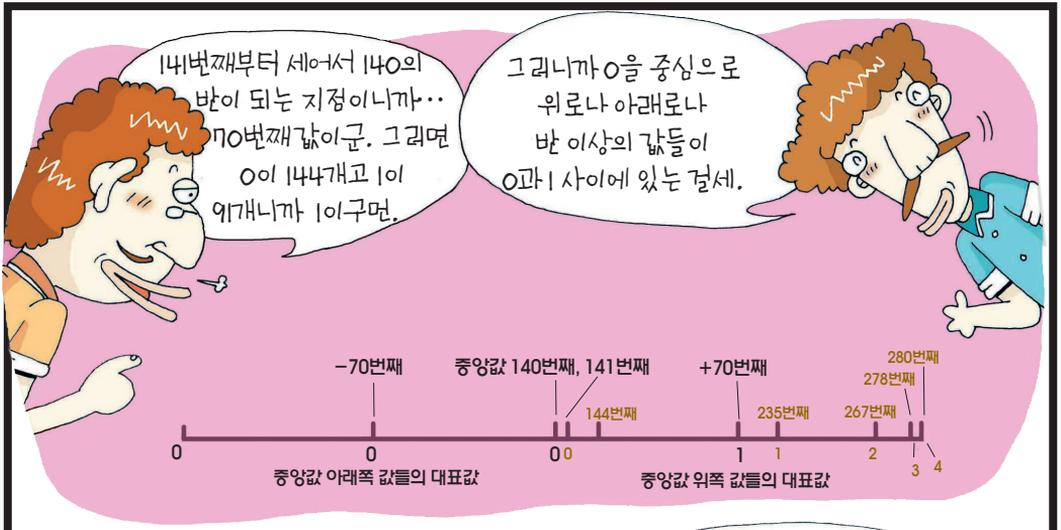
그...그건
어떻게 하는
건데?



좀 전에 구한 값을
중심으로 그 위의 값들의
대표값과 아래 값들의
대표값을 한 번 더
구해 보세요.



흐음~ 대표값보다 작은
값들 중에 가운데 있는
값이야 보나마나 0이고,
큰 값들 중에
가운데 있는 값은...



자,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처럼
자료들이 한쪽으로
쏠려 있는 경우에는
평균보다 중앙값을
구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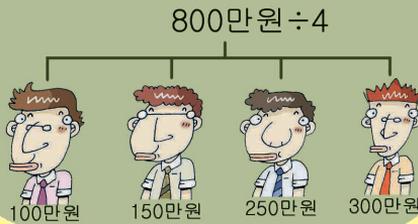
쓰으~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경우도
그래요.

A회사에서 직원들이 각각 경력에
따라 다음과 같은 월급을
받는다고 합시다.

이럴 때 이 회사 직원들의 평균
월급은 얼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월급을 모두 더하면...
 $100\text{만원} + 150\text{만원} + 250\text{만원} + 300\text{만원} = 800\text{만원}$
모두 4사람이니까...
 $800\text{만원} \div 4 = 200\text{만원}$



직원1



100만원

직원2



150만원

직원3



250만원

직원4



300만원

이렇게 해서
A회사의 평균
월급은...



평균 월급
200만원

척!

200만 원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 회사
사장님이 1,200만 원의
월급을 받아 간다면,
사장님까지 합해서
평균 월급은 얼마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나 A회사
사장~



위에서와 똑같이 계산을 하면...
 $800\text{만 원} + 1200\text{만 원} = 2000\text{만 원}$

‘400만원’

모두 5사람이니가
 $2000\text{만 원} \div 5 = 400\text{만 원}$ 이
됩니다.



이때도 계산대로
400만 원이 평균
월급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에이~
말이 안 되죠.



4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훨씬
많이...

하하~



게다가 사장이 로스차일드 같은
대부호여서 엄청난 액수를
월급으로 가져간다면...?

그래서 이런 경우엔 평균값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평균값
대신 중앙값을 구하는
것이랍니다.

그건...
더욱 말이
안 되죠.

아무리 예라고 해도
그건 너무 불공평
하다니가~.

아우~



조삼모사? 조사모삼?



송나라에 저공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원숭이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그가 기르는 원숭이가 무리를 이루었다. 그는 원숭이의 뜻을 이해할 수 있었고, 원숭이 역시 저공의 마음을 알아차렸다. 그는 집안 식구들의 음식을 줄이면서까지 원숭이들의 욕망을 채워 주었고 얼마 가지 않아서 궁핍하게 되었다.

궁핍해진 저공은 원숭이들의 먹이를 줄이려 했지만 원숭이들이 자기를 따르지 않게 될까 두려웠다. 그래서 이런저런 궁리 끝에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들에게 주는 밤을 아침엔 세 개, 저녁엔 네 개로(朝三而暮四) 정하면 만족하겠느냐?”

원숭이들은 모두 일어서서 성을 내었다.

저공은 조금 있다가 다시 말하였다.

“그러면 너희들에게 주는 밤을 아침에 네 개, 저녁에 세 개로(朝四而暮三) 정하면 만족하겠느냐?”

그러자 원숭이들은 모두 엎드려 기뻐하였다.

만물 중 능력 있는 것이 없는 것을 농락함이 모두 이와 같은 것이다.

—《열자》, 〈황제편〉에서



원숭이의 경제적 사고

이 우화는 잔피로 남을 속이는 사람이나 어리석게 속는 사람 모두에게 교훈을 준다. 그런데 경제학의 관점에서는 이 우화를 달리 해석해 볼 여지가 있다.

열자는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나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가 같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과연 같을까?

간단한 예로, 현재의 100만 원과 1년 후 100만 원의 가치가 같은지 생각해 보자. 초등학교생만 해도 현재의 100만 원의 가치가 더 크다는 것을 알 것이다. 은행에 100만 원을 예금하면 1년 후에는 원금 100만 원에 이자가 붙어서 100만 원 이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자율이 연 10%라고 가정하면 이자가 10만 원이므로, 현재의 100만 원은 1년 후의 110만 원($100만\ 원 \times 1.1$)과 같다. 그리고 1년 후의 100만 원은 현재의 약 91만 원($100만\ 원 \div 1.1$)과 같다.



현재의 100만 원이 1년 후의 100만 원보다 가치가 크다면, 현재의 100만 원은 1달 후의 100만 원보다 크고, 아침의 100만 원 또한 저녁의 100만 원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10년이나 1년 또는 1개월이라면 모를까, 아침과 저녁 사이의 그 짧은 기간에 무슨 가치 차이가 있겠냐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실제로 은행 등 금융기관들은 한 나절이나 하루 정도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도 이자를 주고받는다. 이때의 이자율을 콜금리라고 하는데, 2001년 10월 현재 연 3.24%이다. 그러므로 아침에 100만 원을 빌린 후 오후에 갚는다면, 원금 100만 원에 이자 89원을 더하여 100만 89원을 갚아야 한다. 말하자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아침의 100만 원은 저녁 때 100만 89원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아침의 밤 4개 역시 저녁의 밤 4개보다 가치가 크고,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가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보다 가치가 큰 것이다. 따라서 원숭이들이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에는 화를 내고,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에는 엇드려 기뻐한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사고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저공이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를 주고자 한 것도 잔꾀로 속이려 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 사고에 의한 판단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금리가 낮으면 집값이 오른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자율을 이용하면 현재의 금액을 미래가치로 환산할 수 있고, 또한 미래의 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할 수도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자율을 보고 돈을 지금 쓰는 게 좋을지 아니면 저금하는 게 좋을지, 또는 빚을 내는 게 좋을지 등을 판단한다. 예를 들어, 이자율이 높으면 돈을 당장 쓰기보다는 저금하는 게 유리하며, 빚을 내기보다는 어렵더라도 참는 게 낫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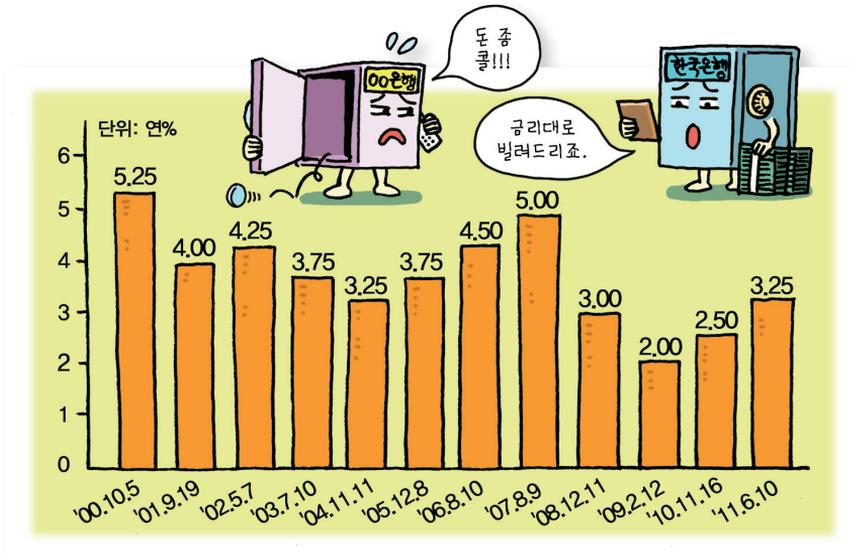
사람들은 이자율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행동한다. 금리(이자율을 보통

‘금리’라고 부른다)가 높으면 소비보다는 저금을 많이 하고, 반대로 금리가 낮으면 소비를 많이 하고 빚을 내는 것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 사회의 큰 이슈인 부동산 가격도 금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지만, 저금리가 중요한 원인의 하나이다. 금리가 낮으면 돈을 은행에 예금해서는 큰 수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하여 높은 수익을 얻으려고 한다. 그로 인해 금리가 낮을 때는 부동산 가격이 뛰거나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아래의 신문기사에 잘 소개되어 있다.

반대로 금리가 상승하면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게 된다. 일본의 예를 보면, 일본은 과거 1987년 2월부터 1989년 5월까지 2년 3개월 동안 2.5%의 저금리를 유지한 적이 있는데, 그 결과로 일본의 땅값은 3배나 뛰었다. 1989년 5월 이후에는 금리를 잇달아 인상하여 1990년 8월 30일에 6.0%까지 140%나 인상하였는데, 그 결과로 1년여 만에 부동산 가격은 도쿄가 15.1%, 오사카가 23.8%, 교토는 27.5% 하락하였다. 그리고 이후 10년 동안 주택지의 가격은 최고 60%, 상업지는 80%나 하락하였다.

콜금리 변동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금리는 경기에 영향을 미친다

금리는 부동산 가격, 주가 등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경기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각국 정부는 금리를 적절히 조정해 경기를 조절하려고 한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낮으면 가계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가 증가하여 경기가 좋아지고, 반대로 금리가 높으면 가계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가 감소하여 경기가 나빠지기 때문이다.

일본은 1999년부터 2006년 6월까지 '제로(0%) 금리 정책'을 고수한 적이 있다. 이는 장기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었다. 일본은 2007년 10월 현재에도 정책금리를 0.5%로 낮게 유지하고 있는데 이 역시 경기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은행이 2000년 10월 5일 5.25%이던 기준금리를 계속 인하하여 2004년 11월 4일 당시까지 최저점이었던 3.25%까지 인하되었다. 이후 경기가 회복되면서 2007년 8월 9일 다시 5.00%로 회복되었으나,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의 타격으로 2009년 2월 12일에는 사상 최저치인 2.00%까지 인하한 적이 있다.

이와 같이 금리는 개인의 자금 운영에도 중요하고, 한 나라의 경제 운영에도 중요한 지표이다. 따라서 우리는 개인의 자금 운영을 위해서만 아니라 국가 경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금리 변동에 대해 잘 알아야 할 것이다.



스프링복과 현대인

‘스프링복’은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산양의 일종입니다. 이 양들은 처음에는 풀을 뜯어먹으면서 평화롭게 행렬을 이루지만, 앞쪽의 양들이 풀을 다 뜯어먹어 버리면 뒤따르는 양들이 풀을 차지하기 위해 앞다툼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양들의 대열은 조금씩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뒤쪽의 양들이 속력을 내어 앞으로 달려 오므로, 앞쪽은 선두를 지키기 위해 더 빨리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모든 양떼가 전속력으로 달리게 되고, 결국 가속도가 붙은 양들은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린답니다.

미련한 짐승이라고 웃어넘길 수 없는 것은 현대를 사는 우리의 삶과 너무 닮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sir4u.net/ 날짜별 좋은 생각에서

스프링복은 다른 놈들이 앞으로 달리면 자기도 무작정 달린다. 조금만 달리다 멈추면 뜯어먹을 풀이 있는데도 멈춰서질 않고 다른 놈을 앞서려는 일념으로 경쟁적으로 달린다. 그러다가 달리는 이유도 잊어버리고 달려가 결국은 낭떠러지를 만나 모두 떨어져 죽고 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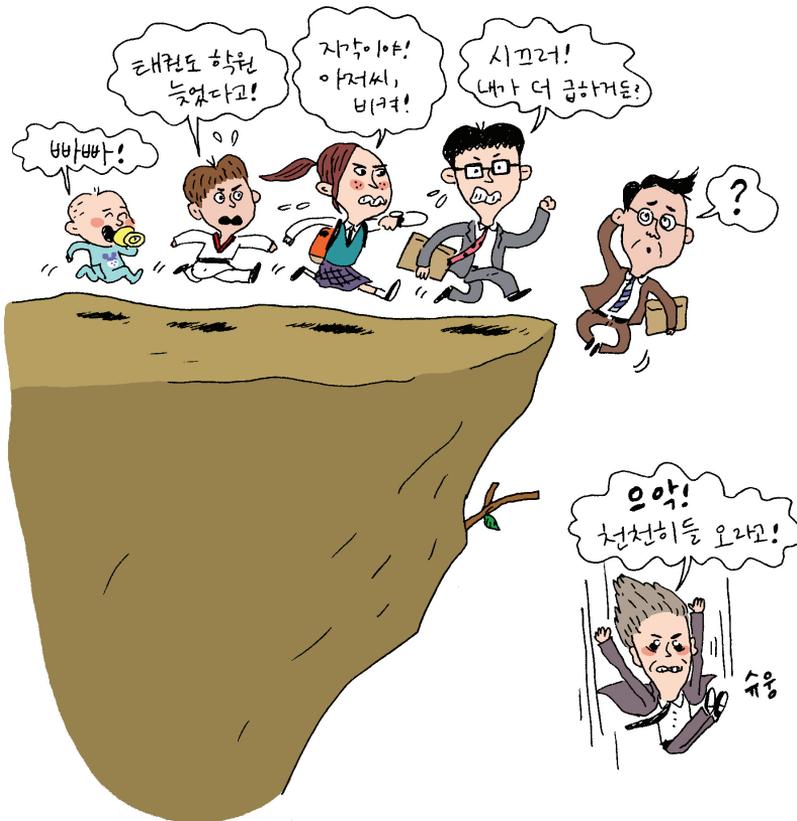
사람들도 스프링복처럼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지도 않고 남들이

하는 대로 무작정 따라 하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스프링복들이 낭떠러지를 만나 떨어져 죽듯이 대중 전체가 큰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튤립 알뿌리 하나 값이 최고급 승용차 값

그 대표적인 예가 투기*일 것이다. 인류 역사에서 최초의 광적인 투기 열풍은 17세기 네덜란드에서 일어났다. 그 투기의 대상이 튤립이었다는 점이 다소 의외이지만 오히려 흥미롭다.

튤립이 터키에서 유럽으로 건너간 것은 16세기 중반이다. 튤립은 유럽에서 바로 호평을 받았다. 1593년 네덜란드의 라이덴 대학에서 식물학자 크로시우스가 아름다운



튤립을 개발한 이후, 그 변종이 네덜란드에서 유행하였다. 그 후 1634년경이 되자 이런 품종의 튤립 알뿌리 가격이 크게 상승하였다. 그러자 튤립 알뿌리는 투기의 대상이 되었고, 튤립 재배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들까지 투기에 뛰어들었다. 그러면서 튤립 투기로 돈을 벌어 부자가 된 사람들이 생겨났고, 이를 본 사람들은 너도나도 튤립 투기에 가세하였다. 마치 스프링복들이 앞다투어 달리는 것처럼.

투기 : 어떤 물건이나 주식 등의 가격이 변동하는 것을 이용해 이익을 얻으 목적으로 그것을 사고 파는 행위

투기의 규모는 점점 커졌고, 가격도 끝없이 올라갔다. 1636년이 되자 튤립 알뿌리 1개가 ‘마차 1대와 말 2필과 마구 일체와 맞먹는 가격까지 치솟았다. 달러로 환산하면 2만 5천~5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약 2천7백만~5천5백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고급 승용차 한 대와 맞먹는 가격이었다. 감자만한 크기의 튤립 알뿌리 한 개의 가격이 그렇게 비쌌다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처럼 투기의 결과로 어떤 물건(특히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자산)의 가격이 실제 가치 이상으로 부풀려진 것을 경제학에서는 ‘거품(bubble)’이라고 한다. 맥주를 컵에 급하게 부으면 거품이 일어 금방 컵이 차는 것에 비유한 것이다. 당장 보기에는 맥주가 한 컵인 것 같지만, 조금 지나면 거품은 사라지고 맥주는 반도 남지 않는다. 이렇듯 거품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게 되어 있다. 물건의 가격에 낀 거품도 마찬가지다.

1637년 2월 4일, 이유도 없이 튤립 알뿌리를 팔자는 주문이 쇄도했다. 그에 따라 가격이 폭락했다. 잔뜩 부풀려졌던 거품이 꺼져 버린 것이다. 종전과는 반대로 이제는 너도나도 팔려고 혈안이었지만 사려는 사람이 자취를 감추어 팔 수도 없었다.

찰스 맥케이는 자신의 책 《이상한 대중적 망상과 균중의 광기》에서 “귀족, 시민, 농민, 선원, 사환, 심지어 굴뚝 청소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재산을 현금으로 바꾸어 튤립에 투자했다.”고 묘사했다. 튤립 투기에 얼마나 많은 네덜란드인들이 무모하게 뛰어들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 많은 사람들이 튤립 거품이 꺼지자 전 재산을 날리고 파산했다. 마치 스프링복들이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음을 당하듯이.

이 사건으로 검소한 네덜란드 사람들이 다시는 이런 무모한 투기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100년이 지난 18세기에 다시 투기 열풍이 불었다. 이번에는 히아신스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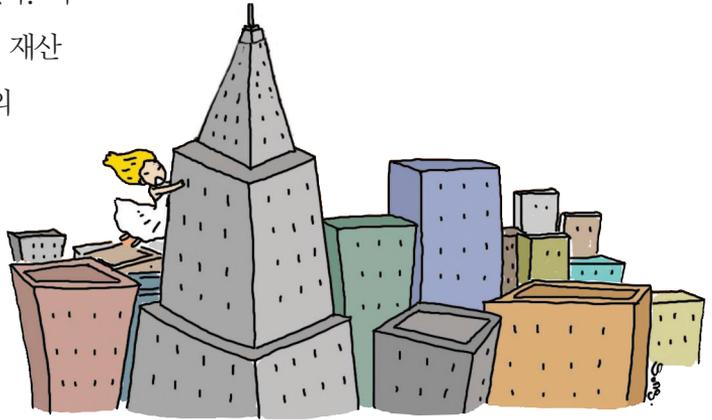
전 세계 곳곳의 투기 열풍

18세기에는 프랑스와 영국에서도 유명한 투기 열풍이 일어났다. 스코틀랜드 사람 존 로가 1719년 프랑스에서 ‘미시시피’라는 회사를 세웠는데, 이 회사의 주식 가격이 1년도 안 돼서 36배로 치솟았다. 당시 귀족들 사이에서 이 회사 주식을 갖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니, 이 회사 주식에 대한 투기 열풍이 어떠했는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이 회사 주식 가격의 거품은 1년 만인 1720년에 꺼져 버렸고,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날렸다.

1720년 영국에서는 ‘남해회사’ 주식에 대한 투기가 일어났다. 1월에 128포인트였던 주가가 여름이 되자 1,000포인트에 육박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었고, 이를 본 다른 사람들이 계속해서 투기에 가담했다. 갤브레이스라는 경제학자는 그의 책 《대공황》에서 당시의 주식 투기 열풍을 “정치가는 정치를, 변호사는 법정을, 무역상은 거래를, 의사는 환자를, 상점 주인은 점포를, 성직자는 설교대를 잇고, 아름다운 숙녀조차 그 특유의 자존심을 망각했다.”고 묘사했다. 그러나 1년도 채 안 돼 거품은 여지 없이 꺼져 버렸다. 남해회사의 주가는 1720년 9월에 175포인트, 12월에는 124포인트로 계속 떨어졌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날렸다.

20세기에 들어와서도 이런 투기 열풍은 계속되었다. 1924~1925년 미국에서는 플로리다에 땅 투기 열풍이 불었다. 이때는 땅값이 2주 사이에 2배로 뛰기도 했다. 그러나 1926년 들어 거품은 여지없이 꺼지고 말았다. 몇 년 뒤인 1928년 봄부터는 주식 투기 열풍이 전 국민적으로 일어났다. 그러나 1929년 가을에 주식 가격이 대폭락하여

역시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날렸다. 이
주가 폭락의 피해는 미국인들의 재산
손실에 그치지 않고, 대공황*의
원인이 되어 전 세계에 피해를
입혔다.



20세기 후반인 1986~
1989년에는 일본에서 땅과
주식 투기 열풍이 불어 땅값과
주가가 3배나 뛰었다. 이 시기에

일본 땅값을 모두 합하면 그 넓은 미국 땅값의 2배가 되었다고 하니, 일본 땅값의
거품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다. 이 거품 역시 오래 가지 못하고, 1990년에 들어
서자 붕괴하기 시작했다. 이때의 후유증으로 일본 경제는 10년 이상 장기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대공황 : 1929년 뉴욕 주식시장의 대폭락에 의해 촉발되어 전 세계로 확대된 경제 공황

경제 공황 : 신용거래의 붕괴, 상품판매의 불황, 재생산 수축, 대량 실업상태 등으로 이어지는 경제 혼란 현상

투기 열풍은 우리나라에도

투기 열풍은 우리나라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가장 최근의 예는 1999년에 일어난
벤처기업에 대한 주식 투기 열풍이다. 당시 정부가 벤처기업 육성 정책을 펴자 거기에
편승한 투기 열풍이 일어나, 새로 생겨난 벤처기업의 주가가 폭등했다.

당시 대표적 벤처기업은* '새롬기술'이라는 회사였는데, 이 회사의 주가는 1999년
8월 13일에 2,575원으로 거래를 시작한 후 폭등에 폭등을 거듭하여 4개월 후인 12월
28일에는 24만 2천 원이 되었다. 4개월 만에 약 94배나 치솟은 것이다. 2000년 2월



18일에는 다시 30만 8천 원까지 상승하여 약 120배나 치솟았다. 이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1년 만에 36배가 된 18세기 프랑스의 ‘미시시피’사의 주가 폭등도 ‘새롭기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당시 새롭기술에 1억 원을 투자한 한 은행원이 100억 원을 벌었다는 기사가 신문에 실려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

벤처기업 : 첨단 신기술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사업에 도전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그러나 이 거품 역시 오래 가지 못하고 6개월 만에 꺼지기 시작했다. 2000년 3월에 접어들자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하여 3월 말에는 5만 6,400원으로 떨어졌고, 12월 말에는 5,500원까지 하락하였으며, 2003년 3월에는 2,460원이 되었다. 거품이 폭 꺼져 버린 것이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오유지족

스프링복의 비극을 잘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는 욕심이다. 다른 놈보다 앞서서 풀을 많이 뜯어먹고자 하는 탐욕심이 근본적인 원인인 것이다. 둘째는 군중 추종 심리이다. 자신이 무엇을 왜 하는지도 모른 채 무작정 무리를 따라 행동하는 심리 말이다. 인간이 투기 열풍에 휩쓸려 개인적·사회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는 것 역시 이 두 가지 원인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스프링복이 욕심을 누르고 자신을 성찰하여 조금만 달리다 멈춘다면 많은 풀을 뜯어먹을 수 있고 죽지도 않을 것이다.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욕심을 누르고 자신을 성찰한다면 투기 열풍에 휩쓸리지 않을 것이며, 재산상의 손실과 그에 따른 정신적 고통도 피할 수 있다.

석가모니의 마지막 설법이 수록된 《유교경(遺敎經)》을 보면, ‘팔대인각(八大人覺)’이라는 불도 수행자가 성취해야 할 8가지 덕목이 나온다. ‘팔대인각’이라는 이 덕목의 첫째는 소욕(小欲, 탐내지 않는 것)이고, 마지막 여덟 번째는 지족(知足, 만족할 줄 아는

것)인데, 이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준다. 스스로 만족함을 알아 탐내지 않는다면 투기 열풍과 같은 부질없는 일에 휩쓸려 고통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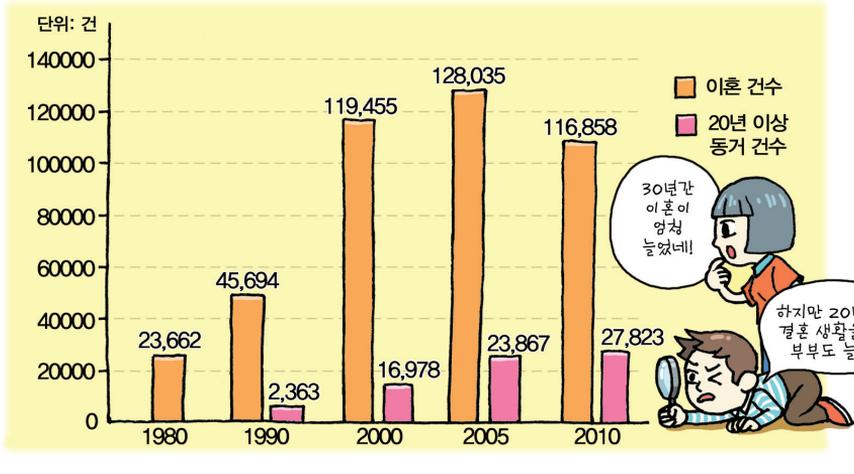
《유교경》의 ‘지족’에 근거하여 불교에서는 ‘오유지족(吾唯知足, 나는 다만 만족함을 안다)’이라는 말을 자주 쓴다. 우리도 ‘오유지족하는 사람’, 즉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 보자. 그런데 한자 ‘吾唯知足’을 자세히 보면 재미있는 점이 한 가지 있다. 모든 글자에 ‘입 구(口)’ 자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네 글자를 한데 붙여 아래와 같은 글자로 만들 수 있다. 편의상 이 한자를 ‘오유지족 족’ 자라고 부르기로 하자. 그리고 이 글자를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기도록 하자.



사랑은 영원할 수 있을까?

연도별 이혼건수

※ 자료 : 통계청



영원파

난 사랑은
영원하다고 믿어.

만날수록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랑은
영원히 계속돼.

영원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야.

서로 사랑을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영원히 계속될
수 있어.

처음부터 열렬하진
않는다 해도 사랑은
계속되는 거야.

헤어지더라도
사랑의 기억은
영원히
남는 거야.

로미오와 줄리엣을
봐. 영원한 사랑을
위해 죽음을
택했잖아.

영원한
사랑을 보여주는
영화나 소설도
무척 많잖아.

영원히 사랑한다고?
영원한 사랑이란 없어
그건 환상일
뿐이라고.



현실파
최환실군

한번 사랑하면 영원히
사랑하는 것 아니냐?
그래야 정말 사랑이지.



영원파
김영원양

현실파

사랑은
감정이야.
감정은 자꾸
변하는 거야.

자꾸 만나다
보면 좋아하는
감정도
시들해져.

사랑이란
짜릿기를 위한
호르몬
작용이야~

서로 사랑하다가도
헤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사랑해서
결혼했으면서도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잖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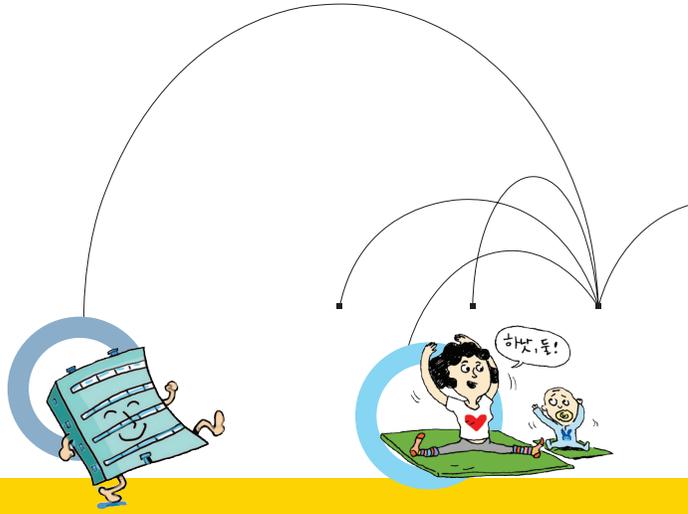
난 영원한 사랑은
환상이라고 생각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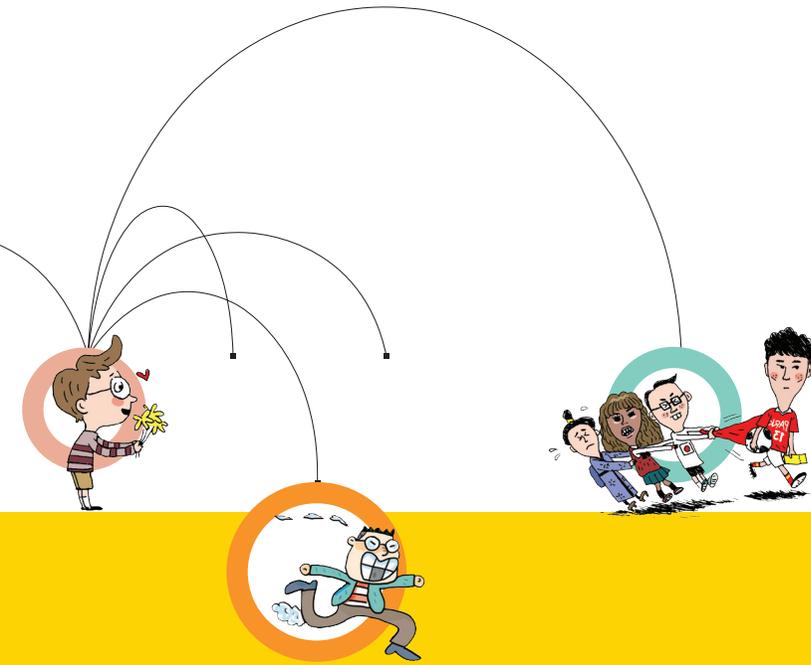
영화나 소설 속
사랑은 사람들이
공파는 것이지
현실은 아니야.

열렬한 사랑은
식기도
쉽게 식는데.

사랑에도
한계효용의
범칙이 작용해.







2

사회에 관심을

우리에게 자동차는 무엇인가?

자본주의의 꽃, 쇼핑은 어디서?

아이를 낳으세요, 돈을 드립니다

만화 선거 개표 방송을 보면서-여론조사와 출구조사

이사를 몇 번 더 해야 우리집이 생길까?

나는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

만화 소아마비 예방백신의 비밀

소득으로 본 난쟁이와 키다리

당신은 어떤 직업을 원하나요?

사라진 밀밭에서 얻은 교훈

쉬어가는 코너 우리의 선택은?

우리에게 자동차는 무엇인가?

2



'우리 차'가 아닌 '마이 카' 시대

한국 사람들은 '우리'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 '우리나라', '우리말', '우리 옷', '우리 집', '우리 회사'……. 그만큼 집단과 소속을 강조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을 가리키거나 소개할 때도 '우리 아무개 씨는...'이라는 표현을 잘 쓴다. 심지어 '우리 남편', '우리 아내'라고까지 말해 외국인들을 당황하게 만들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실제로는 공동 소유인데 마치 개인 소유처럼 사용하는 말도 있다. 그 하나가 '내 집 마련'이고, 다른 하나가 '마이 카'이다. 독신이 아니면서 '내 집'이라고 표현하고, 가족이 함께 사용하는 자동차인데도 '마이 카'라고 부르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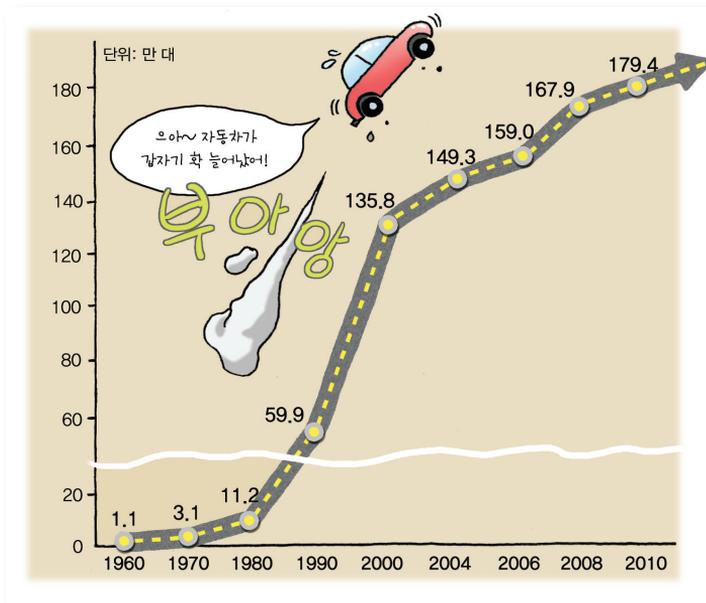
집과 자동차는 모두 지난 몇 십 년 동안의 급속한 경제 성장과 도시화 속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삶의 목표가 되었다. 특히 국토가 비좁은 우리나라에서 생존 공간과 주거 공간을 둘러싼 경쟁은 매우 치열하다. 거리의 빼곡한 인파를 헤치며 종종걸음 치는 행인들, 만원버스나 지하철에서 몸싸움을 하는 출근길 시민들, 거리의 노점상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값이 뛰는 아파트, 허리띠 졸라매고 주택 자금을 마련하는 억척스러운 주부들…….

그와 함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교통 공간에서의 경쟁이다. 운전자를 피곤하게 만드는 압체족들의 끼어들기, 사소한 접촉 사고에도 핏대를 세우고 고함울 지르며 싸우는 운전자들, 도심과 주택가 곳곳에서 벌어지는 주차 전쟁……. 여러 가지 이유로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는 것이 점점 고역스러운 일이 되어 가고 있다. 그런데도 자동차는 줄어들기는커녕 줄기차게 늘어나기만 한다. 2005년에 우리나라의 등록 승용차는 1,500만 대를 돌파했다. 1903년 고종 황제가 최초로 자동차를 도입한 이후 100년도 못 된 1997년에 이미 1천만 대를 넘어서었다. 그 동안 도로와 주차장은 계속 확장되어 왔다. 그러나 아무리 도로와 주차장을 건설해도 늘어나는 자동차 수를 도저히 따라잡지 못했다.

문제는 차량 대수 자체가 아니다. 2010년 서울특별시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는 298만 대로, 2002년경 파리의 등록 자동차가 400만 대였던 데 비하면 훨씬 적기 때문이다. 문제는 차량의 주행 시간이 너무 높은 데 있다. 서울의 전체 등록 자동차의 절반 이상이 매일 시내로 쏟아져 들어오는데, 그 중 상당수는 '나 홀로 운전'이라고 한다. 세계 어느 나라의 도시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풍경이다. 그야말로 '마이 카' 시대다. 자동차에 관한 한 '우리'는 없다.

우리나라의 자동차등록 추이



※ 자료 : 국토해양부

자동차로 인해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2003년 아시아를 강타한 전염병 사스(SARS)는 인류가 자연 재해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새삼 일깨워 주었다. 중국의 거대 도시 베이징을 순식간에 침묵으로 몰아넣은 그 질병은 전쟁만큼이나 공포스러운 것이었다. 만일 사스가 한국에 본격적으로 상륙하여 걷잡을 수 없이 퍼져 나간다고 가정해 보자. 그래서 하루에 20~30명씩 죽는다고 상상해 보자. 어떻게 될까? 온 나라가 벌집 쑤셔 놓은 것처럼 난리가 날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 또는 자기 가족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며, 정부는 정부대로 사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그야말로 세상이 온통 뒤죽박죽되고 모든 일상 업무가 완전히 마비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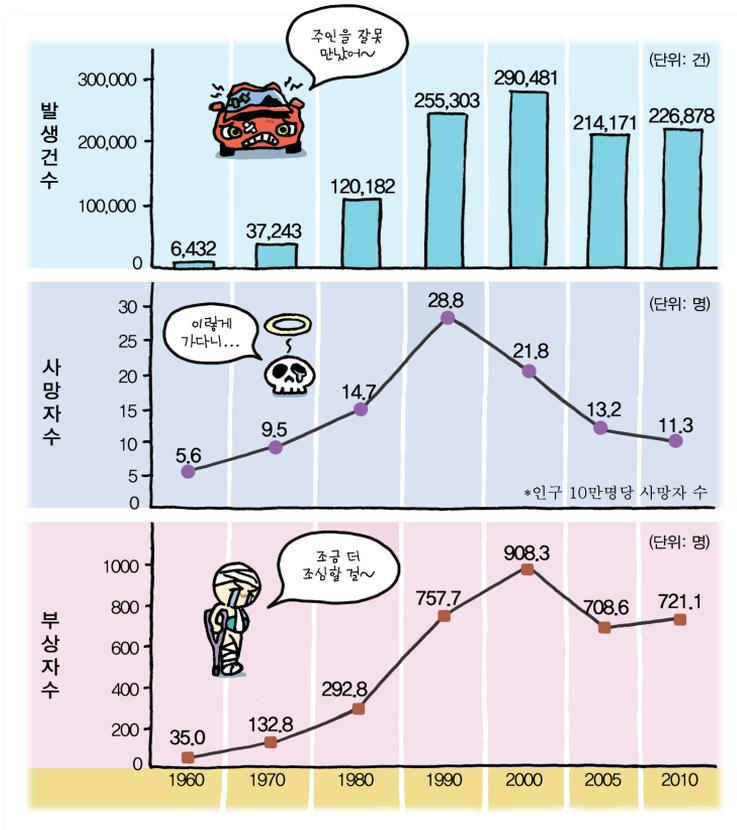
이 가상 스토리에 전염병 대신 자동차를 대입해 보자. 그것은 더는 상상의 세계가 아니다. 우리가 매일 겪고 있는 현실이다. 2010년에 교통사고로 인해 하루 평균 15명이 목숨을 잃고, 966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다쳤다. 아마 다친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는 장애인으로 여생을 살아갈 것이다. 특히 심각한 것은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피해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많다는 점이다. 전체 교통사고 피해자 가운데 12세 이하 어린이가 무려 6.2%에 이른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많은 수가 통학로와 주택가에서 사고를 당한다. 아이들이 안심하고 걸어 다니거나 뛰어 놀아야 할 동네 길이 자동차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다.

자동차 때문에 치러야 하는 대가는 거기에 그치지 않는다. 지금까지는 난방 시설과 각종 산업 및 발전소 시설이 대기 오염의 주범으로 꼽혀 왔으나, 이제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유독물질이 전체 대기 오염물질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 등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훨씬 높다. 더구나 자동차 한 대 한 대의 오염물질 배출량은 공장이나 빌딩 등에 비해 훨씬 적지만, 바로 사람의 코앞에서 뿜어내기 때문에 그 피해는 훨씬 심각하다고 한다. 말하자면 모든 사람의 생명을 서서히 죽이고 있는 것이다.

그에 못지않게 심각한데도 우리가 잘 의식하지 못하는 폐해도 있다. 도시의 소음은

점점 심각해져서 도로변에 사는 주민들의 정신 건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큰 도로에서는 물론 좁은 골목길에서까지 느닷없이 울려대는 자동차 경적소리 때문에 깜짝 놀라는 일도 흔하다. 심지어 오토바이가 인도 위를 달리면서 도리어 사람더러 비키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한다. 또 횡단보도 신호등의 시간 간격이 어린이나 노인들이 건너기엔 너무 짧거니와, 파란불로 바뀌고 나서 곧 깜빡여서 다급함을 느끼게 한다. 우리는 이렇듯 자동차 중심의 스피드 위주로 만들어진 도시에 살면서 늘 긴장과 공포감에 시달리고 있다.

연도별 교통사고 추이



※ 자료 : 2010 경찰통계연보

걷는 즐거움을 찾아서

어느덧 자가용은 사치품이 아닌 필수품이 되었다. 집은 없어도 자동차는 당연히 소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자.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좁은 땅에서 이렇게 많은 자동차를 굴러야만 할까? 물론 대도시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피곤한 일일 수도 있다. 지나치게 많은 승객, 운전자의 불친절과 난폭 운전 등. 하지만 그 모든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득이 된다.

우선 자동차 운전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생각해 보자. 2011년 우리나라 직장인의 한 달 평균 차량 유지비용은 20~30만 원대가 가장 많다. 시간에 대한 비용은 어떤가? 도로 정체가 심각해지면서 자동차의 주행 속도가 점점 떨어져 편리함과 경제성이 자꾸만 줄어들고 있다. 자동차로 인해 들어가는 돈과 시간, 그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 가끔 일어나는 교통사고 등 일체를 종합해 보면 비용이 결코 만만치 않다.

출근길마다 길을 가득 메운 승용차 행렬, 앞차가 빠질 때까지 지루하게 앉아서 기다리는 나 홀로 운전자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자. 출근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동차를 운반하는 것인지? 100kg도 되지 않는 몸을 수송하기 위해 몇 톤짜리 쇳덩어리를

움직인다는 것은 얼마나 큰 낭비인가. 승용차 두 대가 차지하는 면적에 버스 한 대가 들어설 수 있다. 그리고 수송할 수 있는 승객은 20배 이상 차이가 난다. 그런데도 자가용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지금까지는 자동차 구입이 자동차 산업과 관련 산업들을 발전시켰고, 국가의 경제를 번영케 했다. 그러나 이제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은 단계에 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걷는다는 것은 자기의 몸을 움직이는 매우 능동적인 행위다. 사람은 그러한 능동적인 활동을 통해 큰 기쁨을 누린다. 걸어가면서



길 위에서 마주치는 사람이나 주변 사물과의 생생한 교감, 함께 걷는 사람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율동(가족이 걸어갈 때 아이들이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면서 장난을 치는 풍경을 상상해 보라), 걸으면서 누릴 수 있는 풍부한 사색……. 하늘의 대기를 호흡하고 땅의 기운을 받아들이면서 걷는 것은 생활의 동력을 북돋울 수 있는 수련이 된다. 걸어가는 것, 또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것, 그것은 하나의 즐거운 권리다. 산보의 미학을 회복하자. 속도를 강요하는 사회 속에서 느림의 가치를 발견해 보자.

자본주의의 꽃, 쇼핑은 어디서?

2



돈으로만 얻을 수 있는 일상생활

계절이 변하는 시기마다 입을 만한 옷을 찾아볼라 치면 유행 지난 것이 대부분이다. 매해 새롭게 옷을 사도 한 해가 지나면 또 다른 유행이 슬그머니 나와서 낡은 옷으로 만들어 버린다. 그래서 계절이 바뀌면 새 옷을 사기 위해 시간을 내고 돈을 써야 한다. 옷뿐만 아니다.

텃밭에서 그날 그날의 먹을거리를 다 해결했던 우리 조상들과 달리 우리는 하루 먹을 간단한 채소도 지갑을 열어야만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많이 찾는 장소는 지갑을 열어 물건을 살 만한 곳이다. 우리 주변에 지갑을 열게 하는 수많은 쇼핑 장소들이 우리를 유혹한다.

우리나라 2인 이상 가구의 한 달 평균 소비 지출액은 2010년의 경우 230만 원 정도이다. 이 중 13.9%를 식료품, 18.0%를 교통통신비, 13.0%를 교육비, 6.4%를 의류신발비, 6.7%를 보건의료비, 5.5%를 오락문화비, 10.1%를 주거비로 지출한다. 이들 항목의 대부분은 소비자로서 시장에서 물건을 고르고 돈을 지불한 후에야 얻을 수 있는 것들이다.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 당신은 어디로 가는가? 재래시장과, 백화점과, 대형마트와, 아니면 홈쇼핑 또는 인터넷 쇼핑과?



자본주의적 소비의 화려한 시작, 백화점

이것 저것 사야 할 모든 것을 갖춘 세계 최초의 백화점은 언제 어디에서 생겼을까? 파리지앵들은 1852년 봉마르세(Bon March)에서 지갑을 열어 자신에게 필요한 물건을 한 장소에서 살 수 있는 최초의 경험을 했다. 얼마 지나지 않은 1858년 미국에서는 메이시(Macy) 백화점이 문을 열었고, 1863년에는 영국에서 휘틀리(Whiteley) 백화점이, 그리고 1870년에는 독일에서 베르트하임(Wertheim) 백화점이 문을 열었다.

일본에서는 1904년에 미즈코시(三越) 백화점이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일본의 미즈코시 백화점은 우리나라 최초의 백화점 이름이기도 하다. 1906년 서울에 미즈코시가 지점을 낸 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백화점이다. 우리나라 사람이 직접 차린 최초의 백화점은 1916년 종로 2가에 설립된 김윤백화점(金潤百貨店)이라고 한다. 백화점이라기보다는 잡화점이라고 봐야 할 정도였다. 한국인이 직접 세운 현대식 백화점의 시초는 1929년 9월 종로 2가에 설립된 화신상회로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화신상회는 1934년 화재로 인해 이듬해 신축하면서 이름을 화신백화점으로 바꾼 뒤 일본인들이 세운 백화점들과 경쟁하였다.

이렇게 시작된 우리나라의 백화점은 2004년 87개이고, 1년에 약 9조 940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2009년 통계를 보면 백화점 수가 83개로 줄었다. 백화점 수가 줄어든 이유는 무엇일까? 한 가지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대형마트의 성장세가 무시하기 어려운 요인일 것이다.

가족의 주말 나들이 장소, 대형마트

휴일 오후나 늦은 저녁에 가족이 쇼핑카트를 직접 밀고 필요한 물건을 하나하나 집어넣은 후 계산대로 향하는 대형마트에서의 새로운 쇼핑 문화는 백화점과의 자리싸움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것처럼 보인다. 최초의 대형마트는 1962년 미국 로저스에 S. 월튼이 만든 월마트 매장이었다. 그 후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이름의 대형마트가 나오기 시작하였다. 대형마트에서의 쇼핑이 핵가족화된 현대 가족에게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해서 그런지, 수많은 싱글들은 '결혼 후 가족과 같이 쇼핑카트를 밀면서 장을 보는 것'이 소원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삶의 일부가 되었다. 최근 들어서는 백화점 매출보다는 대형마트의 매출이 더 많을 정도이다.

대형마트의 성장은 중소 상인과 재래시장의 경영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04년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시설 현대화와 경영 혁신을 유도하고 있다. 또 2010년 11월 재래시장 근처 반경 500m 이내에 대형마트의 입점을 금지하는 이른바 SSM* 규제법을 제정하기도 했다.



SSM : Super Supermarket의 약자. 기업형 슈퍼마켓을 이름

그러나 사람들은 재래시장보다 새로운 시장을 선호하는

듯하다. 2007년 354개였던 대형마트는 2010년 9월 현재 442개로 늘어났고, SSM은 332개에서 803개로 무려 241.9%나 증가했다. 그 사이 중소 상인들의 피해는 심각했다. 2010년 중소기업청의 발표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70% 이상이 전년에 비해 매출과 순이익이 감소했으며, 월 100만 원도 못 벌고, 26.8%는 아예 적자이거나 수익이 없었다.

복합 쇼핑몰에서의 몰링(malling)

사람들이 재래시장보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를 더 많이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이유로 꼽는 것은 이동 및 주차가 편리할 뿐 아니라, 한 곳에서 거의 모든 상품의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가족 모두 정해진 시간 속에서 규칙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현대인에게 쇼핑은 일상적인 업무 같은 것이다. 그러다 보니 가장 가까우면서도 효율적인 공간에서 필요한 것을 모두 얻을 수 있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가 인기일 수밖에 없다.

예전에 만들어진 백화점이나 대형마트가 필요한 물건을 사고파는 공간이라면, 최근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는 쇼핑 이외에 책을 사거나 볼 수 있고 연극이나 영화를 볼 수 있는 문화 공간, 문화 센터를 통한 학습 공간, 여러 음식점을 모아 두어 외식할 수 있는 공간의 역할이 동시에 가능한 복합 공간이다. 그러다 보니 단순히 물건을 사는 쇼핑(shopping)의 공간이 아니라 ‘사고, 먹고, 즐기는’ 복합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는 행위를 차별화하여 몰링(malling)이라고 부른다. 물건을 팔고 사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공간을 팔고 사는 것이다.

모두가 바쁜 삶을 살고 있으면서 실내에서의 문화 활동에 익숙한 현대의 가족, 연인, 친구들이 약속을 정하고 모여서 이동하지 않고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도록 설계된 새로운 쇼핑 공간은 높은 층을 차지하기보다 단층에 공간을 넓혀서 동일한 공간에서의 이동 자체도 즐기게 만든다. 결국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윈스톱



포털 소비' 공간으로 쇼핑 공간이 변하게 되며, 점점 쇼핑 장소가 거대화되고 집중화 되는 양상을 보인다.

또한 대형마트는 자본력이 풍부한 대기업에 의해 경영되므로 대량 구매를 통한 가격 인하가 가능하기 때문에 재래시장 등에 비해 다양한 상품을 비교적 값싸게 공급할 수 있다. 특히 피자나 프라이드치킨, 원두커피 등 특정 기호 상품에 대한 파격적인 저가 판매 전략으로 소비자들을 유인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서 거대한 자본이 쇼핑 공간 자체를 잠식한다. 결국 재래시장의 위상은 점점 더 약화될 것이며, 복합 쇼핑몰 안에 들어 있는 업종과 경쟁해야 하는 지역 내의 작은 점포들 또한 운영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소비 트렌드의 변화는 어쩌면 소비자의 자발적인 변화라기보다는 거대한 자본에 의한 수동적인 변화인지도 모른다.

손끝 하나로 열리는 시장, 홈쇼핑과 인터넷 쇼핑

요즘 들어 사람들에게 새롭게 각광받는 중요한 쇼핑 장소는 바로 인터넷과 방송을 활용한 홈쇼핑이다. 홈쇼핑은 1977년 미국 플로리다의 라디오 방송국에서 최초로 상업적 무점포 판매 방식의 홈쇼핑 방송을 한 이후 시작되었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그 후 1982년에 미국의 지역 케이블 방송에서 '홈쇼핑 클럽'을 방송하면서 TV 홈쇼핑이 시작되어, 1985년에는 미국 전역에 TV 홈쇼핑 프로그램을 방송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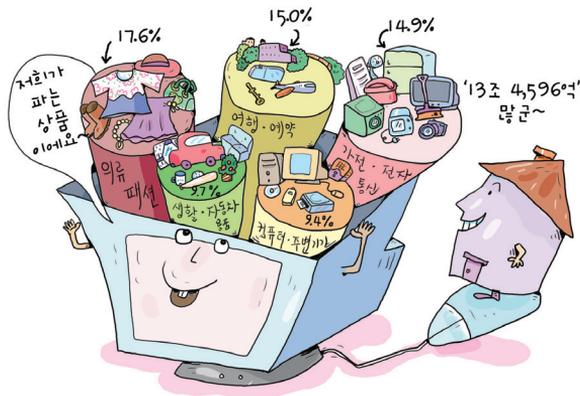
우리나라의 TV 홈쇼핑은 1995년에 최초로 시작한 이래 인터넷 쇼핑과 더불어 쇼핑의 왕좌 자리를 노리고 있다. 2004년 3조 원 시장을 형성하면서 무풍가도를 달리던 TV 홈쇼핑은 최근 들어 인터넷 쇼핑에 밀리는 양상이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인터넷 쇼핑의 영향력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2006년 인터넷 쇼핑몰의 거래액은 13조 4,596억 원이었는데, 2010년 25조 1,550억 원으로 불과 4년 만에 2배 가까이 성장했다. 인터넷 쇼핑을 이용하여 구매하는 물건의 종류는 '의류, 패션' 상품이 16.9%로 가장 많으며, 이 외에도 '여행 및 예약서비스'가 13.5%, '가전, 전자, 통신 기기'가 12.4%, '생활용품과 자동차용품'이 10.2%, '컴퓨터 및 주변기기'가 9.5% 순으로 많이 팔리고 있다.

인터넷 쇼핑을 이용해 사는 비율



인터넷을 통한 쇼핑이 증가하면서 새롭게 부각되는 산업이 택배업이다. TV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을 통한 물건 배달은 거의 대부분 물류 전문 서비스 센터를 통한 택배 서비스가 주를 이루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의 다양한 공간에서 택배하는 사람을 쉽게 만나게 되며, 가까운 편의점에 택배를 맡기고 배달된 택배 물건을 찾아 오기도 하는 풍경을 접하게 된다.

새로운 쇼핑의 방식은 물건의 이동 방식을 변경시키고 있다. 우리는 현재 사람이 지갑을 열어서 물건을 사기 위하여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이 이동하는 쇼핑의 세계

에 살고 있다. 미국의 한 할머니가 유언으로, 죽으면 시신을 화장한 후 블루밍데일 백화점에 뿌려 달라고 했다는 예전의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자식들을 가장 자주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기에. 그러나 TV 홈쇼핑과 인터넷 쇼핑에 빠져 있는 요즘 자녀를 가진 부모들에게는 그리 적절한 유언이 되지 못할 듯싶다. 리모컨이나 마우스 옆에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그나마 나올 것이다. 아니, 어쩌면 전혀 새로운 쇼핑 장소가 나타날지도 모를 일이다. 무엇을 예측하겠는가?

외국의 재래시장 활성화 성공 사례

스페인, 재래시장에서 요리교실 열어

스페인의 보케리아 시장은 바르셀로나 람블라 거리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 주변에 오페라 카페 등의 여가 공간이 있고 바르셀로나 항구와 가까워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로 매우 붐비는 곳이다. 농·축·수산물을 위주로 하는 보케리아 시장 활성화의 주 요인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요리교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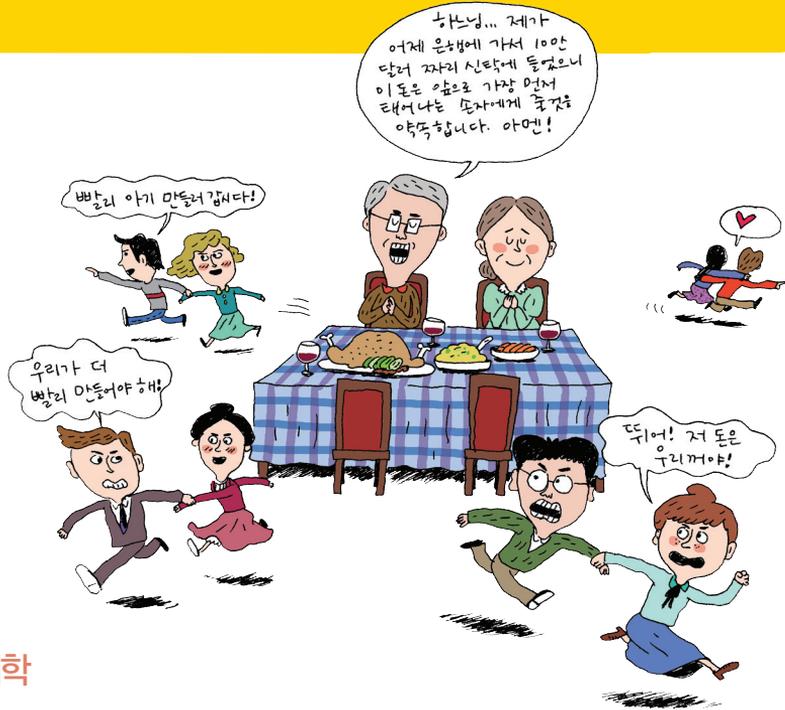
초등학생들이 신선한 음식을 먹고 건강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된 요리교실에서는 먼저 어린이와 요리강사가 같이 보케리아 시장에서 장을 보고, 요리사로부터 재료에 대한 성분과 칼로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직접 재료를 손질해 요리를 만든다. 완성된 요리는 그 자리에서 먹지 않고 집으로 가져가 가족과 함께 먹게 한다. 이를 통해 어린이들은 직접 시장에서 추억을 만들 기회를 갖게 되어 재래시장에 흥미를 느끼며, 시장 입장에서는 장래의 고객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일본, 카탈로그 등 공동 마케팅 전개

일본의 고후쿠마치 상점가는 점포 수 83개이며 인근 지역에서도 손님이 많이 방문하고 있는 광역형 상점가다. 업종은 의류 및 신발, 음식점, 가정용품, 기타 소매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상점가는 '일점일품(一店逸品)' 운동을 통해 시장 전체를 알리는 카탈로그를 만드는 등의 공동 마케팅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일점일품 운동이란 시장 안에 있는 각 점포들이 각기 최고로 뛰어난 하나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을 많이 끌어들이고자 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메밀국수, 과자류 등 상품 개발이 쉬운 식품가게 등 5개 점포가 모여 시작해 이제 거의 모든 점포들이 행하고 있다. 이것은 모든 점포에서 각기 가장 뛰어난 상품을 만들어냄으로써 시장 전체를 재창조하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개별 점포를 개선하여 소비자의 지지와 신뢰를 얻어가는 것이 이 시장의 발전 방식이다.

- 《매일경제》에서



손자의 경제학

이미 결혼한 두 아들과 두 딸이 있는 아주 부유한 노동경제학자가 있었다. 이 사람의 소원은 손자를 보는 것이었으나 자식들이 도대체 아이를 가지려고 하질 않았다. 어느 추수감사절에 온 가족이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경제학자는 자신의 나이 많음을 한탄하며 말했다. “너희들이 도대체 아이를 가지지 않으려고 해서,昨日는 내가 은행에 가서 10만 달러(약 1억 2천만 원)짜리 신탁에 들었다. 앞으로 이 돈은 가장 먼저 태어나는 손자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들 알고 올 추수감사 기도나 올리자.” 잠시 기도를 올리고 나서 눈을 떠 보니 신탁에는 노부부 두 사람만 앉아 있을 뿐이었다.

- 오영수, 《31가지 테마가 있는 경제여행》에서

자식들은 기도를 하다 말고 모두 어디로 갔을까? 아마도 10만 달러를 갖게 될 자식을 낳기 위해 서둘러 돌아갔을 것이다. 이 콩트는 선진국들이 처한 출생률 저하라는 사회 현실과 그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해결 방안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미국 사회에서도 사람들이 자식을 낳지 않으려 하다 보니 이를 소재로 한 이야기가 나온 것이다.

미국의 경우 인구 1,000명당 출생자 수(이를 조출생률이라 한다)는 1957년 25.3명에서 1975년에는 14.8명으로 감소하였고, 2000년에는 14.7명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출생률 감소 현상은 다른 선진국들과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는 1962년에 38.7명이던 것이 1973년에 28.4명, 2010년에는 9.4명으로 감소했다.

“아이들이 없어지고 있다.”

엽기적인 유괴·실종사건의 보도나 공포영화의 제목이 아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낮아져서 어린아이들의 수가 줄어드는 현상을 말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북한의 핵보다 무서운 것이 저출산”이라고 표현할 지경이니,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1798년에 토머스 맬서스라는 경제학자는 《인구론》이라는 유명한 책에서 “농업 생산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데 반해,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오늘날 선진국과 우리나라에서는 그 예측이 전혀 맞지 않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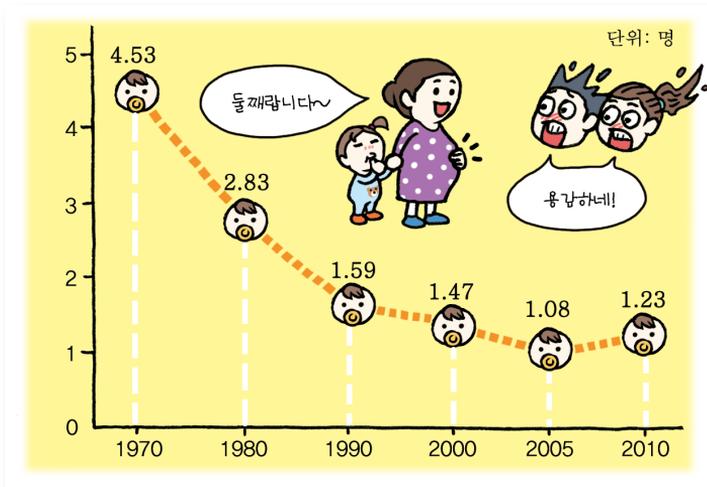
인구통계 중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는 평균 자녀 수’(이를 ‘합계출산율’이라고 한다)를 보면 인구 변화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70년에 4.53명이던 것이, 2010년 현재 1.23명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그러니까 1970년대에는 각 가정마다 자식이 4~5명이었으나, 요즘은 1~2명으로 줄어든 것이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다. 2009년을 기준으로 주요국의 합계출산율을 살펴보면 미국 2.01명, 프랑스 1.99명, 영국 1.94명, 이탈리아 1.41명,

일본 1.37명이다. 국가에서 한 가정에서 한 명의 자녀만 갖도록 강제하는 중국의 경우 합계출산율이 1.54명이다.

한 가정에서 2.1명의 자식을 낳으면 인구가 감소하지 않지만, 그렇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게 된다. 예컨대 합계출산율이 낮은 이탈리아의 경우 50년 후에는 인구가 현재의 6천만 명에서 4천만 명 수준으로 감소하고, 100년 후에는 2천만 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웃 나라 일본도 현재의 인구 1억 2천5백만 명이 100년 후에는 5천5백만 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의 변화



※ 자료 : 통계청

※ 주 : 합계출산율은 여자 1명이 가임 기간 동안 갖게 될 평균 출생아 수

이같은 인구 감소 현상은 선진국에서 이미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평균수명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태어나는 아이들의 수가 줄어들면 전체 인구 중 노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게 된다. 일할 수 있는 젊은 인구층은 감소하고 부양해야 할 노인층이 증가하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으로 노동력이 크게 부족해지는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이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지하철 내의 일반석과 경로석의

위치가 뒤바뀐 모습을 그린 공익광고협회의 포스터는 이러한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자식을 낳는 이유와 안 낳는 이유

그러면 요즘 사람들은 왜 과거와 달리 자식을 적게 낳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 자식을 많이 낳도록 할 수 있을까?

앞의 콩트로 미루어볼 때, 자식을 많이 낳게 하려면 돈을 주면 될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돈을 주면 자식들(국민들)이 부모(국가)를 위해 손자(아이)를 낳아 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람들이 왜 자식을 적게 낳는지를 알아야 한다. 여기서는 적게 낳는 이유를 살펴보기 전에 사람들이 아이를 낳는 이유부터 살펴보자.

사람들은 왜 자식을 낳을까? 자식을 낳음으로써 얻는 것(편익)이 있기 때문이다.

우선 사람들은 자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자식에게 애정을 주는 기쁨, 자식을 키우는 기쁨, 자식의 성장과 발전을 바라보는 기쁨 등도 맛볼 수 있다. 둘째, 가문의 대를 잇고 재산을 상속할 수 있다. 셋째, 과거 농업사회였을 때,

그리고 지금도 많은 후진국들에서 자식은 부모의 일손을 거들 수 있는 노동력이다. 넷째, 노후에 자신을 돌보는 노후 대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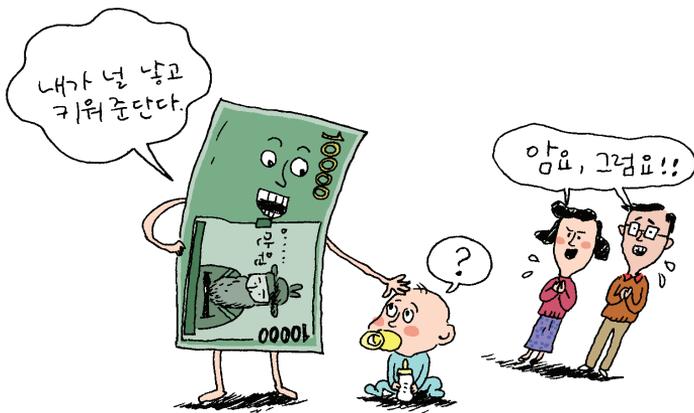
이 중에서 셋째는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해당되지 않는다. 과거와 같은 농업사회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넷째도 과거와는 상당히 달라졌다. 요즘 자식들은 부모가 늙어도 모시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자식에게 노후를 맡기려 하기보다 돈을 저축해서 노후를 대비하고자 한다. 그러니 자식을 낳음으로써 얻는 것이 과거에 비해 훨씬 줄어든 셈이다.

한편, 자식을 가지면 얻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비용이 들어간다.

첫째, 먹이고 입히고, 아프면 병원 다니고 하는 데 돈이 들어간다.

둘째, 교육시키는 데도 돈이 많이 든다. 2009년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월평균 자녀교육비’는 32만 원이다. 또 2006년에 실시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를 보면 자녀 1명을 낳아서 대학까지 보내는 데 드는 교육 비용이 2억 3,199만 원에 달한다.

셋째, 결혼시키는 데도 돈이 많이 든다. 2011년 여성가족부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신혼부부의 평균 결혼 비용은 남자가 8,078만 원, 여자가 2,936만 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대부분이 결혼 비용을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했다고 하니 자녀의 결혼 비용은 고스란히 부모의 몫임을 알 수 있다.



넷째, 요즘 여성들은 대부분 사회에 진출해 있고, 높은 보수를 받는 여성들도 많다. 그런데 자녀의 출산이나 양육으로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매달 받던 월급은 물론 자신의 사회적 실현도 포기해야 한다. 이러한 간접비용(즉, 자녀 출산으로 포기되는 소득 등)이 과거에 비해 굉장히 커진 셈이다.

앞의 네 가지 비용을 합한 것을 출산의 기회비용이라고 하는데, 이는 요즘 사람들이 자식을 적게 낳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962년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87달러에 불과할 때는 인구 1,000명당 출생률이 38.7명이나 되었으나,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759달러로 증가한 2010년에는 9.4명으로 크게 감소한 것에서 알 수 있다. 이는 바로 출산의 기회비용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이 과거에 비해 자식을 낳음으로써 얻는 것은 줄어든 반면, 자식을 키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크게 증가하였다. 그 결과 사람들이 자식을 적게 낳게 된 것이다.

정부의 출산정책도 문제

“3·3·35운동에 참여합시다.” 1966년에 정부가 내놓은 표어다. 무슨 암호 같은 이 숫자는 “3년 터울로, 3명만, 35세 이전에 낳자.”는 의미로, 6·25전쟁 이후 급격히 늘어나는 출산율을 막기 위해 등장한 정부의 출산 정책이었다. 숫자 ‘3’으로 대표되던



가족계획운동이 1970년대 들어서는 ‘2’로 바뀌었다.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유명한 표어도 이때 나왔다. 여기서 딸을 앞세운 이유는 남아선호 사상으로 아들을 낳을 때까지 계속 아이를 낳는 것을 막기 위한 정부의 의도였던 것 같다. 실제로 정책 홍보 포스터에는 여자아이만 둘을 가진 부부의 모습이 등장한다.

그러다가 1980년대 후반에 오면 아예 하나만 낳자는 운동이 벌어진다. 이때의 표어는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는 것이었다. 더 노골적인 표현을 쓴 것도 있다. “둘도 많다.”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1960~80년대 정부 주도의 가족계획 정책에 따라 한번 꺾이기 시작한 출산율은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았다. 거기에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출산과 육아에 부담을 느끼는 여성들도 많아졌다. 그 결과 2005년엔 이른바 ‘1.08 쇼크’가 찾아왔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1.08명까지 내려가면서 세계 최저 수준에 이르게 된 것이다. 산아제한 정책 40년 만에 상황이 역전되어 이제 출산을 장려해야 할 처지가 되었다.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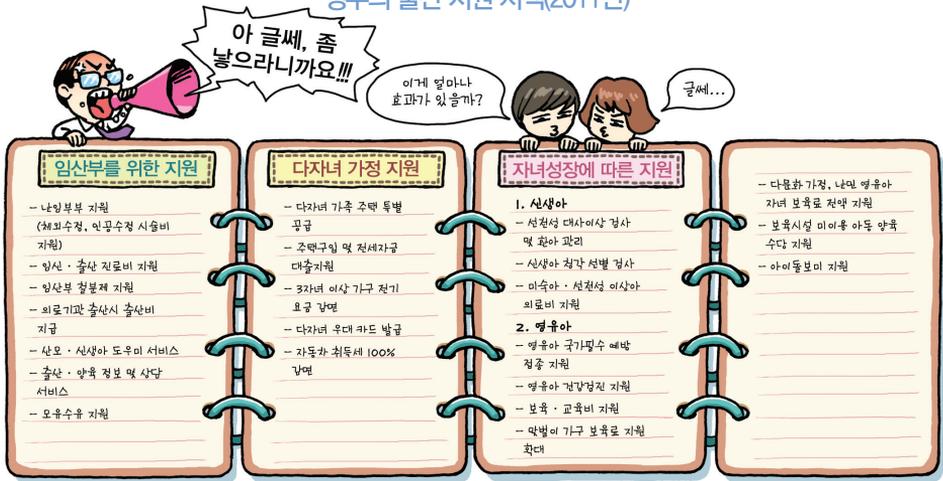
이제는 출산을 장려해야 할 때

앞에서 자녀 양육에 엄청난 고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이를 참조하면 우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식을 더 낳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즉 자식을 가질 때의 비용은 낮춰 주고 편익은 높여 주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취한 바 있다. 인구 증가가 사회적 문제가 되던 1960~1970년대에는 자식을 적게 낳도록 하기 위해 자식을 많이 낳으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었다. 예컨대 공무원의 경우 셋째 자녀부터는 교육비를 지원해 주지 않았고, 의료보험 혜택에서도 제외했다. 말하자면 자식을 갖는 비용이 높아지게 하는 정책을 쓴 것이다.

중국에서는 지금도 산아제한을 위해 두번째 자녀부터 많은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웬만한 부자가 아니면 자식을 2명 이상 낳을 수 없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자식이 2명



정부의 출산 지원 정책(2011년)



※ 자료 : 보건복지부

이상이면 부의 상징이 된다.

반면 인구 감소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선진국에서는 편익은 높이고 비용은 낮추는 정책을 쓰고 있다. 즉 출산 및 양육비 지원, 교육비 지원, 공공 탁아소 운영 등을 통해 비용은 낮춰 주고, 자녀 수에 비례하여 돈을 지급함으로써 편익은 높여 준다.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프랑스다. 1770년에 세계 최초로 보육시설을 설립했고, 1981년에는 유치원 무상 교육을 실시한 데 이어 지금은 대학까지 무상 교육이다. 출산을 앞둔 '예비 엄마'들은 임신 8개월이 되면 800유로(약 96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받으며, 출산 후 3년 동안 매달 양육수당으로 160유로(약 19만 원)를 받는다. 18세 미만의 첫 두 자녀에 대해서는 매달 육아보조금으로 109유로(약 13만 원)를, 셋째부터는 월 250유로(약 30만 원)를 지급한다. 이렇듯 셋째부터 한층 후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자녀를 3명 이상 낳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자식을 낳으면 국가가 돈을 준다는 것은 10년 전만 해도 생각하기 힘든 일이었다. 그러나 2000년부터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출산 장려를 위해 돈을 주기 시작했다. 인구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전남이 가장 먼저 시작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출산 장려책들을 보면 출산의 편익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2005년에

정부가 수립한 저출산 종합대책의 내용도 출산의 비용을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강원도 평창군의 출산 장려 정책

강원도 평창군은 젊은 층의 출산 육아 부담을 덜고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고령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출산장려금 지원조례'를 만들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출산 장려금은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기준으로 첫째 아이는 100만 원, 둘째 200만 원, 셋째 300만 원, 넷째 400만 원 등 아이 수에 따라 100만 원씩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중략)

평창군의 이번 정책이 환영받는 이유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둘째 아이부터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며 첫째부터 지급하더라도 그 액수가 적기 때문이다. 현재 첫 아이를 낳을 경우 100만 원을 주는 곳은 전남 완도와 광주광역시 동구 등 소수이며, 인천시도 내년 첫째부터 출산 장려금 100만 원을 주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평창군은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조례·규칙심의회와 군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이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스포츠경향》 2010. 10. 31.



선거 개표 방송을 보면서

여론조사와 출구조사





먼저...
전화여론 조사란
투표하기 전에 전화로
누구에게 투표할
건지를 물어보는
거고,

출구조사란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누구를
선택했는지 물어보는 거란다.

아하~.

그럼 당연히...
출구조사가 훨씬
정확하겠네요?



그렇지...
그런데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겠니?

이유라...

생각 중...



음...
전화로 대답할 때는
아직 투표를 안한
상황이고, 출구조사 때는
이미 투표를
하고 나온 거잖아요.



그런니까 마음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거구나?
그래... 맞았다.
하지만 그것 말고도 또 다른
이유가 있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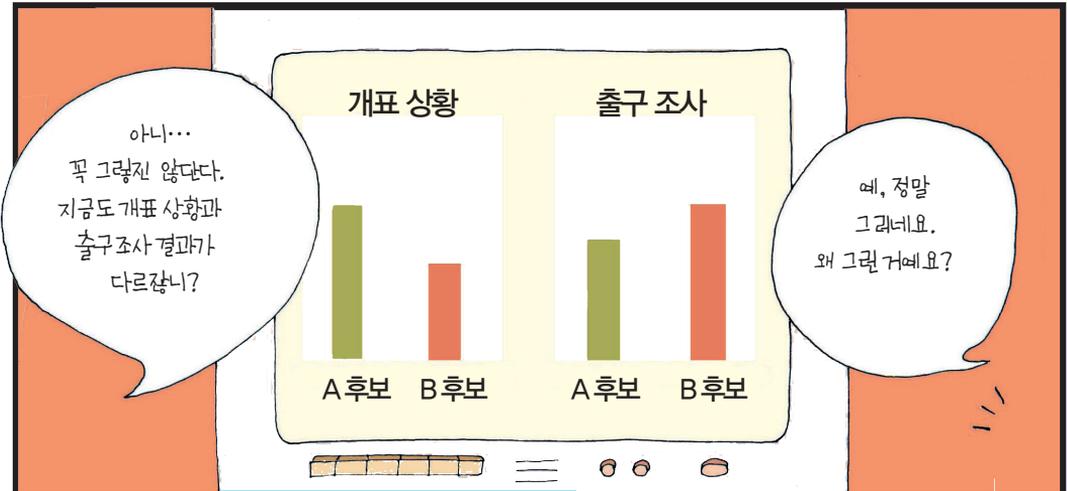
또 다른
이유요?
뭔데요?



전화여론 조사는
실제로 투표하러
안가더라도 투표할
거라고 대답할 수
있거든.







아니...
꼭 그렇지 않다.
지금도 개표 상황과
출구조사 결과가
다르잖니?

예, 정말
그래네요.
왜 그런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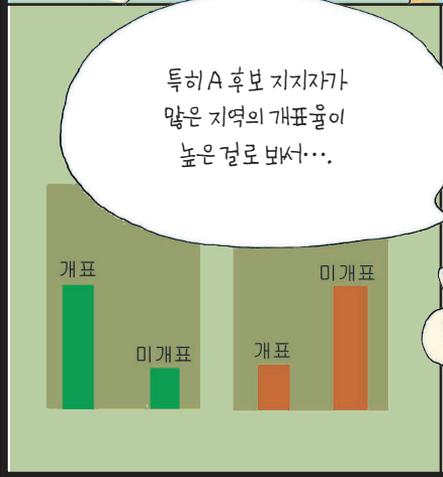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지역 편중
현상이라는 게 있어서 어느 후보도
모든 지역에서 골고루 지지를 받는
경우가 드물거든...

지역 편중
현상?

그런데 지금 방송에
나오는 개표율이
지역별로 차이가
나지 않니?

네, 듣고 보니
그래네요.

지역 편중 현상 : 지역에 따라 지지율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말한다.



아직까지 집계에는
A 후보의 표가
많이 반영된 걸로
보야 해.

아하~





너희반 애들 모두에게 동전을 한 번씩 던져 보게 해서 앞면이 나온 애들은 1조, 뒷면이 나온 애들은 2조, 이렇게 나누는 거지.

그려면 놀랍게도 두 조가 아주 비슷하게 나뉘단다.

비슷하게 나뉘다뇨? 뭐가요?



앞면 (1조) 뒷면 (2조)



예를 들어 안경을 쓴 애들이나 키가 어느 정도 이상인 애들이 양쪽에 비슷하게 들어 있게 된다는 거지.

오~ 저... 정말요?

그래서 반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할 일이 있을 때 조나 2조 중 한 조만 조사해도 반 전체를 조사한 것과 거의 같은 결과를 얻게 된단다.

하.. 거신기 하네요?



그리니까.. 여론 조사도 그런 식으로 뽑는다는 거죠?

그렇지.



그런데 아바, 꼭 동전을 던져야 하는 건 아니지요?

하하~ 물론이지. 예를 들어서 동전 던지기 같은 방법을 쓴다는 얘기가. 주사위 던지기도 있고,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이사를 몇 번 더 해야 우리집이 생길까?



제비 한 마리 처음 날아와
 지지배배 그 소리 그치지 않네.
 말하는 뜻 분명히 알 수 없지만
 집 없는 서러움을 호소하는 듯.
 “느릅나무 화나무 목어 구멍 많은데
 어찌하여 그곳에 깃들이지 않니?”
 제비 다시 지지귀며
 사람에게 말하듯
 “느릅나무 구멍은 황새가 쪼고
 화나무 구멍은 뱀이 와서 뒤진다오.”
 -〈여유당전서 1집〉에서

이 시는 다산 정약용의 고시(古詩) 27수 중 하나이다. 자신의 집을 가지지 못하는 제비의 서러운 지지배배 소리에서, 100% 주택보급률을 보이는 오늘날 집 없는 서민들의 서글픔을 읽는다면 너무 심한 해석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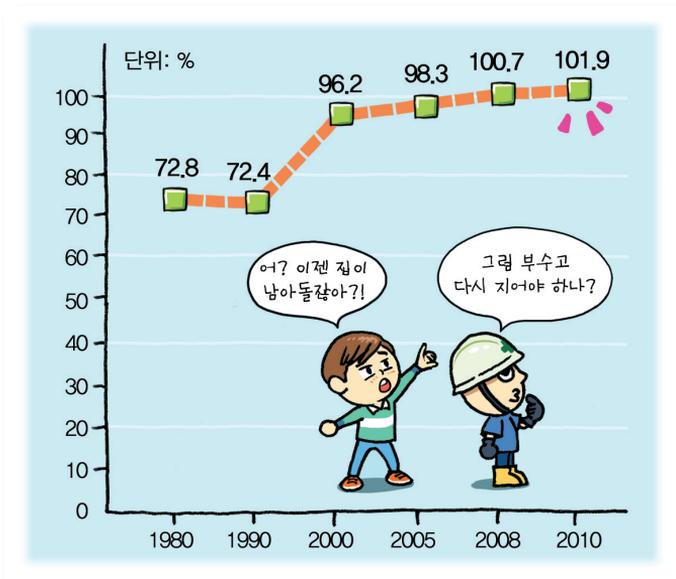
2010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신주택보급률은 101.9%이다. 그런데 자기 소유의 집에

서 사는 비율은 단지 54.2%이다. 나머지 사람들은 대부분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다. 그러나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었다고 해도(2010년 우리나라의 총가구 수는 1,733만 9천 가구이고, 주택 수는 1,767만 2천 호로 100%를 넘는다.) 국민의 반 정도는 자기 집을 못 가진 무주택자들이고, 나머지 반 정도는 2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셈이다. 2005년부터 2010년 사이 5년간 신주택보급률*은 3.6%포인트(98.3% → 101.9%) 증가한 반면, 자가점유율*은 오히려 1.4%포인트(55.6% → 54.2%) 감소했다.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만 훨씬 더 늘어났다. 집을 많이 지어 주택보급률을 높이겠다는 정책이 자가점유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이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신주택보급률 : 전국의 주택 수를 가구 수로 나누던 주택보급률을 보완하여 주택 수에 다가구 구분 거처를 반영하고 가구 수는 1인 가구를 포함한 일반 가구로 대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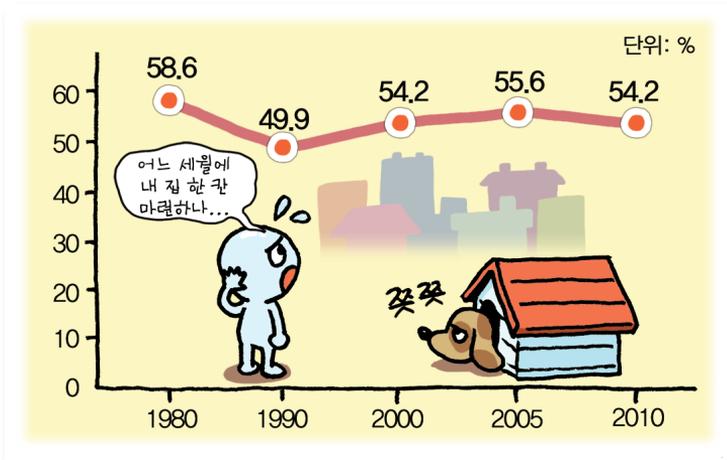
자가점유율 : 자기가 소유한 집에서 사는 가구의 비율

신주택보급률 추이



※ 자료 : 건설교통부

자가점유율 추이



※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힘들어진 내 집 마련 기회

무주택자들은 전세나 월세를 살면서 이사를 자주 해야 한다. 2010년 주거 실태 조사에 따르면 자기 집을 장만하는 데 평균 8년 6개월이 걸렸다. 요즘 전세 계약이 주로 2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을 고려하면 평균 네 번 이상(실제 통계로는 결혼 후 내 집 마련을 위해 4.7회) 이사해야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집을 구하는 데 드는 부동산 관련 비용과 이사 비용까지 합치면 네다섯 번의 이사를 하면서 서민들이 치러야 하는 경제적 비용은 만만치 않다. 이사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겪는 학교 및 친구 문제까지 고려하면 네다섯 번의 이사는 참으로 힘든 일이다. 더구나 계속해서 오르는 집값을 생각하면 집 없는 서민들의 서러움은 어쩌면 집 없는 제비의 서러움보다 더할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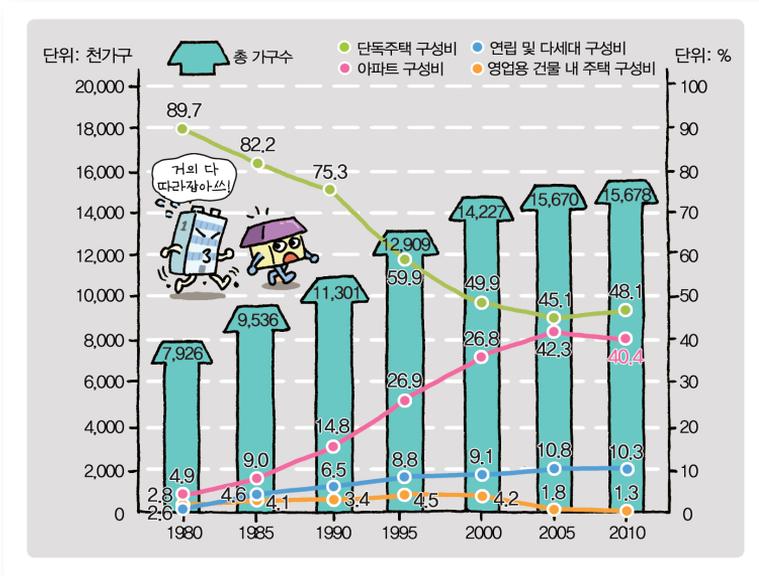
자기 집이 아니더라도 전셋돈이나 월세를 걱정하지 않으면서 자기 집처럼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영구 임대’나 ‘장기 임대’ 제도는 집 없는 사람들이 적은 돈으로 자기



집처럼 살 수 있게 하는 공공주택 제도의 한 방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주택 중 장기 공공 임대주택은 겨우 신주택보급률 기준 4.6%에 불과하다. 외국의 경우 전체 주택 중 적게는 15%(포르투갈)에서 많게는 45%(네덜란드)나 된다. 이 정도 비율만 되어도 많은 사람들이 내 집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사를 해야 하는 고생이 줄어들 것이며, 가난한 사람들이 겪는 집 없는 서러움도 줄어들 것이다.

아직도 돈을 모아서 자기 집을 마련하는 것을 중요한 삶의 목표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과거에 비해 자기 집을 꼭 가져야 한다는 '소유 의식' 대신 생활의 편리함에 따라 집을 선택하는 경향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특히 신혼부부나 독신자들에게 인기를 끄는 원룸식 임대주택은 방 하나에 침실, 주방, 화장실 등을 다 갖추고 있어 새로운 주거 문화를 이끌고 있다. 대체로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이런 주택은 보통 15평 내외의 소규모이지만, 여러 가지 가전제품이나 가구 등의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어 생활하기에 편리하다. 이들은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집을 사기보다는 이렇게 원룸식 주택에 살면서 생활의 편리함도 누리고, 집을 사는 데 드는 돈으로 취미 활동이나 여가 생활을 즐기려고 한다. 집을 소유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생활을 위한 공간으로 보는 인식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아닐까? 어쨌든 앞으로는 편리함이 주택을 선택하는 중요한 이유가 될 가능성이 크다.

주택 유형별 가구수



※ 자료 :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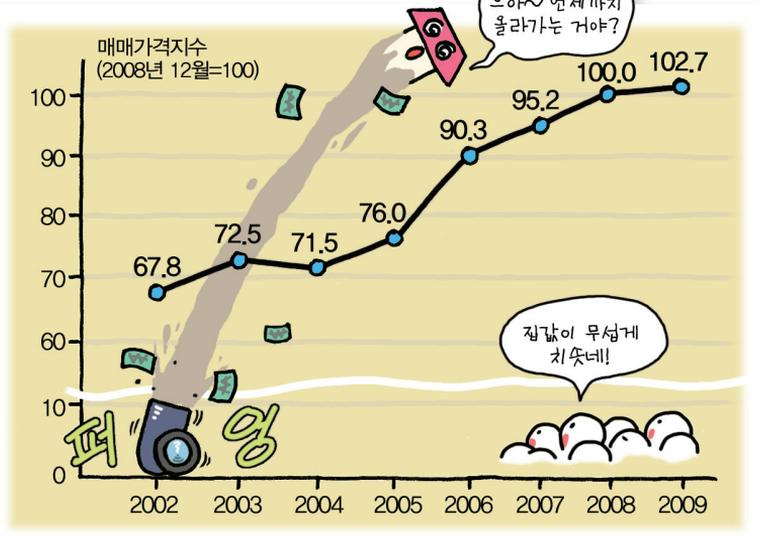
※ 주 : 일반 가구에서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는 제외한 수치임

편리함을 강조하는 미래의 첨단 주택은 어떤 모습일까?

지하철에 앉아 ‘목욕을 하면 피로가 풀릴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그리고 노트북 컴퓨터를 열어 인터넷에 연결한 뒤 홈 네트워크에 접속, 욕조에 따뜻한 목욕물을 받아 두고 거실 등의 조도를 낮춘다. 부엌에 먹을거리가 있는지 검색하니 전자레인지 안에 아침에 넣어 둔 만두가 보인다. 30분 뒤에 따뜻하게 먹을 수 있도록 데우라고 ‘명령’했다.

그런데 미래에는 모두가 이런 집에서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아니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만 이런 집에서 살게 될까? 아직도 우리나라의 가구 중엔 1.6%가 목욕 시설이 없고, 3.0%가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며, 심지어 상수도 없는 가구도 2.1%나 된다. 반지하와 옥탑방에 거주하는 가구도 각각 3%, 0.3%이다. 아무리 편리함이 주택을 선택하는 이유가 된다고 해도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지는 못할 것 같다. 또

서울지역 주택매매 가격 동향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재산 투기의 대상으로 보는 한 미래의 첨단 주택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꿈일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살지 않고 한 집에 정착해서 산다. 그렇다면 집은 한 채만 있으면 되는데, 어떤 이유로 사람들은 집을 여러 채 가질까? ‘집’과 같은 재산을 부동산이라고 하는데, 부동산에 투자함으로써 재산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종종 부동산을 투자가 아니라 ‘투기’의 대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 ‘투기’란 시세 변동을 이용하여 큰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매매 행위로, 아파트를 사 두었다가 가격이 오르면 재빨리 팔아 그 이익을 얻는 경우가 한 예이다. 이러한 투기는 물가 상승보다 부동산 가격 상승이 더 높게 나타날 때 일어나고, 그 결과 부동산 가격은 자꾸 오르게 된다.



더 문제인 것은, 부동산 가격이 터무니없이 올라가면 부동산을 많이 가진 부자들은 가만히 앉아서 큰돈을 벌게 되는 데 비해, 집 없는 사람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이 점점 멀어지고, 심지어 일할 의욕마저 잃게 된다는 것이다. 누구는 가지고 있는 집으로 몇 천만 원, 몇 억 원을 버는데, 열심히 일해서 ‘몇 만 원 버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기 때문이다.

개인이 자기 돈으로 자유롭게 집을 사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물과 공기처럼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면서도 한정된 자원인 집이 투기의 대상이 되면, 결국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갈등이 심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일할 의욕을 잃게 된다. 결국에는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 모두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 “집은 행복한 가정을 꾸려서 사는 곳이다.”라는 소박한 생각이 통용되는 세상은 언제나 올까?

미래의 첨단 주택은 어떤 모습일까?

집 앞에서 “나야.”라고 속삭이자 현관 문이 열린다. 욕실에서 자가진단 변기와 혈압계를 통해 간단한 소변 검사와 혈압 검사를 해 본다. 아직 젊기 때문인지 큰 이상은 없다. 목욕을 끝낸 뒤 알맞게 데워진 만두를 꺼내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켜다. TV 초기 화면에는 이번 달에 내야 할 아파트 관리비와 내일부터 아파트 단지 내 쇼핑센터에서 바겐세일을 한다는 고지 사항이 떠올랐다.

내일 아침에 과일과 간단한 먹을거리를 보내 달라고 리모컨으로 입력한 뒤 침대로 간다. 여기서도 거실의 TV를 공유할 수 있다. 브라운관에서는 나쁜 멜로 영화가 흘러나온다. 스크림 잠이 들지만 TV와 실내등은 주인이 잠들자 저절로 꺼진다. 언제 이런 집에서 살게 될까? - 《동아일보》에서



나는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

2



인류를 괴롭히는 3대 질환은?

인류를 위협하는 질환 세 개를 꼽으라고 하면 아마도 ‘한국인의 사망 원인’ 같은 통계 수치에서 언급되는 뇌혈관질환, 심장병, 간암 등을 떠올릴 것이다. 또는 치료하기 어려운 정도를 기준으로 암, 치매, 에이즈 등 난치병을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생명을 직접 위협하지는 않는다 해도 한번 걸리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지는 디스크나 당뇨병 같은 것도 고려에 넣어야 할 것 같다. 이렇듯 인류를 위협하는 질환이 무엇이나에 대해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여러 갈래의 답이 나올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02년 《세계 질병 부담》이라는 색다른 보고서를 내놓았다. 하버드대와 함께 1996년부터 5년에 걸쳐 진행한 연구 결과물이었다. 그전까지 WHO는 사망률을 기준으로 질병의 심각성을 따졌는데, 이 연구에서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접근했다. 즉, 질병에 걸렸을 때 들어가는 치료비와 질병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해 생기는 경제적 손실 같은 것을 계산하여 새롭게 순위를 매긴 것이다.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 1990년에는 폐렴, 설사, 출산 관련 질병이 3대 질병으로 꼽혔다. 의외의 결과다. 하지만 지구촌 전체를 생각하면 납득할 수 있는 일이다. 우리나라만 해도 이미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많이 걸리는 병을 가지고 지구촌 인류 전체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 가난이나 형편없는 의료 기술, 불결한 환경 등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세계에는 상상 외로 많다. 또 설사가 두번째로 심각한

병으로 꼽힌 것은 그만큼 더러운 물을 먹고 사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오는 2020년의 상황도 예견하고 있다. 그때가 되면 어떤 병들이 인류를 괴롭힐까? 결과는 심장질환, 우울증, 교통사고로 나왔다. 인류 전체의 생활 양식이 상당히 선진화되고 도시화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내린 예측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추세로 간다고 할 때 한국인의 건강은 어떻게 될까? 평균 수명(출생 시 기대여명)은 늘어날까, 아니면 줄어들까?

옛날 사람들은 몇 살까지 살았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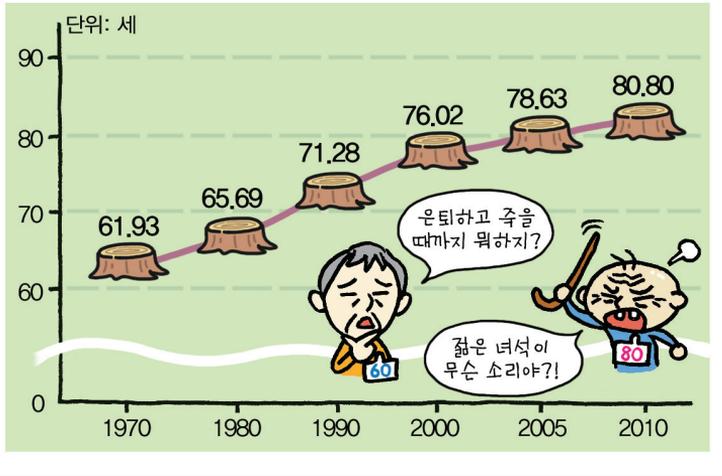
먼저 역사 속에 등장했다가 사라진 인류의 평균 수명은 어떠한지를 살펴보자. 아래 그림을 보면 우리의 조상들은 지금 기준으로는 모두 ‘요절했음’을 알 수 있다. 극단적인 예이지만 영국의 산업화 초기인 18세기에 맨체스터 같은 도시의 평균 수명은 26세 정도였다고 한다. 그 정도라면 사회 자체가 유지되기 어려운 수준이 아닌가? 그런데 사실 평균 수명이 그렇게까지 내려간 것은 높은 유아 사망률 때문이었다. 우리나라에서도 불과 반세기 전에는 아이가 태어나서 서너 살 전에 죽는 것은 아주 흔한 일이었다.

또 과거에는 성인이 되어서도 오래도록 살지 못했다.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 왕들의 경우에도 평균 수명이 각각 42.4세와 47세(44세라는 주장도 있다)에 불과했다. 조선의 왕비나 평민들의 평균 수명은 이보다 더 낮아 40세 정도였다고 한다.

그러면 20세기에 들어와서 갑자기 인류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게 된 까닭은 무엇인가? 과학 기술의 발달이 결정적이었다. 그 가운데서도 공중 보건과 예방 의학이 가장 크게 기여했다. 13세기 유럽에 흑사병이 돌아 유럽 인구의 4분의 1 가량이 죽었는데, 놀랍게도 당시에는 그 원인이 더러운 환경이나 쥐 같은 데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심지어 ‘세균’이라는 것이 있는 줄도 몰랐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진노해서 형벌을 내렸다고 생각하며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고, 수도사들은 자신의 몸에 채찍질을 하면서 신에게 용서를 빌었다.



한국인 평균 수명의 변화



※ 자료 : 통계청

근대 과학이 발달하면서 현미경으로 세균의 정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세균이 몸 안에 들어가 어떻게 번식하는지도 밝혀졌다. 그래서 항생제 같은 치료제가 개발되었고, 놀라운 속도로 전염병들을 정복해 갈 수 있었다. 그 가운데 천연두나 소아마비 같은 것은 거의 퇴치가 되었다. 또한 소독약이 대대적으로 개발·보급되고 환경 위생을 강화하면서 질병이 거의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있다. 최근에는 유전공학에 힘입어 선천적인 질병과 치매 같은 난치병까지도 정복하는 꿈을 키우고 있다.

평균 수명(기대수명) : 0세 출생자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 연수로서 '0세의 기대 여명'을 말함

지금 청소년들의 평균 수명을 예상한다면?

그렇다면 과연 인류의 평균 수명은 계속 늘어날 수 있을까?

2010년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80.8세이다. 2010년에 태어난 0세 아이가 평균 81세 정도까지 생존할 수 있다는 말이다. 1970년에 평균 수명이 61.93세였던 것에 비하면 불과 30여 년 만에 20세 가까이 늘어났다.

그러나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 수명 연장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는 인간이 개발한 항생제에 잘 죽지 않는 새로운 종으로 진화한다. 물론 과학자들은 새로운 항생제를 개발하지만, 어떤 항생제로도 치료되지 않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신종 바이러스와 슈퍼 박테리아가 인류를 위협한다. 게다가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는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또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이 있다. 사람들의 건강 상태이다. 미래의 평균 수명을 예측하려면 지금 젊은이들의 생활 습관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2010 국민 건강 영양 조사'에 따르면 아침을 거르는 사람이 20대는 40.6%, 10대는 27.8%에 이른다. 이렇게 식사는 부실해지고 몸에 좋지 않은 인스턴트식품이나 화학조미료를 많이 쓰는 외식은 늘어난다. 20대 젊은 층의 경우 매일 외식하는 비율이 40.4%로 나타났고, 30~40대 남성들은 소주와 삼겹살을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지나친 흡연도 심각한 문제다. 놀라운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청소년 흡연은 더욱 심각하다. 우리나라의 청소년 흡연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 외에 생활 리듬도 문제다. 최근에 인터넷 때문에 밤을 새우는 청소년들이 급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터넷 중독으로 인한 영양 결핍과 운동 부족으로 성장과 면역 기능의 저하, 만성 빈혈 등이 예상된다고 경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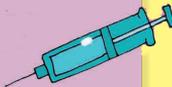
체격은 좋아지지만 체력은 점점 떨어지는 청소년들, 과연 50년 뒤에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아무리 오래 산다 해도 이런저런 병에 걸려 고생을 한다면 오래 사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지금 내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생활하는가에 따라 앞으로의 내 삶의 질이 좌우된다. 내 몸 안에 깃들어 있는 생명을 소중하게 대할 일이다.



쇼아마비 예방백신의 비밀





아빠가 맞은 예방주사 

죽은 소아마비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만든다.

(조나스 소오크가 발명)

동생이 먹은 예방약 

살아 있는 소아마비 바이러스를 약하게 하는 방법으로 만든다.

(브루스 사빈이 발명)





노벨상이...
세포백양 기술을
발표한 사람한테요?

하하~ 그 기술이
없었더라면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하기도
못했었어니까.



그가 노벨상을
받은 이유도 바로
소아마비백신의
발명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었다.



우리도 그 점은
인정하지.

조나스 쏘옥



세포백양 기술
덕분에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할 수
있었거든.

브루스 사빈



그러니까 소아마비백신의
발명보다 그 발명을 가능하게
한 기초 연구 결과에 상을
준셈이군요?



맞았다. 튼튼한 기초 과학의
뿌리에서만 응용과학의
열매가 제대로 열린다는
사실을 스웨덴 한림원은
알고 있는 거지.

• 스웨덴 한림원 : 노벨상 수상자를 선정하는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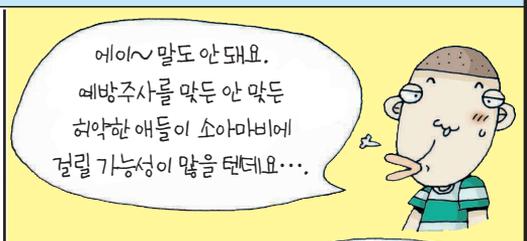


그런데 예방백신을
맞히면 소아마비에
걸릴 확률이 적어진다는
건 어떻게 알게 되어요?



그건...
임상 실험을
통해서란다.







그런데 그 많은 아이들
모두에게 주사를 놔 주면,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예방주사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하하~
우리 아들
똑똑한걸?



※ 임상 실험에서 비교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주는 가짜 약을 플라시보라고 한다.

그래서 아이들을
둘로 나누어 한쪽 아이들
에게는 진짜 예방주사를 놓아
주고, 다른쪽 아이들에게는
가짜 주사를 놔줬단다.

예? 가짜...
주사를요??

험~



그래, 사람 마음이란 게
묘해서 감기 환자에게
소화제만 먹여도 낫는
경우가 있잖나.

네, 그런
얘기 들어본 거
같아요!



그런데 한쪽은
주사를 맞히고 다른 쪽은
안 맞히면 혹시라도 심리적인
불안감이 생겨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겠나?

예... 그래요.
하~ 정말 여러 가지
면들 고려해서
실험을 하는군요.

프덕~

프덕~



그럼~ 그만큼
중요한 실험이니까.

궁금...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흠! 과학의 승리였지.
예방주사를 맞은 아이들은
가짜 주사를 맞은 아이들보다
거의 세 배 정도나
쇼아마비에 걸리지
않았거든!

짜~ 잔~



우와~! 그래서
이제는 모두 안심하고
예방주사를 맞을 수
있게 된 거군요!

그렇지!
하하하~



소득으로 본 난쟁이와 키다리

2



네덜란드의 경제학자 펜(J. Pen)이 쓴 《소득 분배》라는 책을 보면 현실의 소득 불평등 상태를 잘 말해 주는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있다.

펜은 가상의 가장행렬을 연출한다. 그 행렬에는 소득을 가진 모든 사람이 출연한다. 흥미로운 것은 출연하는 사람들의 키가 각자의 소득에 비례한다는 점이다. 소득이 많은 사람은 키다리로, 평균 소득을 가진 사람은 평균 신장(170cm)으로, 소득이 적은 사람은 난쟁이로 출연한다.

이 가장행렬은 영국에서 1시간 동안 벌어진다. 영국의 모든 인구 모델들이 1시간 동안에 모두 출연해야 하므로 이 가장행렬은 빠르게 진행된다.



가장행렬에 처음 등장하는 사람들은 머리를 땅 속에 파묻고 거꾸로 나타난다. 거꾸로서 있다는 것은 키가 마이너스(즉, 소득이 마이너스)라는 뜻이다. 즉, 파산한 사업가나 빚진 사람들이 이들이다.

거꾸로 선 사람들이 지나가고 나면 마치 개미처럼 땅바닥에 붙어 선 사람들이 등장한다. 신문배달 소년, 시간제로 일하는 주부 등 소득이 아주 적은 사람들이다. 이들은 소인국 사람들처럼 키가 몇 cm밖에 되지 않는다.

이들이 지나가고 난 한참 뒤에 키가 1m가 채 안 되는 난쟁이들이 등장한다. 정부가 주는 보조금으로 살아가는 노약자와 실업자, 장사가 안 되는 노점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천재 화가 등이 그들이다.

그 다음에는 1m가 조금 넘는 사람들이 등장한다. 청소부, 지하철 집표원 등 저임금 노동자들이다. 이때도 '레이디 퍼스트(lady first : 여성 먼저)'의 원칙이 지켜져 여성들이 먼저 등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여성들의 임금이 남성보다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30분이 지나도록 계속 난쟁이들만 등장한다. 그래서 펜은 이를 '난쟁이의 행렬'이라고 불렀다. 이것은 한 사회 내에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 다시 말해 소득 분배가 불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장행렬이 시작된 후 48분이 지났을 때에야 비로소 평균 신장(170cm)의 사람들이 등장한다. 이것은 사회의 대다수(80%)가 평균 소득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후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키가 급속히 커진다. 54분이 되면 키가 2m가 되는 키다리들이 등장한다. 대졸 회사원, 교장 등이다. 그 다음에는 5m가 되는 거인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군 대령, 국영기업 기술자, 성공 못한 변호사 등이다.

59분이 되면 8~12m의 거인들이 대학 교수, 대기업 중역, 고등법원 판사 등을 상징하며 등장하고, 그 다음에는 20m의 거인들이 수입 좋은 회계사, 의사, 변호사들을 상징하며 등장한다.

마지막 몇 십 초를 남겨 놓고는 수십 m의 초거인들이 등장한다. 주로 유명한 대기업의 중역들이고, 약간은 왕족이다.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의 남편 필립 공은 60m이고, 석유회사 '셸'의 전무는 110m이다. 마지막 몇 초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키가 너무 커서 얼굴이 구름에 가려져 있으며, 마일(1마일=1,600m) 단위로 키를 재야 한다. 대부분 거대한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들이다. 영국의 유명한 가수 톰 존스도 1마일의 키를 자랑하며 등장한다. 맨 나중에 등장하는 석유왕 폴 게티는 키가 10마일이 되는지 20마일이 되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크다.

이와 같이 소득에 비례하도록 키를 조정하여 가장행렬을 펼쳐 보니, 대다수가 난쟁이고 키다리는 소수에 불과하다. 이를 통해 한 사회 내에는 소득이 적은 사람(난쟁이)이 많고, 소득이 많은 사람(키다리)은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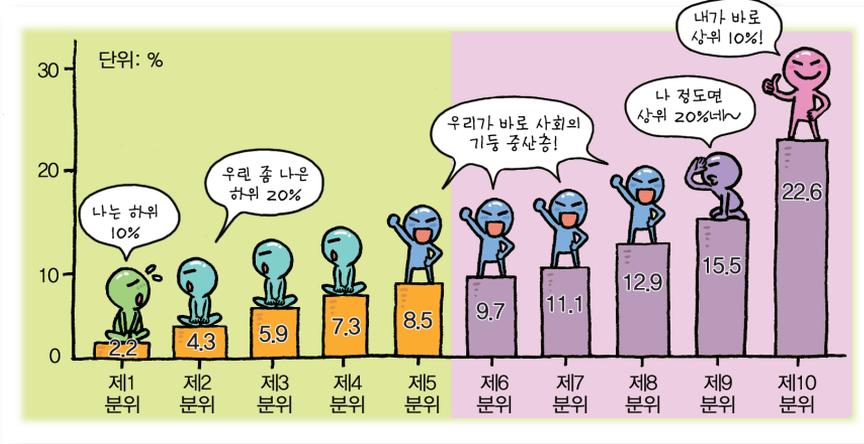
우리나라에서 이런 가장행렬을 펼쳐 본다면 어떤 모습일까? 우리도 영국과 마찬가지로 '난쟁이 행렬'일까? 아니면 평균 신장의 사람들이 많을까? 난쟁이도 키다리도 적은 모습, 즉 소득 분배가 보다 평등한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통계자료를 보면 우리나라도 영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소득이 최상위인 10%계층(제10분위)은 소득이 최하위인 10%계층(제1분위)보다 10.2배나 많이 벌고 있고, 제9분위는 제1분위보다 7배나 많이 벌고 있다. 키로 말한다면, 제10분위 사람들의 키는 제1분위 사람들보다 10.2배나 크며, 제9분위 사람들은 제1분위 사람들보다 7배나 큰 셈이다.

세계은행은 제1~4분위의 40%계층을 저소득층, 제9~10분위의 20%계층을 고소득층, 제5~8분위의 40%계층을 중소득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저소득층의 소득점유율이 고소득층의 소득점유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해서 한 사회의 불평등 정도를 재는 지표로 사용하는데, 이를 10분위 분배율이라고 한다.

소득점유율 :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소득 10분위별 소득 분포(2010)



※ 자료 :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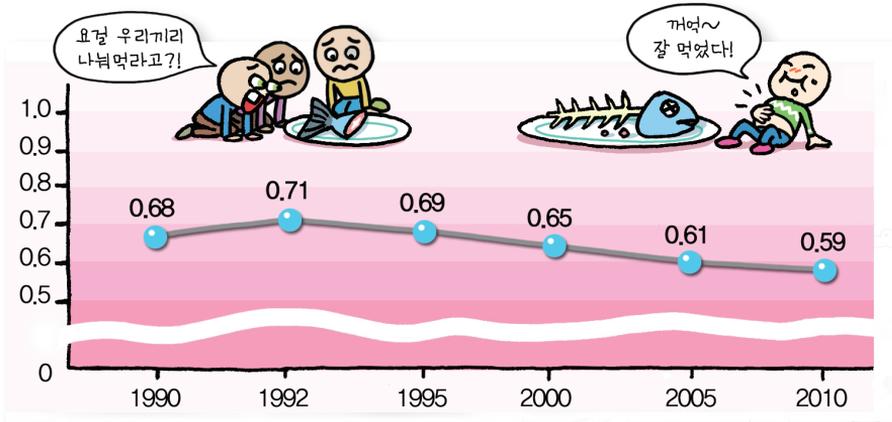
※ 주 : 비율은 각 분위의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소득점유율임

※ 주 : 전국 2인 이상(농·어가 제외)

$$10\text{분위 분배율} = \frac{\text{하위}40\% \text{ 소득점유율(저소득)}}{\text{상위}20\% \text{ 소득점유율(고소득)}}$$

10분위 분배율은 저소득층이 차지하는 점유율을 분자로 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소득이 클수록 값이 커진다. 따라서 이 값이 클수록 소득 분배가 더 평등하다고 할 수 있다. 보통 0.45 이상이면 고균등 분배, 0.35 미만이면 불균등 분배, 그 사이는 저균등 분배라고 한다. 아래 그림에서 2010년 현재 우리나라는 10분위 분배율이 0.59이므로, 고균등 분배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소득 10분위 분배율의 추이



※ 자료 : 통계청

※ 주 : 도시 2인 이상 비농가 · 균등화 가치분소득 기준

자본주의 시장경제 구조에서 소득 분배는 어느 정도 불공정하거나 불평등한 측면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러한 분배의 불공정 또는 불평등이 방치된다면 저소득층의 소외는 커다란 사회 문제가 된다. 사회의 공동체적 연대의식을 와해시키고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불공정한 분배를 시정하고 불평등을 완화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공정한 분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고대 그리스 이래 아직까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나, 오늘날 세계적으로 광범한 지지를 얻고 있는 롤즈(J. Rawls)의 견해는 우리나라에서도 귀담아 들을 만하다. 그는 사회의 가장 못 사는 계층의 복지가 극대화 되는 것, 다시 말해 저소득층의 소득이 커지는 분배가 공정하다고 보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저소득층의 소득점유율을 나타내는 10분위 분배율이 1992년 0.71, 2000년 0.65에서 2010년에는 0.59로 낮아졌다. 롤즈의 견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분배 상태는 10년 전에 비해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저소득층의 소득이 증가하도록 정부에서도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지만, 우리 모두 경제 생활에서 이들을 먼저 배려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열심히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이 요즘의 현실이다. 입시 준비에 빠진 '고3'처럼 취업 준비에 바쁜 대학생들은 '대4'로 불릴 만큼 대학 졸업 후 사회 진출 문제로 고민에 빠져 있다고 한다. 그런 현실을 반영하듯 요즘 신입사원의 나이는 점점 많아져 보통 20대 중반에서 후반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5세부터 직업을 갖고 일하는 것이 가능하다. 단,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중학교에 재학중인 18세 미만인 자는 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있어야만 일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통계에서 실업률이나 경제 활동 인구를 따질 때는 몇 세를 기준으로 할까? 15세일까, 18세일까? 아니면 현실적인 취업 연령을 고려해 20대 중반으로 잡을까? 실제 기준은 법적으로 허용한 나이인 15세이다.

통계에서는 경제 활동과 관련하여 나이에 따라 세 집단으로 나누는데, 15세 미만을 유소년 인구, 15세에서 64세까지를 생산 가능 인구, 65세 이상은 고령 인구라고 한다. 그리고 생산 가능 인구와 고령 인구를 합한 사람들 중에서 노동 능력 및 노동 의사를 가지고 있는 인구를 경제 활동 인구라고 하며, 여기에는 취업자와 실업자가 모두 포함된다. 경제 활동 참가율은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경제 활동 인구의 비율을 말한다. 자, 이런 기본 용어를 통해 우리의 근로 현장을 들여다보자.



근로 희망 사항 : 도전보다는 안정을 원해!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2011년 15세 이상 인구가 직업을 선택하는 데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은 '수입(38.3%)', '안정성(29.2%)', '적성·흥미(14.1%)' 순으로 중요하게 여긴다고 답했다. 직업 선택의 고려 요인에는 성별의 차이가 없었다. 연령별로 보면 10대는 '적성·흥미'를, 20대 이상은 '수입'과 '안정성'을 우선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나이가 들면서 직업에 대한 생각이 더 현실적이 되어 가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이렇게 안정성과 수입을 고려하다 보니 근래 우리나라 최고의 직업은 공무원이 된 듯하다. 2011년 자료를 보면 15~29세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은 '국가기관' 28.7%, '대기업' 21.6%, '공기업' 15.6%, '전문직 기업(법률회사 등)' 9.1% 순으로 나타났다. 국가기관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길 원하는 바람은 남녀 모두에게 동일하므로 공무원이 단연 최고의 인기 직업이다.

실제 근로 상황 : 취업은 그리 쉽지 않아!

그러나 희망사항과 현실은 다른 것이라서 공무원이 아닌 작은 취직 자리 하나라도 차지하기가 그리 쉽지 않아 보인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우리나라의 15세 이상 인구는 3,876만 2천 명에서 4,059만 명으로 늘어났다. 경제활동인구도 2,397만 8천 명에서 2,474만 8천 명으로 늘어났으나, 경제 활동 참가율은 61.9%에서 61.0%로 오히려 0.9%포인트 줄었다.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 취업자는 2006년 2,315만 1천 명에서 2010년 2,382만 9천 명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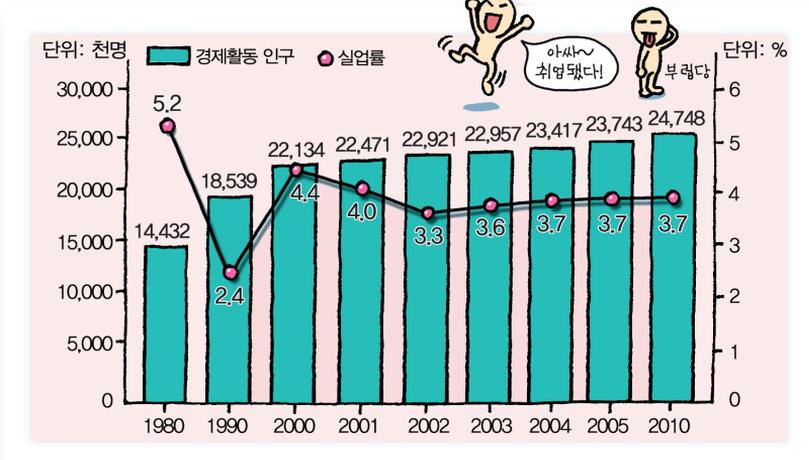


늘어났으나, 실업자 역시 82만 7천 명에서 92만 명으로 늘어나서 실업률이 3.5%에서 3.7%로 0.2%포인트 늘어났다. 즉, 5년 전에 비해 취업률이 더 떨어진 것이다. 실업률로 보면 우리나라의 경제 사정은 더 나빠진 것인데, 이는 2008년 미국발 금융 위기의 여파라고 볼 수 있다.

2010년 경제활동 참가율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73.0%, 여성 49.4%로서 여성들의 근로 활동이 남성들에 비해 적다. 그런데 한국노동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1995년부터 2010년까지 15년간 20대 남성의 고용률은 15%포인트 줄었으나(73.2% → 58.2%), 여성의 고용률은 3.3%포인트(55.0% → 58.3%) 상승했다. 20대 중에서도 20~24세는 남성과 여성 모두 고용률이 꾸준히 감소했지만, 25~29세에서는 고용률이 남성에서만 감소하고 여성의 경우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여성 고용률의 증가는 2011년 11월에 발표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2008년 금융 위기 이후의 고용 증가는 여성들이 돈벌이에 나섰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여성 취업자 중 상당수는 가구주 이외 부가소득이 필요해지면서

경제 활동 인구와 실업률 추이 (1980~2010년)



※ 자료 : 통계청

※ 주 : 실업률 통계에서 1980년, 1990년은 '구직기간 1주' 기준, 2000년부터는 '구직기간 4주' 기준 적용함

일자리를 찾아 나섰기 때문에 일하는 시간이 늘어나길 원하지 않는 ‘자발적 단시간 근로자’이다. 따라서 이것만으로 고용시장이 좋아졌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여전히 취업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어떻게 어디서 일하고 있나?

일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마음을 다지면서도 회사에서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의 사표를 쓰고 개인 사업을 할 만한 아이템이 없는지 생각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인터넷쇼핑 몰로 대박을 일구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접하면 자신도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사표의 열망은 더 커져 간다. 그렇다면 ‘소호*’나 인터넷쇼핑 몰이 가능한 요즘 자기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있을까?

소호(SoHo, Small Office / Home Office) : 집 또는 작은 사무실 공간에서 1명~10명 정도 일하는 작은 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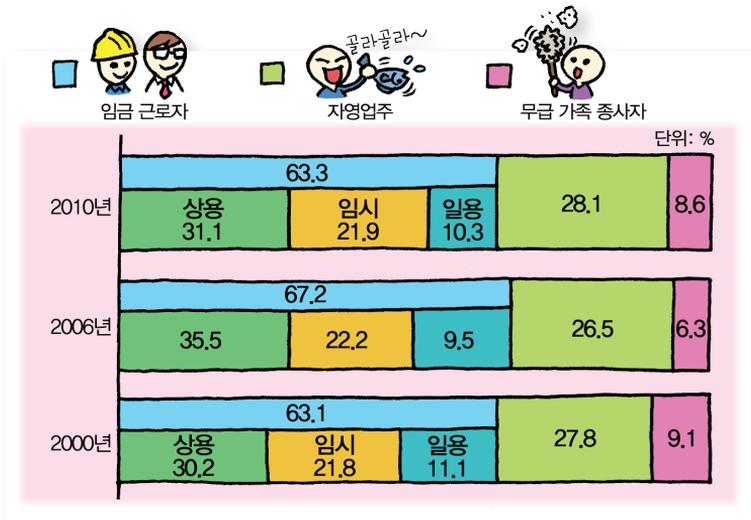
2010년 현재 전체 취업자 중 다른 사람 밑에 고용되어 일하는 임금근로자의 비율은 63.3%이며, 자기 일을 하는 자영업주는 28.1%, 그리고 가족이 하는 일을 도우면서 돈을 받지 않고 있는 무급 가족종사자는 8.6%이다. 5년 전인 2006년에 각각 67.2%, 26.5%, 6.3%이었던 데 비해 임금근로자는 줄고, 자영업주와 무급 가족종사자는 늘어났다. 예전에 비해 자영업주와 무급 가족종사자의 비율이 늘어나고 임금근로자는 줄어드는 것은, 위에서 살펴본 취업률 감소와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다른 선진국의 경우 자영업의 비율이 15% 정도인 것을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자영업 비율은 지나치게 높다. 성실한 월급 생활의 평온함을 버리고 자영업에 나서게 된 것은 자기 일에 대한 열정과 대박을 노리는 힘든 결단이었다기보다, 임금근로자로서 고용이 불안정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취업자들이 주로 일하는 분야는 어디일까? 198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의 농림어업 종사자는 34.0%, 광공업 종사자는 22.5%,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

종사자는 43.5%였는데, 2010년 현재 각각 6.6%, 17.0%, 76.4%이다. 농림어업 종사자는 엄청나게 줄었고, 광공업 종사자도 줄어든 반면,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 종사자는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실상을 살펴보면 제조업의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고, 질이 낮은 서비스업 위주의 일자리가 이를 대체한 결과라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다.

최근 주변 사람들 중에 경영 사정이 악화된 회사에서 감원이나 퇴직을 당하고 '경비'와 같이 단순한 일을 하는 자리로 재취업한 사람들을 본 적은 없는가? 이것은 우리의 경제 구조가 '지식과 정보'에 의해 움직이는 정보 사회로 옮겨 가면서 사무직과 같은 중간수준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이에 반해 지식이나 정보를 활용하는 숙련된 전문가 그룹과 아무런 기술이 필요 없는 단순노무직으로 일자리가 양분화되는 양태가 서서히 나타난 결과이다. 결국 3차 산업인 서비스업에서 일자리가 늘어나긴 했지만, 대부분 단순직이어서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의 질은 예전에 비해 그리 높아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구성비 변화



※ 자료 : 통계청

그런데 단순노무직의 경우 젊은 20~30대보다 고령의 재취업자를 선호하고 있어, 20~30대 취업자 수는 줄고 50~60대 취업자가 늘어나면서 일자리를 찾는 젊은이들의 활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다. 고령층은 일하고 싶은 욕구를 되살려 활발한 구직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젊은층은 계속된 취업난으로 본격적인 구직 활동보다 대학 졸업을 늦추는 등의 활동으로 시간을 들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자리를 찾기 위해 자신을 계속 단련시키는 젊은이들이 있는 한 우리의 경제는 성장할 것이다.

직업 세계에서 학력의 힘

전반적인 학력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대학원 졸업자들이 대학 졸업자들의 일자리에 취업하는 요즘, 고학력은 정말로 필요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 통계와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어보면 ‘좋은 취업과 높은 임금’은 분명히 학력과 상관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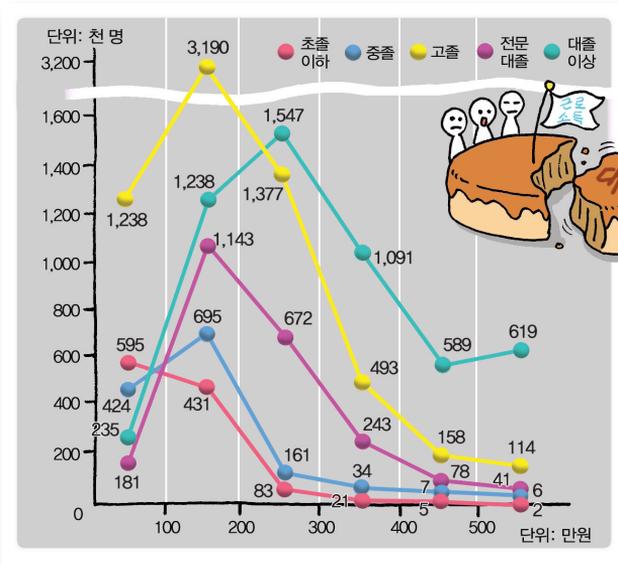
2011년 4월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0년 우리나라 전체 임금근로자 1,670만 9천 명 가운데 초등학교 졸업 이하 임금노동자는 113만 7천 명이고, 이 중 52.3%인 59만 5천 명이 100만 원 이하의 월급을 받는다. 또한 38%는 100만~200만 원 미만을 받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초졸 이하 노동자 10명 가운데 9명이 월 200만 원 미만의 저임금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이다.

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 졸업자의 경우 100만~200만원 미만의 월급을 받는 노동자 비중이 각각 52.4%, 48.5%, 48.5%로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대학교 졸업 이상은 100만~200만 원의 월급을 받는 비율이 23.3%에 불과하다. 대학을 졸업해야 저임금의 굴레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는 셈이다. 더군다나 500만 원 이상 고액 연봉자(78만 1천 명)의 79.3%는 대졸 이상 근로자인데 비해, 중졸 또는 초졸 이하의 고액 연봉자는 각각 6천 명, 2천 명에 불과했다.

이러한 학력별 임금 격차는 해마다 지속되고 있다고 한다. 저학력=저임금의 문제는 한 세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빈곤의

악순환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낳는다.

교육정도별 임금 수준



※ 자료 : 통계청

평생 직업 시대를 위하여

경제가 성장하고 실업률이 줄어든다고 해도 직장 이동이 많아지고 조기 퇴직도 많아지는 요즘, 어느 정도 직장 생활을 한 사람들은 새로운 직장이나 직업을 찾아서 ‘인생의 2모작’ 또는 ‘3모작’을 모색하려고 한다. 과거에는 ‘평생 한 직장’이 모토였다면 이제 ‘평생 한 직업’이 목표가 되고 있다. 직장은 이동 가능하니까 자신이 일하는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라는 것이다. 예전에는 ‘한 우물을 파라.’고 하면 대부분 그 우물이 직장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 한 우물은 자신의 재능이나 관심 분야를 말한다. 한 분야에서 전문가가 된다면 우물에서 더 이상 물이 나오지 않아도 지금까지 파 놓은 우물인 자신의 경력이나 능력을 활용하여 다시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평생 한 직업'의 시대에 전문가로서 일하는 사람의 자세이다.

통계적으로 경제 활동 인구는 15세부터 시작이지만 끝나는 연령은 없다. 원하면 당신은 당신의 전문적인 능력을 평생 사용하면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 당신은 무엇에 자신 있는가? 당신 자신을 그렇게 준비시키고 있는가?

전문가들이 말하는 미래의 직업세계

첫째, 평생직장이 아니라 평생직업을 생각해야 한다. '평생직업' 시대에는 자신의 능력에 따라 직장을 옮겨 다니기 때문에 자신이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속하는 직업을 가지고, 그 분야에서 평생 공부하는 자세로 살아야 한다.

둘째, 학력이 높은 사람이 취업하기가 좋아진다. 복잡한 기술, 복합적인 지식이 필요한 직업이 더 많이 생긴다. 꼭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가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녀가 원하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것이 좋다.

셋째, 삶의 질을 높이는 분야와 관련된 직업이 많아질 것이다.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 '주 5일제', '문화 소비 증가', '삶의 질', 이러한 것이 미래 사회의 주요 특징이다. 이와 관련된 직업을 찾아보자.

넷째, 여성들이 앞으로 더 많이 직장에서 일하게 된다. 21세기를 3F 시대라 한다. Fiction(상상력), Feeling(감성), 그리고 Female(여성), 이 중에서도 여성이 가장 중요하다. 딸에게는 현재 유리한 직업만 생각하게 하지 말고, 21세기 중반을 이끌어 갈 여성 직업인으로서 자세를 갖도록 하는 것은 어떨까?

다섯째, 인터넷의 활성화로 일하는 방식이 변화된다. 컴퓨터와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관련 직업이 생겨날 뿐 아니라, 실제 작업에서도 인터넷의 활용이 강조된다. 그러므로 컴퓨터와 인터넷을 잘하는 것, 그것을 활용하는 직업의 중요성에 대해 기억하자.

- 교육부, 《학부모를 위한 양성평등 진로지도 지침서》, 2004.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삼백 리.

술 익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 박목월의 <나그네>

우리나라에서 밀밭이 사라진 이유는?

<나그네>는 청록파 시인 박목월의 대표작으로, 넓게 펼쳐진 밀밭 길을 유유자적하며 걷고 있는 나그네의 모습을 서정적으로 그려 낸 아름다운 시이다.

그런데 이 시에 등장하는 밀밭을 지금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우리나라 들판에서 밀밭이 사라져 버린 것이다. <나그네>가 1946년 《청록집》에 실린 것을 보면, 당시에는 밀밭을 쉽게 접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60년대에만 해도 시골에 가면 밀밭을 쉽게 만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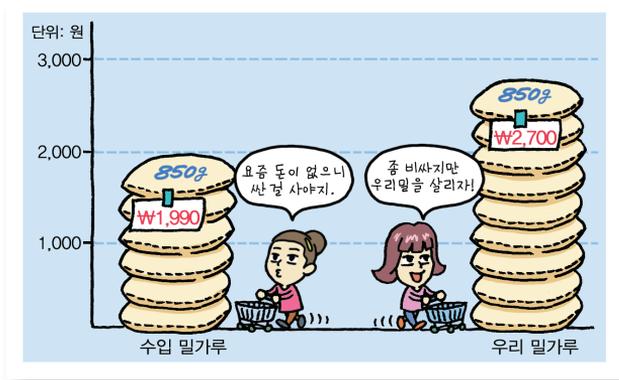
왜 우리나라에서 밀밭이 사라졌을까? 밀에 대한 수요가 없기 때문일까? 아니다. 우리나라의 밀 수요는 엄청나다. 빵, 라면, 국수, 짜장면, 스파게티 등 밀가루를 사용하는 음식의 종류도 한두 가지가 아니며, 소비량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다. 국민 1인당 연간 밀 소비량은 2010년 기준 31.0kg으로, 1970년 26.1kg이었던 것에 비교하면 4.9kg(18.8%)이나 증가했다. 하지만 쌀은 같은 기간에 136.4kg에서 72.8kg으로 63.6kg(46.6%)이나 감소했다.

이처럼 쌀 소비는 감소하고 밀 소비가 증가하고 있으니, 밀농사를 지으면 농가 소득을 꽤나 올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정작 농민들은 밀농사에 전혀 관심이 없다. 한국 가톨릭 교단에서 1991년 서울 명동성당에 ‘우리밀 살리기 운동본부’를 설립하여 농민들에게 우리 밀을 재배하도록 적극 권유하고 있지만, 동참하는 농민들은 극히 적다. 이유는 간단하다. 농민들이 재배한 밀을 좋은 가격에 팔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왜 소비자들은 우리 밀을 좋은 가격에 사 주지 않는 것일까? 그 이유는 외국에서 수입한 밀과 우리 밀의 가격을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2011년 12월 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확인되는 밀가루 가격을 보면, 우리 밀가루는 850g에 2,700원인데, 수입 밀가루는 1,990원이다. 우리 밀가루 가격이 30% 정도 더 비싸다. 그러니 경제적인 면을 고려하면 우리 밀을 사먹을 수가 없다. 물론 농민들이 밀가루 값을 내리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할지 모르겠지만, 밀을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을 감안하면 농민의 입장에서는 850g에 2,700원 이하로 팔았다가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은 밀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것이다.



밀가루 가격 비교(2011)



※ 자료 : 롯데닷컴

우리나라에 수입 밀가루가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6·25전쟁 후(1954년)부터였다. 미국의 농산물 수출 원조법에 의해 대량의 미국산 밀이 우리나라에 무상으로 제공되었다. 전쟁 후의 폐허 상태에서 이루어진 미국의 밀 무상 원조는 우리나라 사람에게 생명줄과도 같았다. 당시로서는 고맙기 그지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무상 원조된 밀이 싼값으로 시장에 나오면서 국내의 밀 가격이 하락하게 되었다. 무상 원조가 끝난 후 1960년대부터는 미국산 밀 수입이 허용되어 값싼 미국 밀이 국내에 대량으로 들어왔고, 우리 밀 가격은 계속 하락했다. 결국 농민들은 밀농사를 그만두기 시작했고, 들판에서 밀밭이 사라지게 되었다.

2010년 기준으로는 밀의 국내 수요량 429만 톤 가운데 식용이 199만 톤이며 나머지는 사료용이다. 이에 반해 밀 자급률은 1.7%에 불과하고 우리 밀 생산량은 3만 5천 톤 정도이다.

논도 밀밭처럼 사라지게 될까?

우리나라에서 밀밭이 사라졌듯이 논도 사라질 수 있을까? 밀밭의 예로 보아, 앞에

서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아마 논도 사라질 것이다. 국내 쌀시장이 개방되어 값싼 외국산 쌀이 대량으로 수입된다면 국내산 쌀 가격은 크게 하락할 것이고, 농민들은 쌀농사를 지으려 들지 않을 것이고, 논은 점차 다른 용도로 사용될 것이다. 이런 과정이 계속되면 우리나라에서 논이 사라지는 것 또한 시간 문제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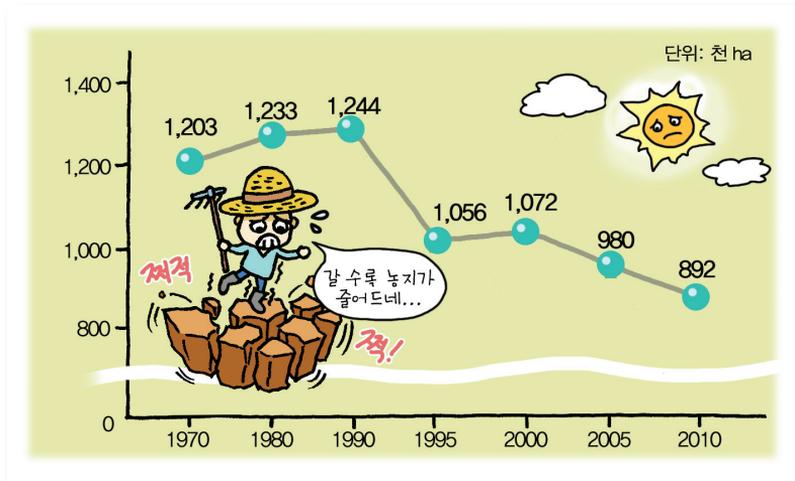
쌀은 1995년부터 이미 수입되고 있다.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에서 쌀시장 개방을 10년간 유예하는 대신 19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 동안 일정량을 의무적으로 수입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2005년부터 쌀시장을 완전히 개방하기로 했으나, 2004년부터 미국, 중국 등 쌀 수출국과 협상하여 추가로 다시 10년간(2005~2014년) 쌀시장을 완전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쌀시장 완전 개방을 10년간 미루는 조건으로 국내 쌀 소비량의 일정량을 의무적으로 수입하기로 했다. 2005년 22만 5,575톤을 시작으로 2014년에는 40만 8,700톤을 수입해야 하고, 2015년부터는 쌀시장이 완전 개방된다.

이같은 의무 수입 물량에 이어지는 쌀시장 완전 개방은 국내산 쌀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고, 하락 폭은 더욱 커질 것이다. 가격 하락 폭이 커서 쌀 가격이 생산비에 못 미칠만큼 하락한다면 농민들은 쌀농사를 완전히 포기할 것이고, 그에 따라 논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속담을 아이들은 이해하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 또 봄 모내기철에 들려오는 개구리들의 그 장엄한 교향곡을 듣는 낭만도 없어질 것이다.

더구나 국내 쌀 가격은 하락하는데, 쌀 생산비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80kg당 쌀 생산비가 1994년에는 6만 7,740원, 2002년에 8만 7,995원, 2004년에 9만 1,189원, 2006년에 9만 4,689원, 2010년에 9만 8,413원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다. 현재처럼 쌀 생산비는 높고 가격은 하락한다면, 머지않아 상당 부분의 논은 사라질 것이다.

우리나라의 벼 재배면적은 1987년 126만 2천 ha로 최대를 기록한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20년 뒤인 2007년에는 95만 ha로 떨어져 75% 정도로 줄었다. 그 후 해마다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 2008년 93만 6천 ha(전년 대비 -1.5%), 2009년 92만 4천 ha(-

벼 재배 면적 추이



※ 자료 : 통계청

1.2%), 2010년 89만 2천 ha(-3.5%), 2011년 85만 4천 ha(-4.3%)가 되었다. 그만큼의 논이 우리 눈앞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국내 시장이 완전히 개방될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농산물 부분이고, 그 중에서도 논란이 많은 것은 쌀시장 문제이다. 과수농업이나 채소의 경우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있지만, 쌀의 경우 한국 농업에서 보편적인 작물이기 때문이다. 또한 쌀은 우리 고유의 주식이라는 점에서 식량의 자원화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쌀시장 완전 개방이 현실화될 때를 대비하여 우리 쌀의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지금은 추곡수매를 통해 우리 농가에서 생산한 쌀을 국가가 사 주고 있지만, 앞으로 시장 논리에 맡겨지게 되면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질 것이고, 그것은 곧 농촌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쌀시장 완전 개방을 추가로 유예받은 동안 철저한 생산 구조 개혁을 통해 생산비를 낮추고, 품질을 향상시켜 우리 쌀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농업의 현대화와 쌀 품종의 개량 개선, 그리고 쌀의 고급화와 브랜드화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나라 쌀 농업을 지킬 기회는 더 이상 없을 것이며, 들판에서 논마저 사라지는 비극이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



쉬어가는
코너

우리의 선택은?

어? 수입 쌀이 우리 쌀보다 훨씬 싸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지?



선택 1

값이 싼 걸 사는 게 합리적이니 수입 쌀을 산다.



쌀시장을 완전 개방한다.

넌 너무
비싸. 메롱~

우히히하~♪
값이 싸니 날개 돌린
듯 팔리는군.



결국 농민들은
쌀값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되고...

끄응~ 도저히
타산이 맞지 않아
쌀농사를
지을 수 없어...



몇 년 후, 논이
있던 자리엔
공장이 들어
서게 된다.

자아~ 이제 슬슬
쌀값을 올려 보살까?



우리나라에서 논이 사라진 뒤 수입 쌀값이 오르고, 우리는 비싼 값에 쌀을 살 수밖에 없다.

헛! 쌀값이
언제 이렇게
올랐지?

이... 이거 쌀이 나을
데가 없으니 안 살
수도 없고...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 농업을
보호할걸...

키잉~



선택 2

그래도 우리 농민을 보호해야 하니 우리 쌀을 산다.



쌀시장 개방되더라도
우리 쌀을 산다.



수입 쌀이 싸지만
우리 쌀을 사 먹어야지.
이게 '신토불이'
아니겠어?

농민과 정부는 우리 쌀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노력한다.



건강을 살리는
무농약으로 하되
생산성도 높여야지!

달팽이와 오리를 이용한 친환경
쌀농사로 농약을 많이 친 다른
나라 쌀보다 친환경 한국 쌀이
외국에서도 잘 팔린다.



무농약 한국
쌀은 품질이 좋고
가격도 적당해서
좋아요.
원더풀!

쌀을 외국으로 수출하게 되어 우리 농업이 발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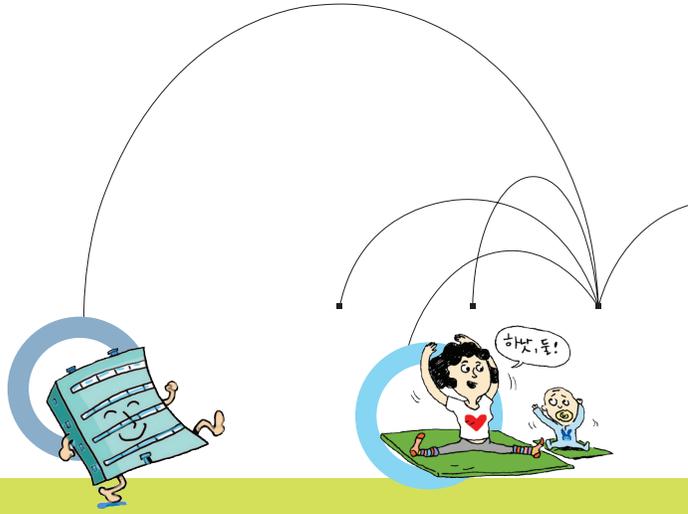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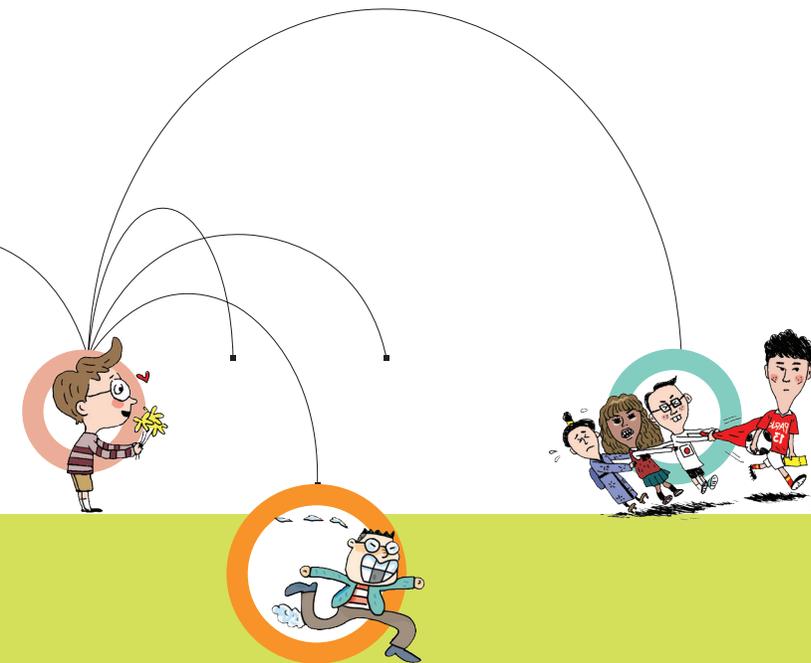
요즘 농사
지을 맛이
파파나~



우리 민족은 역시
앞날을 내다보는
민족이니까!







3

함께만드는 큰 세상

민주주의를 위한 밑거름, NGO

1%로 만드는 큰 세상

우리의 이웃, 외국인 이주 노동자

만화 흡연이 폐암을 일으킬 확률은?

소년소녀 가정은 줄고 있지만...

새로운 가족, 반려동물

만화 한 반에 생일이 같은 친구가 있을 확률은?

물과 공기는 얼마만큼 나빠졌나?

고령 사회에 대비하자

엄지공주와 단군할아버지, 그리고 다문화

쉬어가는 코너 통계와 관련된 있을 수 있는 오해



아름다운 청년 대니 서

‘지구상에서 가장 경이로운 스물두 살’, ‘기적을 만들어 내는 사람’, ‘인정 많은 영웅’. 누구에게 붙여진 이름일까? 그 이름은 대니 서.

1973년 미국으로 이민간 한국인 부모의 2남 1녀 중 막내인 대니 서는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 레딩에서 태어나 자란 한국계 미국인이다. 이미 12살 때 2000년이 되기 전에 지구를 구해 내려는 당찬 포부를 품고 어린이 환경단체 ‘지구 2000’을 만들었다. 자신의 생일에 선물을 받는 대신 7명의 친구들을 단체에 가입시키는 등 열성적인 활동으로 1997년 해체되기 전까지 회원을 2만 6천 명으로 늘렸다.

동물의 서식처인 유서 깊은 숲 ‘히든 폰드’를 개발하려 하자 ‘숲 지키기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그때 대니는 13살이었다. 또 대형 의류 체인점에서 모피 코트를 전시하자 불매운동을 전개하고 항의 편지를 보내 결국 중지시켰다. 어릴 때부터 동물 해부를 싫어했던 대니는 생물 시간에 꼭 해야 하는 동물 해부 실습을 거부할 수 있는 법을 통과시켰다. 동물을 죽이는 것은 인간에게 해로우며, 실험하는 데 사용하는 화학물질도 해롭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조사하고 신문에 투고하고 의회에 로비를 펼친 결과다.

병원에서 에이즈 환자를 돕기도 한 그의 학교 성적은 그리 좋지 않았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는 170명 중 169등이었다. 대학 진학 대신 사회 활동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영어 성적은 낙제였지만 신문이나 잡지에 글을 기고했고, 사회 성적도

낙제였지만 그가 추진한 캠페인은 성공했다. 필요한 기금을 모으고, 사람들의 관심을 모아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냈다. 대학을 다니지는 못했지만 대니는 요즘 대학 강단에서 강의를 한다. 인류의 발전에 공헌한 사람들에게 주는 ‘슈바이처 인간 존엄상’을 수상했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50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각종 언론에서는 늘 그를 주목한다.

- www.salimkim.com에서 (대니 서의 공식 사이트는 www.dannyseo.com)

이 경이로운 젊은이의 직업을 무엇이라고 해야 될까? 사람들은 그를 ‘시민운동가’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가 만든 ‘지구 2000’과 같은 단체를 시민단체 또는 NGO라 부른다. NGO는 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의 머리글자로, 말 그대로 번역하면 ‘비정부 조직’, 또는 ‘비정부 기구’라고 부를 수 있다. 반대 의견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말로는 일반적으로 시민단체라고 부른다. 쉽게 말하면 정부나 기업과는 달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외부의 간섭 없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이다.



시민단체는 왜 필요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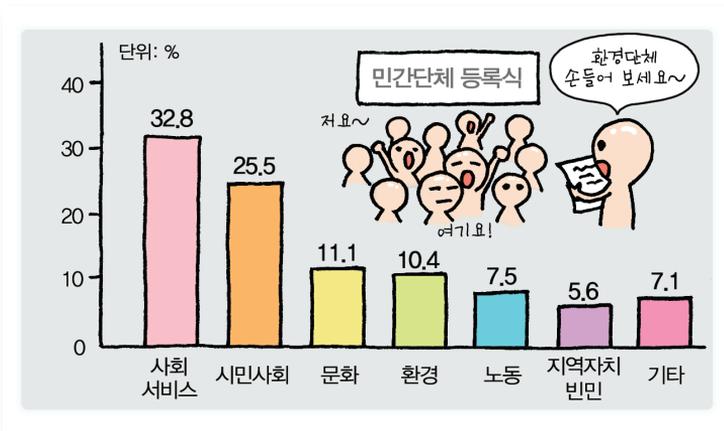
새 학기가 되어 3월에 반장 선거를 한 후, 반장은 환경 미화를 위해 학급 운영비를 거두기로 했다. 대부분 학원 가고 공부하는 데 바쁜 아이들로서는 처음에는 반장이 알아서 거둔 돈으로 환경 미화를 해 준 데 대해 고마울 따름이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일로 반장이 돈을 거두는 일이 많아졌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돈을 어디에 얼마씩 썼는지도 정확하게 알려 주지 않았다. 반 운영위원들이 있었지만 이들은 또 다른 일로 바빠서, 반장이 거두는 학급 운영비의 사용 내역에 대해 자세하게 살피지 못했다. 반 아이들 중 몇 명이 모여, 공부나 학원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장이 학급 운영비를 '바르게 사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이들은 잠깐씩 시간을 내어 '반장이 학급 운영비로 사용한 일'을 간단히 확인하고, 필요하지 않은 곳에 돈을 쓴 경우에는 반의 다른 친구들에게도 알렸다. 이렇게 되자, 학급 운영비를 함부로 사용하는 일이 줄어들었다. 결과적으로 이들의 작은 활동은 반 아이들 전체에 이익이 되었다.

이런 자발적인 소모임은 사실 작은 학급보다 정부의 활동을 감시하고 살펴보는 데 더욱 필요하다. 이런 일을 하는 곳으로 '함께하는 시민행동(www.action.or.kr)'이 있다. 이 단체에서는 국민이 내는 세금인 혈세가 '주인 없는 돈'이 되어 잘못 사용되거나 낭비되지 않도록 감시하는 활동을 한다. 이러한 예산감시운동을 통하여 시민들은 수동적으로 세금만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감시하고 통제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밑 빠진 독 상'을 만들어 한 달에 한 번 정도 잘못된 예산 집행 사례를 언론에 알리고, 예산 집행을 포기하게 하여 2002년까지 공식적으로 1,024억 원의 국가 예산을 아끼는 데 공헌하였다.

결국 시민단체는 직접적으로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이익과 관련된 사회 문제를 해결하거나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탄생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시민단체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하는 활동을 '시민운동'이라고 한다. 이러한 활동은 인권, 환경, 경제, 정치, 여성, 평화, 의료 및 구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 시민운동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창립된 해인 1989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환경, 소비자, 여성, 교육 등 각종 사회 문제들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면서 시민단체들이 시민운동의 영역을 넓혀 갔다. 특히 환경운동연합(1993년), 참여연대(1994년)의 활동은 사회적으로 큰 주목과 호응을 얻었다.

시민운동 단체의 분야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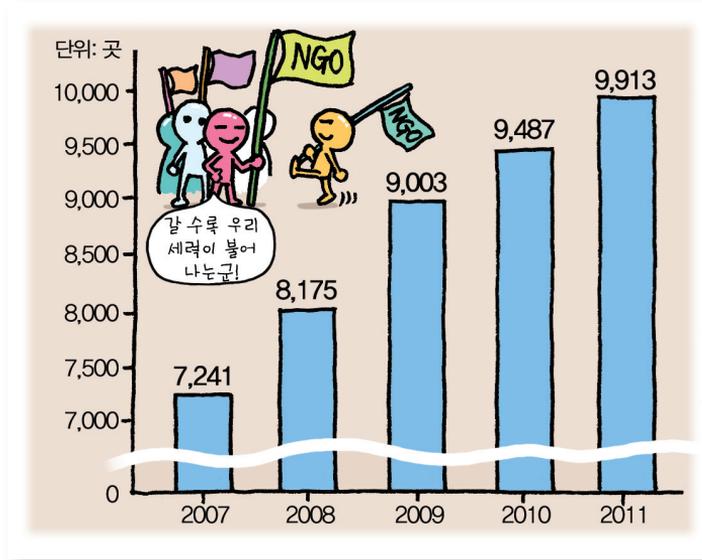


※ 자료 : 한국 민간단체 총람(2006년)

우리나라의 시민단체 수는 2002년 3,937개에서 2011년 9,913개로 10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어났다. 하지만 일본 34만 개와 미국 114만 개에 비하면 그리 많은 편은 아니다.

《한국 민간단체 총람》에 의하면 2006년 시민단체 활동분야는 사회서비스(32.8%) 분야가 제일 많고, 그 다음 시민사회(25.5%), 문화(11.1%), 환경(10.4%), 노동(7.5%), 지역자치·빈민(5.6%) 분야 순이다. 그리고 2009년 시민단체의 활동분야는 교육·연구, 외국인, 대안사회, 자원봉사 등으로 더욱 세분화되고 있다. 앞으로도 시민단체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특히 온라인 활동이 더욱 두드러지게 증가할 것이다.

정부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수 추이



※ 자료 : 행정안전부

정부에 등록되지 않은 시민단체 수 (단위 : 곳)

2003년	18,180
2006년	22,017
2009년	25,886

※ 자료 : 한국 민간단체 총람(2003, 2006, 2009년판).

땀 흘릴 그대들이 필요하다

그런데 최근 시민단체 내부에서는 ‘시민 없는 시민단체’라는 반성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가 제대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을 지지하고, 회원들의 회비로 시민단체가 운영되어야 한다. 한 시민단체는 “당신의 힘을 느껴 보십시오. 당신이 세상을 바꿉니다. Feel your power. It’s changing our world!”라고 권유하지만,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

2011년 사회통계조사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단체 활동을 하는 사람은 전체의 46.6%이다. 이 중에서도 NGO와 유사한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하는 비율은 11.0%이다.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대니 서처럼 고등학교 시기에 또래들이 만든 청소년 NGO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IGL이다. 청소년 환경 단체인 IGL은 ‘녹색연합’의 청소년 소모임으로 ‘I G(lobe) love’를 줄여서 부르는 말이다. IGL은 새만금 간척 사업 중단을 촉구하면서 집단 소송을 내기도 하였고,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 행사와 ‘컵라면 종이 용기 바꾸기 운동’, ‘내복 입기 캠페인’ 등을 벌이면서 직접 실천하고 있다.

요즘 들어 시민단체들은 한 국가 안에서만이 아니라 외국의 여러 나라와 연대하거나, 국경에 관계없이 시민운동을 벌이기도 한다. 그런 단체로는 노벨 평화상을 받은 ‘국경 없는 의사회’가 대표적이다.

NGO단체 주소록

녹색연합 청소년 소모임 cafe.daum.net/powerIGL

국경 없는 의사회 www.msf.org

교육 문제를 다루는 시민단체들

교육과 시민사회 www.edusociety.or.kr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www.school1004.net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www.humaned.net

좋은교사운동 www.goodteacher.org

학벌없는사회만들기 www.goodbyehakbul.org



이런 시민단체들의 활동을 ‘민주주의를 위한 밑거름’이라고 한다면 과장일까?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삶과 관련된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는 원리를 민주주의라 한다면, 우리는 시민운동과 시민단체를 통해 본래의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다. 이제 시민단체가 제대로 된 거름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좋은 농사를 위해 거름을 만든다고 해도 힘이 들고 역겨운 냄새 때문에 그만두고 싶기도 하다. 그러나 좋은 거름이 얼마나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지를 생각한다면, 좋은 거름을 만드는 데 땀 흘릴 그대들이 필요하다.

인간교육살현 학부모 연대를 아세요?

1990년 4월에 결성된 학부모 교육 문화 운동 단체로서, 성적과 학벌에 따라 우월감과 열등감을 분배하지 않는 교육, 다양한 능력과 소망을 펼치도록 하는 교육, 새로운 미래 사회를 여는 교육을 위해 교육의 당사자이며 주권자인 학부모들이 적극적이고 건강한 교육 참여 활동의 장을 만들어 교육 주체들과 함께 교육 본연의 목표인 인간 교육을 실현할 것을 추구하는 단체이다. 사교육비 줄이기 운동, 청소년 폭력 예방 학부모 교육, 교육 비리 근절을 위한 학부모 강령 제정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국경 없는 의사회를 아시나요?

1968년 나이지리아 비아프라 내전에 파견된 프랑스 적십자사 소속 베르나르 쿠시네를 비롯한 의사와 언론인 12명이 1971년 파리에서 '중립·공평·자원'의 3대 원칙과 '정치·종교·경제적 권력으로부터의 자유'라는 가치를 내걸고 설립한 국제 민간 의료구호 단체이다. 이들은 전쟁·기아·질병 등으로 고통받는 세계의 주민들을 구호하기 위해 매년 80여 개국에 2천여 명의 자원봉사자를 파견하며, 세계의 분쟁·참사 지역에 신속히 들어가 구호활동을 펼침으로써 인도주의를 실현한다. 1995년 10월 북한에 홍수가 났을 때 NGO로서는 유일하게 의료진을 파견하여 100만 달러의 의약품과 의료장비를 기부하고 구호활동을 벌였다. 이런 국제적인 구호활동으로 1999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남을 돕는 것은 곧 자신을 돕는 것

자신의 몸 일부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주는 일은 아름답긴 하지만 선뜻 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자신이 가진 아주 작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내주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하물며……. 흔히들 이렇게 남에게 무언가 베풀고 도움을 주는 사람은 우리와 다른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런 특별한 이야기들은 신문의 미담으로, 또는 TV의 칭찬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남을 돕는 일에 그렇게 어려운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밥 한 그릇을 주는 것에서부터 자신의 재산을 모두 사회에 내놓는 것까지 매우 다양하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남을 돕고 있을까? 통계를 보면 2010년 한 해에 사회복지단체 등에 후원금(기부금)을 낸 사람은 15세 이상 인구의 34.8%로, 3명 중 1명 꼴로 나타났다. 후원금을 낸 기관은 모금단체(46.9%), 언론기관(21.8%), 종교단체(21.1%), 기업(직장)(13.8%) 순이다. 후원 인구 1인당 후원 횟수는 6.1회로 나타났다. 많은 수치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AP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국 언론이 2011년 6월 기빙 USA재단과 인디애나대학 자선센터 연례보고서를 인용 보도한 바에 따르면, 2010년 미국인들의 개인 기부 비율은 73.0%로서 우리 나라(34.8%)보다 2배가 넘는다.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것을 기부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이유는 무엇일까? 조사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 때문’이라고 하며, 그 다음으로 ‘사회 개선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거나 ‘도덕적 의무와 책임감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자신이 낸 기부금이 사용되길 원하는 분야도 ‘소년소녀 가정 지원’과 ‘결식아동 지원’이 가장 높다. 그러나 조금만 깊게 생각해 보면 기부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위한 길임을 알게 된다.

1960년대만 해도 설탕이 귀하던 시절이라 명절 때면 하얀 설탕이 가득 든 둥근 양철통들을 선물로 주고받곤 했다. 나는 한때 그런 양철 설탕통 대여섯 개를 가득 채울 만큼 많은 구슬을 가졌던 구슬 재벌이었다. 수전노 돈 굶어모으듯 동네 아이들의 구슬을 몽땅 따들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아무도 더 이상 구슬놀이를 하려 하지 않았다. 나만 빼놓고 친구들은 모두 다른 놀이를 하는 것이다. 생각다 못한 내가 친구들에게 구슬을 100개씩을 거저 나누어 준 후에야 그들은 비로소 못 이기는 척 나와 놀아 주었다.

우리 사회의 부자들은 서구 사회에 비해 너무나 베푸는 일에 인색하다. 서구의 부자들은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 그들이 천성적으로 남에게 베풀 줄 알아서가 아니라 베풀지 않으면 그들의 기반이 무너진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한국일보》

이 글은 ‘남에게 무언가를 베푸는 것이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자신을 위한 일’임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더 많이 가진 자에게는 더욱 그렇다. 가진 자, 특권자들이 다른 사람보다 사회에 대한 책임과 부담을 더 지는 것을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라고 한다.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일개 도시국가였던 로마가 세계 제국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된 ‘포에니 전쟁’에서 로마 귀족들이 취한 태도에서 유래한다. 당시 귀족들은 100여 년에 걸친 전쟁 경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자신의 돈을 수레에 실어 날랐으며, 평민들보다 먼저 전쟁터에 나가 목숨을 바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다. 이를 본 평민들이 주저 없이 세금을 내게 되었음은 두말할 것 없다. 이러한 로마 귀족들의 전통이 현대까지 이어져 사회 지도층이나 부유한 자의 책임의식의 뿌리가 되었다.

“나의 재산은 유언 집행인에 의해 안전한 유가증권에 투자하며, 거기서 나오는 이자로는 매년 인류의 복지를 위해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들에게 상금 형식으로 분배하라.”

알프레드 노벨의 몇 줄 안 되는 이 글은 참으로 ‘아름다운 유언’으로 기억되고 있으며, 지금까지도 전 지구인들에게 그 진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노벨처럼 많은 재산은 없더라도,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행할 사회적 지위에 있지는 않더라도, 남을 돕는 작은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남을 돕는다는 것은 꼭 많이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기부 문화

미국의 억만장자 워런 버핏(W. E. Buffett)은 2006년 6월 25일 자기 재산의 85%에 해당하는 370억 달러 상당의 주식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AP통신은 이는 역대 기부 사상 최대의 액수라고 전했다.

버핏 회장은 세계적인 갑부이지만 그의 삶은 매우 검소하고 소탈하다. 1958년 3만여 달러를 주고 산 회색 벽돌집에서 50년 가까이 살고 있고, 중고 자동차를 직접 몰고 다니고, 동네 이발소에서 머리를 깎으며, 고급 레스토랑보다 햄버거와 코카콜라를 즐긴다. 그는 평소 “자식들에게 너무 많은 유산을 남겨 주는 것은 독이 된다.”고 말해 왔다. 부모가 부자라는 이유 하나로 평생 공짜 식권(food stamp)을 받는 일은 반사회적일 수 있으며, 자녀들에게도 오히려 해가 된다는 주장을 펴 왔다. 이러한 신념에 따라 자신의 거의 전 재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했다. 존경스럽지 않을 수 없다.

또 다른 세계 최고의 갑부인 빌 게이츠(William H. Gates)는 2000년에 1억 600만 달러를 들여 자신과 아내 멜린다의 이름을 붙여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이하 ‘게이츠 재단’)을 설립했다. 게이츠 재단은 그동안 몽골, 토고, 짐바브웨 등 40여 개국의 의료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이들 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을 넘는 금액의 지원을 해 왔다. 미국 내 소수인종 학생들의 대학장학금 지원과 대안학교 설립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빌 게이츠에게 부자로 죽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깨닫게 하여 자선사업에 눈뜨게 해 준 사람이 바로 워런 버핏이다. 그런데 이후 게이츠 재단의 활동에 감명을 받은 버핏은 2006년 370억 달러의 기부액 중 310억 달러를 게이츠 재단에 기부했다. 2011년에 재산 10억 달러 이상의 미국 갑부 403명 중 69명이 ‘재산 절반 기부 운동’에 동참했는데, 이 재산 기부 서약도 버핏이 주도했다. 그는 70~80명의 부자들에게 직접 일일이 전화를 걸어 미국 기부 문화의 선구자인 앤드류 카네기의 사례를 들며 재산 기부를 독려했다고 한다.

미국의 기부 문화의 역사는 뿌리가 깊다. 미국의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는 65세가

되던 1900년에 한창 잘 나가던 철강회사를 5억 달러에 팔았다. 그리고 그 돈으로 미국 전역에 수많은 도서관을 건립했고, 교육진흥기금과 장학기금 등에 기부했다. 그는 84세가 되던 해 “돈은 벌기보다 쓰기가 더 어렵다.”는 유명한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미국에는 거액의 자선 재단들이 많다. 게이츠 재단 외에 포드 재단, 로버트 우드 존슨 재단, 릴리 인다우먼트 재단, 켈로그 재단, 카네기 재단, 록펠러 재단 등이 있다. 특히 카네기의 기부 정신은 록펠러, 포드에 이어 오늘날 워런 버핏과 빌 게이츠에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런 전통이 미국 사회에서 부자들이 존경받게 된 이유인지도 모른다. 이런 점은 우리나라의 부자들도 본받을 만하다.



※ 자료 : 자선 · 구호 재단 갤럽 공동조사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기부는 오히려 평범한 시민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평생 김밥 장사로 번 거액을 쾌척한 ‘김밥 할머니’가 그 예이다. 우리나라에는 평생 동안 김밥을 팔아서, 혹은 젓갈을 팔아서, 혹은

쌈바느질을 해서 모은 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또는 장학재단과 대학 발전을 위해 선뜻 내놓는 할머니들이 많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부에는 할머니 부대만 있다.”는 말이 생길 정도이다.

실제로 2007년 10월 6일자 《조선일보》에 따르면 1997년부터 2006년까지 10년 동안 《조선일보》에 보도된 1억 원 이상 개인 기부자(기업인 제외) 25명 중에서 68%인 17명이 60~80대 여성이었다. 2005년 4월 기부 관련 월간지 《콩반죽》에도 1970년 이후 35년간 언론에 보도된 할머니와 할아버지 기부자 95명(1,149억 5,600만 원) 중 87명이 할머니인 것으로 보도되었다. 할머니들 중에는 식당일, 보따리 장사, 쌈바느질 등 힘들고 거친 일로 돈을 번 분이 많았다.

기부 문화의 정착과 활성화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 일반 국민들의 기부 인식도 변해서 기부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 기부 문화 확산 운동을 펼치고 있는 ‘아름다운 재단’이 2006년 11월에 발표한 ‘2005 한국인의 기부 지수’에 따르면 조사대상(19세 이상 남녀 1,005명) 응답자의 68.6%가 ‘기부한 적이 있다’고 답하였다. 2001년 48.0%, 2003년 64.3%에 비해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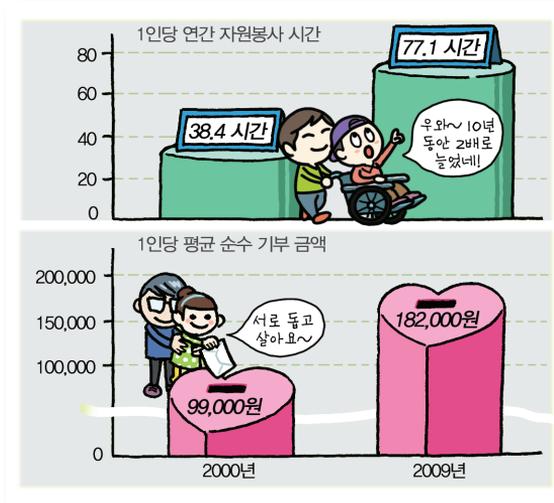
1인당 연간 기부 평균 액수도 증가했다. 2003년 5만 7,859원, 2005년 7만 305원이었는데, 2009년 ‘기빙 코리아 2010’ 조사(19세 이상 남녀 1,035명 대상)에서는 9만 9,000원으로 증가했다. 또한 ‘시간 기부’를 대표하는 자원봉사 참여율도 2007년 15.8%에서 2009년 23.9%로 증가했다. 자원봉사 참여 평균시간은 연간 61.9시간이고, 정기적 참여의 비중도 해마다 높아졌다.

아름다운 재단은 지난 10년간 개인 기부 지수 추이도 분석했는데, 순수 기부와 종교 기부, 경조사 기부에서 모두 꾸준히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기부금의 규모는 경조사 기부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종교 기부, 순수 기부 순이다. 순수 기부 금액은 2000년

9만 9,000원에서 2009년 18만 2,000원으로 2배 이상 성장했다.

유산 기부에 대해서는 기부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2007년보다 2009년에 더 줄어들었으나, 전체 유산을 기부하겠다는 경우는 2009년 36.7%로서 2007년(28.8%)에 비해 7.9%포인트 늘어났다. 실제 기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기부 의향은 더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기빙 코리아 2010’은 우리나라의 기부 및 일반 자원봉사 총규모를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는 연구도 시도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2009년의 경우 약 8조 4천억 원으로 정부예산의 약 3.1%를 차지하는 규모이다. 이 조사에서 보듯이 실제로 최근 우리나라의 기부 모금액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 자료 : 아름다운 재단, 「기빙 코리아 2010」

정부의 불우이웃돕기 모금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이양된 전체 모금액도 2000년 510억 원, 2005년 2,147억 원에서 2010년 3,395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기업의 기부는 2000년 286억 원, 2005년 1,453억 원, 2010년 2,276억 원으로 큰 폭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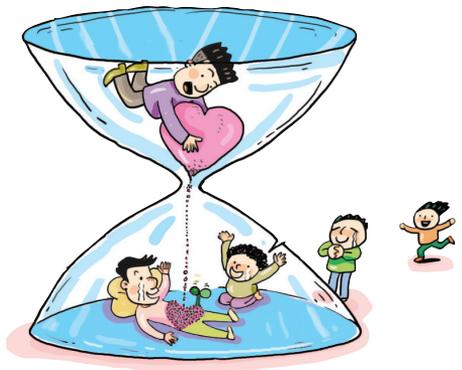
증가했고, 개인의 기부 역시 2000년 106억 원, 2005년 354억 원, 2010년 1,119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기부가 중요한 생활 문화로서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가구소득 대비 기부의 규모에서는 다른 계층에 비해 부유층의 비중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미국에서는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이 주도하는 ‘기부 서약 운동’이 사회적으로 큰 방향을 일으키면서 억만장자들의 기부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기부 문화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중산층 이상, 특히 부유층의 기부 활성화가 필요하다. 미국의 ‘영향력 있는 비영리 50인’에 폴 셰비시(Paul G. Schervish) 교수는 부(富)의 이전과 계획기부에 대한 강연을 통해 “자기 자신과 자손들을 위해 더 많은 부를 획득하고 더 높은 삶의 질을 추구하는 것이 더 이상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21세기에는 부에 대한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계획기부(Planned Giving) : 자선단체에 대한 단순하고 즉각적인 현금기부 이외의 모든 자선적 기부를 말함

어느 사회나 그늘진 곳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사회통합이 흔들리고, 그 사회는 안정을 잃게 된다. 빈부 격차가 심한 사회일수록 그 위험성이 더 크다. 자선적 기부는 빈부 격차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균열을 막아 자본주의 사회의 유지와 발전에 기여한다. 또한 기부는 국가의 개입 영역으로 설정되지 않거나 국가적 개입이 미진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사회 문제의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가진 자들의 기부와 자선을 통한 자발적 소득 이전은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자선적 기부가 이같이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도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건강한 기부



문화를 정착시키는 일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선적 기부 활동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의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기부 들어 보았나요?

- 의인 기부 : 의로운 일을 한 사람인 의인(義人)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한 기부금으로, 한 예로 일본 지하철역에서 일본인 취객을 구하고 숨진 고(故) 이수현 씨를 기리는 기금이 있다.
- 양심 기금과 보은 기금 :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 사죄하는 마음으로 기부하거나, 자신이 입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대신 갚는다는 의미의 기금이다.
- 월급 0.1% 기부와 유산 1% 기부 : 자신의 재산 중 일부를 기부하는 것으로, 부담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소액으로 한다.
- 고양이 손 기부 : 현금이 아니라 자원봉사의 형태로 하는 기부 행위이다.
- 달란트 1% 기부 :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재능이나 끼를 기부하는 것이다.
- 가계부 소비 0.1% 기부 : 주부들이 한 달간 가계부를 작성한 뒤 그 소비액의 0.1%를 기부하는 것으로, 주부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다.



검은색, 흰색,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살색의 크레파스가 나란히 놓여 있고 ‘모두 살색입니다’라고 쓴 공익 광고가 있다. 우리의 고정관념을 꼬집는 신선한 광고이다. 우리는 우리의 피부색만을 살색이라고 여기는 것만큼이나 강하게 외국인 근로자를 차별하고 있다.

러시아 출신의 한 노동자는 나이키 가방을 메고 다녀야 한국에서 대접받는다며 더듬거리는 한국말로 이렇게 말했다. “좋은 옷, 좋은 가방, 좋은 신발을 입거나 신어야 아이들도 미국 사람이라고 좋아하고, 가게에서 물건을 살 때도 친절하게 대해 주지요. 옷을 허름하게 입으면 러시아 사람이라고, 부모들이 아이를 우리 곁에 오지 못하게 하고, 가게에서도 불친절해요.” 우리는 혹시 우리보다 잘사는 서유럽이나 북미의

백인들에게는 약하고, 다른 지역의 백인이나 동남 아시아인, 흑인에 대해서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2000년에 특이한 달력이 하나 만들어졌다. 우리나라에서 산업재해로 손목이 잘리거나 화상을 입은 네팔인의 사진 12장이 실린 달력이었다. 그들은 먼 이국 땅에서 ‘코리아 드림’을 이루기 위해 비행기를 탄 외국인 노동자들이다. 우리와 피부색이 다르고 말과 문화가 다르고 우리보다 조금 가난하긴 하지만, 좋은 자연환경에서 여유롭게 살던 사람들이다. 그리고 가족을 좀 더 풍요롭게 살도록 하기 위해 낯선 땅에 와서 차별과 편견, 모욕을 당하면서 참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다. 우리 땅에 거주하던 외국인이 우리 인구의 1%였던 시절의 이야기였다.

한국 체류 외국인은 141만 8천 명

최근에 우리는 다양한 장소에서 외국인과 자주 만난다. TV에서 피부색이 다양한 외국인 미녀들의 수다를 듣는가 하면, 지하철로 이동하는 그들을 보기도 하고, 학원이나 대학에서 강의하는 그들을 보기도 한다. 또한 몇몇 산업공단에서 집단으로 일하는 외국인을 만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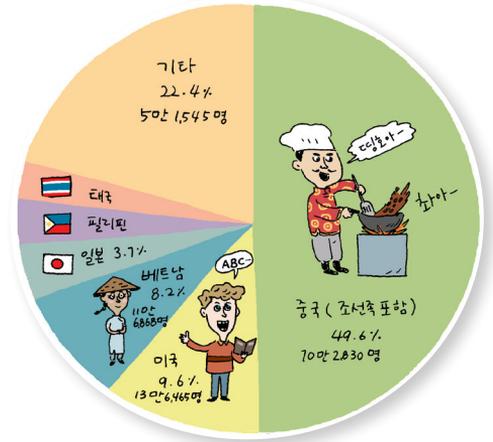
법무부는 2007년 8월 24일 우리나라의 국내 체류 외국인이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발표했다. 그로부터 4년 뒤 2011년 9월 현재 장·단기 체류 외국인 수는 141만 8,149명으로 집계되었다. 2001년 56만 7,000명 정도였는데, 그 후 10년 만에 그 수가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체류 외국인의 국적을 보면 중국이 70만 명(조선족 47만 명 포함)으로 가장 많아서 49.6%를 차지한다. 그 다음이 미국(9.6%), 베트남(8.2%), 일본(3.7%), 필리핀(3.5%), 태국(3.0%) 순이다.

2011년 9월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 중 합법 체류자는 125만 명이며, 이 중 방문 취업을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는 55만 명에 달하고, 유학생 수는 9만 3천 명이다. 그리고 불법 체류 노동자가 17만 명 정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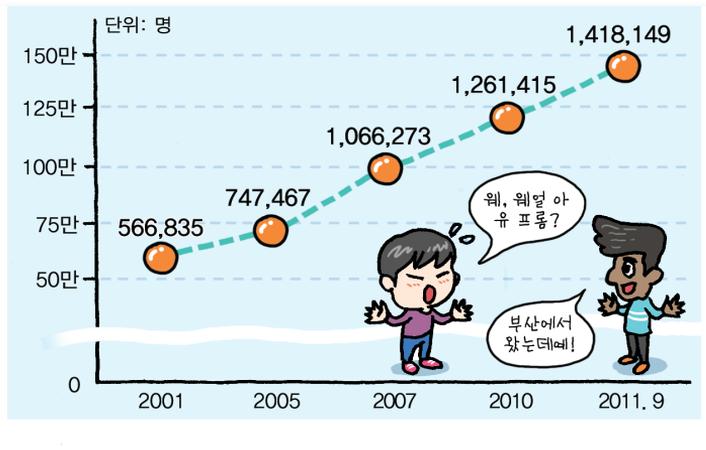


취업 목적의 합법 체류자와 이들 불법 체류자를 합한 72만 명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주 노동자’이다. 국내 체류 외국인에서 절반을 조금 상회하는 이들 이주 노동자들은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하기 꺼리는 3D의 제조업체에서 일한다. 그러니 이들이 없으면 우리나라 제조업체 중 상당수는 문을 닫아야 할 지경이다.

체류 외국인 국적별 현황



연도별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감 추이



※ 자료 : 법무부

이주 노동자들의 집중 거주지

이주 노동자들은 대부분 수도권 소재의 제조업체를 근무하고 있다. 2007년 통계에 따르면 이주 노동자들의 64.5%가 수도권에 몰려 있었다. 이렇다 보니 외국의 ‘차이나 타운’이나 ‘코리아 타운’처럼 우리나라에도 각기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 사는

작은 마을들이 생겨났다. 대표적으로 서울 구로구의 가리봉동과 대림동 일대에는 조선족 집단 거주지가 형성되었으며, 외국인 노동자 병원과 지원단체 등도 생겨났다.

외국인 집단 거주지엔 새로운 문화도 만들어지고 있다. 서울의 지하철 7호선 남구로역에서 가리봉시장 쪽의 일명 엔벤거리에서는 중국말 간판을 쉽게 볼 수 있다. 중국어로 된 중국 음식점과 노래방, 중국 술집을 보면 이곳이 중국이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이다. 또 다른 곳인 지하철 2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역 근처 광희동 일대는 몽골 사람들의 거리이다. 일명 ‘몽골 타워’ 부근에 미용실·식료품점·화장품점·운송업체·환전가게·송금업체 등에서 쉽게 몽골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종로구 혜화동의 대학로는 일요일이면 ‘작은 마닐라’로 변신한다. 필리핀 이주 노동자들은 필리핀인 신부가 주재하는 성당에서 미사를 보고, 타갈로그어로 대화하며, 필리핀산 과일과 채소·햄·담배·생선 등을 사고판다.

주요 외국인 문화마을 및 장터

지역	명칭
서초구 방배동, 반포 4동	프랑스 타운(서래마을)
구로구 구로동, 가리봉동	엔벤거리
종로구 혜화동, 중구 남대문로 5가	필리핀장터
종로구 창신동	네팔거리
동대문구 광희동	몽골타워
동대문구 동대문운동장	러시아·중앙아시아촌
용산구 한남동	클럽이탈리아
용산구 이태원	이슬람거리
용산구 동부이촌동	리틀 도쿄

이렇게 서울 시내 여러 곳에서 외국인들이 그들의 문화를 일구며 살아가고, 수많은 제조업체에서 일을 하면서 ‘코리안 드림’을 꿈꾸지만, 우리는 여전히 ‘단일민족 신화’를 외친다. 그래서 2007년 7월 유엔의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로부터 “한국이 단일민족을 강조하는 것은 한국 땅에 사는 다양한 인종 간의 이해와 관용, 우호 증진에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한국 현대 사회의 다인종적 성격을 인정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라.”며 단일민족 국가 이미지를 극복하라는 권고를 받기도 했다.

불법 체류 이주노동자의 삶

이주 노동자 중에서 더 살기 힘든 경우는 ‘미등록 노동자’ 또는 ‘불법 체류자’라고 불리는 이들이다. 1994년 6월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가 시작되기 전 10명에 7명꼴이던 불법 체류 노동자는 2004년 외국인 근로자 인권 향상을 위한 외국인 고용허가제도가 도입되면서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2010년에도 전체 외국인 근로자의 23.6%가 불법 체류라는 불안정한 상태에서 일하고 있다.

불법 체류 노동자가 늘어나면서 이들 때문에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들었다고 이들을 집중 단속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이주 노동자들의 존재는 1980년대 후반 이후 우리 사회의 급속한 발전 과정에서 파생된 문제이다. 가파른 경제 성장은 임금상승과 고임금을 낳았고, 그 결과 3D 업종을 중심으로 한 다수의 중소기업들은 극심한 인력난을 겪게 되었다. 대기업들은 해외 이전을 통해 고임금을 돌파하거나 자본집약도를 높이고 있었지만, 중소기업으로서는 비용 문제 때문에 달리 선택할 길이 없었다. 이에 정부는 발전도상국과의 경제협력으로 추진되고 있었던 인력유입 중 외국인을 일정기간 한국 중소기업에 연수토록 허용하고, 나아가 고용을 허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인력부족을 간접적으로 도와주기로 했던 것이다.

그러면 불법 체류자는 왜 이렇게 많아졌을까? 합법 이주자의 경우 2004년 고용 허가제가 실시되면서 내국인과 동일한 임금을 받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임금수준은 주변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 좋은 편이다. 그러다 보니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귀국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체류하는 이들이 많아졌다. 1997년 이후 10년 동안 입국한 외국인 산업연수생 가운데 14%가 불법 체류자로 이탈한 것으로 알려진다.

고용허가제가 도입되고 난 후 이전에 비해 임금 체불이나 비인간적인 근로현장과

같은 나쁜 조건은 많이 개선되었지만, 이는 합법적인 이주 노동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조건이다. 불법 체류자의 경우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7년 동안 30군데서 일했어요. 그 중 6~7군데에서만 돈을 받았어요. 나머지는 못 받았어요. 비자 없어서 못 싸워요. 사장님이 ‘개××야! 돈 없어! 나가! 안 줘!’ 그래요. 한국서 돈 못 받은 거 500만 원이 넘어요. 비자 없어 싸우면 경찰에 잡혀가요. 그냥 나오는 수밖에 없어요.”

더 문제인 것은 불법 체류자들의 경우 최소한의 인권도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필리핀 출신 이주 노동자 존스가 말하는 것처럼, 불의의 사고나 병이 났을 때 산재 보험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불법 체류자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또한 불법 체류자들의 경우 여권을 압수당하기도 한다. 입사하자마자 회사에서 여권을 압수하기 때문에 외출이 자유롭지 않다. 여권을 압수하는 것은 다른 회사로 옮기거나, 외부의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 외에도 불법 체류자라는 이유만으로 당하는 구타, 감금, 성희롱, 성폭력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그들은 이렇게 고통을 주는 한국 땅을 떠나지 못하는 걸까? 고향의 가족들 때문이다. 그들은 적게는 5~6명, 많게는 10명이 넘는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이 땅에서 일하는 것만으로도 가족에게 희망이에요. 제발 관심을 가지고 우리 문제를 살펴봐 주세요. 제발 보내지 말아 주세요.”라며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달라고 호소한다. ‘코리아 드림’은 그들 가족의 미래 희망인 것이다.

2007년 서울의 한 건물 화재 사건에서 한국인 11여 명의 목숨을 구하다가 연기를 많이 마신 탓에 병원에 입원했던 4명의 몽골인 이주 노동자들이 병원에서 몰래 도망치는 일이 발생했다. 잡히면 꼼짝없이 추방될 수밖에 없는 불법 체류자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은 한국인의 목숨을 구해준 ‘의인’으로 인정받아 겨우 불법 체류의 신세를 면할 수 있었다. 위험을 무릅쓰고 한국인을 구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이들은 “한국은 제2의 고향이니, 고향 사람들을 구한 것뿐인데 뭐 그리 대단한 일이겠느냐.”고 대답했다. 이제 우리가 그들의 질문에 대답할 때이다. “한국에서 힘들게 일하는 이주 노동자는 당신에게 누구입니까?”

불법 체류자 존스 씨의 생활

“구걸할 수 있는 힘만 남아 있어도 한국에 사는 게 소원입니다.” 필리핀인 존스(29세) 씨는 오늘도 경기도 수원시 한 가구공장의 숨막힐 듯 비좁은 작업장에서 너무 먼지를 온 몸에 하얗게 묻혀 가며 기계처럼 사포를 문지르고 있다. 그는 환기도 되지 않는 공간에서 유해 가스와 역겨운 냄새를 얇은 마스크 한 장으로 막아내며 하루 10시간의 고된 노동을 견딘다.

존스 씨는 1998년 봄 ‘코리안 드림’을 찾아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한국 땅을 밟아 지방의 한 재활용품 공장에 취직했다. 그러나 하루 14시간의 살인적인 노동과 온갖 욕설이 난무하는 비인간적인 대우를 참다 못해 9개월 만에 직장을 뛰쳐나왔다. 그는 “월급 60만 원 중 15만 원의 강제 적립금과 식대 및 기숙사비를 빼면 손에 쥐는 돈은 몇 만 원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한국 노동자들이 힘들다는 이유로 외면한 가구 제작 공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일하는 그는 불법 체류자이다. 하지만, 전에 비해 월급이 늘어 적은 돈이지만 고향의 부모님과 딸아이에게 부칠 수 있어 만족한다. 그가 가장 겁내는 것은 작업 중에 당할지 모르는 불의의 사고

“일단 다치거나 병에 걸리면 고생해서 모아 뒀던 돈마저 모두 날리게 되죠.”

“고국에 있는 딸이 자꾸 눈에 밟혀 힘들다.”는 그는 “한국인이 꺼리는 3D 업종도 마다하지 않고 묵묵히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꼭 강제 추방시켜야 하냐요. 한국은 제 삶의 터전이기도 합니다.”라고 말한다.

- 《한국일보》에서



불법 체류 이주 노동자에 대한 두 가지 시선

시선 1. 우리나라 노동력 보호를 위해 이들을 빨리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 불법 체류자들이 일하는 곳은 이들이 없으면 적정한 임금으로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일할 수 있는 곳이 대부분이다. 불법 체류자들의 임금과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노동자들만 손해를 보는 것이다. 또한 불법 체류자들이 많은 지역에서 이들이 저지르는 범죄도 증가한다. 이는 사회불안 요인이 된다.

시선 2. 우리나라의 노동자가 기피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이들을 합법화해야 한다. 이들이 일하는 곳은 우리나라 노동자들로는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받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들은 불법으로 체류하기 때문에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기본적인 삶을 꾸려 가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붙잡히면 바로 송환된다는 생각에 항상 불안한 상태에 있는 등 인간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경험한다.

알고 싶어요

- 외국인 고용 허가 제도 : 노동력이 부족한 산업체에서 직종과 목적을 정부에 알리고 정부의 허가를 받아 지정된 산업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중소기업은 인력난을 줄이고, 이주 노동자들을 합법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지만, 계약 조건 상태에서만 일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 외국인 노동 허가 제도 : 노동 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스스로 일할 곳을 선택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주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영세 사업장의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노동력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흡연이 폐암을 일으킬 확률은?

코미디언 이주일 씨를 추모하며





이래서 할 수가 없는 거야. 게다가 담배의 나쁜 영향이 나타나는 데는 이삼십 년이 걸리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실험을 하기도 어렵지. 만약에 한다 해도 이런 경우가 생기면 어찌겠니?

아아아~ 이제 2년만 더 지나면 20년이 되는데 실험하던 사람들이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거야?

그럼 아빠... 임상 실험을 하지 않고 어떻게 안 거예요?

과학적인 자료를 모으는 방법에는 실험뿐 아니라 관찰도 있다. 이 경우엔 관찰의 방법을 이용했지.

1955년에 영국의 힐 경과 돌 박사가 의료인들 6만여 명에게 담배와 관련된 습관을 물어보는 설문지를 보낸 적이 있다.

그래서 4만여 장의 설문지를 돌려받았는데, 그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계속해서 흡연 습관과 사망 원인과의 관련성을 분석했어.

힐 경과 돌 박사? 우헛~ 이름이 참 재미있네?

오웃~ 그랬더니요?

그 결과... 놀랍게도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들은 피우지 않는 사람들보다 폐암으로 죽는 비율이 22배나 높았지.

2...22배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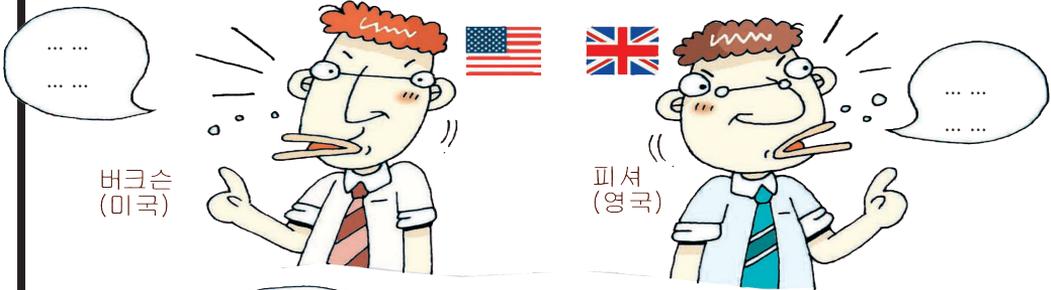
우연인지 미국에서도 해먼드와 훈이 거의 동시에 같은 연구를 했는데, 결과는 똑같았어.

동음~ 크시...





당시 영국에는 피셔라는 유명한 통계학자가 있었고, 미국에는 버크슨이라는 통계학자가 있었는데, 그들은 똑같은 비판을 했었다. 하지만 그 둘은 원래부터 사이가 아주 나빴어.







소년소녀 가정은 어떻게 살고 있나?

‘소년소녀 가정’이란 부모의 사망 혹은 이혼, 별거, 결손 등으로 인해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보호나 부양을 받을 수 없어 18세 미만의 아동이 스스로 가정생활을 꾸려 가는 책임을 지는 가정을 말한다.

이제 결혼도 하고 엄마가 된 발라드 가수 이수영은 한때 소녀 가장으로 유명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가수로 데뷔하던 1999년에 어머니마저 돌아가셔서 집안의 맏이였던 그녀가 집안의 경제를 책임져야 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수영이 늘 밝은 인상이어서 그녀가 정말 소녀 가장이 맞느냐고 묻는 팬들이 있었다. 흔히 사람들은 ‘소년소녀 가장’이라고 하면 불쌍하고 우울하게 살아갈 것이라고 지레짐작한다. 실제로 소년소녀 가장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요즘 들어 부쩍 지난해에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이 자주 나요. 그럴 때마다 저보다 동생이 더 측은하게 느껴집니다.”

소녀 가장인 미영(가명)은 세상에 의지할 곳이라고는 남동생뿐이다. 2002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부터 줄곧 남매끼리 생활하고 있다. 6살 되던 해에 세 들어 살았던 집에 불이 나 빈손으로 나온 부모는 생계가 막막해지자 남매를 보육원에 맡기고 돈을

별기 위해 서로 떨어져 지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잠시 온 가족이 모여서 살았지만 부부 싸움이 잦아지면서 어머니가 집을 나가 버렸다. 매일같이 술을 마셔대던 아버지가 1997년 외환위기* 때 실직자가 되자 생계는 더욱 어려워졌다. 아버지는 수입이 없어 지자 전셋돈을 다 빼 쓰고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남매는 월세 20만 원짜리 지하 단칸방에 살고 있다. 동사무소에서 소년소녀 가정에 지원해 주는 70만 원 정도(2003년 기준)의 돈으로 월세를 내고, 남은 돈으로는 난방비도 아껴야 하는 뼈뺀 생활을 한다.

“삶이 힘들다고 해서 아는 분들께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요. 제 친구들도 우리 힘든 것 의식하지 않고 잘 대해 주었으면 하고요.”

외환 위기 : 1997년 우리나라 기업 경영과 금융이 부실해지면서 어려움에 처했던 상황을 말한다. 이때 국제기구인 IMF로부터 필요한 외환을 빌렸고, 2001년에 모두 갚았다. 당시 외채 부족을 견디지 못해 많은 기업이 부도를 내면서 망하는 바람에 실직자들이 생겨 개인의 삶도 어려움을 겪었다.



2011년 현재 정부가 소년소녀 가정에 지원하는 돈은 식구 수에 따라 다른데, 미영이 네처럼 가족이 2명인 경우 한 달에 91만 원(74여만 원은 현금) 가량 받는다. 고등 학교를 졸업한 후 일을 하게 되면 지원금이 줄어들고, 공식적으로 소년소녀 가정으로 지정받지

못하면 지원금을 전혀 받지 못한다. 그러나 이 정도의 지원을 받는 소년소녀 가정은 그리 많지 않다.

정부 지원 최저생계비에는 의식주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계비와 주거비뿐만 아니라, 교육비와 의료비가 포함되어 있다. 대개 생계비와 주거비는 현금으로, 의료비와 교육비는 개별 가구의 특성에 따라 무상지원하고 있다.

일 안 하고 이 정도의 돈을 받으니 살 만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돈은 우리나라에서 두 사람이 먹고사는 데 필요한 최저생계비 정도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생활만이 가능할 뿐이다. 한 달에 필요한 의식주를 위한 돈과 잡비 등을 쓰는 데도 아주 빠듯하다. 그러므로 그 돈만으로는 부모를 가진 또래 친구들이 누리는 한 편의 영화 관람이나 유명 가수의 CD 한 장 사는 것, 놀이공원에 가는 것과 같은 단순해 보이는 행복도 쉽게 누리지 못한다. 그래서 소년소녀 가정이라고 하면 대체로 생활이 어려울 것이라 짐작하고, 그들의 인상이 밝지 않을 것이라 지레짐작하는 것이다.

가구 규모별 최저생계비 (2011년 기준)

(단위 :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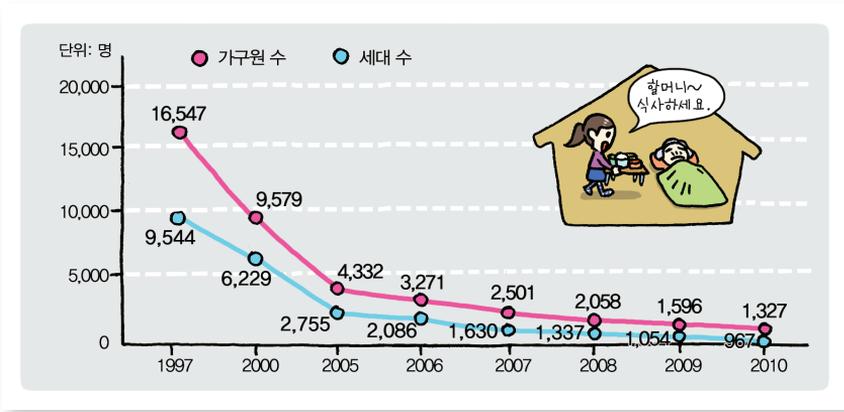
※ 자료 :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소년소녀 가정, 마음의 외로움은 줄고 있을까?

2010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소년소녀 가정은 967세대에 이르고, 미영이네처럼 남매나 형제들만 사는 소년소녀 가정의 아동은 1,327명이다.

아래의 그래프를 보면 외환 위기가 발생하였던 1997년 소년소녀 가정은 9,544세대에 달하였다. 그러나 외환을 모두 갚은 2001년에는 5,248세대로 절반 가까이 줄었고, 해마다 조금씩 줄어들어 2010년에는 외환 위기 때의 1/10 정도가 되었다.

소년소녀 가정 수의 추이



※ 자료 : 보건복지부

소년소녀 가정이 급격히 줄어 든 이유는 외환 위기 이후 경제가 서서히 회복되면서 부모들과 같이 살게 된 경우가 늘어나서일 것이다. 그러나 소년소녀 가정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그들의 외로움과 삶의 무게마저 줄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소년소녀 가정의 미성년 아동들은 또래 친구들이 자신만의 공부에 열중하거나 문화취미 생활을 하는 시간에 그야말로 집안의 가장으로서 가정 경제를 책임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소년소녀 가정은 연세가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이 살거나, 병들어 일하기 어려운 부모와 같이 사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집안의 식사 준비나 빨래, 설거지 등을 도맡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한창 뛰어 놀거나 공부를 해야 할 청소년 시기에 누려야 할 다양한 문화·체육 생활을 하기 어렵다.

“가끔씩 학원 다니기 싫다고 투정하는 친구들 보면 ‘내가 대신 가 줄까’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올 때가 있어요. 저는 수업 시간에 절대 자지 않아요. 졸릴 때는 손톱으로 허벅지를 꼬집어요. 정말 피곤하면 머리카락을 하나씩 뽑아요. 그리고 속으로 몇 번씩 나 자신과 이야기하죠. ‘이거라도 듣지 않으면 나는 배울 기회가 없다’, ‘수업시간에 잠깐 졸 권리조차 나에게서 없다’……”

혼자 사는 여고생 소녀 가장 김정은

“처음에는 많이 서러웠어요. 친구들이 부모 이야기를 할 때마다 괴로웠지요. 친구들이 ‘우리 엄마는 요리 잘 하신다’, ‘우리 아빠는 나랑 매일 팔씨름 한다’고 할 때 갑갑했어요. 그때는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지요.…… 아르바이트를 해야 살 수 있어요. 주말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신촌 한 백화점에서 주차도우미 일을 해요. 한 달에 24만 원 벌어요. 그렇게라도 벌지 않으면 저와 할머니는 말 그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병든 할머니를 모시고 사는 소년 가장 김재우

추운 겨울이 다가오면 여러 단체에서 김장을 지원해 주거나 연탄을 제공해 주는 등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곳이 늘어난다고 하지만, 이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해 줄 사람의 정이 더 소중할 것이다. 부모처럼 마음을 다해 이들의 진로를 걱정해 주는 사람들도 필요할 것이고, 일상의 사소한 투정을 받아 줄 사람들도 필요할 것이다. 좋은 영화나 음악을 같이 나눌 사람도 필요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 곁에 있는 소년소녀 가정과 좋은 인연을 맺는 사람들이 있어야 할 것이다.

소년소녀 가정은 아직도 우리 곁에 있다

부모에게 사랑받고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은 최소한의 행복이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부모의 가출, 이혼, 사별 등으로 원치 않게 소년소녀 가정이 되거나 고아로 살아가는 아이들이 많다. 또한 다른 가정에 입양되어 양부모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기도 하고, 외국으로 입양되어 낯선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아이들도 많다.

“삶이 힘들다고 해서 아는 분들께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요. 제 친구들도 우리 힘든 것 의식하지 않고 잘 대해 주었으면 하고요.”, “4,750원이면 동생과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어요.”라고 말하는 소년소녀 가정이 우리 곁에 있다.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힘겹게 살아간다는 것을 알고 불쌍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들에게 이상한 시선을 던지지는 않는가? 지금 부모님과 행복하게 살고 있다 해도 어느 한 순간 소년소녀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들의 일을 남의 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이제 우리 모두 그들을 한 가족처럼 따뜻한 가슴으로 대해 주자. 그래야 이 땅에서 소년소녀 가정이 정말로 줄어들지 않겠는가?



점점 늘어나는 반려동물

거리에 나서면 개를 데리고 산책하거나 쇼핑을 하는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동물에게 이름을 지어 주고 가족처럼 대하는 경우도 많다. 주로 자연의 야생동물 이야기만 다루던 TV에서도 반려동물(伴侶動物)을 다루는 프로그램을 자주 방영한다. 반려동물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동물은 개다.

종종 TV에서 개가 주인에게 뽀뽀하는 장면을 볼 수 있다. 같이 살다보니 애정이 깊어진 결과일까? 아니다. 개가主人的 입을 혀로 날름날름 핥는 것을 사람들은 뽀뽀라고 착각하지만, 그것은 애정 표현이 아니라 먹이를 달라는 것이다. 야생의 개는 사냥을 한 후 새끼를 위해 먹이를 입에 물어 오곤 했다. 그래서 어미 개가 돌아오면 배고픈 새끼들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은 먹이가 든 어미 입을 핥는 것이었다. 그러면 어미 개는 입에서 고기를 꺼내 새끼에게 주었다. 이런 야생의 습성이 남아 있어 주인에게 먹이를 달라고 키스를 퍼붓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가 자신에게 애정을 표현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인간의 착각일지 모른다.

어찌되었건 야생의 동물이 집안에 들어와 살게 되면서 이제 인간이 그들의 어미 노릇을 하는 셈이다. 가족 구성원이 많았던 시절에는 애완동물이라기보다 집에서 같이 살아가는 가축 정도로 생각했고, 그 종류도 ‘개’나 ‘고양이’ 정도로 단순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가족 수가 급격하게 줄고 주거 환경이 달라지면서 애완동물에게 보내는 애정의



손길이 더 깊어졌다. 그래서 이제 단순한 애완의 대상이 아니라 반려의 대상으로까지 보게 되었다.

반려동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단순히 개, 고양이, 토끼 정도에 불과했던 반려동물은 요즘 들어 아주 다양해졌다. 물고기의 경우 과거에는 금붕어나 잉어 정도 였는데, 영화 <쉬리> 이후 쉬리나 키싱구라미 등을 기르는 집이 많아졌다. 구관조, 십자매, 카나리아, 앵무새 같은 조류는 거북이나 이구아나, 뱀 같은 파충류에 비하면 아주 전통적인 반려동물이다. 최근에는 게나 가재, 거북뿐만 아니라 원숭이, 다람쥐, 고슴도치, 기니피그 등을 기르는 집도 많아졌다. 햄스터를 비롯하여 도마뱀을 기르는 것도 특이한 일이 아니고, TV 오락 프로그램에서 원숭이를 기르며 참여관찰을 하는 연예인들도 볼 수 있다.

2003년 애니메이션 채널 투니버스가 실시한 인터넷 설문조사의 결과 ‘어린이날 꼭 받고 싶은 선물’의 1위는 애완동물(21.7%)이었다. 2005년 어린이 전용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조사에서도 어린이날 선물로 애완동물을 받고 싶다는 응답이 제일 많아 38.46%를 차지했다. 최근에는 애완동물이 받고 싶은 선물의 순위에서 게임기 등 장남감에 밀려 났으나, 여전히 많은 어린이들은 반려동물을 기르고 싶어한다.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점점 더 많이 기르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다양해진 반려동물의



종류만큼이나 사람들 사이에 정이 메달라 있기 때문은 아닐까? 그래서 말을 못하는 동물에게서 위안을 받고자 하는 것은 아닐까?

개 팔자가 상팔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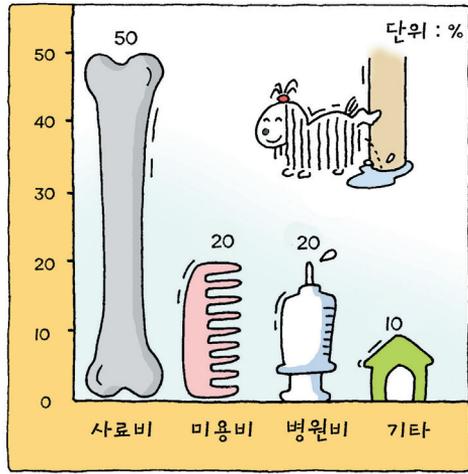
우리나라 가정의 약 20%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반려동물 관련 비용도 늘어나고, 반려동물 관련 사업도 번창하고 있다. 2006년 기준 우리나라의 반려견 수는 350만 마리 정도이다(지식채널 e). 2010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조사에 따르면, 반려견 한 마리를 기르는 데 소요되는 월평균 비용은 6만 원이다.(10만 원 미만 62.5%, 10만 원 이상 16.6%). 따라서 반려견 관련 사업의 시장 규모는 연간 2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도대체 어디에 돈이 드는 걸까? 요즘 반려견에게 사람들이 먹다 남긴 음식물을 주는 경우는 드물다. 그래서 개의 사료와 간식은 반려동물 관련 사업에서 가장 크게 성장한 분야다. 가장 잘 나가는 것이 소시지인데, 사람이 먹는 소시지보다 가격이 더 비싸 엄지손가락 굵기만한 소시지 4~5개에 1만 원 정도이다. 그러다 보니 간식을 포함한 사료의 비용이 반려견을 키우는 데 들어가는 전체 비용의 50%를 차지한다.

반려견에게 정기적으로 미용을 해 주는 것도 당연한 일이 되었다. 애견 미용사를 배출하는 학원은 2003년 전국에 100여 군데에 이를 정도로 초호황을 누렸다. 전국의 3천여 개에 이르는 동물병원, 애견센터, 애견용품 가게에서 애견 미용을 겸하고 있다. 애견 미용사 자격증을 따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애견 미용은 미래의 유망 직종으로 꼽히게 되었고, 지금은 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 지원제도에 ‘애견미용’이 포함되어 있다. 6개월간 2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이는 애견미용 교육과정 전체 비용의 80%에 해당한다.

반려견 사육 비용에는 미용 관련 비용 20%, 병원비 20%, 기타 비용이 10%를 차지한다. 그래서 이런 현상에 대해 ‘웬만한 사람보다 나은 대접을 받는다’고 비꼬아

애완견 사육 비용



말하면서 ‘개 팔자가 상팔자’라는 표현을 쓴다. 반려견 사랑이 유명한 영국에서는 하루 머무는 데 100만 원이 넘는 초호화 애견 호텔도 등장했다고 하고, 일본의 경우 ‘애완견과 함께 하는 여행’ 같은 TV 프로그램이 인기리에 방영된다. 이러니 ‘개 팔자가 상팔자’라는 말은 과장이 아니다.

그런데 이런 호화로운 대접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꼭 상팔자는 아닌 것 같다. 동물의 생활이나 습관 등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충동적으로 사서 기르다가 죽이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살아 있는 생명체인 반려동물을 기르려면 최소한 죽이지 않고 기를 수 있도록 미리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반려동물, 어떻게 대해야 할까?

주인공 네로와 버려진 개 파트라슈의 사랑을 그린 《플랜더스의 개》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인간이 동물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이야기는 실제로 많이 있다. 이렇듯 사람이 동물을 기르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해서라고 한다. 동물을



기르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도 많지만 자녀나 친구, 형제를 대하듯 사랑으로 대하는 사람도 많다. 그래서 단순히 ‘애완’의 대상을 넘어 ‘인간과 더불어 사는 동물’이라는 의미에서 반려동물이라고 부르자고 한다.

중요한 것은 애완동물이나 반려동물이나 라는 명칭이 아니다. 말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감정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동물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정을 주었다가 버려서도 안 된다.

반려동물이 늘어나고 관련 사업이 성장하는 것과 달리 반려동물과 관련한 문화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개의 경우 털이 빠지고 먹은 양만큼 배설하며 이웃에 피해를 끼칠 수 있는데도 미리 대비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정을 주며 기르던 반려동물이 늙거나 병이 들면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내다버리는 경우도 많다. 또한 재정 상태가 어려워져도 쉽게 내다버린다. 2010년 서울 시내에 버려진 반려동물은 2만 4천 마리가 넘고, 전국적으로는 10만여 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했다.

유기동물은 통상 한 달간 동물보호소에 위탁되는데, 그 중 극히 일부만이 입양되고 나머지는 모두 안락사 처리된다. 또 보호소로 보내진 유기동물들은 위생시설이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보호기간 중에 폐사하는 경우도 많다. 그나마 보호기간 중에 안락사 처리를 할 경우에는 수의사가 시술하고, 사체를 소각 처리하여 기록을 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폐사한 사체에 대해서는 달리 규정이 없다. 그러다 보니 동물보호소측이 경비를 아끼기 위해 사실상 도살하고 폐사 처리하거나, 사업장 폐기물로서 전량 소각 처리해야 할 사체를 야산에 불법 매장하거나 시중에 식용으로 밀반출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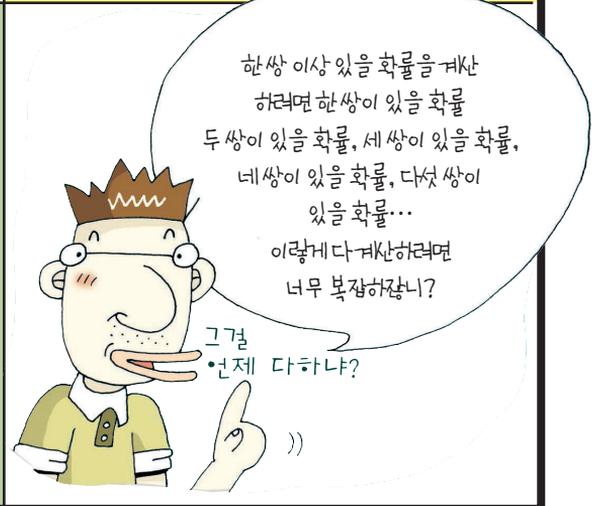


한편 늘어나는 유기동물 처리 비용이 해당 지방자치체에 큰 재정 부담을 안겨 주기도 한다. 이에 2011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유기동물보호소 운영에 필요한 각종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렇듯 유기동물 문제는 우리 사회의 새로운 골칫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반려동물에 대해 인간과 마찬가지로 생명체라는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반려동물로서 사랑하고 가족처럼 여기는 것은 좋지만, 그로 인해 인간에 대한 애정이나 관심이 줄어들었다면 그것도 잘못된 일일 것이다. 반려동물에게 베풀 애정은 베풀면서, 인간과 나누어야 할 애정은 나누면서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한반에 생일이 같은 친구가 있을 확률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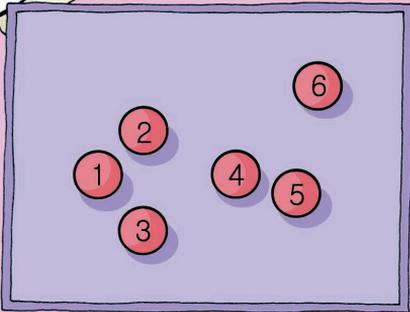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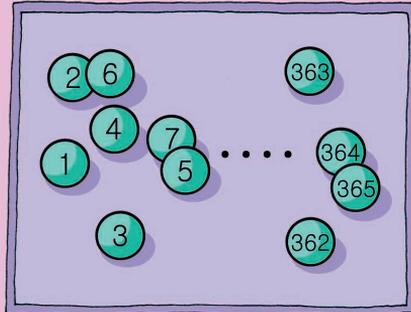
아래 그림처럼 상자 속에 각각 다른 숫자를
써넣은 공을 집어넣고 그 중에서 두 개를
뽑는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물론 첫 번째에 뽑은 공은 다시 상자에
넣어서 항상 같은 수의 공이 있어야겠지.

그럼... 1번은
365일인데...

< 주사위 모형 >



< 생일 모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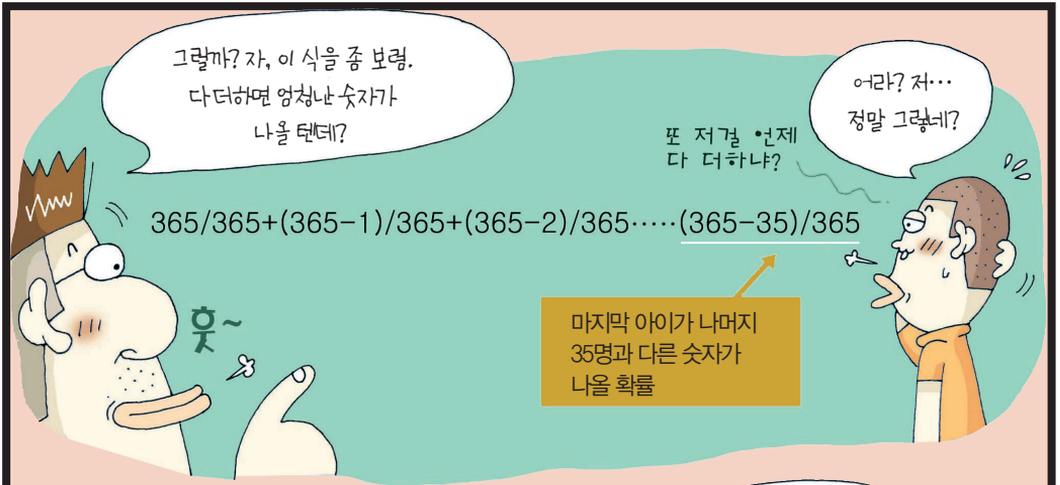
첫 번째는 아무거나 나와도 되니까 확률이
 $365/365$ 고, 두 번째는 첫 번째아이하고만
다르면 되니까 $(365-1)/365$ 이고...
세 번째아이는 첫 번째와 두 번째하고만
다르면 되니까 $(365-2)/365$ 이고...
이런 식으로 36명의 확률을 짝~ 구하면
되겠군요.

그라...
잘하는구나.

그런데 그렇게
구해가지고
어떻게 할 거니?

예? 어떻게
하긴요...
다 더하면 되죠.

당연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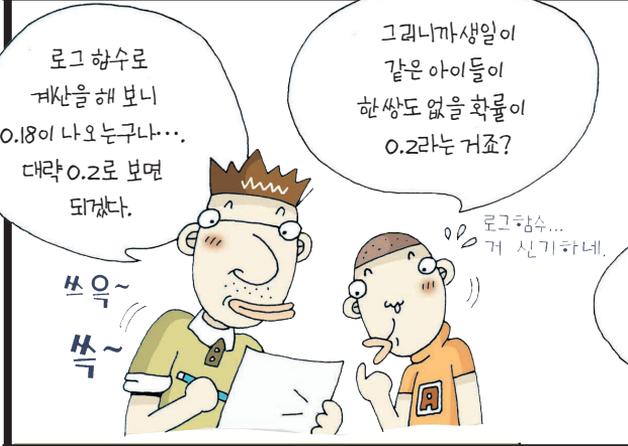
그래서 수학자들은 이렇게 복잡한 계산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었는데, 그 중의 하나가 로그 함수라는 거야.

로... 로그 함수요?
저는 처음 들어 보는데요...?



그건 나중에 배우게 될 거다. 어쨌든 지금은 어려우니까 아까와 계산을 해서 답을 알려주마...

하하~
아... 네!



로그 함수로 계산을 해 보니 0.18이 나오는데요... 대략 0.2로 보면 되겠다.

그러니까 생일이 같은 아이들이 한쌍도 없을 확률이 0.2라는 거죠?
로그 함수... 거 신기하네.



그래, 그런데 우리가 알아보려던 건 생일이 같은 애들이 한쌍 이상 있을 확률이었지?

예, 그려면... 전체인 1에서 0.2를 빼면...



0.8! 우와~ 80%나 되는 거네요?

그래, 상당히 높은 확률이구나.



그렇다면 우리 학년이 모두 열반이니까... 여덟 반에 생일이 같은 아이가 한쌍 이상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지.

하아... 생각했던 것보다 화물이 훨씬 높네요.

가만... 그럼 뭐 서른여섯 명 중에 생일이 같은 애가 있는 건 그렇게 신기한 일도 아니네요.

하하~ 그렇다고 할 수 있지.

후후~ 그리고 보니... 아버지가 대학 다닐 때도 같은 과에 학생이 서른 명이었는데 아버랑 생일이 같은 친구가 한 명 있었구나.

그 녀석... 잘 살고 있겠지?

앗! 아버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면 아버는 생일이 되면 어떻게 했어요?

공금...

그게 문제더라구... 우리 둘은 상대방 생일에 가 보질 못했잖니. 친구들도 분의 아니게 반씩 나누어졌고.

해해~ 봉구랑 저는 번갈아가면서 생일잔치 하기로 오늘 함이봤어요.

그런데 올해는 우리 집에서 하기로 했거든요? 으히히히~

우... 정말 며칠 안 남았네? 이거 또 아버지감 얹어지게 생겼구만...

아버님~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 파란 물, 다 어디로 갔을까?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파란 물 눈에 보이네.
 꿈엔들 잊으리오, 그 잔잔한 고향 바다.
 지금도 그 물새들 날으리 가고파라 가고파.

- 이은상의 <가고파> 중에서

<가고파>는 노산 이은상 선생이 1932년에 고향인 경남 마산을 그리며 지은 시이다. 파랗고 잔잔한 바다, 그 위를 나는 물새, 그리고 같이 뛰놀던 어릴 적 동무들에 대한 애뜻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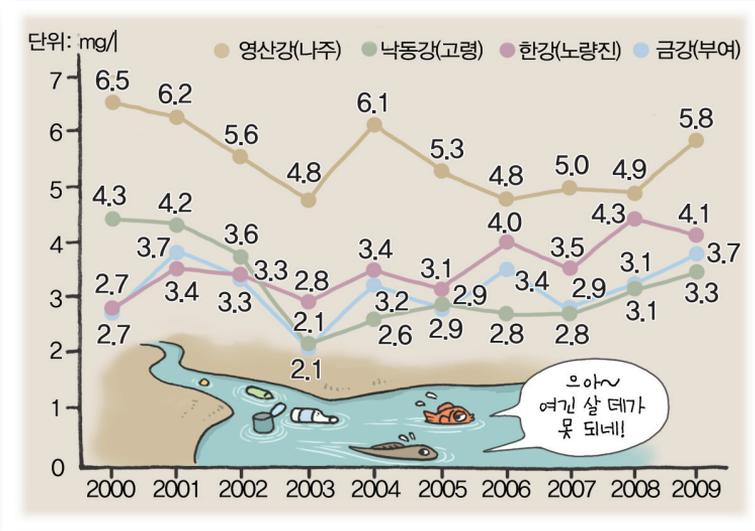
이은상 선생이 어릴 적에 바라본 고향 마산의 앞바다는 맑고 파란 물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고동색 빛의 탁한 물이다. 마산 앞바다에는 돌섬(월영도) 해양유원지라는 곳이 있다. 그곳을 관광하기 위해 배를 타고 가면서 바닷물을 자세히 보면 바다 오염이 얼마나 심각한지 실감하게 된다.

바닷물만이 아니라 강물 오염도 심각하다. 정부는 1996년부터 2005년까지 10년 동안 8조 원을 투입하여 '물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하면서 한강과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 강 상류의 수질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1996년 75.83점에서 2005년 80.09점으로 수질은 다소 좋아졌지만 상류의



4대강 하류의 수질오염도(BOD) 추이



※ 자료 : 2010 환경통계연감

※ 주 :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는 물 속에 있는 유기물의 오염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물 속 미생물이 유기 오염물을 분해하는 데 필요한 산소량을 말한다. 높을수록 오염도가 심한 물이다.

수질은 ‘청정수’ 평점인 90점에 미치지 못하였다. 하류의 경우 음용수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직 상당한 처리비용이 필요한 상태에 머물렀다. 이렇게 10년간 ‘물관리 종합대책’ 시행 후에도 상류의 수질이 뚜렷이 개선되지 못한 것은 지역 개발과 빗물 오염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이다.

대도시를 관통하는 4대 강 하류, 즉 노량진 부근의 한강, 고령 부근의 낙동강, 부여 부근의 금강, 나주 부근 영산강의 수질 오염 상태는 2008~2009년에 좀 더 나빠졌다. 특히 영산강의 경우 여전히 오염이 심각한 수준이다.

사실 전 지구적인 기후 변화로 인해 생태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으므로 물 부족 문제는 남의 나라의 문제가 아니다. 국립기상연구소의 기후 변화 시뮬레이션 모델을 보면 2100년 지구의 기온은 최고 4.8도 상승하게 된다. 그러면 서남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건조지대는 지금보다 더 심각한 물 부족에 시달릴 것으로 나타난다.

주요 연안의 수질 오염도(COD) 추이



※ 자료 : 국립수산과학원, 해양환경 관리공단

※ 주 : COD(화학적 산소요구량)는 물 속 오염물질을 산화시키는 데 필요한 산소의 양으로서, 오염이 심할수록 값이 높다.

한편 부자와 빈자 사이의 불평등한 물 분배가 사회적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부족한 물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국가간 분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견되기도 한다. 따라서 수질 관리와 함께 물 부족에 대비하는 일은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다.

과거에 비해 바다와 강만 오염된 것이 아니라 대기도 많이 오염되었다. 일제시기 시인 윤동주는 <별을 헤는 밤>이라는 시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했다.

별 하나에 추억과
별 하나에 사랑과
별 하나에 쓸쓸함과
별 하나에 동경과



별 하나에 시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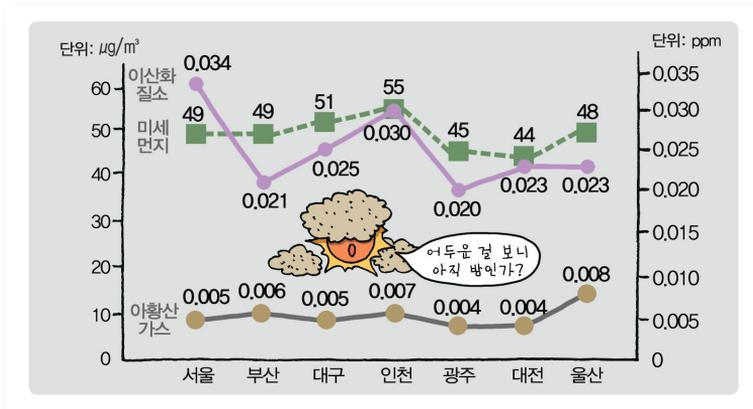
별 하나에 어머니, 어머니 ...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 도시의 밤하늘에서는 더 이상 별을 셀 수가 없다. 대기오염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경유차에서 포말처럼 부서져 나오는 미세먼지는 도심의 시정거리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인체 내에 쌓일 경우 천식과 아토피 등 각종 환경성 질환을 유발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미세먼지 기준치인 $40\mu\text{g}/\text{m}^3$ 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주요 도시와 수도권의 미세먼지 농도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 수 있다.

2010년 세계은행(The World bank)의 '세계 발달 지수'에 발표된 서울의 공기오염 정도를 보면, 미세먼지 농도의 경우 2004년 $58\mu\text{g}/\text{m}^3$ 에서 2010년 $37\mu\text{g}/\text{m}^3$ 로 크게 낮아졌다. 그러나 뉴욕 $20\mu\text{g}/\text{m}^3$, 런던 $19\mu\text{g}/\text{m}^3$, 파리 $11\mu\text{g}/\text{m}^3$ 에 비하면 여전히 2배 수준이다. 이산화질소(NH_2) 수치인 경우에는 $60\mu\text{g}/\text{m}^3$ 으로, 파리 $57\mu\text{g}/\text{m}^3$ 와 비슷한 수준이다.

주요 7대 도시의 대기 오염도(2010)



※자료 : 환경부

환경오염의 근본적인 원인은?

공기와 물은 왜 이렇게 오염될까? 지난 50년 동안 우리 경제는 급속히 성장했다. 그 과정에서 공장의 매연과 폐수가 많이 배출되었고, 자동차의 증가로 인해 자동차 배기가스도 많이 배출되었다. 그 결과 공기와 물이 크게 오염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산업생산의 성장과 자동차의 증가가 환경오염의 근본 원인은 아니다. 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18세기 영국에는 각 지역마다 사용료를 내지 않고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유지(common land)가 있었다. 공유지는 공짜로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소나 양을 기르는 사람들은 자기 땅보다 공유지에 가축을 풀어 풀을 뜯어 먹게 하였다. 처음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사람들이 너도나도 공유지로 소와 양을 몰고 오자 공유지는 곧 황무지가 되어 버렸다.

공유지와 달리 개인이 소유하는 목초지에는 풀이 무성했다. 목초지가 황폐해지면 가축을 기를 수 없기 때문에 잘 관리했기 때문이다. 자기 소유의 목초지는 황폐해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사람들이 공유 목초지에 대해서는 그런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자기 것이 아니므로 아낄 동기(경제학에서는 ‘유인 incentive 동기’라고 한다)가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유화되지 않은 공유 자원은 황폐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부른다.

비단 ‘공유 목초지’뿐만이 아니다. 소유권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은 자원은 무엇이든 금방 황폐해지고 만다. 주인이 있는 소나 돼지, 닭 등의 가축은 그렇게 잡아먹는데도 여전히 그 수가 많지만, 바다의 고래는 씨가 마른다고 할 정도로 남획*된 것도 같은 이유이다.



바다와 강과 공기가 오염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소유권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은 공유 자원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바다와 강과 공기가 자기 것이 아니라 공유 자원이기 때문에 아끼고 보호하려고 하지 않는다. 환경오염은 ‘공유지의 비극’의 전형적인 예에 속한다.

남획 : 짐승이나 물고기 따위를 마구 잡음

공유지의 비극을 막는 방법은?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한 방안의 하나는 사람들이 공유 자원을 자기 것처럼 아끼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공유 목초지를 자기 것처럼 아끼면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만, 자기만 이익을 많이 얻으려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면 공유 목초지가 황폐해져서 모두에게 손해가 된다.

바다와 강과 공기도 마찬가지이다. 모든 사람이 자가용으로 출퇴근을 하면 공기 오염도 심해지고 도로도 복잡해져 모두에게 손해가 되지만,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면 오염도 줄어들고 교통 소통도 원활해져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따라서 우리는 공유 자원을 자기 것처럼 아끼고 보호해야 한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공유 자원을 자기 것처럼 아끼고 보호하려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그래서 환경오염이 더욱 심해진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은가. 천당과 지옥에 가보니 천당이나 지옥이나 먹는 음식이 같았다. 그런데 지옥의 사람들은 모두 말랐는데, 천당 사람들은 하나같이 살도 찌고 풍족해 보였다. 그 이유를 알고 보니 음식을 숟가락으로만 먹게 되어 있었는데, 숟가락이 굉장히 크고 길어서 혼자서는 음식을 떠먹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지옥 사람들은 음식을 먹지 못해 모두 굶주리고 있었지만, 천당 사람들은 숟가락으로 다른 사람에게 서로 음식을 떠먹여 주고 있었기 때문에 모두 잘 먹고 있었던 것이다. 지옥 사람들이 굶주린 것은 음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 입에만 음식을 넣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환경오염, 즉 ‘공유지의 비극’은 이런 지옥의 상황과 비슷하다. 천당과 지옥 이야기가 주는 교훈처럼 우리는 자기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점점 낮아지는 노인들의 위치

“옛날 내가 부모를 모시고 살 때는 집안일을 결정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권한이 부모님께 있었지. 그런데 지금은 그게 모두 자식들에게 넘어가 있으니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재산 상속법이 바뀌었잖아. 이제 재산을 자식 놈들에게 똑같이 나눠 주게 되니까 맏이는 부모 부양 책임이 자기에게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고, 둘째나 셋째는 여전히 장남이 모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서로 미루는 것 같아.”

“손주들? 우리를 얼마나 무시하는데. 냄새난다고 싫어하고 TV도 자기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렇다고 그 아이들이 하는 전자오락을 같이 할 수도 없고, 공부를 가르쳐 줄 수도 없고.....”

“50 고개에 있는 우리들은 직장에서는 고물 취급받고, 경로당에서는 애 취급 받는 중늬은이란 말이야. 애비 노릇 한답시고 퇴직금이고 빚이고 끌어모아 등록금, 혼수 비용 들이고 나면 부부는 쪽박 차기 딱 좋지. 그런데 요즘 자식한테 얹혀살려는 부모가 있겠어? 결국 사회가 노인을 주변으로 내쫓는 거야.”



서울 탑골공원이나 종묘 앞, 남산, 을지로 지하도 입구나 관악산에 가면 쉽게 만날 수 있는 노인들이 하는 이야기이다. 노인들 스스로 자신들의 위치와 위엄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느낀다. 노인 인구는 빠르게 늘고 있고, 앞으로 이러한 상황은 더 심각해질 것이다. 어떤 점에서 그런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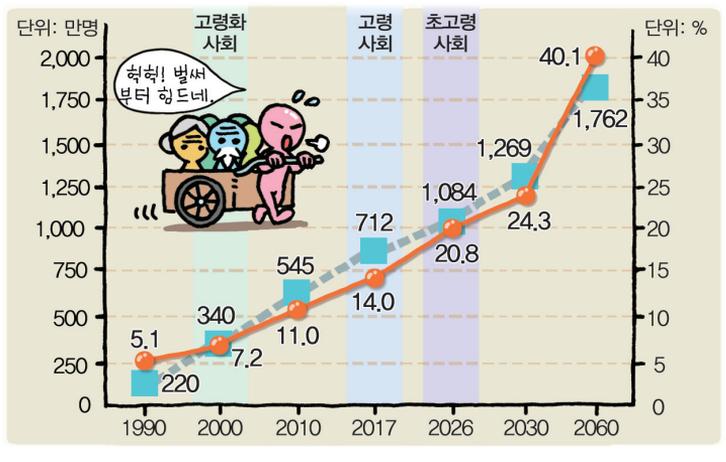
역사상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인구학에서는 65세 이상 인구(노령 인구라고 부른다) 구성비에 따라 고령화 사회(7% 이상) - 고령 사회(14% 이상) - 초고령 사회 (20% 이상)의 3단계로 나눈다.

우리 사회는 지난 20년 동안 전체 인구에서 노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꾸준히 높아졌다. 2000년에 이미 노령 인구가 34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7.2%를 넘으면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다. 그로부터 10년 후인 2010년 현재 노령 인구는 545만 명으로 11.0%에 도달했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가구주인 고령 가구의 비율도 2000년 11.9%에 비해 2010년 17.4%로서 5.5%포인트 증가했다.



우리나라 노령 인구의 추이



※ 자료 : 통계청

우리나라의 노령 인구는 세계적으로 볼 때 그리 많은 편은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부터다. 우리의 고령화 추세는 프랑스,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그 속도가 매우 빠르다.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넘어가는 데 걸린 시간이 프랑스는 115년, 독일과 미국은 각각 40년, 70년이 걸렸다. 우리는 얼마나 걸릴 것인가?

나라별 고령화 속도 비교

	7% → 14%	14% → 20%
일본	24년	12년
프랑스	115년	39년
독일	40년	37년
이탈리아	61년	18년
미국	73년	21년
한국	17년	9년

※ 자료 : 통계청

지금까지의 추세대로 간다면 2017년에 14.0%를 넘어 고령 사회가 되고, 2026년에 20.8%를 넘어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고령 사회가 되는 데 17년밖에 걸리지 않는 것이다. 지금까지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된 나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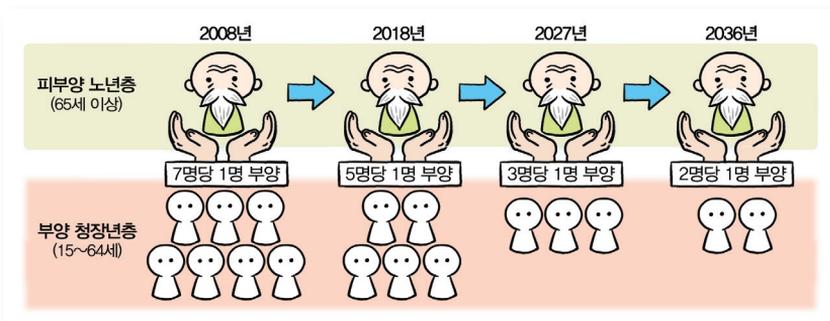
일본으로 24년이 걸렸는데, 이보다 무려 7년이 빠르다. 물론 이것은 예상 수치이므로 출산율이나 평균 수명에 따라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대충 20년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전망은 거의 확실하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다. 그로 인해 사회는 엄청난 충격을 받을 것이다.

고령 사회의 문제

전체 인구 중 노령 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젊은 연령층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또한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다. 이는 사회에서 일할 젊은 사람들이 줄어들어 사회적 생산 활동에 큰 지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2010년 15~64세의 생산가능 인구 6.6명이 노인 1명이 부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9.9명에 비해 3명 이상 줄어들었다. 이런 추세라면 2020년에 4.5명, 2030년에 2.6명, 2060년에 1.2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하니, 여간 큰일이 아니다. 이처럼 고령화는 사회의 경제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현상이다.

고령화 문제에는 노년층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자금 부족의 문제도 있다. 노령 연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젊었을 때 돈을 내고 일정 나이가 되면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는

노인층 부양 부담률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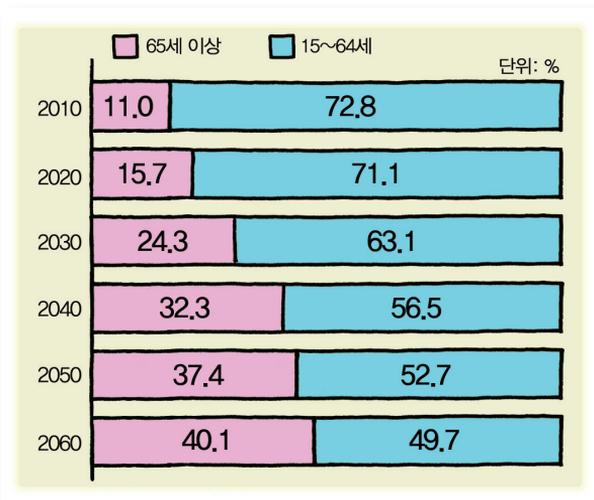
※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 2010년~2060년

제도이다. 이 제도가 잘 유지되려면 돈을 내는 젊은 층이 돈을 받는 노령 인구보다 더 많아야 한다. 젊은 층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부담액은 줄어든다. 만약 노년층이 늘어나 연금을 받을 사람은 늘었는데 그 자원을 제공하는 젊은 층은 줄어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연금을 지급하지 못해 노년층의 소득이 감소하거나 젊은 층의 경제적 부담이 너무 커질 것이다.

또한 고령화는 노령 인구에 대한 복지 비용이 증가하여 사회적으로도 큰 부담이 된다. 예를 들어 의료비 증가와 같은 문제이다. ‘2010 국민의료비 추계’에 따르면 건강보험 지출 중 65세 이상 노인 의료비는 13조 7,847억 원으로 전체 의료비의 31.6%에 달한다. 2007년 28.2%(9조 813억 원)에 비해 3.4%포인트 증가했다. 전체 인구의 11%에 속하는 노령 인구의 의료비가 전체 의료비의 1/3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다.

노령층의 의료비가 전체 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도 이렇게 큰데, 앞으로 계속 부담이 커진다면 문제가 심각하다. 왜냐하면 그 비용 중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의료보험료를 결국 젊은 층이 고스란히 떠맡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회가

연령대별 인구 구성비 추이



※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 2010년~2060년

고령화되면 젊은이들의 세금, 연금,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나 노년 세대에 대한 젊은 세대의 불만이 커지면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노인들이 겪는 문제

노인들이 겪는 문제는 크게 역할상실, 가난, 고독, 건강의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역할상실에 대해 생각해 보자. 지금 평균 수명은 계속 올라가는데 정년은 지난 50년 동안 거의 그대로다. 아니, 명예 퇴직이니 구조조정이니 해서 실제로는 더 단축되는 추세다. 결국 일터가 없는 상태에서 보내는 여생이 그만큼 길어진 셈이다. 그런데 산업화와 정보화가 진행되면서 노인들의 역할은 갈수록 줄어든다. 사람들은 점점 더 빨리 노인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산업화 이전의 사회, 그 중에서도 아메리카 인디언 부족 노인들의 삶을 보여주는 다음의 글을 보면 뚜렷이 대비가 될 것이다.

“노인들은 쇠약해지고 눈이 어두워질 때까지도 가축을 돌본다. 그러다 더 이상 가축을 몰고 다닐 수 없게 되면 들이나 과수원에서 일을 하고 종종 들판에서 휴식을 취한다. 그들은 약용 식물이나 뿌리와 열매를 모으려고 조금씩 여행을 하기도 한다. 그러다가 들에도 더 이상 나갈 수 없을 정도로 늙으면 집이나 오두막에 앉아 실을 뽑고 천을 짜서 담요를 만들거나 나무에 조각을 하고 신발을 만들기도 한다. 어떤 사람은 눈이 멀거나 걸을 수 없을 때까지 실을 뽑는다. 늙은 여자들은 아주 쇠약해질 때까지 정원을 가꾸고 다리를 움직일 수 있는 한 나무와 물을 운반한다. 그들은 멧돌을 준비하고, 토끼풀로 바구니와 장식품을 만들거나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며, 곡식을 빵고 옷을 꿰매며 아이들을 돌본다. 전혀 할 일이 없을 때는 햇볕 아래 앉아 열매를 말린다.”

역할상실은 두번째 문제인 가난, 즉 경제적인 문제로 직결된다. 한국에서는 그나마

모아놓은 돈이나 퇴직금을 자녀들의 결혼비용으로 써 버리기 일쑤다. 노후를 위해 따로 돈을 모으면서 대비하는 사람들보다는 아무런 준비 없이 노후를 맞는 사람들이 더 많은 형편이다.

2009년의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중 노후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응답이 61.0%로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2011년의 조사에서는 55~79세 인구 가운데 58.5%가 '향후 취업을 원한다'고 답하였다. 취업을 원하는 이유는 '생활비 보탬'(54.9%)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일하는 즐거움 때문'(35.5%) 순으로 나타난다. 생계 목적의 취업이 긴요한 것이다.

물론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고 해서 행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세계에서 노인 복지가 가장 잘 되어 있다는 북유럽 국가의 양로원에서도 자살하는 노인들이 종종 있다. 경제적으로 국가가 모든 것을 보장해 주는데도 생을 포기하는 것이다. 유서에는 '오늘도 내게 아무도 말을 걸어오지 않았다.'는 문구가 들어 있었다고 한다. 사람은 외로움 때문에 죽을 수도 있으며, 노인들은 외로움의 고통을 더 크고 깊게 느끼는 것이다.

그래서 노인들에게는 우울증 같은 마음의 병이 생기고, 그것은 신체적 건강의 문제로 직결된다. 게다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지 못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된다. 이러한 의료비용을 국가가 사회복지정책으로 감당해 주어야 하는데, 이것 또한 고령 사회가 떠안아야 하는 큰 짐이다.

한국의 현실은 어떨까? 노인들은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2009년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령자는 하루에 평균 6시간 46분을 교제 및 여가에 할애하고 있어, 미국(8시간 19분), 영국(8시간 47분), 네덜란드(7시간 17분) 보다 적은 수준이다. 전체 여가시간(6시간 46분) 중 주로 TV보기(3시간 27분), 교제활동(57분), 스포츠 및 집밖 레저(47분), 종교활동(22분), 신문·잡지·책 읽기(10분) 등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사회를 준비하자

오래 사는 것은 분명 축복이다. 그러나 단지 오래 산다고 해서 행복하지는 않다. 일정한 소득과 건강을 유지한 상태에서 장수해야 행복할 수 있다. 노후가 준비된 개인에게는 고령화가 별 문제 없이 받아들여지겠지만, 가족의 돌봄 없이 경제적 어려움과 질병 속에서 나이만 많아지는 것은 어찌 보면 재앙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파장도 매우 크다.

물론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젊었을 때는 바빠서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면서 여유 있게 산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생로병사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나이가 들면 건강이 점점 더 나빠지게 마련이다. 2010년의 한 조사에서 6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본인의 주관적인 건강상태를 질문한 결과, '좋다'고 응답한 사람은 20.4%에 불과한 반면, 49.4%는 '나쁘다'고 답하였다.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운동과 규칙적인 생활태도, 스트레스 조절 등을 통해 스스로 육체와 정신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질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여유로운 노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그런데 고령화 속도에 비해 노후 준비는 극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다. 물론 고령 사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전체 사회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여 새로운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노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책, 사회복지제도의 확충 등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엄지공주와 단군 할아버지, 그리고 다문화

3



엄지공주를 다시 생각하며

엄지공주는 꽃의 왕자님과 행복한 결혼을 하기까지 세 번의 헤어짐을 겪게 된다. 강제로 납치된 두꺼비로부터의 탈출이 첫째요, 날개도 없고 다리도 둘밖에 없다는 이웃들의 수군거림을 못이긴 풍덩이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이 둘째이며, 들쥐 아줌마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으려고 약속했다가 결혼식을 앞두고 파혼을 선언하게 되는 두더지와와의 이별이 셋째다. 이러한 세 번의 아픔이 있었기에 공주와 왕자의 결혼이 훨씬 큰 감동으로 와 닿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여기서 잠깐 눈을 돌려 엄지공주에게 파혼당한 두더지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보자. 두더지는 들쥐아줌마의 좋은 이웃으로 묘사되어 있다. 평소처럼 들쥐아줌마 댁에 인사차 방문을 했다가 그 집에서 엄지공주를 본 후, 그 빼어난 자태와 부드러운 성품에 반해 상사병에 빠졌으리라. 그러나 엄지공주의 미모와 견주어 볼 때 땅속에 살고 있는 자신의 존재가 두더지는 불안했을 것이다. 그래서 감히 용기를 내어 엄지공주에게 사랑한다고 털어놓지 못하고, 들쥐아줌마에게 넌지시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였다.

그런데 웬걸? 희소식이 들려온다. 엄지공주가 자신에게 시집을 오겠다고 했단다. 물론 들쥐아줌마의 강요가 있었으나, 그런 것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 “얼씨구. 두근거리리는 마음으로 결혼을 준비하자. 예쁜 색시를 맞으면 정말로 잘해 주어야지. 아이는 몇 명을 낳지? 누가 봐도 부러울 멋들어진 결혼식을 해야지. 정말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야 말

테다.” 두터지는 행복한 미래의 꿈에 한껏 부풀었다. 하지만 곧 엄지공주가 아반도주를 했다는 소식을 듣고 온 하늘이 무너져 내렸다.

여기서 엄지공주 이야기를 꺼낸 것은, 이야기 속에서와 같이 다양한 인물들의 만남과 헤어짐이 현재 우리 사회에서도 빈번하고도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다문화'라는 이름으로.

국적, 언어, 피부색이 서로 다른 사람들의 만남

다문화란 '서로 다른 삶의 양식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공동의 생활을 영위하는 것' 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가정을 다문화 가정이라고 부른다. 좀 더 일상적인 용어로 풀이하면 '서로 다른 문화를 지닌 민족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전에는 이런 경우를 흔히 국제결혼이라 불렀고, 외국인과 사이에 태어난 아이를 혼혈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전 지구적으로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과거의 국가간·지역간·민족간의 경계가 허물어져서 이제 국적도 피부색도 언어도 서로



다른 사람들이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가 되었다. 바로 다문화 사회이다. 이에 따라 국제결혼이라 부르던 데서 벗어나 '다문화 혼인'이라 부르게 되었다.

2002년 무렵 우리나라 농촌의 여러 곳에는 “베트남 신부와 결혼하세요”라는 결혼 광고 플래카드가 내걸렸던 적이 있다. 이때부터 농촌 총각들이 베트남 여성과 결혼하는 사례도 많아졌다. 서로 말이 통하지 않고, 외모도 다르고, 문화도 전혀 다른 베트남 여성과 결혼하러니, 무슨 똥판지 같은 소리인가? 처음에는 누구나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농촌 총각들이 베트남 여성과 결혼해야 할 정도로 농촌에서 젊은 여성을 찾아보기 힘든 것이 우리 현실이기도 하다.

농사일은 고되고 힘들다. 그러면서도 소득은 매우 낮다. 그뿐 아니라 농촌은 도시에 비해 교육 여건이 열악하고 문화 시설도 빈약하다. 그러니 여성들이 농촌 총각과 혼인하기를 꺼리는 것은 당연한 측면이 있다.

물론 이것만이 농촌 총각들이 우리나라 여성과 결혼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은 아니다. 농촌 총각들의 결혼난은 남성에 비해 여성 수가 부족한 데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다. 이는 관련 통계를 보면 금방 드러난다. 2000년 결혼 적령 인구의 26~30세 남자와 24~28세 여자 인구의 성비는 110.5명이었다. 이는 남자 110.5명 중 10.5명이 짝을 구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말이 된다. 최근에 상황이 좀 나아지기는 했지만 2006년만 해도 103.5명이었다. 그러다 보니 생활 여건이 좋지 않은 농촌 총각들이 가장 먼저 혼인에 타격을 받은 것이다.

이런 현실에 착안하여 결혼정보 회사들이 농촌 총각들과 베트남 처녀들의 중매에 나서 돈벌이 사업으로 연결하였고, 광고 플래카드를 설치한 것이다. 그에 따라 농촌 총각들과 외국인 신부의 혼인이 늘어나 2006년 농어촌 남성의 41%가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였다.

다문화 혼인이 늘어나는 또 다른 원인으로는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으로 외국인인 증가한 것도 들 수 있다. 2000년 유엔이 작성한 《대체이주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제 활동 인구(15~64세)를 최대 수준(3,660만 명)으로 유지하려면 2020~2050년 사이에 매년 21만 3천 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하다. 따라서 장차 그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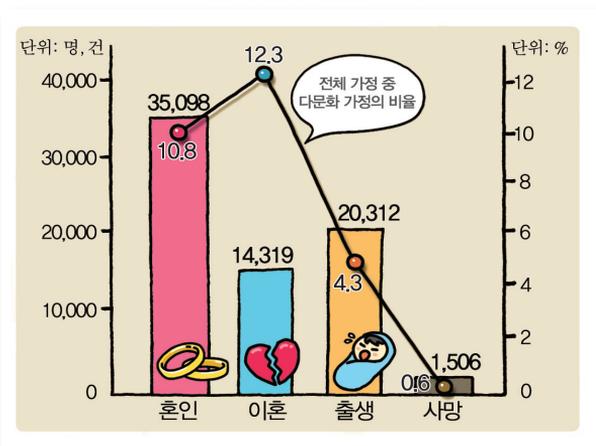
국내에 정착해서 한국인과 결혼할 경우 장기적으로 다문화 가정은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는 머지않아 우리나라가 단일민족의 신화를 넘어 다인종·다민족 국가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늘어나는 다문화 가정

이제 우리의 이웃이 된 '다문화 가정'의 현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연세대 구성열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2006년 3만 5천여 명인 혼혈 인구가 2020년에는 167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0세 이하 인구 5명 중 1명(21%)이 혼혈인이고, 신생아 3명 중 1명(32%)이 혼혈인이라는 것이다. 단일민족 국가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혼혈 인구가 이렇게 많아졌고,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것이다.



다문화 인구 현황(2010)



※ 자료: 통계청

혼혈 인구의 증가는 기본적으로 다문화 혼인이 증가한 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 다문화 혼인은 1990년대 초반 우리나라 전체 혼인 건수의 1%에 불과하였으나, 1995년 이후 연간 1만 건 이상 증가하여 2000년 3.7%로 늘어났고, 이후 계속 크게 증가하여 2006년 11.9%(3만 9,690건), 2010년 10.8%(3만 5,098건)에 달하게 되었다. 매년 한국에서 행해지는 전체 혼인 건수의 10% 이상이 다문화 혼인으로, 새로 가정을 꾸린 10쌍 중 적어도 한 쌍 이상이 다문화 가정이 되고 있는 것이다. 2010년에는 다문화 가정에서 2만 명 넘는 아이들이 태어났다(전체 유아 출생률의 4.3%).

그러나 한편 다문화 혼인 중에서 1만 4,319쌍이 이혼하여 파경을 맞았다. 우리나라 전체 이혼율의 12.3%이다. 이는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만나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사는 것이 매우 힘들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구태여 해석해 보자면 앞의 엄지공주 이야기에 등장하는 두꺼비는 물 속을 넘나들고, 풍뎅이는 하늘을 날아다니고, 두터지는 땅 속에 사는 서로 다른 존재들이다. 생김새는 물론 삶의 양식이 엄지공주와는 달라도 너무 다른 존재들이 아니던가. 이런 상황에서 엄지공주는 선불리 결혼을 상상할 수 없었을 것이다.

멀리 한국 땅에 시집을 온 수많은 외국인 신부들, 즉 ‘엄지공주’들이 처음 만난 신랑들도 그들과 다른 존재들이다. 이들은 외모나 피부색, 단순한 생활양식뿐 아니라 민족문화의 차원을 넘어 세대간 삶의 양식까지도 모두 전혀 다른 삶을 겪어야 하는 것이다. 엄지공주가 두꺼비나 풍뎅이뿐 아니라 꽃의 왕자님과도 공통된 삶의 양식을 누리기까지에는 큰 다짐과 많은 노력이 필요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의 삶은 동화 속 세계와 달리 그리 녹록치 않다. 다문화 가정의 높은 이혼율은 그런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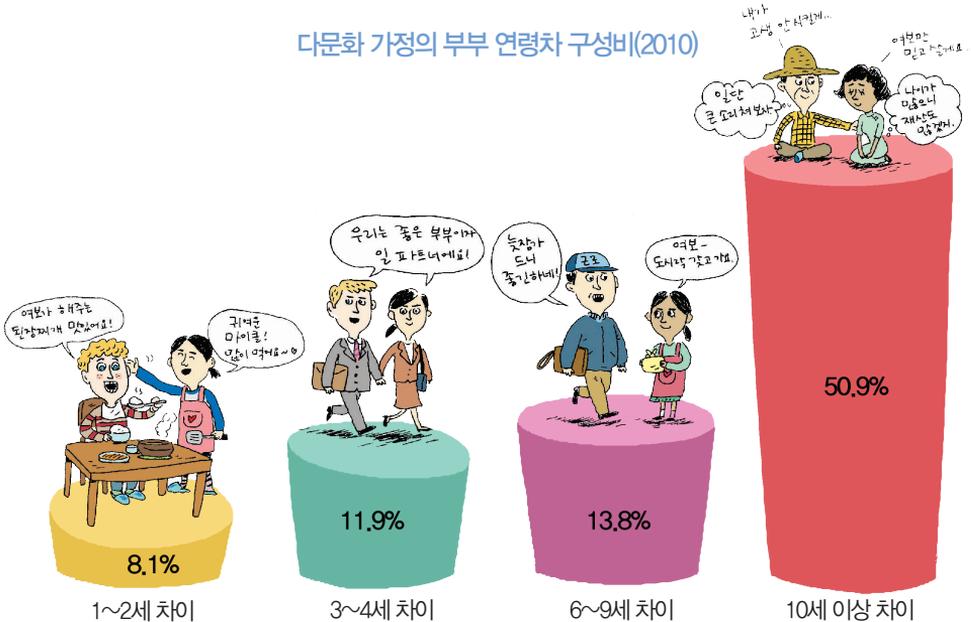
다문화 가정의 이혼률이 높은 것은 사회적 시선이나 문화적 차이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 하나로 부부간의 나이 차이를 꼽을 수 있다. 유독 나이 차이를 예로 드는 이유는 다문화 가정의 독특한 현상 때문이다.

우리나라 신랑신부의 나이는 대략 남성의 경우 30세 전후, 그리고 여성은 20세 중후

반으로, 이때가 흔히 말하는 결혼 적령기이다. 그런데 다문화 가정의 경우 남성은 대략 30대 후반~40대 중후반이 가장 많고, 남녀의 나이 차이가 10살 이상 되는 경우가 50%를 넘는다. 출생한국인 간 혼인의 경우, 남성이 10살 이상 연상인 경우는 3.2%에 불과하다. 하지만 다문화 혼인 중 출생한국인 남성이 귀화한국인 또는 외국인 여성보다 10살 이상 많은 경우가 62.6%이고, 귀화 한국인 또는 외국인 여성이 남성보다 10살 이상 어린 경우가 58.5%이다. 간단히 말하면 다문화 혼인에서 나이 많은 한국인 남성이 나이 어린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는 사례가 많은 것이다.

그리고 멀리 한국 땅에 시집 온 수많은 ‘엄지공주’들이 만나는 신랑들은 대부분 농촌 총각이거나 3D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이다. 이 신랑들은 어려운 현실로 인해 결혼 적령기를 넘긴 남성들로, 국내에서는 신부감을 구할 수 없어 외국의 어린 신부들을 찾아 나섰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문화 가정 부부의 연령 차이는 우리나라 보통의 신랑신부들에 비해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

다문화 가정의 부부 연령차 구성비(2010)



- ※ 자료: 통계청
- ※ 주1: 연령차는 남성이 연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함
- ※ 주2: 연령 미상인 부부의 경우 통계에서 제외됨

다문화 사회에 대비해야 한다

다문화 가정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 가족구성원도 함께 늘어난다는 뜻이다. 다문화 가정의 양적 팽창은 우리 사회에 다문화 가정 아이들의 수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려 주고 있다. 자녀 수를 보면 2008년 대비 2009년에는 거의 두 배에 육박한다. 초등학교 아이들의 경우 2009년에는 2005년에 비해 거의 세 배를 넘어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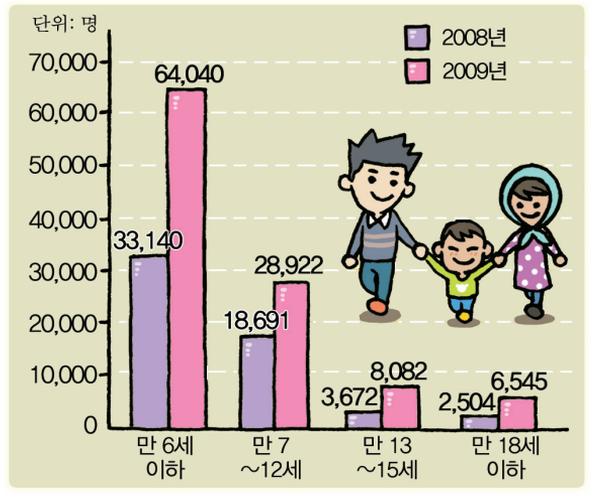
이들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은 우리에게 무엇일까. 두꺼비? 풍뎅이? 두더지? 아니면 이도 저도 아닌 그 무엇? 그들이 누구이고 무엇이든간에, 이들의 수가 이렇듯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면, 향후 몇 년 혹은 몇 십 년 뒤면 우리나라 인구의 상당부분이 다문화 가정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들을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가 발전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이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지 않다. 피부색과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을 차별하고 냉대하고 있으며, 심지어 외국인 신부의 1/3이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또한 다문화 가정 아이들의 경우 엄마가 외국인으로서 우리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데다가, 우리말이 서툴러서 아이들의 언어습득에도 큰 장애가 되고 있다. 교육에는 언어가 기본적인 바탕이므로, 언어에 서툴 경우 제대로 된 교육을 받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다.

멀리 외국에서 시집 온 나이 어린 신부와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피부색과 인종이 다르다고 하여 차별하고 배척하는 것은 미래와 세계화를 지향하는 시대에 맞지 않다. 한국계 혼혈아 출신의 하인스 워드(Hines Ward)가 미국 사회에서 풋볼 선수로서 성공한 것처럼, 우리도 다문화 출신 아이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다양한 제도적 방침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2008년 이후 전체 이혼 대비 다문화 이혼 비중이 증가되고 있는 있는 현상을 보면 이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리잡기 어려운 현실이라는 것을

연령대별 다문화 가정의 자녀 수



※ 자료 : 행정안전부(2009)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이 우리 사회에 손조롭게 정착할 수 있도록 사회의식과 제도가 뒷받침 되어야만 한다. 또 온전한 가정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우리의 인식이 바뀌어야 할 때다.

단군신화 이야기에서 다문화를 배우자

우리는 단일민족 국가임을 자랑스러워 한다. 단군할아버지를 시조로 하는 우리 민족이 다른 민족이 따라올 수 없는 영민함을 지녔고, 숭한 외세의 침략에도 불구하고 은근과 끈기를 바탕으로 하는 민족성을 내세워 단일민족 국가를 유지해 왔다는 자긍심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 민족적 자긍심의 구체적인 근거를 건국 신화인 단군 이야기에서 찾고 있다. 하지만 단군 이야기는 단일민족 국가를 떠받드는 가치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다문화 가정을 이해하고 극복하는 도구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천제의 아들 환웅이 백두대간을 다스리실 때 곰과 호랑이가 나타나 인간되기를 소원하였더니, 환웅이 일러 쑥과 마늘만으로 동굴 속에서 100일을 살아내면 인간이 될 수 있으리라 명하였다. 이에 호랑이는 7일이 되던 날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여 더 이상 인간되기를 포기하였으나, 곰은 기어코 견디어 100일째 되는 날 드디어 사람이 되니, 환웅은 이를 웅녀라 칭하고 결혼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곧 단군이라.”

단군신화 이야기이다. 많은 이들이 단군신화에 들어 있는 다양한 가치를 추리느라 많은 노력을 하지만, 가장 인간다운 인간으로서 단군에 대한 평가에는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않는다.

환웅도 하늘의 신이었으니 온전한 인간이라 할 수 없고, 웅녀 또한 본디 곰이었으니 온전한 인간이라 할 수 없다. 하지만 완전히 서로 다른 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환웅과 곰이라는 두 종이 만나 비로소 온전한 인간인 단군을 낳았으니, 결국 인간이 인간다운 모습을 하는 데 필요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여기에 들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온당할 듯싶다.

단군신화 이야기와 엄지공주 이야기는 서로 다른 환경의 존재들이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나름의 공통점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단군 이야기에는 누군가에 의한 선택의 강요도 없고, 풍뎡이들의 수군거림도 없다. 서로 다른 모습에 대해 인정하고 내면의 아름다움을 보려는 노력만이 있을 뿐이다. 단군 이야기는 공동체 구성원이 모두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있는 지침으로서 가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삶을 더 인간답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풍뎡이 같은 수군거림을 멈추어야 할 것이다. 외모도 다르고 삶의 양식도 차이가 나는 외국인 신부와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그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의 한 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가 발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만 한다.
다문화 가정을 향해 손을 내밀어 마주잡을 수 있는 용기와 따뜻함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때이다.





평균만 알면 된다?

평균은 전체 모양을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맹신하면 다음과 같은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병사들을 이끌고 행군하던 한 장군이 큰 강을 만나자 참모에게 물었습니다.

“강의 평균 깊이가 얼마나 되나?”

“예, 지도에 의하면 평균 깊이가 140cm라고 합니다.”

“음~, 우리 병사들의 평균 키가 165cm는 넘으니 걸어서 행군해도 되겠군. 진격하라!”

그러나 강을 건너는 데 성공한 병사는 전체의 10%도 채 안 났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평균이란 깊은 곳과 낮은 곳의 깊이를 모두 합해 중간 정도의 깊이를 가늠한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곳은 2m가 넘는 곳도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퍼센트(%)는 요술쟁이

퍼센트는 자칫 사람들을 속이기 쉬운 표현 방식입니다.

“이번 달에 용돈을 50% 줄였다가 다음 달에 50% 다시 올려줄게.”

아이는 한 달 뒤에 용돈이 원래의 금액으로 올라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지요. 100원의 용돈에서 50%를 깎으면 50원이 되고, 그 50원의 용돈에서 50%를 올려 주면 75원밖에 되지 않니까요.

내 몸무게가 50kg, 아빠는 80kg라고 할 때, 30kg의 차이를 느낌이 확 다르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빠보다 38%가 가벼워.” “아빠는 나보다 60% 더 무거워.”

많이 다르지 않나요? 이런 차이를 이용해 자신에게 불리한 것은 가볍게, 자신에게 유리하게 통계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표본은 전체를 대변한다?

통계 조사를 할 때는 조사 대상을 전부 다 조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일부를 뽑아서 조사합니다. 그럴 때 뽑는 대상을 표본이라고 하죠.

찌개의 간을 볼 때 국자로 국물을 조금만 떠서 먹어 보지요. 이때 국자의 국물이 찌개의 간을 판단하기 위한 표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찌개 속의 소금이 다 풀어지지 않아서 어떤 부분은 짜고 어떤 부분은 싱거우면 옳게 판단할 수가 없겠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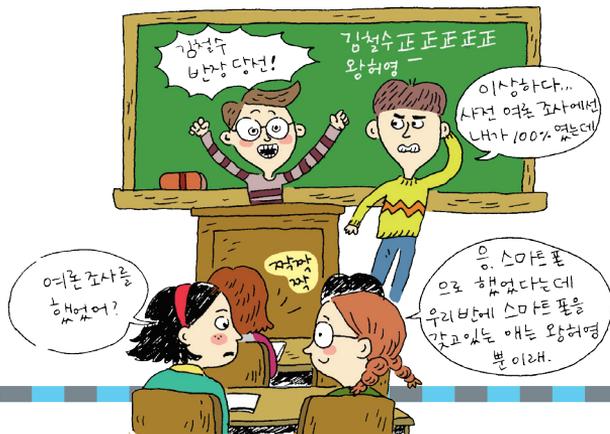
통계 조사도 표본을 잘못 뽑으면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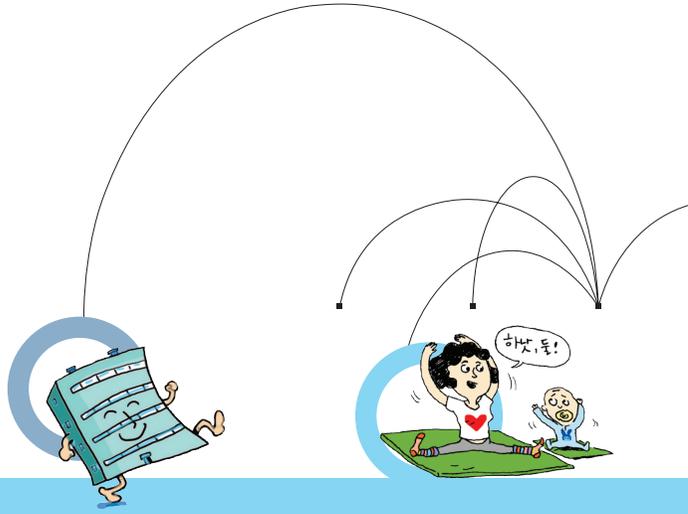
표본을 잘못 추출한 대표적인 예는 1936년 미국 대통령 선거 때의 여론조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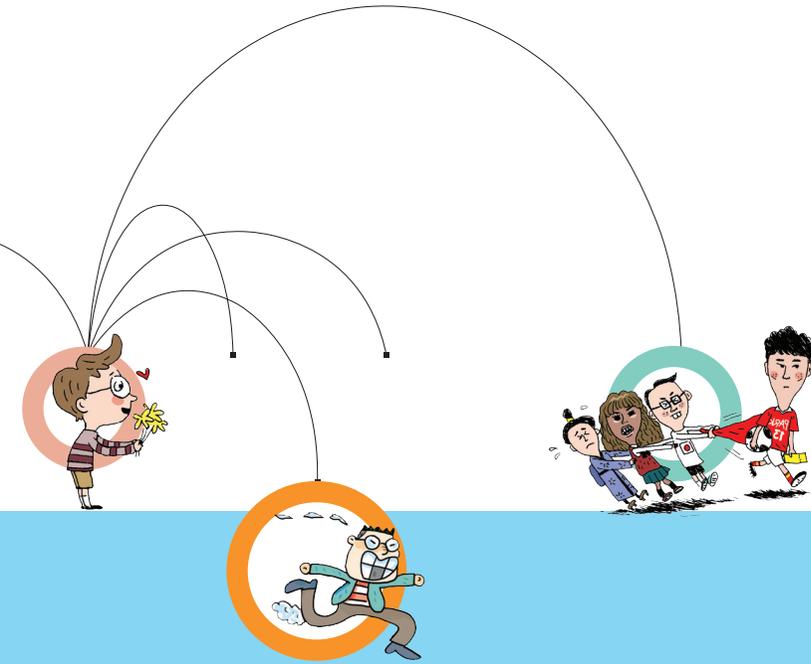
당시 공화당의 랜던 후보와 민주당의 루스벨트 후보의 대결이었습니다. 소득이 높은 층은 랜던을, 소득이 낮은 층은 루스벨트를 지지했습니다. 이때 한 잡지사에서 1000만 명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실시하여 230만 명의 응답을 받았습니니다. 그리고 랜던이 큰 표차로 승리할 것이라는 예측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루스벨트가 압도적 표차로 당선되었습니다. 무려 230만 명을 조사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바로 표본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잡지사는 정기 구독자와 전화번호부를 근거로 설문 조사를 했는데, 그들은 대개 소득이 높은 계층이었습니다. 그러니 표본 속에 루스벨트를 지지하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었지요.

이 사례를 통해 우리는 대표성이 없는 표본은 크기가 아무리 크더라도 전체의 특성을 올바르게 반영할 수 없다는 귀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 우리 이야기

- 스마트폰 세상에서
만일 한글이 없었다면?
- 외모지상주의 사회에서 살아남기
- 만화 나의 진짜 몸무게는? - 평균값 구하기
- 지금 무슨 책 읽고 있나요?
- 만화 '책을 많이 읽는다'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
- 여자의 인생, 어떻게 바뀌었나?
- 우리나라의 성씨는 몇 개나 될까?
- 통계로 읽는 대한민국
- 우리 생활은 어떻게 바뀌었나?
- 쉬어가는 코너 맹모삼천지교가 집값을 올린다?



휴대전화기 없던 시절엔...



“서방님, 한양에 가신 지 어언 석 달이 지났건만 언제나 돌아오시려나 기다리고 기다리다 이렇게 서찰을 보내옵니다.” – 옛날 사람들은 안부를 묻거나 소식을 전하려면 직접 찾아가서 말을 하거나 편지를 보냈다.

“장남 보아라. 네 엄마가 내달 1일 일요일에 상경할 예정이니, 2시까지 서울역으로 마중을 나오기 바란다.” – 근대에 들어 우편 제도가 생기자 우체국을 통해 소식을 전하거나 약속을 정하게 되었다.



“그럼, 이따 5시에 극장에서 만나 영화를 보고 7시에 같이 저녁 먹자.” “5시에 만나기로 한 약속을 미뤘으면 좋겠는데 전화를 안 받네. 어찌지? 혼자 기다릴 텐데…….” – 19세기 후반에 전화기가 발명되어 먼 곳에 있는 사람들과 직접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영어의 ‘telephone’은 ‘말다’의 ‘tele’와 ‘소리’의 ‘phone’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말이다.

놀라운 속도의 전화 보급률

전화는 1876년 미국인 벨에 의해 발명되었다. 우리나라에 전화가 처음 들어온 것은

그로부터 불과 20년 뒤인 1896년이였다. 경복궁에 자석식 교환기 9대가 설치된 것이다. 이때는 궁중에서만 전화를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다 1902년부터 민간에서도 전화 사용이 가능해졌다.

한때 전화기는 부유함의 상징이였다. 1960년대만 해도 전화를 소유한 가정집이 드물었다. 흑백 TV를 가진 집도 드물었던 시절이다. 전화와 TV는 한 동네에 겨우 한두 집 정도의 부잣집에만 있었기 때문에 부(富)의 상징이 될 수 있었다. 1960년 우리나라의 전화 보급률은 0.3%로 1,000명 중 단 3명만이 전화를 가진 셈이였다. 1970년 당시 서울의 50평 집값이 230만 원이었는데 전화기 값은 260만 원이였다니, 얼마나 귀하고 비싼 물건이였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요즘은 전화와 TV를 소유하지 않는 집이 거의 없다. 우리나라에서 전화 가입자 수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1980년대부터이다. 1980년 전화 가입자는 270만 5천 명이었는데, 1985년엔 650만 7천 명, 1990년엔 1,327만 6천 명, 1995년엔 1,860만 명으로 늘어났다. 해마다 10만 명 이상 늘어난 셈이다. 그러나 1995년 이후부터 전화 가입자 수가 떨어지는데, 그 이유는 휴대전화 가입자 수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휴대전화 서비스가 시작된 것은 1984년이였다. 당시에는 웬만한 부자가 아니면 휴대전화를 가질 수 없었다. 가격이 331만 원이나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휴대전화는 새로운 부의 상징이였다. 고급 승용차 안에서 어린아이 팔뚝만한 큼직한 휴대전화를 들고 통화하는 모습은 TV 드라마에 등장하는 사장님의 전형적인 모습이였다.

그러던 것이 1999년에는 일반전화 소유자(2,125만 명)보다 휴대전화 소유자(2,344만 3천 명) 수가 더 많아졌다. 1984년 불과 3천 명에 불과하던 휴대전화 소유자가 1990년 8만 명, 1995년 164만 1천 명, 2000년 2,681만 6천 명, 2011년 8월 현재 5,196만 명으로 늘어났다.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이다. 인구 1명이 1대 이상의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고, 이는 일반전화 가입자(2,910만 명)의 1.8배 수준이다.

휴대전화 중에서도 컴퓨터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폰 사용자가 2011년 10월 현재 2,000만 명을 넘어섰다. 휴대전화 소유자의 10명 중 4명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2007년에 스마트폰이 처음 출시된 점을 감안하면 실로 놀라운 속도이다.

스마트폰 : 휴대전화에 인터넷 통신과 정보검색 등 컴퓨터 지원 기능을 추가한 지능형 단말기를 말함

전화 가입자수 (단위 : 천 명)

	일반 전화가입자 수	휴대전화 소유자 수
1980	2,705	—
1985	6,517	5
1990	13,276	80
1995	18,600	1,641
2000	21,932	26,816
2005	22,920	38,342
2010	19,274	50,767

※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사업자 참고자료」
2000년 이전은 《통계로 본 대한민국 60년의 경제 사회상 변화》(2008)

휴대전화, 잘 쓰면 약 잘못 쓰면 독

전화가 널리 보급되면서 사람들의 생활은 무척 편리해졌다. 멀리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의 목소리를 집안에 앉아서도 듣게 되고, 편지 대신 전화로 소식을 전하게 되면서는 의사소통의 속도도 빨라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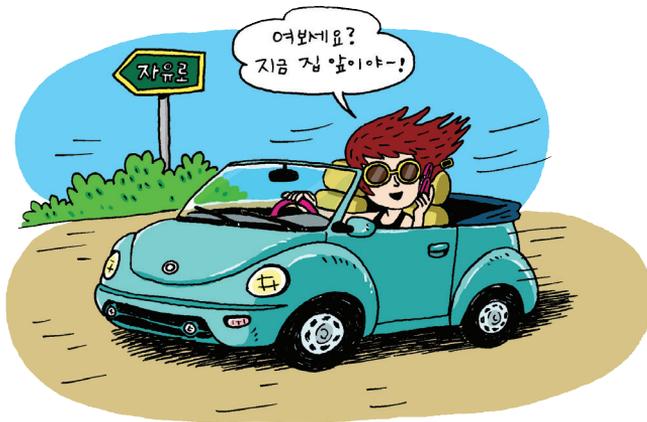
더구나 휴대전화의 등장은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화와 생활방식, 인간관계까지도 변화시켰다. 휴대전화로 인해 이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통화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목소리 통화뿐만 아니라 대화하기 곤란한 상황에서는 몇 마디 문자메시지로 통화할 수도 있다. 또 휴대전화에는 카메라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실시간으로 사진을 주고받을 수 있고, 영상통화도 가능하여 사람들 사이에 간격을 좁히

고 친밀감을 높여 준다. 의사소통이 더욱 빠르고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알람 기능 덕분에 ‘덜렁이’ 소리를 듣던 사람들은 생일이나 기념일, 중요한 약속 등을 잊지 않게 되어 인간관계도 좋아졌다.

또한 휴대전화에 컴퓨터 기능이 결합된 스마트폰의 출시로 인터넷 사용도 더욱 용이해졌다. 집과 사무실에서 해방되어 거리에서도 이메일 송수신과 각종 정보 검색이 가능해졌다. 공원에 앉아서도 스포츠 중계를 보거나 온라인 게임, 영화나 음악 감상을 할 수 있고, 현금 송금이나 카드 결제 등 은행 업무를 보거나, 주식 투자 등 증권 거래를 할 수도 있다. 각종 티켓 예매, 쇼핑도 휴대전화로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 오늘날 휴대전화는 단순히 전화기의 기능이 아니라 각종 문화 생활을 가능하게 해 주는 현대 문명의 대표적 이기가 되었다.

그러나 자동차의 발달이 교통사고의 증가를 가져온 것처럼, 문명의 이기는 혜택이 있으면 폐해도 있게 마련이다. 휴대전화도 예외는 아니다. 휴대전화가 대대적으로 보급되면서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공공장소에서의 소음 발생 등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학자들은 운전중 전화 사용이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가장 크다고 경고한다. 휴대전화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우리 신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며, 원치 않는 광고성



전화가 시도 때도 없이 걸려 와서 사생활에 피해를 주기도 한다.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는 여성들의 몸 일부를 은밀하게 찍는(몰카) 성추행에 악용되기도 한다. 또한 지하철이나 버스 등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큰 소리로 통화를 하거나 영화 등을 시청하는 문제로 사소한 말다툼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 결과 공공장소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규제에 앞서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삼갈 줄 아는 시민의식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 휴대전화 중독 증세

휴대전화의 폐해는 개인적 차원에서도 나타났다. 전화번호를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사용하다 보니 전화기를 분실하면 지인들의 연락처를 몽땅 잃는 불상사와 더불어, 지나친 통화량과 부가 서비스로 인한 과도한 가계소비 지출 문제, 휴대전화 없으면 불안해서 아무 일도 못하는 심리적 불안의 문제가 있다. 그 중에서도 하루 종일 휴대전화에서 손을 떼지 못하는 상태는 일종의 중독 증세이다.

중독이란 어떤 것에 너무 의존한 나머지 그것이 없으면 견디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킨다. 휴대전화가 생활필수품이 되면서 성인층, 청소년층을 막론하고 ‘휴대전화 중독증’이 늘어나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2009년 통계청이 제시한 학령별 휴대전화 이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생 26.3%, 중학생 81.8%, 고등학생은 93.3%가 휴대전화를 소유하고 있다.

2008년 한국정보화진흥원의 휴대전화 사용 중독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경우 25.7%가 중독사용자이고, 39%가 주의사용자, 35.3%가 건전사용자로 나타난다. 64.7%의 청소년들이 휴대전화 사용에서 중독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근래에 등장한 스마트폰은 단순한 전화기의 기능이나 게임기의 수준을 넘어 인터넷

통신과 정보 검색이 자유로운 컴퓨터의 기능으로 발전하였다. 그만큼 의존성과 중독성이 더 커진 셈이다.

2010년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에 따르면, 스마트폰 사용자의 24.2%가 ‘스스로 과다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청소년의 경우 40.5%가 ‘그런 편이다’라고 답하였다. 성인에 비해 자제력이 떨어지는 것이다.

스마트폰 과다 사용 인식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 체	2.0%	22.2%	42.7%	33.2%
성 인	22.2%		77.8%	
청소년	40.5%		59.5%	

※ 자료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0년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

실제로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률은 성인에 비해 높았다. 스마트폰 이용자에 대한 중독 여부를 조사 분석한 결과, 중독률이 11.1%로 나타났는데, 이 중 청소년이 25.2%로 중독성의 위험성이 성인(9.4%)보다 2.5배 이상 높다.



휴대전화나 스마트폰의 중독은 그것이 없으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생활의 편리를 위해 만들어진 도구가 도리어 정상적인 생활을 가로막는다면 그것은 사람에게 해로운 도구가 되는 것이다.

휴대전화나 스마트폰의 의존성이 높은 사람은 반드시 자기조절 능력을 키워야 한다. 간단한 문진 방법을 통해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고, 심각한 상태가 나온다면 전문가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다행히 아직 심각한 상태가 아니라면 일상생활에서 휴대전화나 스마트폰을 손에서 멀찍이 떼어놓거나 일주일에 하루 정도 ‘휴대전화 없는 날’을 정해서 생활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휴대전화를 올바르게 사용하려면 편리함은 즐기고 그 폐해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 조절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휴대전화 중독 실태 조사를 위한 설문 문항

- 1) 휴대전화가 없으면 안절부절 못한다.
- 2) 배터리가 한눈금만 남으면 불안하다.
- 3) 요금이 많이 나와 사용을 줄이려고 한 적이 있다.
- 4) 수업중에도 전원을 끄지 못한다.
- 5) 휴대폰을 남과 다르게 꾸미고 싶다.
- 6) 외워서 걸 수 있는 전화번호가 거의 없다.
- 7) 심심하면 별다른 용무 없이 전화 건다.
- 8) 전화가 왔는지 자주 확인한다.
- 9) 집 전화기가 있는데도 휴대폰을 쓴다.
- 10) 수업중에 문자가 오면 바로 답장한다.



평가방법

1. 각 항목별로 '전혀 아니다' 1점, '아니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하고, 자신이 체크한 점수를 모두 더하여 총점을 구한다(만점 50점).
2. 30점 이상 : 중독사용자
21~29점 : 이용에 주의가 필요한 주의사용자
20점 미만 : 건전사용자

자료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8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



만일 한글이 없었다면?



쓸 줄은 아는데 읽을 줄은 모른다?

어떤 범죄자가 경찰에 붙잡혀 취조를 받고 있었다. 경찰이 여러 가지를 조사하던 중 글자를 읽을 줄 아느냐고 물었다. 그런데 범인의 대답이 희한했다.

“쓸 줄은 아는데 읽을 줄은 모릅니다.”

경찰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호통을 쳤다.

“그게 말이 돼? 어떻게 쓸 줄은 아는데 읽을 줄을 모른단 말이야?”

범인은 계속 그렇다고 우겼다. 그러자 경찰은 종이와 연필을 주며 한번 써 보라고 했다. 범인은 종이 위에 뭔가를 휘갈겨 썼다. 경찰이 보니 그것은 글씨가 아니었다. 화가 난 경찰이 다그쳤다.

“야, 이놈아, 이게 무슨 글씨냐? 뭐라고 썼는지 네가 한번 읽어 봐라.”

그러자 범인은 태연스럽게 말했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쓸 줄은 알지만 읽을 줄은 모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범죄자와 같이 글자를 모르는 것을 가리켜 ‘문맹(文盲: illiteracy)’이라고 한다. 문맹이 고도로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 문맹자는 최소한의 적응조차 힘들다. 문자는 사회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문명의 바탕에는 문자가 있었다

이런 상상을 해보자. 어느날 갑자기 이 세상에서 글자가 모두 사라져 버린다면? 외계인의 장난으로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글자를 읽지 못하게 된다면? 또는 정부의 컴퓨터 시스템에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들어와 그 안에 문자로 보존되어 있는 국민들의 신상 정보가 모조리 없어진다면? 은행의 예금 기록이 사라진다면? 학교에 붙이 나서 성적이나 수행 평가 기록이 불타 버린다면?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사회 질서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 것이다. 이렇듯 글자는 이 거대한 문명을 떠받치는 바탕이 되고 있다.

인간은 다른 동물에 비해 말을 매우 정교하게 구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글자로 옮길 수도 있다. 그것은 인류의 문명을 가능하게 한 토대였다.

다른 동물들의 경우, 자기의 경험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려면 직접 가르치는 수밖에 없다. 인간도 문자가 생기기 전까지는 그랬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아이디어를 발견했다 해도, 본인이 죽고 나면 그 정보는 입에서 입으로 전달될 뿐이었다. 살아 있는 동안이라 해도 그를 직접 만날 수 없다면 누군가가 대신 전달해 주어야만 했다.



그러나 문자가 생겨나면서부터는 사정이 완전히 달라졌다. 본인을 직접 만나지 않고도 그 사람의 생각을 전달받을 수 있고, 죽고 난 다음에도 그의 생각이 고스란히 남을 수 있게 되었다. 기록을 통해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게 된 것이다. 그렇게 해서 글자는 지식을 저장하고 전달하는 도구로서 인간의 삶을 변화시켜 왔다.

한국은 문자해득율이 높은 나라

그런데 인류 문명이 최고조로 발달한 21세기에도 글자를 읽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세계개발계획(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의 '2007~2008년 보고'에 따르면 전 세계 177개국 중에서 문자해득율(=문해율)* 50% 미만의 나라가 18개국 정도 된다. 60% 미만은 28개국, 80% 미만은 45개국이다. 2007년 미국 중앙정보부(CIA)의 세계 보고서는 전 세계의 문해율이 82% 정도라고 한다. 세계 인구의 18% 가량이 어떠한 언어로도 읽거나 쓸 수 없는 상태, 즉 문맹 상태인 것이다.

문해율 : 문자를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의 비율로, 문맹률의 반대 개념임

문해율은 가난한 나라일수록 낮아서 40% 정도이다. 선진국의 경우 문해율이 97.7%이니, 문해율과 경제수준의 상관관계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세계 제1의 경제대국인 미국에도 문맹자가 있다. 2000년 무렵의 통계이지만, 미국 17세 청소년의 17%가 문맹이었다. 가난한 계층만 그런 것이 아니다. 역대 연봉을 받는 NBA나 메이저리그의 선수들 가운데도 문맹이 꽤 많았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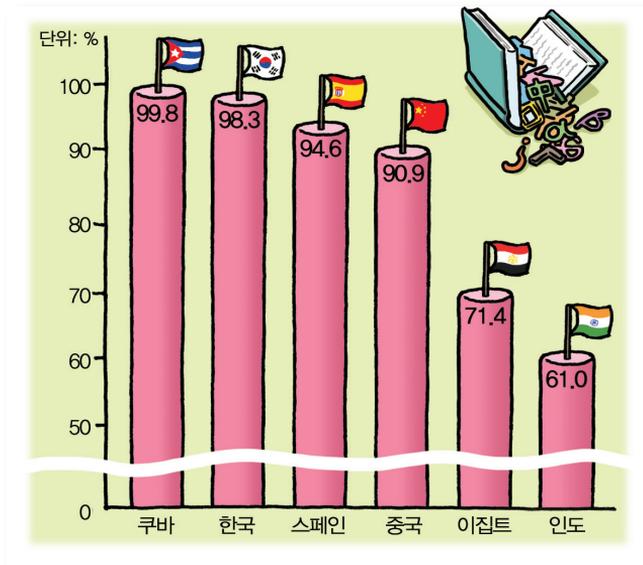
우리나라의 문해율은 얼마나 될까?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2008년 기준 98.3%이다. 사실 한국은 문해율이 높은 나라에 속하여 UNDP의 보고를 보면 세계 177개국 중 17위(24개국 공동순위)이다. 우리보다 문해율이 더 높은 곳은 쿠바(1위, 99.8%) 등 16개국 정도이다.

우리나라의 문해율이 높은 이유는 한글이라는 뛰어난 발명품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한글은 언어학적으로 대단히 특이하다. 한글은 세계의 모든 문자 가운데서 가장 나이가 어리다. 그리고 상형문자* 처럼 서서히 변형, 발전되어 온 것이 아니라 아무 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그야말로 맨땅에 헤딩하듯 발명되었다는 점에서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문자이다. 또한 불과 몇 년 사이에 문자를 완전히 체계화한 경우도 한글 말고는 없다.

상형문자 : 일부 한자와 고대 이집트 글자처럼 물체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문자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존재했던 언어는 1만 5천여 개로 추정된다. 그리고 현존하는 언어는 6,900개 가량 된다고 한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는 중국어이며, 다음은 영어다. 그렇다면 한국어를 사용하는 인구는 몇 번째쯤 될까? 한국어보다 많이 사용되는 언어는 스페인어, 아랍어, 프랑스어, 일본어 순으로, 많지 않다.

나라별 문자해득률 비교



※ 자료 : 세계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한국은 국립국어원(2009)

※ 주 : 2007~08년 기준, 15세 이상 인구

2010년 기준 전 세계의 한국어 사용 인구는 7,700만 명으로 추산한다. 사용 인구로 보면 세계 13위에 해당한다. 아시아권의 한국어 능력시험(KLPT) 응시자는 12만 명(합격자 9만 명)으로 파악됐다. 2005년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또 해외에서 운영중인 한국어 보급기관은 2천여 곳이고, 이들 기관의 수강생은 25만여 명에 달하며, 외국인 학습자를 위해 국내외에서 발간된 한국어 교재는 3,400권 가량으로 조사된다.

한글의 과학성은 많은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다. 최근 인기리에 방영된 TV 사극 <뿌리 깊은 나무>는 세종대왕의 한글, 즉 훈민정음의 창제 과정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천민 출신의 극중 주인공은 28자의 자모음을 새로 배워 글을 읽고 쓰는 데 반나절밖에 걸리지 않았다. 한글은 그만큼 배우기 쉽고, 말을 그대로 글로 표기할 수 있는 문자이다.

또한 한글은 여러 가지 발음을 정교하게 표기할 수 있는 문자이다. 그래서 2009년에는 입말만 있을 뿐 문자가 없는 인도네시아 바우바우시의 짜아짜아족 학교에 수출되었다. 6만여 인구를 가진 짜아짜아족은 500여 년간 문자 없이 입말로 고유의 언어를 유지해 오다가, 이제 한글을 도입하여 자신들의 말과 역사를 기록으로 보존할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그러나 인도네시아 교육부는 짜아짜아족이 한글을 공식 문자로 도입한 것에 대해 중앙정부의 언어정책을 거스르는 것이며, 헌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500년 전 우리 선조가 남겨주신 유산이 이렇듯 지구촌의 문화에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 한류 문화의 영향으로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곳곳으로 한국어 보급기관이 더 늘어나게 될 것이다. 유네스코는 해마다 세계의 문맹률을 낮추는 데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 상을 수여하는데, 그 상의 이름은 '세종대왕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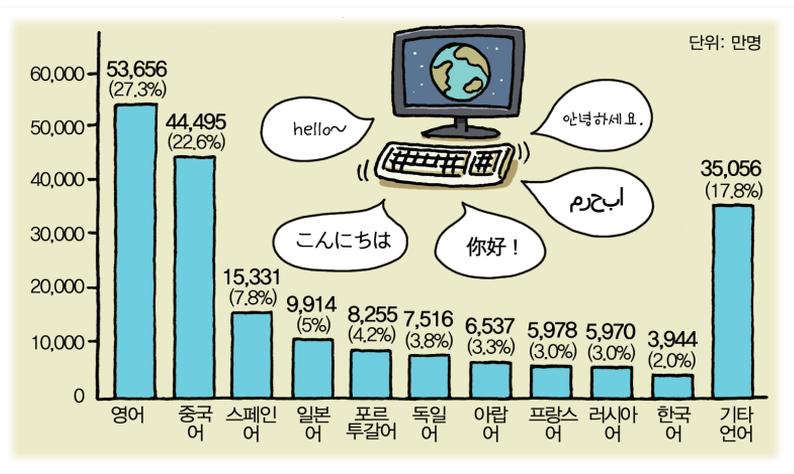
인터넷 세계에서 돋보이는 한글

문자라는 면에서는 어떤가? 지금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문자의 수는 56개 가량 된다. 그러나 많이 사용되는 문자의 순위를 측정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말보다 문자로

한글을 사용하는 인구의 순위는 틀림없이 높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문해율이 높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것은 정보화 사회가 발달하면서 한글 사용 인구의 순위가 더 올라간다는 점이다. 바로 인터넷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컴퓨터와 인터넷 보급률이 세계적인 수준임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지난 10년 사이에 사이버 공간이 폭발적으로 확장되면서 엄청난 정보가 그 안에 축적, 유통되고 있다. 한글은 중국의 한자나 일본의 가나, 심지어 영어 알파벳에 비해서도 키보드를 치기에 적합한 문자라고 한다. 그 덕분에 한글로 담겨진 정보들이 인터넷 세계에서 대단한 속도로 계속 축적되어, 인터넷에서 한글 사용자의 순위는 세계 10위이다. 영어, 중국어, 불어 등이 유엔 공용어임을 감안하면, 이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인터넷 사용 언어 순위



※ 자료 :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인터넷 월드스탯(2011. 6)

국제전기통신연합(ITU)과 인터넷 월드 스탯(Internet World Stats)에 따르면 2010년 6월 기준 인터넷상 한글 사용자는 3,944만 명으로, 세계 인터넷 사용 인구의 2%에 해당한다. 영어가 5억 3,656만 명(27.3%), 중국어가 4억 4,495만명(22.6%)으로서 사실

상 절반을 차지하는 것을 감안하면 결코 적은 수가 아니다.

미국의 청소년들 가운데는 채팅이나 문자메시지를 하고 싶어도 글자를 몰라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중국 사람들은 평생 배우도 5만 자나 되는 한자를 다 알지 못한다. 20세기에 들어 간체자(簡體字)를 많이 만들어 실용화했지만, 그래도 한글에 비하면 복잡하다. 컴퓨터를 사용하는 데도 매우 불편하다. 한국의 인터넷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달하게 된 배경에는 한글이라는 문화적 토대가 있는 것이다. 세종대왕님께 새삼 고마움을 느낀다.



외모지상주의 사회에서 살아남기



다이어트가 사람 잡는다

“다이어트가 사람 잡는다는 말을 실감하고 있는 50대 여성입니다. 바로 제 딸 때문입니다. 제 딸은 2년 전 대학에 합격한 뒤 서울로 올라가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 올라갈 때까지만 해도 딸애의 키는 162cm에 몸무게는 54kg 정도였습니다. 제가 보기엔 전혀 문제가 없는 몸매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올라가 대학에 다니면서 딸애는 음식을 많이 먹는 자신을 다른 아이들이 짐승처럼 본다며 자신이 똥똥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체중이 42kg에 불과합니다. 기력이 없어 보이는 건 물론이고 생리도 잘 안 나온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 보자고 하면 오히려 역정만 냅니다. 보내준 용돈으로 죄다 다이어트 제품을 구입한 모양입니다.

방에 가 보니 큰 거울이 눈에 띄었습니다. 매일 거울 앞에서 몸매를 점검하기 위해 샅답니다. 체중계도 세 개나 있더군요.

예전엔 밥도 곧잘 해먹던 애가 지금은 변비약과 다이어트용 생식 가루로 끼니를 때우고 있습니다. 굶어도 상관없으니 살만 빠지면 좋겠다고, ‘똥똥한 몸매로 사느니 차라리 죽겠다고도 합니다. 돈이 생기면 얼굴 살을 빼는 성형수술까지 받고 싶다고 말합니다.

도무지 제 딸 같지가 않고 다이어트의 노예가 된 느낌입니다. 어떻게 해야 자신이 저체중이라는 것을 알게 될까요.”



한 주부가 어느 신문 상담 코너에 올린 내용이다. 극히 일부의 예라고 생각하겠지만, 언제부터인지 우리나라는 외모지상주의 국가라고 불릴 정도로 다이어트나 성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몸무게가 정상치보다 낮은 저체중인데도 끊임없이 다이어트를 하고 자신이 비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2003년 보건복지부에서 11~17세의 남녀 학생을 대상으로 외모 인식과 건강 수준 실태를 조사했는데,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여학생 3명 중 2명, 남학생은 3명 중 1명이 체중 조절을 시도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문제는 위의 상담 코너에 등장하는 주인공처럼 '저체중'인 여학생의 3분의 1 정도가 체중 조절을 경험했다는 것이다. 저체중 여학생의 3분의 1 정도가 자신의 체형을 보통이라 생각하고, 정상 체중 여학생의 5분의 2 정도는 약간 뚱뚱하다고 생각했다.

2010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조사 결과도 다르지 않다. 자신의 체형에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57.6%로 '만족한다'는 응답(40.7%)에 비해 16.9%포인트 높다. 체형에 대한 불만족률은 학년이 높을수록 더 높아져서 초등학생은 35%, 중학생은 59%, 고등학생은 71.7%이다. 고등학생은 초등학생에 비해 2배 이상 외모에 관심이 높았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외모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고, 따라서 불만족률이 높아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르겠다. 성별에 따른 응답 결과에서는 역시 여학생의 불만족률(66.1%)이 남학생의 불만족률(49.7%)보다 훨씬 높다.

그래서 체중을 줄이려는 청소년의 비율이 1998년 34.4%에서 2001년 36.7%, 2005년 43.8%, 2010년 46.7%로 가파르게 증가한다.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절반 이상(50.8%)이 체중 조절을 하고 있다. 체중 조절 이유에 대해 여자 청소년은 83.3%가 ‘균형 있는 외모’를 위해서라고 답했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외모’를 위해 체중 조절을 하는 비율이 증가했다.

비만 측정법



체질량 지수에 의한 계산법 : 표준 체중(kg) = (신장-100)×0.9
 - 그 값이 실제 체중보다 10% 이상이면 과체중, 20% 이상이면 비만

$$\text{롤러(Rohler) 지수} = \frac{\text{체중 kg}}{(\text{신장 cm})^3} \times 10^7$$

키 110~120cm일 경우, 롤러지수가 180 이상이면 비만
 130~149cm일 경우, 롤러지수가 170 이상이면 비만
 150cm 이상일 경우, 롤러지수가 160 이상이면 비만

나는 정말 비만일까?

실제로 비만인 학생들이 많을까? 일반적으로 비만은 체내에 지방이 지나치게 많이 쌓여 있는 상태로서, 체질량 지수의 계산 결과 그 값이 자기 체중에 비해 10% 이상 더 높으면 과체중, 20% 이상이면 비만이라고 한다. 그런데 청소년기는 성장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성인과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롤러(Rohler) 지수 계산법에 따라 비만을 측정한다. 키와 체중의 상관성에 고려하는 것이다.

그러면 앞의 글에서 본 어머니의 딸은 어떤 상태인가? 키 162cm에 54kg의 체중이므로, 체질량 지수법에 따르면 표준 체중이 $62 \times 0.9 = 55.8$ 로서 다이어트 이전에도 표준 체중보다 낮다. 그리고 롤러 지수 계산법에 따르더라도 지수가 127이므로 아주

정상적인 상태이다. 그러므로 다이어트를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다.

여러분은 어떤 상태인가?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TV에 나오는 야윈 연예인과 비교하여 스스로 뚱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다이어트는 원래 병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 식이요법이다. 즉 건강 보존에 그 목적이 있었다. 그런데 근래 들어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더 야위어 보이기 위한 방법으로 다이어트 열풍이 불면서 다이어트의 뜻이 완전히 달라졌다. 살을 빼기 위해 음식물 섭취를 줄이거나 거의 먹지 않는 모든 행위를 표현하는 말이 되었다.

2010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조사 결과(복수 응답)에서 실제로 체중을 감소한 방법을 보면 '식사량을 줄임'(73.8%)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규칙적인 운동'(68.0%) '원푸드 다이어트(포도, 달걀, 우유, 감자 등 한 가지 음식만 먹는 다이어트)'(9.6%), '단식'(5.7%) 순으로 나타난다. 대부분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다.

지금 한국 사회는 청소년들뿐 아니라 거의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저마다 어떤 형태로든 다이어트 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다이어트뿐만이 아니다. 외모를 가꾸기 위한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치아 교정은 기본이고, 쌍꺼풀과 보톡스 수술은 필수이며, 라식 수술과 지방흡입술은 선택이 되어 버렸다. 거기에 세대별로 자신을 꾸미는 방식 또한 다양하게 행해진다. 화장이나 모발 염색과 같은 일상적인 것부터 피부 스케일링, 다이어트, 성형, 지방흡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외모 가꾸기는 특정 세대에 한정되지 않는다. 특히

성형이나 지방흡입은 단순한 외모 가꾸기의 수준을 넘어서 버렸다. 성형수술의 부작용으로 고민하다 자살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심각한데도 성형외과는 자꾸 늘어나며 성형수술도 다양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외모 가꾸기 열풍에 대해 외국의 한 언론이 은근히 꼬집는 기사를 실은 적이 있다. "한국 여성들은 날씬한 몸매를 위해 신경을 마비시키고 근육을 자르는 성형수술로 해결책을 찾는다", "한국 여성들은 서구 미인을 닮기 위해 코를 높이고, 턱을 깎고, 눈을 크게 만든다."는 내용이다. 우리 사회의 전문가들도 이렇게 성형수술과 다이어트에 집착하는 것을 병이라고 진단한다. 멀쩡한 신체를 가지고도 어떤 부분에 결점이 있다고 잘못 생각 하고, 막대한 돈과 시간을 투자해 자신의 신체를 변형하려고 매달리는 일종의 정신병인 '신체변형장애'라고 보는 것이다.

외모지상주의 사회에서 진정한 아름다움은?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되어 가는가? 그것은 우리 사회에 외모가 인생을 좌우한다고 믿는 '루키즘(lookism : 외모지상주의)'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루키즘은 특히 여성들에게서 더 많이 나타난다. 우리나라 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조사 결과를 보면, 3명 중 2명 이상이 '외모가 일생의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피부와 몸매가 생활 수준을 나타낸다', '몸매 좋은 여자가 부럽다', '외모에 따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데 대해서도 3명 중 2명이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다수가 루키즘에 빠져 있는 지금, '다이어트 열풍' 혹은 '성형 열풍'을 아름다워지고 싶어하는 한 사람의 개인적 욕망으로만 볼 일은 아니다. 그 안에 숨겨진 사회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마음씨 나쁜 것은 용서되어도 얼굴 못생긴 것은 용서 안 된다.'는 말은 단순한 유행어가 아니다. 남녀 모두 외모에 집착하다 보니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도 왜곡되어 간다. 한 조사에 의하면, 남자 10명 중 8명, 여자 10명 중 5명이 정상 체중인 여자를 비만으로 오인하고 있었다. 또한 남자 10명 중 5명, 여자 10명 중 3명이 정상 체형인 남자를

비만으로 보고 있었다. 남자와 여자 모두 왜곡된 기준으로 체형을 평가받지만, 특히 여자의 체형에 대한 왜곡이 더 심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왜곡된 평가는 용모를 따지는 기업의 인사채용 관행, 날씬하고 예쁜 사람이 최상이라고 부추기는 TV와 영화, 상업주의에 물든 병원들이 마구잡이로 행하는 성형수술, 넘쳐나는 다이어트 산업 등이 모두 함께 부추기고 있다.

이렇게 외모지상주의가 심각해지면서 이런 사회구조적인 문제로부터 청소년을 지키기 위한 몇 가지 제도적 노력이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0대를 위한 외모주의 인식 개선 프로그램과 교사용 가이드북을 개발했으며, 10대 소녀들 스스로 자신의 외모주의

1318세대



남의 관심을 끌기 위해 값비싼 운동화나 액세서리 등 소품에 집착한다.

1924세대



성형과 화장으로 자신을 변형시키고 고가의 선글라스와 액세서리에 관심을 기울인다.

2534세대



외모에 대한 관심이 절정에 이른다. 헬스와 피부 관리는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꼭 해야만 하는 인생의 중요한 목표가 된다. 심할 경우 목숨을 건 성형수술과 다이어트도 한다.

3543세대



어리게 보이는 것이 외모 가꾸기의 최대 목표이다. 기능성 속옷과 찜질방, 그리고 명품 패션을 통해 몸매 관리에 심혈을 기울인다.



인식도를 측정할 수 있는 온라인 프로그램을 제작하기로 하였다.

젊은 여성의 90% 이상이 자신의 신체에 대해 불만족스럽다고 하고, 82%가 ‘성형 수술을 받고 싶다’고 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만나 보아야 할 아름다운 여성이 있다.

“앞으로 지선 씨보다 더 예쁜 여자는 다시 못 볼 것 같습니다. 우리 딸도 지선 씨처럼 멋있게 커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지선의 홈페이지(<http://www.ezsun.net>)에 어느 방문자가 남긴 글이다. 이지선은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4학년이던 2000년 7월 여름, 오빠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음주 운전 차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그 사고로 몸의 55%에 3도 화상을 입었다. 응급실에 실려 갔을 때 의료진들이 ‘가망 없다’고 말했을 정도였다. 그러나 7개월간의 입원, 그리고 11차례의 수술을 거쳐 많이 회복되었다. 하지만 예쁜, 정말로 예뻐던 얼굴은 되찾지 못했다. 그런데도 그녀는 화상으로 일그러진 자신의 외모로 당당히 세상에 나서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지 말아 주세요.

너무나 못난 얼굴을 갖게 되었지만, 예전처럼 예쁘게 화장도 못하지만,

이 마음은 그 누구보다 예쁜 것을 좋아하는 스물네 살 여자입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쫄쫄” 불쌍하다 하지 말아 주세요.

누가 봐도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고 불행할 것 같은 모습이지만 그 누구보다

마음이 행복한 천국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따뜻한 눈으로 대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세상은 참 살아 볼 만한 곳입니다.

지금도 아픔 속에 있는 모든 분들께도 이 마음이 전해지길 원합니다.”

중국의 전족 이야기

전족(纏足)은 중국어로 연꽃발이란 뜻으로, 옛 송, 원, 명, 청 시대 중국 미인의 주요한 기준이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전족은 중국 여자들의 의무가 되어 버렸다. 전족을 하지 않은 여자는 천민으로 여겨져 바깥 출입도 하기 어려웠으며, 혼인을 하기도 힘들었다. 처음에 미인이라는 말을 듣기 위해 시작한 전족은 어느 순간 누구나 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유행이 되어 버렸다.

전족을 하면 발 크기는 대략 10cm 정도 된다. 이를 위해서 태어난 지 3~4살 된 여자아이의 발 중 엄지발가락을 제외한 남은 4개 발가락을 다 꺾어 발바닥에 밀착시킨다. 고통이 심하지만 미인이 되어야 하기에 이겨내야 했다. 전족을 하면 발가락뼈와 발바닥뼈의 일부가 부러지거나 으스러지고 발 주위의 피부 조직이 굵는다. 자연히 걷기도 힘들다. 걷는다 해도 척추가 굽어진다. 이로 인해 우울증과 정서불안이 생기기도 한다.

전족이 유행하면서 여자들의 발의 크기를 재는 경쟁인 전족대회도 열렸다. 이 대회에 나가지 않은 여성은 전족을 안 한 사람으로 취급당했다. 대회에서 우승할 경우 조건이 좋은 집안으로 시집을 갔다. 반면 전족을 하지 않는 여자는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청 왕조 말 태평천국의 난 이후 새 나라는 인권 침해라는 이유로 전족을 중지했다. 전족은 신해혁명이 일어난 지 1년 후인 1912년에 완전히 폐지되었다. 이후 전족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 EBS 지식채널 중에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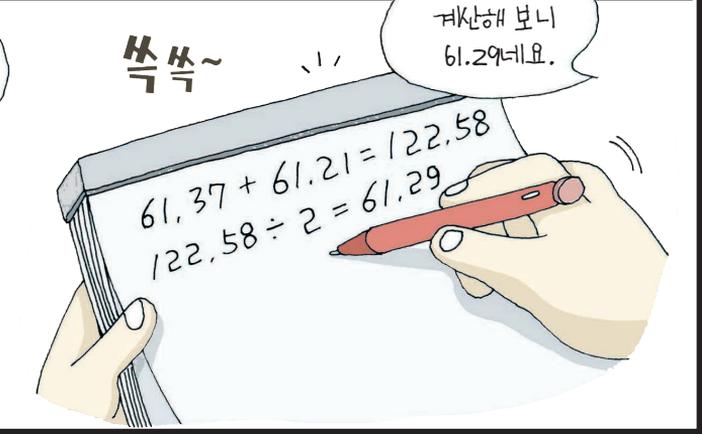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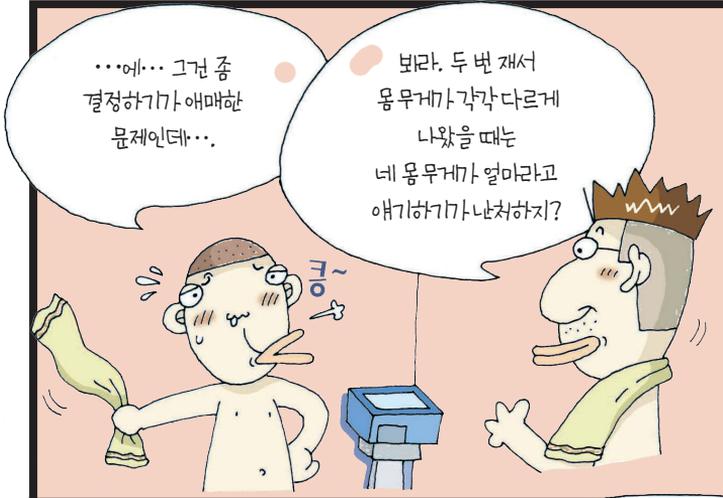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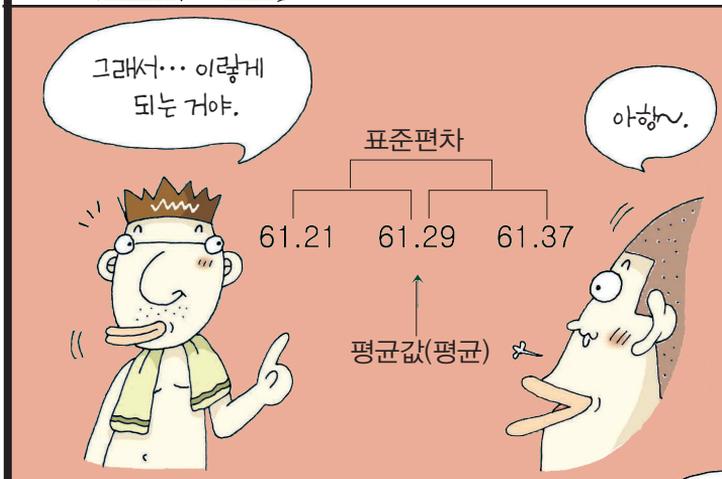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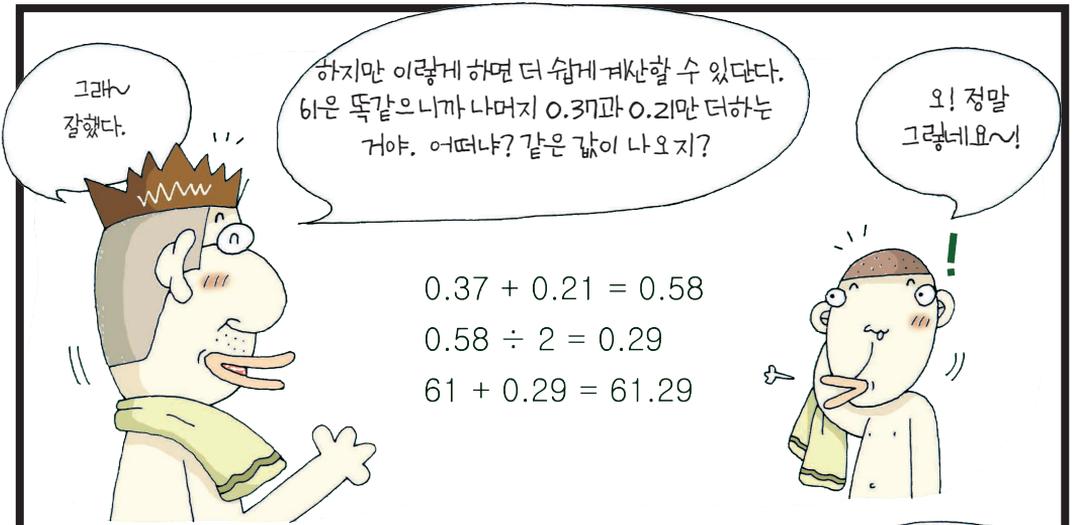
나의 진짜 몸무게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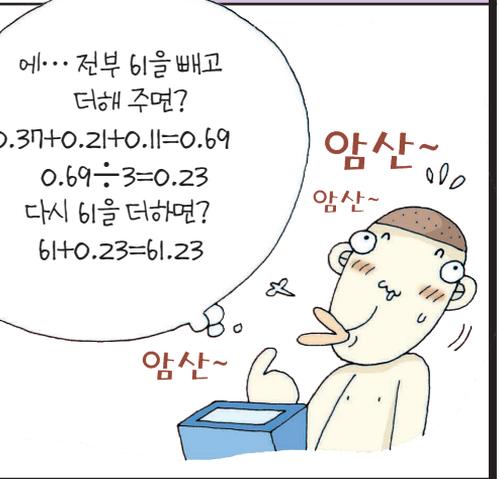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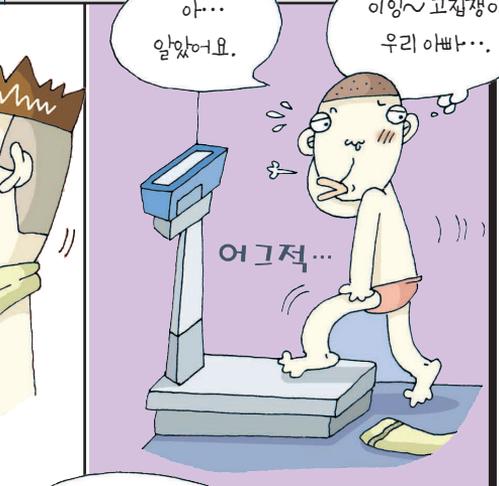
평균값 구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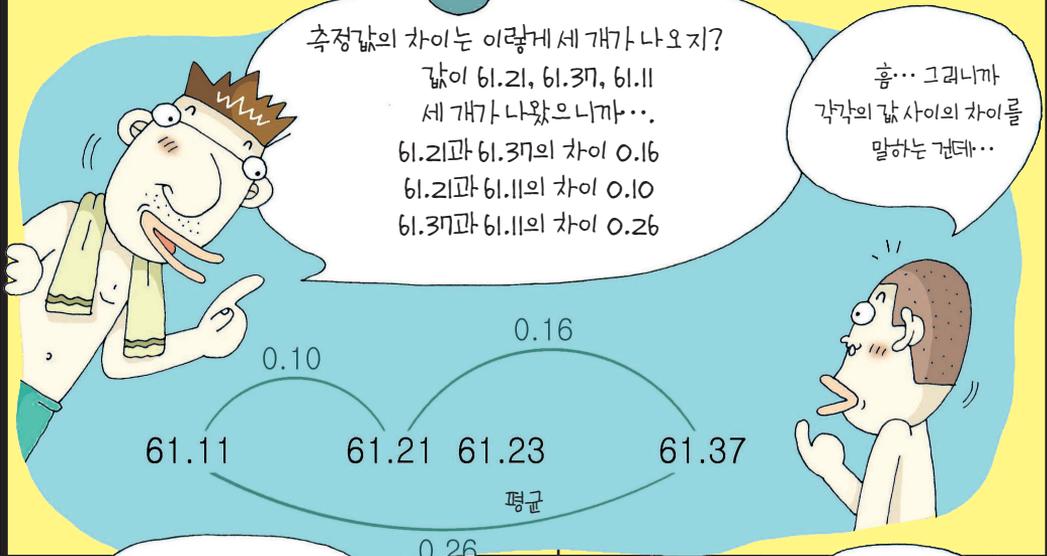














바로 이런 경우겠지...

팅팅...

한개 남았어?
에이 진짜~,
팔릴 때 팔아야
되는데 왜 물건을
이렇게 조금밖에
안만든 거야?



에구... 팔리지도 않을 걸
쓸데없이 왜 이렇게 많이
만든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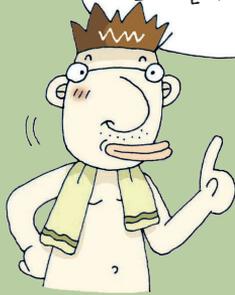
재고
수북~



그래서 그럴 때는 정확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기 위해
표준오차를 구하게 되는 거란다.

아아~ 그런 경우에
표준오차를 구하는
거구나...

그렇게
깊은 뜻이...



헤헤~ 그럼 전
꼭 알아야 되는 거겠네요.
나중에 사장님이 되면
꼭 필요할 테니까~♪

하하하~
그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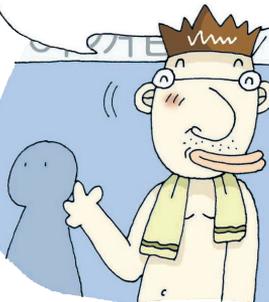
씨익~



자, 이제 그만 가지구나.
오늘은 아빠애기 잘 들어
줬으니까, 특별히 햄버거를 사 주마.

야호~
신난다~♪
아빠 최고!!

할... 목욕탕에
와서도 공부를 하더니...
대단한 부자인 걸...



지금 무슨 책 읽고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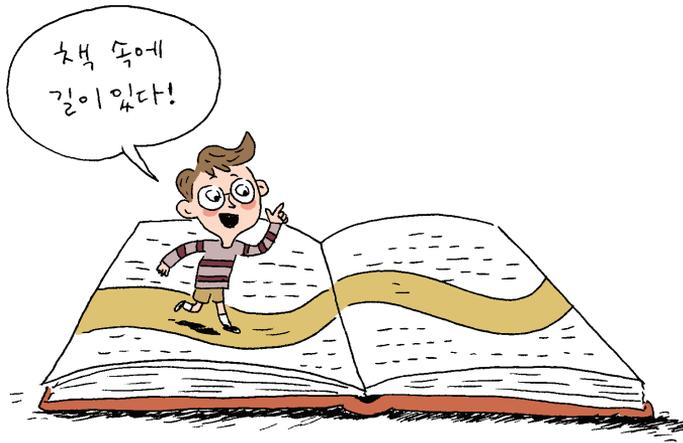
책을 통해 쌓이는 지혜

책은 왜 읽어야 할까? 사실 책을 읽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기억나는 내용이 별로 없다. 그냥 그런 책을 읽었다는 사실만 기억하는 것 같다. 《학문의 즐거움》이라는 책을 쓴 일본 출신의 유명한 수학자 히로나카 헤이스케는 “책을 읽고 공부를 하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혜가 쌓인다.”고 말한다. 그런데 책을 많이 읽으면 정말 지혜가 쌓이는 걸까?

우리가 날마다 먹는 밥과 반찬은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로 모두 소비되는 것 같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몸을 자라게 한다. 마찬가지로 독서도 한 권 한 권 읽은 내용이 쌓이고, 그 내용들이 합쳐져서 지혜를 형성해 가는 것이다.

우리의 선조들은 “하루의 독서는 천 년의 보배요, 백 년간 물질만 탐하는 것은 하루 아침의 티끌과 같다.”와 같은 글귀를 통해 글 읽는 것을 장려했다. 또 안중근 의사는 약지가 잘린 손도장과 함께 ‘하루라도 글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는 뜻의 “一日不讀書口中生荊棘(일일부독서구중생형극)”이라는 글귀까지 남겼다.

요즘 들어 우리는 어떤가? 멀티미디어 시대라고 하면서 책보다는 인터넷이나 TV와 더 가깝게 지낸다. 그러나 멀티미디어계의 핵심 인물인 빌 게이츠는 이렇게 말했다. “훌륭한 독서가가 되지 않고는 참다운 지식을 갖추 수 없다. 멀티미디어 시스템이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영상과 음향을 사용하지만 그래도 세부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최선의 방식은 책이다.” “나는 평일에는 매일 밤 1시간, 주말에는 3~4시간씩 책을 읽으려고 노력한다.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은 우리 마을 도서관이었다.”

우리는 책을 얼마나 읽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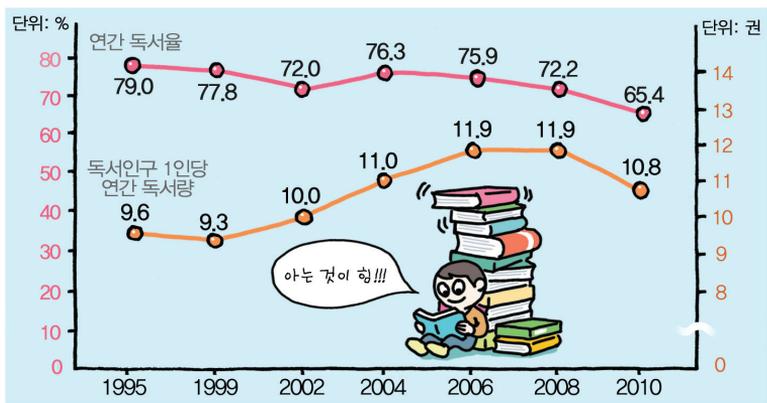
2010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18세 이상 성인 중 책을 읽는 사람은 65.4%로, 10명 중 3.5명이 책을 전혀 읽지 않는다. 한 사람이 1년 동안에 읽은 책은 평균 10.8권으로, 2007년 12.1권에 비해 다소 줄었다. 이제 한 달에 채 한 권도 읽지 않게 된 것이다.

학생들의 독서량은 성인보다 높은 편으로 16.5권이다(교과서, 학습참고서, 만화, 잡지를 제외한 일반 도서에 대한 독서량임). 초등학생(29.5권), 중학생(12.4권) 고교생(7.6권)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일반 독서량은 크게 줄어든다. 조사에 따르면 1993년을 정점으로 독서하는 인구의 비율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인터넷의 발달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

빌 게이츠처럼 “지금의 나를 있게 한 것은 우리 마을의 도서관”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은 얼마나 될까? 아마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도서관을 잘 찾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 도서관 자체가 적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 나라의 과거를 보려면 박물관을, 미래를 보려면 도서관을 가 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미래를 보기 위한 도서관은 그리 많지 않다.

연간 독서율과 독서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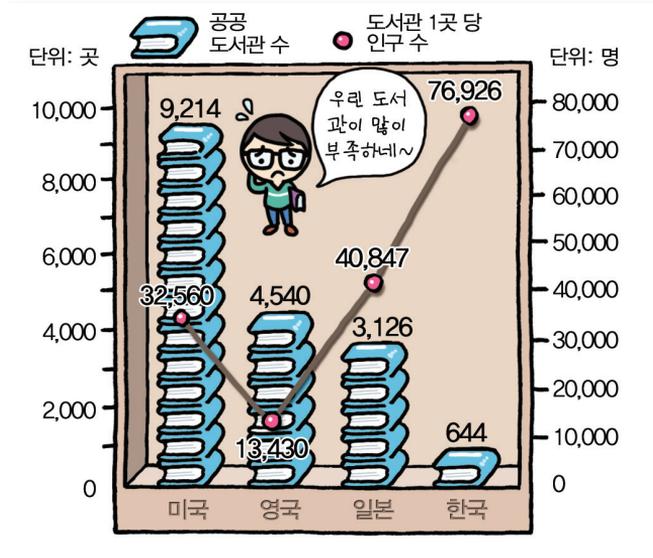
※ 자료 : 2010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문화체육관광부)

※ 주 :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1년간 독서를 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임

2009년 기준 우리나라의 도서관 수는 1만 6,437개이다. 이 중 대부분이 중등학교와 대학교의 도서관이고, 일반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은 10%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2008년 우리나라의 공공 도서관 수는 644개이고, 국민 1인당 장서 수는 1.2권에 불과하다.

여기서 잠시 다른 나라의 경우와 비교해 보자. 국립 도서관을 포함한 공공 도서관이 644개인 우리나라에 비해, 이웃 일본은 3,126개, 영국은 4,540개, 가장 많은 미국은 9,214개이다. 인구 대비로 보면 영국은 1만 3천 명당 1개, 일본은 4만 1천 명당 1개, 그리고 미국은 3만 3천 명당 1개인 셈이다. 우리의 경우는 어떨까? 우리나라 전체 인구 4,900만 명에 공공 도서관이 644개이므로 주민 7만 7천 명당 하나꼴이다. 영국에 비하면 다섯 배, 가까운 일본에 비해서도 절반 가까이 적다.

나라별 공공 도서관의 수(2008년)



※ 자료 : 국가도서관 통계시스템

다행히도 최근에 들어 작은 도서관을 만들려는 사회적 움직임이 조금씩 보인다. 초, 중, 고등학교에서도 도서관을 운영하고, 지하철에서도 그리고 집에서도, '책'과 경쟁하는 것이 'TV'라는 점에서, 집의 거실을 도서관으로 꾸미려는 노력은 쉽지 않지만 매력적인 움직임이다. 처음엔 'TV 안 보기 운동'을 통해 책 읽고 가족과 대화하는 것을 강조 하더니, 요즘은 아예 거실을 도서관으로 만들자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책이 없는 집은 문이 없는 감옥과 같고, 책이 없는 방은 혼이 없는 육체와 같다."는 키케로의 표현처럼, 책은 바로 세상과 소통하는 중요한 통로이다. "좋은 책을 읽는 것은 지난 몇 세기에 걸쳐 가장 훌륭한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라는 데카르트의 말까지 새겨 보면 거실을 도서관으로 바꾼 집은 바로 가장 훌륭한 사람과 함께 세상을 품고 살고 있는 것이다.

요즘 무슨 책 읽으세요?

나는 도시인의 도서관을 씬터로 본다.

영혼을 쉬게 하는 씬터로 여긴다....

그곳에 들어서면, 조용한 표정과 미소가 있는 얼굴이 있다....

참고 자료를 찾는 탐구의 얼굴들이 있다.

삶을 살다 보면 의문이 생기고 '왜?'가 떠오른다. 이를 찾아보는 작업장이다.

그러기에... 생활을 부드럽게 하는 생활 공간이요, 씬터의 연장으로서의 씬터이다.

도서관에 대한 유경환의 시이다. 파피루스로 종이를 만든 고대 이집트에서는 세계 최초로 책을 보관하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만들었다. 이 도서관은 아르키메데스에게 부피 개념을 발견하고 "유레카!"라고 외칠 수 있는 기초 지식을 주었으며, 유클리드 기하학을 가능하게 했다. 오늘도 도서관은 우리에게 다양한 지혜를 주는 공간이다. 아이들이 도서관에서 책 읽는 모습을 상상해 보자. "꿈꾸기 위해서는 눈을 감을 것이 아니라 읽어야 한다."라는 미셸 푸코의 말은 도서관과 그 안에 담긴 책이 인간의 미래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한다.

사람을 만나면서 나누는 인사말은 그 사회의 특징을 보여준다. 가난해서 먹고사는 문제가 중요했던 때에는 '식사하셨어요?'가 인사말이었다. 문화와 정보의 시대인 요즘, 인사를 한번 바꿔 보자. '요즘 무슨 책 읽니?'라고. 이렇게 인사를 나누면 서로의 대화에서 문화의 꽃이 피고, 마음속에 지혜의 나무가 자라며, 우리 모두의 삶에 맑은 바람이 일어날 것이다.

'당신, 요즘 무슨 책을 읽고 있나요?'



‘책의 날’에는 책을 읽자

가장 책을 안 읽는 나라는 어디일까? 스페인이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세계 책의 날’은 스페인에서 만든 기념일이다. 가장 책을 읽지 않기로 유명한 나라 스페인에서 독서를 장려하기 위해 만든 이날은 카탈루냐 지방에서 전통적으로 책을 사는 사람에게 꽃을 선물했던 ‘상 조르디’의 날과 1616년 《돈키호테》의 작가 세르반테스가 죽은 날을 기념해서 만들었다. 전통적으로 스페인에서는 이날을 기념하여 가까운 사람들에게 붉은 장미와 책을 선물한다.

국제출판인협회가 스페인 정부를 통해 유네스코에 이날을 ‘세계 책의 날’로 하자고 제안하여 1995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통과된 이후, 여러 나라에서 매년 4월 23일을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날을 기념하여 다양한 행사를 벌이고 있다. 또 우리나라는 고려 팔만대장경이 완성된 10월 11일을 따로 ‘책의 날’로 정해 기념하고 있다. 4월과 10월 두 번의 책의 날을 기념하여 1권씩만 읽어도 1년에 두 권을 읽게 되는 셈이다.

다양한 기념일을 갖기로 유명한 미국에서는 책의 날도 다양하다. 15세기 유럽에서 처음 인쇄술이 발명된 것을 기념하는 ‘세계 인쇄주간’이 1월 셋째 주이고, 20세기 영문학을 대표하는 비평가 리처드의 생일을 기념하는 ‘비평가의 날’이 2월 16일, 안데르센의 생일을 기념하는 ‘국제 어린이 도서의 날’이 4월 2일이다. 심지어는 사전을 만든 웹스터의 생일을 기념하는 ‘사전의 날’(10월 16일)도 있다.



‘책을 많이 읽는다’ 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

00 일보 사회

“성인 10명 중 4명은 여전히 책맹(冊盲)”

2006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제주도 제외)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독서 실태를 설문 조사한 결과, 최근 1개월간 책을 읽은 경험을 측정하는 독서율은 64.9%로, 2004년 조사에서의 54.5%에 비해 비교적 상승했다.

우리나라 독서율이 과거에 비해 상승했지만 아직도 낮구나...

어이쿠!

독서율이요?

그래.. 한 달에 책을 1권 이상 읽는 성인 남녀의 비율을 월간 독서율이라고 하는데, 64.9%(2006년)밖에 안 된다는구나.

그럼 어른들은 10명 중 4명이 한 달에 책 1권도 안 읽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책을 보는데...

음!

준석이 네가 무슨 책을 날마다 봐?

우... 우리 공부하느라고 매일 보잖아요.

우히히~

교과서는 책 아니가요 뭐~?

.....

끼악~



으휴~.
인석아!

아앗!

포집~



독서 실태를 조사할 때는
그렇게 의무적으로 읽는 교재나
참고서 같은 건 포함시키지
않는답니다.

영~?
그건 왜요?



독서 실태 조사는
여가 생활을 어떻게 보내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하는 건데,
의무적으로 읽는 거라면 여가
생활이라고 할 수 없지 않나?

흐음... 그건
그렇겠네요.

끄덕...



그래서 통계 조사를
할 때는 용어를
제대로 정의하는 게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범위도 한정하는
거구요?



범위?

네, 우리 같은
청소년은 빼고
성인 남녀만
조사한 거잖아요.

헤헤~



그렇지, 이 녀석
통계를 좀 알고
나더니 똑똑해
졌는걸? 하하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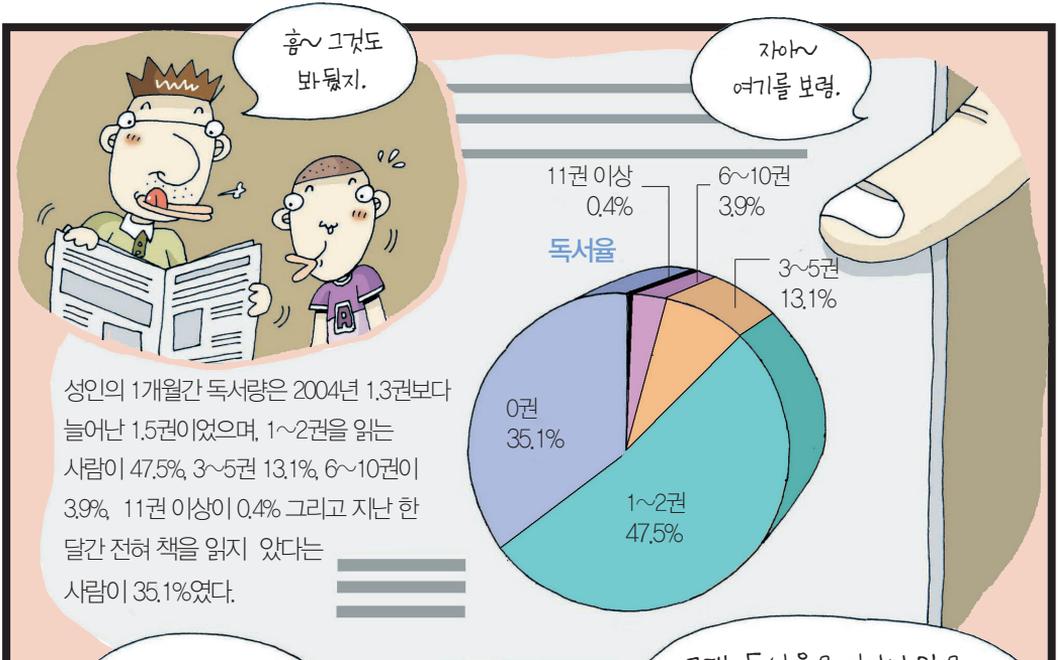
흠흠~ 전 원래
똑똑했거든요.



그런데...

1권 이상 읽은
사람들을 조사했다면, 몇 권
정도나 읽는지는
모르는 건가요?





성인의 1개월간 독서량은 2004년 1.3권보다 늘어난 1.5권이었으며, 1~2권을 읽는 사람이 47.5%, 3~5권 13.1%, 6~10권이 3.9%, 11권 이상이 0.4% 그리고 지난 한 달간 전혀 책을 읽지 있다는 사람이 35.1%였다.

흠~ 그것도 봐봤지.

자아~ 여기를 보렴.

아까는 독서율 조사했는데여기는 독서량이지?

예, 독서율과 독서량이 다른가 보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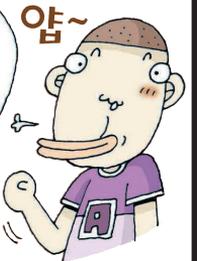
그래. 독서율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고 있는지 알아보는 통계고, 독서량은 그 사람들이 책을 얼마나 많이 읽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통계란다.



똑같이 책을 많이 읽는다는 말에도 두 가지 뜻이 있군요.

그렇지.

그런데 이 독서량 통계만 보고 독서율을 계산할 수 있겠니?



호흠~ 독서율은 책을 1권 이상 읽은 사람들의 비율이니까...

프적~

오케이~ 독서율은 64.9%예요!

1~2권 읽은 사람	47.5%
3~5권 읽은 사람	13.1%
6~10권 읽은 사람	3.9%
+ 11권 이상 읽은 사람	0.4%
<hr/>	
	64.9%

책!

43.9%

호오?!

준석이 제법이다?

64.9%... 앞의 기사에 나온 독서율과 같구나.

쓰익~

하하하 푸! 하하하 하하하~

뭐 이 정도쯤은 누워서 꿀떡 먹기죠~♪

우쭈~

어라? 기만히 생각해 보니... 그럴 기사가 틀린 거네?

뚝!

응? 뭐가?

여길 좀 보세요. 자료는 독서량을 그려 놓고 제목은 독서율이라고 써놨잖아요.

아, 정말 그래네?

<독서율>



친구들, 통계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을 조사할지를 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조사할 건지는 그 다음 문제이지요.
 독서 실태를 조사할 때는 독서 인구의 비율이나 독서 권수를 조사한다고
 정하고 나니까, 그걸 재기 위해 성인 남녀, 한 달에 한 권 이상이라는 기준을
 세우게 된 거랍니다.
 이렇게 명확한 기준을 정하지 않고서는 조사를 진행할 수 없지요.

그래서 통계 조사를
 제대로 하려면 용어를
 정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얌~

플딱~

터억!

'한마디' 끝~
 자, 이제 선물 사귀
 가져와나.

으히하~
 뭘 사 주실
 건데요?

씨익~

당연하...
 책이지!

끼응~

오늘은 책으로
 시작해서 책으로
 끝나는군...

여자의 일생, 어떻게 바뀌었나?



프롤로그 [3F]

21세기는 3F, 즉 Fiction(상상력), Feeling(감성), 그리고 Female(여성)의 시대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 여성이 중요하다고 한다. 사실 상상력과 감성도 여성의 특성에 더 가까우니, 21세기는 가히 여성의 시대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실제 이 땅의 여성들의 삶은 어떠할까?

출생 즈음 [100:106.9]

“내 짝이 같은 남자애라서 너무 싫어요. 나도 여자애와 짝했으면 좋겠어요.”, “남자애들끼리 앉는 우리 반을 홀아비 반이라고 놀려요.”

남자아이가 더 많이 태어난다는 것은 단순히 교실 내에 짝궁이 모자라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남성들이 결혼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까지 이를 만큼 사회 문제를 낳고 있다.

자연 상태의 성비는 103~107이다. 여자아이 100명당 남자아이 103~107명이 태어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2010년의 출생 성비는 106.9이다. 10년 전에는 110.2여서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으나, 점차 그 비율이 낮아져 2006년 107.5를 거쳐 이제 자연 상태의 성비와 거의 가까워졌다. 과거에 여성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였는데, 이제 그렇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셋째아이의 출생 성비는 여전히



110.9인 것으로 보면 아직 완전히 달라진 것은 아닌 듯하다.

학교에 다닐 즈음 [1970년 27% → 2010년 80.5%]

“제가 태어날 때 주변 분들이 첫딸은 살림 밑천이라고 하셨대요.” “형제 중 맏딸인 저는 초등학교 졸업하고 공장에 취직해서 남동생의 학비를 벌 수밖에 없었어요.” “남동생들은 모두 대졸인데 여자인 저만 중졸이라 좀 창피해요.”

요즘엔 이런 일은 거의 없다. 성별에 관계없이 중학교를 졸업하고 대부분 고등학교에 가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어떤가? 여성들의 대학진학률은 1970년 27%에서 2000년 65.4%, 2005년 80.8%, 2010년엔 80.5%로 높아졌다. 특히 2010년에는 남성의 대학진학률(77.6%)을 앞질렀다. 그러나 여전히 전공 선택은 편중되어 있다. “여자가 사대나 교대 나와서 선생님 하면 얼마나 좋아.”, “여자가 공대 가서 뭐 하려고 그러니?” 아직도 이런 의식이 많아 여학생들은 사범교육계와 예능계에 주로 몰리고, 자연과학계나 공학계에는 상대적으로 적다. 그래서 실제 취직을 위한 전공을 고려할 때 여자들의 고등교육은 여전히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 불리하다. 이처럼 치우친 전공의 선택은 생물학적 차이 때문일까, 아니면 사회적 편견의 결과일까?

취업할 즈음 [노동시간차 -4.5, 임금차 -3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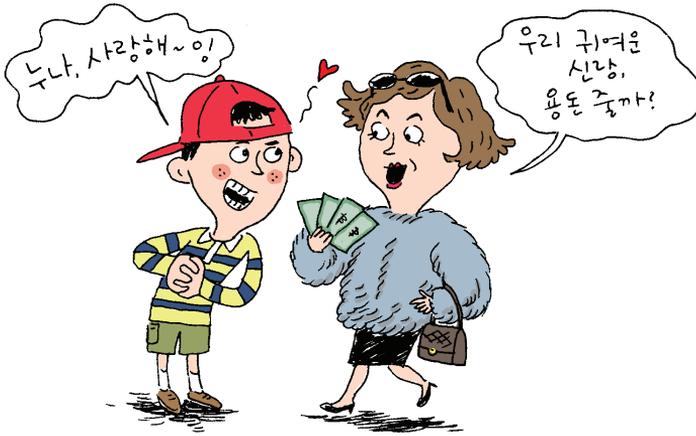
“미스 김, 여기 커피 한 잔.” “미스 박, 이제 결혼하면 회사 그만두는 거지?”

여성을 ‘직장의 꽃’ 정도로 생각하고 커피 심부름 등 온갖 곳은 일을 다 시키다가 결혼과 함께 그만두게 만들었던 과거의 직장 생활과 달리, 지금은 직장 여성이 일반화되었다.

여성의 절반 정도가 사회생활을 하는 요즘엔 커피 심부름 같은 일은 거의 없어졌지만, 직장에서 여성이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는 여성은 거의 없다. “육아 휴직하는 게 눈치 보여요.”, “내가 사장이라면 능력이 같을 경우 남자를 뽑을 거예요.”, “기획실이나 총무과 같은 일명 핵심 부서에는 여직원들을 잘 안 보내요.”, “저보다 후배인 남자들이 먼저 승진하는 것을 보면 그만두어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과거처럼 ‘미스터 김’과 ‘미스 김’으로 구분하지 않고, 남녀 모두 ‘김 대리’로 불리지만 여전히 업무나 승진에서는 성차별을 느낀다.

차별의 초점은 임금의 차이이다. 예전에 비해 많이 줄어 들기는 했지만, 남자의 임금을 100으로 할 때 여자는 보통 66.9를 받는다. 남자가 더 많이 일하기 때문일까? 꼭 그렇지는 않다. 남자가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이 100이라면 여자는 95.5이다. 근로 시간 차이는 -4.5에 불과하지만 임금의 차이는 -33.1인 것이다. 이것은 대체로 전문직이나 정규직으로 일하는 여자들이 적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변화가 일고 있다. 몇 년 전만 해도 어느 기업이든 대졸 여자 신입사원을 찾아보기 힘들었지만 요즘은 서너 명 중 한 명이 여성이다. 전문직이나 관리직의 여성 근로자 비율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의료 분야의 경우 1980년 10.9%에 불과했던 여성 치과 의사의 비율이 2009년 24.9%로 2.5배 정도 증가하여 치과 의사 4명 중 1명이 여성이다.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았던 여성 한의사의 경우도 1980년 2.4%에서 2009년 16.4%로 크게 늘어났다.



결혼할 즈음 [28.9세]

“결혼을 꼭 해야겠다는 생각은 별로 없어요. 나 자신을 잃지 않고 살도록 해 주는 남자를 만나면 달라질지도 모르지만요.” “결혼 적령기가 있나요. 마음에 드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가 적령기죠.”

여자들 사이에서 꼭 결혼해야겠다는 생각이 줄고 있으며, 실제로 결혼하는 사람도 계속 줄어든다. 15세 이상의 여자를 100명이라고 하면 59.1명은 결혼에 찬성하고, 4명이 결혼에 반대하며, 35.6명은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고 하고, 1.3명은 ‘잘 모르겠다’고 한다. 실제로는 25.8명이 결혼하지 않았고, 56.9명이 결혼하여 남편과 살고 있으며, 12.9명은 사별했고, 4.4명이 이혼하고 혼자 산다.

결혼 적령기는 사라졌다고 하지만, 평균적으로 29살에 자신보다 3살 정도 나이가 많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한다. 그런데 이런 나이차와 반대로 가는 커플도 늘어나고 있다. “친구의 누나를 만났다.” “누나 사랑해”라는 광고나 “누난 내 여자니까”라는 노래를 증명이라도 하듯 연상녀+연하남 커플이 늘어나고 있다. 재혼녀+초혼남 커플 또한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연상녀+연하남’, ‘재혼녀+초혼남’ 커플이 점차 많아지는 것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 사회가 개방되어서일까? 아니면 과잉보호 속에 자란 남성들이 모성 회귀 본능에 따라 계속 여자에게 보호받기를 원해서일까?



아이 낳고 가족을 이룰 즈음 [1.23]

아이 없이 맞벌이하는 딩크(DINK, Double Income No Kids)족이 늘어난다. 아이를 두고 맞벌이하는 듀크(DewKs, Dual-employed with Kids)족도 아이는 대부분 1명이다.

예술 관련 사업을 하는 최씨 부부는 결혼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결혼 때의 약속대로 아이를 갖지 않았다. 최씨 부부의 생활은 완벽한 부부 중심이다. 아이가 없으니 동호회 등 취미 활동이 많은 편이고, 서로의 여가나 사생활에 대해 일체 간섭하지 않는다.

“아내라기보다는 여자친구, 배우자라기보다는 인생의 동반자죠. 후회는 없어요. 입양도 생각하지 않아요.”

맞벌이 부부의 가장 어려운 점이 육아 부담이라는 점에서 딩크족이나 1명의 아이를 둔 듀크족은 계속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인지 2010년 현재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는 아이의 수(합계출산율)는 1.23명으로, 1970년에 비하면 3명이나 줄어들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고시를 준비하는 김모씨는 회사에 취직한 여자친구와 결혼한 지 2년이 지났다. 그들에게는 가사 분담이나 부부 생활에서 남녀 차이가 없다. 김씨가 청소와 설거지를 맡고 부인인 박씨가 요리, 빨래, 세금 납부 등을 맡고 있다. 이들의 지출 내역 중 비교적 아낌없이 쓰는 항목은 문화비와 외식비이다. 이들 부부는 미래를 위한 저축보다 현재의 행복에 가치를 둔다. 아이 문제는 차차 생각해 볼 예정이다.

맞벌이 가정이 많아지면서 가사 분담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그럼에도 1시간 이상 걸리는 음식 준비를 비롯하여 설거지, 청소, 육아 등 가사일에 전업 주부는 하루평균 6시간 25분, 맞벌이 주부는 3시간 28분을 소비한다. 특히 40대 주부의 가사노동 시간은 가장 길어서 하루 평균 12시간 16분이다. 가사를 분담하는 가정이 많아지고는 있지만, 남성이 가사일에 들어가는 시간은 여성의 3분의 1 수준이므로, 결혼한 여성은 여전히 직장과 가정에서 온 힘을 다해야 하는 형편이다. 직장과 가정일을 다



잘해야 하는 슈퍼우먼의 굴레를 벗고 인격을 가진 평등한 한 사람의 가족 구성원으로 살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해야 할까?

60세를 넘길 즈음 [+26.2]

수명이 그리 길지 않았던 과거에는 60세를 환갑이라고 하여 잔치를 할 정도로 노인에 대해 경외와 공경을 표했다. 그러나 요즘의 60세는 아직 청춘이다. 특히 여성의 60세는 더욱 그렇다. 2010년 기준 60세가 된 남자의 기대수명은 21.1년인 것에 비해 여성들은 26.2년으로 남자보다 오래 산다. 사별하고 홀로 사는 할머니들이 많은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오래 사는 것이 큰 행운은 아닌 것 같다. 그들의 반 이상은 자녀와 같이 살면서 자녀의 봉양을 받지만, 실제로는 손자를 키우는 경우가 많다. “몸에 기력이 빠져서 손주 놈 봐주는 것도 힘들어. 그래도 어떡해, 젊은 것들 맞벌이한다고 고생하는 것 생각하면 내가 키워 줘야지.” “외손녀 키우느라 친구랑 꽃놀이 한 번 못 가 봤어. 그런데 손녀들 다 키우고 나니 내 몸 움직이기도 힘들어. 평생 가족 뒤치다꺼리하다 내 인생 끝나는 것 같아.” 또한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앓거나 주변 사람의 도움 없이는 거동이 불편한 경우도 많다. 험난한 출생 경쟁을 뚫고 치열하게 이 땅에서 살아온 이 강인한 할머니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까?



에필로그 [11, 115]

2011년 유엔개발계획(UNDP)이 전 세계 146개국을 대상으로 조사 발표한 ‘성 불평등지수’에서 우리나라는 0.111점으로 11위를 차지했다. 2010년 138개국 중 20위이었음에 비하면 조금 상승했다. 그러나 스웨덴(1위, 0.049), 네덜란드(2위, 0.052), 덴마크(3위, 0.060)에 비해 절반 수준이다.

그런데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1년 성 격차 지수’에서는 우리나라의 양성 평등지수가 조사대상 135개국 중 107위를 차지하여 하위권에 머물렀다. 성 격차 지수는 여성의 경제적 참여와 기회, 교육수준, 보건 및 수명, 정치적 권한을 종합평가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불균형을 겪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남녀간 평등한 삶을 위한 조건은 어느 정도 갖추어졌지만, 사회적 남녀 차별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딸은 아들의 반대말이 아니에요. 같은 형제자매라구요.” “여자와 남자 모두 똑같은 인간이지요.” “여자와 남자가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는데, 다 같이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한 거 아닌가요.” 미래를 예측한 한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강대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여성 인력의 활용이 결정적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톱 10 국가’ 진입이 불가능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한국의 미래는 여성에게 달려 있다. 그대 여성들, 그들을 누이와 아내로 둔 그대 남성들, 준비되었는가?

우리나라 최초의 대졸 여직원 공채는?

최초의 여직원 공개 채용은 1986년 11월 대우그룹에서 이루어졌다. 여성 대학 졸업자나 대학원 졸업자 및 경력을 대상으로 인문계 100명, 이공계 100명으로 총 200명을 모집하였는데 26 대 1의 경쟁률을 보일 정도로 인기였다. 당시 채용은 대졸 남자 초임이 32만 원이었던 반면, 대졸 여자 초임은 30만 원으로 약간 차이가 있었다. 근무 시간은 일반 직원과 동일했고, 결혼 후에도 근무를 원할 경우 동일한 조건에서 근무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우리나라의 성씨는 몇 개나 될까?



* 통계청은 2000년 우리나라의 성씨 및 본관에 대해 조사하고, 2002년에 발표했다.
이것은 성씨에 관한 최근의 공식 자료이다.

“가가 가가가?”

“그 아이가 가씨가 맞느냐?”라고 묻는 경상도 사투리다. 그런데 가씨가 정말로 있을까? 있다. 한자로 賈라고 쓰는 가씨는 9,090명이 있다. 가씨가 있다면 가나다 순으로 가장 뒤에 오는 성(姓)은 무엇일까? 흥(興)씨가 답이다. 흥씨는 462명이 있다. 우리나라의 성은 이렇게 가씨에서 흥씨까지 모두 290여 개가 된다. 이는 중국의 2,600개, 그리고 10만 개나 되는 일본에 비하면 그리 많은 편은 아니다.

“이름도 성도 모른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용하는 말이다. 그런데 이 표현은 언제부터 사용했을까? 그것을 알려면 먼저 성이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를 알아야 한다. 주변 친구들을 보더라도 이름은 순 우리말인 경우에도 성은 꼭 한자인 걸 알 수 있다. 이렇게 모든 성이 한자로 되어 있는 걸 보면, 중국의 한자 문화가 들어온 이후 성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오래된 성에 대한 기록은 삼국시대의 것이다. 고구려의 시조 주몽이 나라를 세워 ‘고구려’라 하면서 자신의 성을 고씨(高氏)라 하였고, 백제를 세운 온조(溫祚)도



부여 출신이라 하여 자신의 성을 부여씨(扶餘氏)라 하였다. 신라의 박(朴)혁거세는 박처럼 생긴 알에서 나왔다 하여 박의 음을 따 성을 만들었고, 김알지는 금궤에서 나왔다고 하여 성을 김(金)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역사 문서를 보면 삼국시대 초기부터 성을 사용한 것은 아니다. 고구려는 장수왕 때(재위 413~491)부터 고씨(高氏) 성을 썼고, 백제는 근초고왕 때(재위 346~375)부터 여씨(餘氏)라 하였다가 무왕 때(재위 600~641)부터 부여씨(夫餘氏)라 하였고, 신라는 진흥왕(재위 540~576) 때부터 김(金)이라는 성을 사용하였다.

삼국시대에는 대부분 왕족이나 귀족만 성을 가지고 있었고, 고려 때는 평민들까지, 그리고 조선 후기에야 천민들도 성을 가지게 되면서 모든 사람이 성을 사용하게 되었다. 그러니 전혀 모르는 사람을 말할 때 사용하는 '이름도 성도 모른다.'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조선 후기에나 가능했던 일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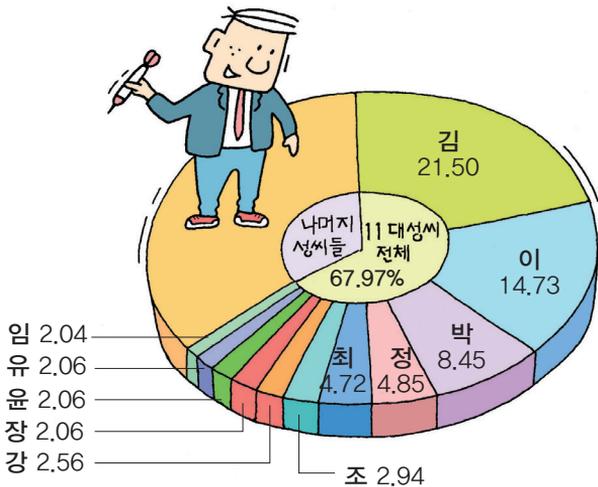
“서울에서 김 서방 찾는다.”

일반적으로 사람을 찾기 어렵다는 표현을 할 때 사용하는 말이다. 이 외에도 “촌놈은 김가 아니면 이가다.” “김씨가 끼지 않은 우물은 없다.”라는 표현도 있다. 이걸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성은 ‘김’일 가능성이 크다. 정말 그럴까?

행정안전부 조사(2007. 10.30. 기준)에 의하면 대략 김(金)씨가 최대의 성으로 1,057만 명 정도가 사용하여 5명 중 1명꼴(21.5%)이며, 그 다음으로는 724만 명으로 7명 중 1명꼴(14.73%)인 이(李)씨, 그리고 4,15만 명으로 12명 중 1명꼴(8.45%)인 박(朴)씨이다. 이들 김, 이, 박씨를 합하면 2천만 명이 넘는다. 즉 우리나라 사람 중 2명에 1명은 ‘김, 이, 박’씨다. 이 성 외에도 인구 100만 명이 넘는 성씨는 정(4.85%), 최(4.72%), 조(2.94%), 강(2.56%), 장(2.06%), 윤(2.06%), 유(2.06%), 임(2.04%)로 모두 11개가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가장 적게 사용하는 성은 무엇일까? 혹시 주변에서 예(兪)씨나 삼(杉)씨, 즈(計)씨를 만나 본 적이 있는가? 이들을 만났다면 당신은 매우 특별한 경험을 한 것이다. 이들 성씨는 아주 희귀성이기 때문이다.

100만 명 이상 인구를 가진 성씨와 비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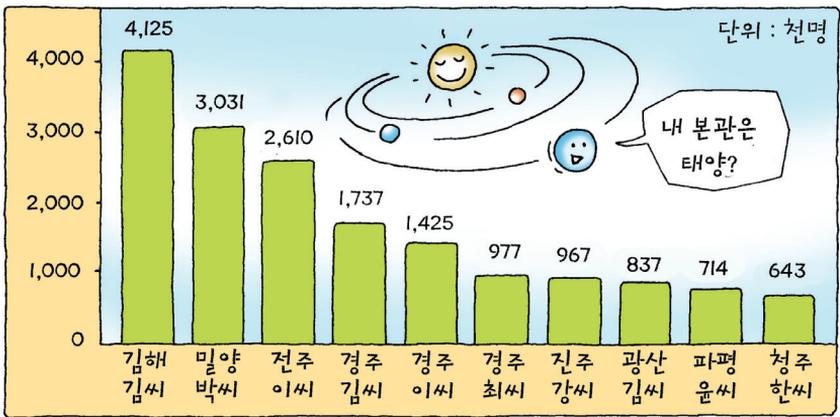


“너는 어디 ㅇ씨냐?”

어른을 만나 성과 이름을 밝히고 나면 뒤를 이어 듣게 되는 질문이다. 본관을 묻는 것이다. 본관은 어떻게 해서 생겨난 것일까?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면서 성만으로 같은 혈족을 구별할 수가 없게 되자, 조상의 출신지 또는 씨족의 거주지와 같은 지명을 성 앞에 붙여 사용하면서 본관이 생겼다. 고려 초에 만들어진 본관은 처음엔 신분의 표시로 주로 지배층에서만 사용되다가, 나중에 일반인도 호적에 본관을 기재하게 되었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본관은 ‘경주’이고, 그 다음으로 ‘진주’, ‘전주’ 순이다. ‘경주’라는 본관을 사용하는 성씨는 87개이고, ‘진주’라는 본관을 사용하는 성씨는 80개, ‘전주’라는 본관을 사용하는 성씨는 75개이다. 실제 사람 수로 보면 ‘경주’ 본관을 가진 인구가 482만 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 ‘김해’를 본관으로 한 43개 성씨가 449만 명으로 뒤를 잇는다. 성씨와 본관을 합쳐서 살펴보면 ‘김해 김씨’가 413만 명으로 11명 중 1명꼴(9.0%)로 제일 많다. 그 다음으로는 15명에 1명꼴인 ‘밀양 박씨(6.6%)’, 18명에 1명꼴인 ‘전주 이씨(5.7%)’ 순이다.

본관별 성씨 인구 (2000년)



※ 자료 : 통계청

“성을 갈겠다.”

조선시대 이래로 모든 사람들이 성을 갖게 되면서 ‘성(姓)은 바뀌지 않는다.’는 원칙이 철저히 지켜져 온 우리나라에서 굳은 맹세나 약속을 할 때 사용하는 말이다. 이때의 성은 아버지(父)의 성씨를 말하며, 여자들은 혼인하더라도 자신의 아버지 성을 그대로 유지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성을 바꾸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성을 갈겠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것과 같은 강한 맹세인 것이다. 그런데 정말로 성을 가는 경우는 없는 걸까? 실제로 성씨가 완전히 다른 집안에 입양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에서 성을 바꿀 수 없다.

‘성 불변의 원칙’은 세계에서 보기 드문 것으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혈연적 집단 의식과 뿌리 깊은 성씨 의식, 그리고 부계 혈족주의를 강하게 보여준다. 그러나 이렇게 ‘불변의 부계 중심의 성’을 사용함에 따라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났다. 가장 큰 문제는 ‘성 불변의 원칙’에 따르면, 재혼한 엄마를 따라 새 아버지와 사는 아이들은 전 아버지의 성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한 가족인데도 성이 달라 상처를 받거나 놀림을 받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부계 성씨만을 고집하는 경우 미혼모의 자녀들은 성으로 인한 사회적 차별에 고스란히 노출된다.

이런 점에서 ‘성 불변의 원칙’은 우리 사회 ‘인권의 문제’의 한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2005년 ‘성 불변의 원칙’을 제도적으로 강제하는 ‘호주제’에 대해 ‘헌법 불합치’라는 헌법재판소의 판정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새 법이 만들어지면서 2008년 1월 1일부터 ‘성 불변의 원칙’이 사라졌다. 그렇지만 우리의 의식에 남아 있는 ‘성 불변의 원칙’이나 부계 성 위주의 삶이 쉽게 바뀔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최근의 몇 가지 성과 관련한 새로운 풍조는 우리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데 유용할 것이다. 신문이나 방송에 출연하는 사람들 가운데 조한○○, 강이○○ 등 이름이 4자인 사람들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예전처럼 아버지의 ‘성’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성까지 같이 쓰자고 하는 ‘부모 성 함께 쓰기 운동’을 하는 것이다. 법적으로는



여전히 아버지(父)의 성으로 되어 있지만 사회적 운동 차원에서 하는 것이며, 이런 활동을 통해 부계 혈족주의의 폐해를 공론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부모 성 함께 쓰기는 세대가 지날수록 성이 길어지거나, 다음 세대엔 결국 양가의 아버지 성만 따르게 되는 문제가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예 성을 사용하지 말자는 움직임도 있다.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이름인 ‘하늘’, ‘별’과 같이 그냥 부를 수 있는 자신의 이름만 사용하지는 것이다.

이 사람의 본관이 궁금하다!

우리나라에 귀화하여 성과 이름을 우리나라 식으로 표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예를 들어, 귀화 외국인으로서 처음 공직자가 된 한국관광공사 사장 이참(李參, 독일인, 베른하르트 크반트)과 국제 변호사 하일(河一, 미국인, 로버트 할리) 씨가 있다. 이들도 본관이 있을까? 당연히 있다.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적(籍)을 가지려면 본관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만든 것이다.

이참 씨의 본관은 독일이다. 그는 1986년에 귀화하면서 이한우라는 이름을 사용하였는데(2001년에 이참으로 개명), 이때 본관을 자신의 조국인 독일로 정하였다.

하일 씨의 본관은 영도(影島)이다. 영도 하씨는 미국 태생의 로버트 할리 씨가 1997년 8월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새로 만든 성씨이므로, 그는 영도 하씨의 시조가 되었다. 영도라는 본관은 그가 살고 있는 ‘부산의 영도’ 지명을 따 온 것이다. 현재 그의 자녀 3명을 포함해 4명의 영도 하씨가 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성이나 본관 제도는, 과거에는 신분을 나타내는 표시였고, 최근에는 부계 혈족 중심의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다. 이런 점에서 성을 자유롭게 선택하게 되는 세상이 온다면 이로 인한 사회적 상처는 조금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성을 갈겠다’라고 하면서 중요한 약속이나 맹세를 강조하는 표현을 사용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우리나라의 여러 성씨

가(賈) 간(簡) 갈(葛) 감(甘) 강(剛) 강(姜) 강(康) 강(強) 강(疆) 개(介) 견(堅) 견(甄) 경(京) 경(景) 경(慶) 계(桂)
고(高) 곡(曲) 공(公) 공(孔) 곽(郭) 교(橋) 구(丘) 구(具) 구(邱) 국(國) 국(菊) 국(鞠) 군(君) 궁(弓) 권(權)
근(斤) 금(琴) 기(奇) 기(箕) 길(吉) 김(金)

나(羅) 난(蘭) 남(南) 낭(浪) 내(乃) 내(奈) 노(盧) 노(路) 노(魯) 노(雷) 노(賴) 누(樓)

단(單) 단(段) 단(端) 담(譚) 당(唐) 대(大) 도(道) 도(都) 도(陶) 돈(敦) 돈(頓) 동(董) 두(杜) 두(頭)

마(馬) 매(梅) 만(萬) 매(梅) 맹(孟) 명(明) 모(毛) 모(牟) 목(睦) 묘(苗) 묵(墨) 문(文) 미(米) 민(閔)

박(朴) 반(潘) 반(班) 방(房) 방(方) 방(邦) 방(襄) 배(裨) 백(白) 범(范) 범(凡) 변(卞) 변(邊) 복(卜) 봉(奉) 봉(鳳)
부(傅) 부(夫) 비(丕) 빈(彬) 빈(賓) 빙(氷) 빙(氷)

사(史) 사(舍) 사(謝) 삼(杉) 삼(森) 상(尙) 서(徐) 서(西) 석(昔) 석(石) 선(宣) 설(薛) 설(葉) 성(成) 성(星)
소(蘇) 소(邵) 소(肖) 손(孫) 송(宋) 송(松) 수(水) 수(洙) 순(淳) 순(舜) 순(荀) 순(順) 승(承) 승(昇) 시(施) 시(柴)
신(眞) 신(申) 신(辛) 심(沈) 심(心)

아(阿) 안(安) 애(艾) 아(夜) 양(樑) 양(梁) 양(楊) 양(襄) 어(魚) 엄(嚴) 여(呂) 여(余) 여(女) 연(延) 연(燕) 연(連)
염(廉) 염(葉) 영(影) 영(榮) 영(永) 예(乂) 예(芮) 오(吳) 옥(玉) 온(溫) 옹(邕) 옹(雍) 왕(王) 요(姚) 용(龍) 우(禹)
우(于) 우(宇) 운(芸) 운(雲) 원(元) 원(苑) 원(袁) 위(韋) 위(魏) 유(柳) 유(俞) 유(劉) 유(庾) 육(陸) 윤(尹) 은(殷)
음(陰) 이(伊) 이(李) 이(異) 인(印) 임(任) 임(林)

자(慈) 장(張) 장(章) 장(莊) 장(蔣) 저(邸) 전(全) 전(田) 전(錢) 점(占) 정(丁) 정(程) 정(鄭) 제(諸) 제(齊) 조(曹)
조(趙) 종(宗) 종(鍾) 좌(左) 주(周) 주(朱) 준(俊) 줍(汁) 증(增) 증(曾) 지(智) 지(池) 진(晉) 진(眞) 진(秦) 진(陳)

차(車) 창(倉) 창(昌) 채(菜) 채(蔡) 채(采) 천(千) 천(天) 초(初) 초(楚) 초(肖) 최(崔) 추(秋) 추(鄒) 춘(椿)

탁(卓) 탄(彈) 태(太)

판(判) 팽(彭) 편(扁) 편(片) 평(平) 포(包) 표(表) 풍(馮) 피(皮) 필(弼)

하(夏) 하(河) 학(赫) 한(漢) 한(韓) 함(咸) 해(海) 허(許) 현(玄) 형(邢) 호(扈) 호(胡) 호(鎬) 홍(洪) 화(化) 환(桓)
황(黃) 후(侯) 후(后) 흥(興)

강전(岡田) 남궁(南宮) 독고(獨孤) 동방(東方) 망절(網切) 사공(司空) 서문(西門) 선우(鮮于) 소봉(小峰)
어금(魚金) 장곡(長谷) 제갈(諸葛) 황보(皇甫)





다음 내용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각종 통계 자료(e-나라지표)를 토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세상은 늘 변합니다. 어른들은 언제나 ‘세상 참 많이 달라졌다’고 말하지요. 우리나라는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1945년 해방 후 60여 년 동안 무엇이, 얼마나, 어떻게 달라졌는지 통계를 통해 알아보기로 합시다.

더 오래 살고, 아이들은 적어지고

평균 수명 1971년 남자 59세, 여자 66세 → 2010년 남자 77.2세, 여자 84.1세
총인구 1948년 2,000만 명 → 2010년 4,941만 명
1~14세 인구 1955년 40% → 2010년 16.1%

1948년에 2,019만 명이었던 인구가 2010년 현재 4,941만 명을 넘었습니다. 해방 이후 2.5배 정도 늘어난 셈입니다. 평균 수명도 2010년 남자 77.2세, 여자 84.1세를 기록해 1971년(남자 59세, 여자 66세)보다 18세 늘어났습니다. 반면에 1세에서 14세 이하의 아이들은 1960년 42.3%에서 2010년 16.1%로 크게 줄었습니다.

남자는 건장해지고 여자는 뽕다리가 되고

17세 남 1965년 163.7cm → 2007년 172.8cm
여 1965년 156.9cm → 2007년 160.4cm

생활이 풍요로워지면서 17세 청소년의 키는 1965년 남자 163.7cm, 여자 156.9cm에서

2007년 남자 172.8cm, 여자 160.4cm로 각각 9.1cm와 4.5cm가 커졌습니다. 남자는 앉은키도 같은 비율로 커졌지만, 여자는 앉은 키 성장 비율이 더 낮아 상대적으로 더 ‘롱다리’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남자들은 체중이 54.3kg에서 64.5kg으로 10.2kg나 증가한 반면, 여자는 4kg 정도 늘었습니다.

콩나물 교실은 없어지고

초등학교 선생님 1인당 학생 수 1952년 60명 → 2010년 18.7명

선생님 한 명이 맡아서 가르치는 학생 수는 초등학교의 경우 1952년에 60.2명이었던 데서 2010년에는 18.7명으로, 3분의 1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도 각각 41.8명과 37.9명이었던 데서 18.2명과 15.5명으로 크게 줄었어요. 대학교는 1952년 25.7명에서 2010년엔 24.9명으로 조금 줄었습니다.



10가구 중 9가구가 자가용을 가지고

1955년 3,000대 → 2010년 1,312만 5천 대

자동차 등록 대수는 1955년 1만 8천 대에서 2010년엔 1,794만 대로 늘었고, 그 중에서도 자가용 승용차는 3,000대에서 1,312만 5천 대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1가구를 4명으로 보았을 때 1970년에 100가구 중 1가구만 갖고 있던 자가용 승용차를 이제는 10가구 중 9가구 이상이 갖고 있는 셈입니다.

물가는 엄청 오르고

1965년 1만 원 → 2006년 29만 4,000원

2006년의 물가는 1965년보다 29.4배가 올랐습니다. 즉, 1965년에 1만 원으로 살 수 있던 상품을 이제는 29만 4,000원을 주어야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국민 소득은 2만 달러를 넘고

1953년 67달러 ⇨ 2010년 2만 759달러



1953년 67달러에 불과했던 1인당 국민 소득은 1977년에 1,000달러를 넘어섰고 1989년에는 5,000달러, 1995년에는 1만 달러를 돌파했으며, 2010년 1인당 국민 총소득은 2만 759달러가 되었습니다. 1953년과 비교한다면 300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해외여행 천만 명 시대가 열리고

1960년 8,000여 명 ⇨ 2010년 1,248만 8,000명

1960년에 8,000명 정도였던 해외여행자는 2010년 1,248만 8천 명으로 1,630배가 늘어났습니다. 해외 여행객 1인당 소비금액은 582달러에서 2,000달러로 4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한 명이 200만 원 정도를 쓰고 온 셈입니다.



수출 대국으로 도약하고

1948년 2,200만 달러 ⇨ 2010년 4,674억 달러

1948년에는 2,200만 달러에 지나지 않던 수출이 2010년에는 4,664억 달러로 무려 2만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주요 수출 상품도 농산물과 옷, 신발, 가발 등 경공업 제품에서 석유화학, 자동차, 조선, 반도체, 정보기술(IT) 등으로 다양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자동차 세계 5위의 생산국이고, 조선과 메모리 반도체는 흔들림 없는 세계 1위입니다.



국토 면적도 늘고

1949년 9만 3,634천km² ⇨ 2010년 10만 33km²

국토 면적은 1949년 9만 3,634km²였으나 간척사업 등을 통해 확장되어 2010년에는

10만 33km²로 6.8%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논밭은 1995년 21,039km²에서 2010년 19,617km²(논 11,834km², 밭 7,783km²)로 줄어들었습니다.



도로도 길어지고

1947년 2만 4천km ⇨ 2010년 10만 5,565k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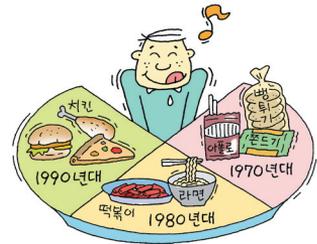
전국 도로의 총길이기도 1947년에는 고작 2만 4천km였지만 2010년에는 10만 5,565km (도로 포장율 79.8%)가 넘습니다. 4배 이상 증가한 셈입니다.



보릿고개는 먼 옛 이야기

쌀 생산량 1945년 185만 톤 ⇨ 2010년 491만 6,000톤

농가인구와 농경지는 급속히 줄었지만 쌀 생산량은 1945년 185만 톤에서 2010년에는 491만 6천 톤으로 60년 사이 2.7배 증가했습니다.



우리 생활, 어떻게 바뀌었나?



1년은 365일이고, 하루는 24시간이다. 우리는 이 시간을 단위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즉 하루 24시간 내에 각자의 생활 영역을 고루 할당한 상태에서 주기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하루의 활동을 시간의 측면에서 쪼개어 본 것이 바로 생활 시간(生活時間, living time)이다.

생활 시간의 구조는 나라와 민족에 따라 각기 다르고, 또한 시대에 따라 변화·발전 하지만, 무엇보다 소득 수준에 의해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 소득 상승에 수반하여 가사 노동 시간은 말할 것도 없고, 특히 여가생활 시간의 내용은 크게 변화하기 때문이다. 또한 생활 시간은 성(性)·연령·직업에 따라서도 차이가 난다.

우리나라에서는 통계청이 처음으로 1999년에 생활 시간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고, 2004년과 2009년에 재조사를 진행하여 5년 단위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생활 시간 조사는 우리 국민들이 하루 24시간을 어떤 형태로 보내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국민의 생활방식(life style)과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 조사를 보면 시기별로 국민 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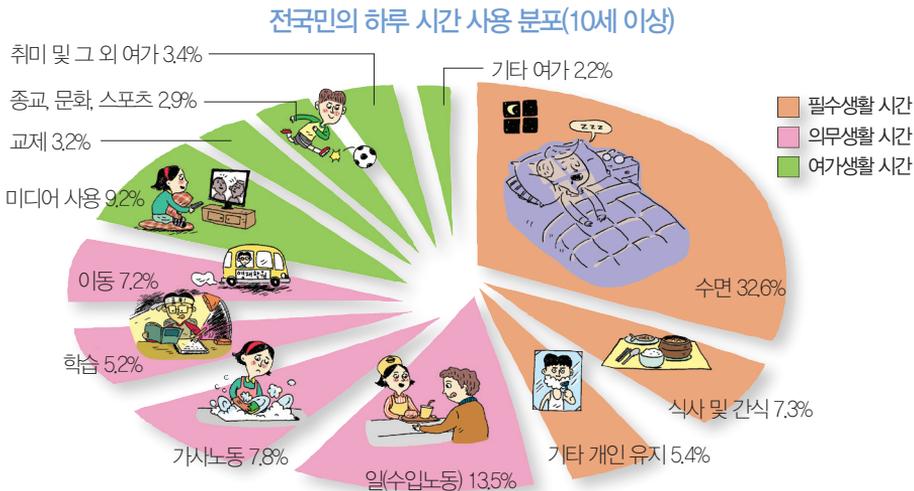
생활 시간 조사를 위한 분류체계는 크게 세 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필수생활 시간이다. 수면, 식사 및 간식, 기타 개인유지(개인 위생, 외모 관리, 의료적 건강관리) 등 인간의 생명 유지에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활동이 모두 여기에

속한다. 둘째, 의무생활 시간이다. 이는 소득을 얻기 위한 일(수입노동 시간), 학습, 가사노동(가정관리, 가족 보살피기), 이동 등 인간 행동 중 의무에 해당하는 활동에 필요한 시간을 말한다. 셋째, 여가생활 시간으로 개인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시간이다. 크게 참여 및 봉사활동, 교제 및 여가활동, 기타 활동을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 TV, 컴퓨터 등 미디어 이용(업무, 학습용 제외)과 종교·문화·스포츠 등 활동, 그리고 취미 및 그외 여가(독서, 컴퓨터게임, 놀이 유흥 등)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 시간은 문화적 동물로서 인간을 재생산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라고 볼 수 있다.

전 국민(10세 이상)의 시간 활용

우리나라 국민은 하루 24시간 중 10시간 53분(45.3%)을 잠자고, 식사하고, 씻는 등 필수적인 활동에 사용한다. 이 중 수면에 7시간 50분, 식사 및 간식에 1시간 45분, 기타 개인유지(개인위생, 외모관리, 의료적 건강관리 등)에 1시간 18분을 사용하고 있다.



수입 생활, 가사, 학습, 이동 등과 같은 의무활동에는 8시간 7분(33.8%)을 사용한다. 이 중 수입노동에는 3시간 15분, 가사는 1시간 53분, 이동에는 1시간 44분을 사용하였다.

여가 활동에는 하루 중 5시간 1분(20.9%)을 사용한다. TV시청에 1시간 51분, 교제에 46분, 스포츠에 29분, 독서에 8분을 사용하여, 책 읽기가 부족하고 TV 시청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인들의 시간 활용

20세 이상 성인의 하루 중 필수생활 시간은 10시간 53분이다. 이 중 수면에 7시간 48분, 식사에 1시간 47분, 개인유지에 1시간 18분을 각각 사용하고 있다.

의무생활 시간은 7시간 56분인데, 여성(8시간 7분)이 남성(7시간 45분)보다 22분 더 많다. 이 중 노동 시간은 남성(4시간 52분)이 여성(2시간 48분)보다 2시간 4분 더 많은 반면, 가사노동 시간은 여성(3시간 35분)이 남성(42분)보다 2시간 53분이 더 많다. 여가 생활 시간은 남성(5시간 22분)이 여성(5시간)보다 22분 더 많다.



	필수생활 시간	수입노동 시간	여가생활 시간
2004년	10:34	4:02	5:22
2009년	10:53	3:48	5:11
증감	+19분	-14분	-11분



2004년 대비 2009년에는 필수생활 시간이 19분 증가하여 기초적인 생활 유지를 위한 시간이 늘었다. 그러나 삶의 질을 보여주는 여가생활 시간은 11분 정도 줄었는데, 그 가운데 가장 큰 비중으로 줄어든 것은 취미활동이다.

학생들의 시간 활용

학생들은 하루 중 필수적인 활동에 10시간 49분을 보낸다. 이 중 수면에 7시간 57분, 식사에 1시간 35분, 개인유지에 1시간 17분을 각각 사용하고 있다. 수면시간은 고등학생의 경우 7시간 11분으로 가장 적고, 대학생(7시간 48분), 중학생(8시간 11분), 초등학교(8시간 56분) 순으로 많다.



대학생의 공부 시간이 가장 짧은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아마도 중·고등학교 시절 대학에 들어가는 것만을 목표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자유를 누리고 싶은 심리도

작용했을 것이고, 또 성인기에 접어들어 여가 및 취미, 문화 활동 등 자유시간이 많아졌기 때문일 것이다.

여가생활 시간은 4시간 10분인데 고등학생이 3시간 10분으로 가장 적고, 중학생(4시간 1분), 초등학생(4시간 30분), 대학생(5시간 5분) 순으로 많다.

의무생활 시간은 9시간 1분인데, 이 중 학습시간이 6시간 39분이고, 이동에 1시간 40분을 사용한다. 학습시간 역시 고등학생이 9시간 10분으로 가장 많고, 중학생(7시간 24분), 초등학생(6시간 14분), 대학생(3시간 47분) 순이다.



	필수생활 시간	학습 시간	여가생활 시간
2004년	10:34	6:23	4:39
2009년	10:49	6:39	4:10
증감	+15분	+16분	-29분

2004년에 비해 2009년에는 학생들의 필수 및 의무생활 시간이 증가했다. 기타 개인 유지와 학습시간이 각각 15분, 16분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학습시간은 초등학생의 경우 변화가 없으나, 중학생(5분), 고등학생(18분), 대학생(33분)은 각각 증가하여 학령이 올라 갈수록 증가 폭이 커지고 있다. 반면 여가생활 시간은 29분 감소했으며, TV 시청과 취미 및 그 외 여가 활동이 각각 14분, 20분 감소하여 가장 큰 비중으로 줄었다.

노인(65세 이상)의 시간 활용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하루 24시간 중 필수활동 시간이 11시간 34분이다. 그 중 수면 시간 8시간 20분(48.29%)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성인의 경우 7시간 48분, 학생의 경우 7시간 57분인 것에 비해, 30분 정도가 더 길다. 이 결과로 보면 일반적으로 알려진 “노인이 되면 잠이 없어진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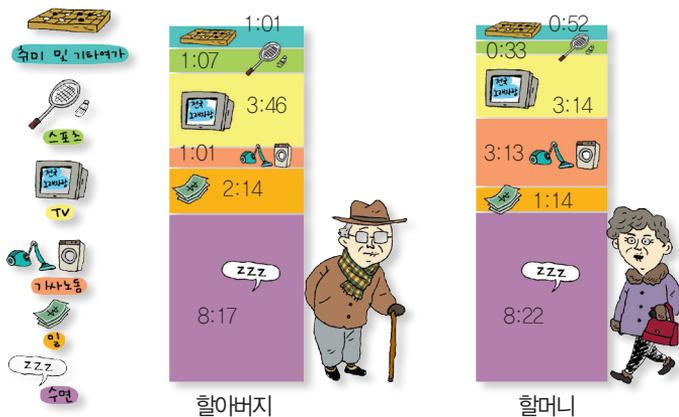
반면 노인들의 의무생활 시간 5시간 14분 중에 일하는 시간은 1시간 39분으로 성인의

3시간 48분에 비해 크게 줄었다. 하지만 가사노동은 2시간 19분(여자 3시간 13분, 남자 1시간 1분)으로 성인의 2시간 10분에 비교하면 9분이 많아졌다. 나이가 들어도 가사노동의 양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늘어난 것이다. 특히 여성 노인의 가사노동 시간은 3시간 13분으로, 성인 여성(3시간 35분)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렇듯 가사노동은 온전히 여성들에게 짐 지워져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그러나 여가시간은 7시간 12분으로 하루 24시간 중 30%를 차지한다. 노인들은 여가활동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시간이 TV시청(3시간 27분)이다. 그 다음이 종교·문화활동(1시간 11분), 놀이·유흥이 포함된 취미 및 여가(56분) 순이다. 독서에는 단 4분이 사용되었다.

이렇듯 노인들이 경우에도 2004년에 비해 2009년에는 필수생활 시간은 증가하고, 의무 및 여가생활 시간은 감소하였다.

노인의 남녀별 주요 시간 사용 분포



	필수생활 시간	의무생활 시간	여가생활 시간
2004년	11:16	5:23	7:21
2009년	11:34	5:14	7:12
증감	+18분	-9분	-9분

휴무 실태별 시간 활용(15세 이상 취업자)

과거에 비하여 인간의 노동시간이 짧아지고 있다. 산업혁명 시기에 주 80시간에 달하였던 노동 시간은 점차 짧아져서, 20세기에 들어서는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주 40시간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주 5일제’ 근무라는 말은 노동법상 노동시간을 주 40시간 이상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일주일에 8시간씩 5일을 근무하도록 한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주 5일제 시행에 들어갔고, 그로 인해 주 1일 휴무자와 주 2일 휴무자가 생겨났다.

주 2일 휴무자는 토요일의 수입 노동 시간이 1시간 47분으로, 주 1일 휴무자(5시간 59분)보다 4시간 12분 적게 일하였다. 그리고 평일 5일간의 노동시간도 주 1일 휴무자 7시간 17분과 주 2일 휴무자 6시간 58분으로, 주 1일 휴무자가 19분 더 많이 일하였다.



	주 1일 휴무자		주 2일 휴무자	
	평일(5일)	토요일	평일(5일)	토요일
수면	7:22	7:37	7:14	8:27
수입노동	7:17	5:59	6:58	1:47
가사노동	1:00	1:12	1:03	2:09
교제 및 여가 활동	2:59	3:38	3:08	6:00
미디어 이용	1:26	1:39	1:26	2:40
교제 활동	0:33	0:46	0:35	1:02
스포츠 및 집밖 레저	0:15	0:19	0:20	0:50
취미 및 그외 여가	0:34	0:41	0:33	0:56

주 2일 휴무자들은 늘어난 휴일의 시간을 여가 활동에 할애하였다. 그 내용을 주 1일 휴무자의 토요일과 비교하면 미디어 활용(1시간 1분)과 스포츠 및 집밖 레저(31분), 교제 활동(21분) 순이다. 평일의 교제 및 여가 활동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토요일에는 역시 주 2일 휴무자의 생활이 모든 활동에서 더 여유있게 이용되고 있다.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20세기 동안 세계는 부유한 나라가 되기 위해 경제 개발 경쟁을 벌였다. 경제적으로 부유하면 국민 모두가 잘 살게 될 것이라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각 개인들의 삶도 그만큼 각박해지고 있다. 사회 안전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인간의 행복과 같은 가치 지향적인 방향에서 삶의 질을 추구하고 있다.

하지만 생활 시간을 통해서 보듯이 세상은 좋은 방향으로 변하기보다,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은 학령이 올라갈수록 필수생활 시간과 의무생활 시간이 증가하고, 여가생활 시간은 더욱 줄어들었다. 학습 부담감과 취업 준비에 바쁜 일과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또 성인들의 경우, 수입노동과 가사노동 시간이 조금 줄었지만 여전히 그것이 삶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여가생활에서도 독서시간은 8분인데 비해 TV 시청은 2시간에 가깝다.

경제적으로만 보면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고 있으며 2008년 세계적 금융 위기를 가장 빨리 회복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이라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사는 것은 너무도 힘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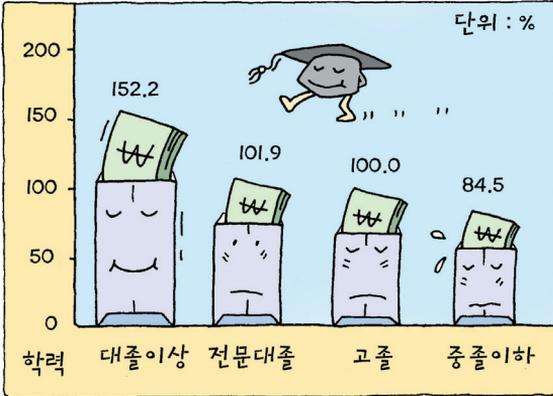
20세기에 잘 산다는 말은 곧 부자라는 말과 동의어였다. 하지만 앞으로 살아가야 할 21세기에 잘 산다는 말이 과연 부자와 같은 말일까? 경제적으로 부유한 국가가 그렇지 못한 국가보다 더 행복한 국가일까? 이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이다.

영 파운데이션 대표 제프 멀건은 “19세기 이전의 세계에서 중요한 것이 군사력이었다면, 20세기에는 GDP이며, 21세기에는 인간의 삶의 질과 웰빙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행복은 경제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생활시간의 균형을 통해 삶의 질이 바뀌는 것에서 오는 것은 아닐까?



맹모삼천지교가 집값을 올린다?

학력별 임금수준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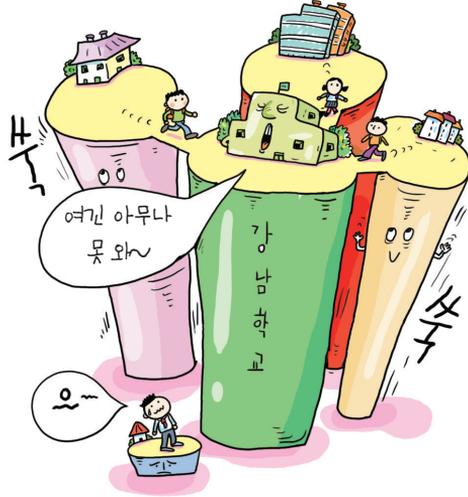
※ 자료 : 고용노동부

우리나라에서 학력별 임금 차이는 얼마나 될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학력이 높으면 임금 또한 높다. 그러다 보니 부모들은 누구나 자식들을 대학에 보내고 싶어한다. 하지만 부모가 원한다고 자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아니다.

맹자 어머니에 관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다.
 공동묘지 근처에 사니 장례 지내는 흥내를 내며 놀고,
 시장 근처에 사니 장사꾼 흥내만 내며 놀고,
 마침내 서당 근처로 이사를 하였더니 글을 열심히 읽어
 맹자가 마침내 훌륭한 인물이 되었다는 것이다.



현대 한국의 부모들은 맹자 어머니처럼 대학 진학을 많이 시키는 학교들이 있는 지역으로 이사를 하고 싶어한다. 그러다 보니 이들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집값이 훨씬 비싸진다. 교육열이 집값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이런 현상은 바람직할까?
경쟁을 부추겨 사교육비만 더 늘어나게 하는 건 아닐까?
그 지역으로 이사갈 수 없는 사람들은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
무조건 대학에 가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맞는 일,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통계를 더 보고 싶다면 이렇게!!

국가통계포털(KOSIS, www.kosis.kr)에는 국가승인통계들을 한 번의 인터넷 접속으로 편리하게 통계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One-Stop 통계정보 시스템입니다. 국가통계포털에는 현재 114개 기관에서 작성하는 486종의 국가승인통계가 DB로 구축되어 있으며, 국내통계뿐만 아니라 국제 기구로부터 수집된 국제통계, 통계관련 보도자료를 포함하여 통계를 알기쉽게 소개하는 서비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국가통계포털에 방문하세요 **www.kosis.kr**

⇒ 국가승인통계들을 한 번에 One-Stop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The screenshot shows the KOSIS website interface. At the top, there is a navigation bar with links for 'HOME', '내외통계', '포그인', '회원가입', '사이트맵', 'ENGLISH', and '백뉴스테포기'. Below this is a search bar and a menu with categories: '국내-국제통계', '특정통계', '데이터통계', '지역통계', '통계교실', and '통계알리미'. The main content area is divided into several sections:

- 통계실용자료**: A table showing various economic indicators.

· 추계인구(12)	50,004천명
· 출생아수(10)	470,171명
· 고등률(11.12)	58.5%
· 서비스업생산(11.1)	2.6%
· 1인당 국민총소득(1)	20,759달러
- 이슈통계**: A section for trending statistics, including '가족관계', '경기(연말 및...)', '복합성장', and '보통연금'.
- 통계활용사례**: A section for practical applications, including '경쟁' and '경쟁'.

 The footer contains information about the service, including '서비스안내', '이용약관', '개인정보보호방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부디다운로드', 'RSS', 'Open API', and visitor statistics: '방문자수 2,923' and 'TOTAL 20,794,124'.

통계청은 2006년 9월 1일부터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 시스템을 통해 우리나라 국정 전 분야에 걸친 각종 통계 자료를 제공하고, 정부기관에서 엄선한 지표들을 통해 사회·경제·정치·문화 등 다양한 방면에서 우리나라의 현 위치를 보여줍니다. 통계는 과거를 평가하고 현 위치에 대한 진단과 미래 상황에 대한 예측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객관적이고 명확한 척도입니다.

2 e-나라지표에 방문하세요 www.index.go.kr

⇒ 분야별, 부처별로 각 단위 지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The screenshot shows the homepage of the e-National Indicators website. At the top, there is a navigation bar with the logo and menu items like 'e-나라지표 소개', '지표분류', '주요지표서비스', '고객센터', and '마이페이지'. Below the navigation bar is a banner with the title '나라 지도로 가늠해보는 e-나라지표' and a line graph showing data from 2009 to 2012. The main content area is divided into several sections:

- 분야별지표 (Sectoral Indicators):** A table with columns for '경제' (Economy), '사회' (Society), '문화' (Culture), and '정무' (Politics).

종류	경제	사회	문화	정무
거시경제	기상		재정	
건설	농업		정보통신	
공정거래	무동산		조달	
과학기술	산업동향		중소기업	
교통	어업		특허	
금융	임업		해양	
- 부처별지표 (Agency Indicators):** A list of indicators for various government agencies, including '국무총리직속기관', '대통령직속기관', '부15기관', and '청16기관'.
- 지표로본 우리나라 (Our Country by Indicators):** A section showing key economic indicators:
 - 경제성장률(GDP): 3.5% (2011년 3/4분기, 전년 대비)
 - 실업률: 2.9% (2011년 11월)
 - 소비자물가상승률: 4.2% (2011년 12월, 전년 동월 대비)
- 녹색성장 참고지표 (Green Growth Reference Indicators):** A section with various indicators related to green growth.

At the bottom, there are links to 'KOSIS 국가통계포털', '국립중앙도서관', '통계표문분류', '통계실명자료', and '온라인통계자료'. The footer contains contact information and copyright details: 'Copyright 2009 Statistics Korea. All rights reserved. Email-Mail to Webmaster'.

분야별 지표 : 총량지표, 경제, 사회, 문화, 정무 등 각 분야별로 대·중·소 분류 단계별 접근

부처별 지표 : 대통령·국무총리 직속기관, 부, 청 등 소관 부처별 접근

글쓰기와 감수해 주신 분들

저자 | 구정화(flower9@gin.ac.kr)

1966년에 경남 함안의 작은 면소재지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사회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 동안 중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연구하기도 하였으나, 아직도 이 땅의 청소년들을 잘 모르겠다고 생각한다. 《논쟁문제 교육의 이론과 실제》, 《지식과 사고》와, 고등학교 《사회문화》교과서, 고등학교 《사회》교과서 만드는 일에도 관여하였다. 현재는 경인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함께 하는 시민행동’이라는 시민 단체에서도 활동하고 있으며, 가장 좋아하는 단어는 ‘사람’, ‘사랑’, ‘삶’, ‘화평’이며, “지혜로운 자는 적은 힘으로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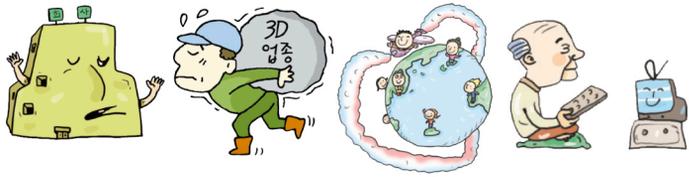
저자 | 김찬호(chan-ho7@hanmail.net)

196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연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거기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일본 오사카대학의 객원연구원, 서울시대안교육센터 부센터장을 지냈다. 저서로 《문화의 발견: KTX에서 찜질방까지》, 《일본 대중 문화론》, 《사회를 보는 논리》, 《도시는 미디어다》가 있으며, 번역서로 《작은 인간》, 《이런 마을에서 살고 싶다》 등이 있다. 현재는 성공회대학교 교양학부에서 젊은 인재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여러 민간 사회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

저자 | 안병근(aman@gju.ac.kr)

1958년 경북 영주에서 태어났다.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일반사회교육과를 졸업하고, 거기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때 중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경험이 있으며, 어렵고 딱딱한 경제학을 재미있고 쉽게 가르치는 데 남다른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고 있다. 저서로는 《사고 중심의 경제학 강의》, 《고등학교 어린이 경제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생활 속의 경제학》(공저)이 있으며, 현재 공주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항상 깨어 있는 정신으로 현재를 살고자 하며, 거문고 수련과 시조창을 즐긴다.





저자 | 이기원(kwlee@hallym.ac.kr)

1958년에 태어나서 25년 동안 서울에서 살았다. 서울대학교 계산통계학과를 졸업하고, U.C. Berkeley 통계학과에서 이학박사를 받았다. 저서로 《인터넷 시대의 생활 속의 통계학》이 있으며, 현재 아름다운 호반의 도시 춘천에 있는 한림대학교의 정보통계학 전공 교수로 있다. 캐나다에 있는 국립 수자원연구소에서 일한 적이 있으며, 1998년부터 2006년까지 대학의 정보전산원장, 기획예산처장, 사무처장 일을 맡았고 지금은 화천·양구·인제 등 접경지역에서 마을 주민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다.

저자 | 문우일(logy6903@hanmail.net)

현재 세화여고 교사, 성균관대학교 철학과와 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를 졸업한 후 논리논술대학원을 수료했다. 1997년~2005년 EBS에서 '논리가 보인다'를 진행하였고, 2005년 겨울부터 서울특별시 교육연수원 논술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2006년 초 발간된 (대한교과서)에 집필진으로 참여했으며 2006년 중앙일보 논술지원단과 조선일보 논술네트워크에서 활동하였다. 현재 EBS 논술 배경지식에서 '읽고 듣는 논술'을 강의하면서 청소년들에게 쉽고 재미있는 논술 공부법을 강의하고 있다.

감수 | 서범석(trsbs@hanmail.net)

1974년 충남 공주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에 재학중이다. 고등학교 《사회문화》교과서 만드는 일에 참여하였으며, 현재 계성여자고등학교에서 사회를 가르치고 있다. 학생들과 교감하며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이 책에 실린 글들을 감수해 주셨다.

감수 | 차성민(okiamcha@hanmail.net)

1970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역사교육과를 졸업하고 좀더 다양한 분야를 배우기 위해 2년 후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에 편입하였다. 졸업 후 (주)천재교육의 《중3 해법사회》를 공동 집필하였다. 부천여월중학교의 행복한 사회 시간, 그녀는 아이들의 눈에서 꿈을 읽는다. 학생들과 교감하며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이 책에 실린 글들을 감수해 주셨다.



제1판 1쇄 발행 · 2003년 8월 5일
개정증보판 1쇄 발행 · 2008년 1월 2일
2012년 판 1쇄 발행 · 2011년 12월 29일

지은이 · 구정화 · 김찬호 · 안병근 · 이기원 · 문우일
디자인 및 진행 · 예감기획(02-337-3810)
펴낸곳 · 통계청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홈페이지 · www.kostat.go.kr
발간등록번호 · 11-1240000-000585-14

ISBN 978-89-5801-284-9
값 12,000원

© 통계청

* 구입 신청은 통계쇼핑몰(www.kostat.go.kr/shopmall)이나
한국통계진흥원(031-759-0167)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면은 빈 공간입니다.

통계 속의 재미있는

세상이야기

2012년 개정 증보판



나는 수학 중에서 통계가 제일 어렵고 재미없다. 이 책 역시 수학 내용을 풀어놓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솔직히 처음에는 읽기 싫었다. 그런데 '통계 속의 재미있는 세상이야기'는 내게 통계의 다른 얼굴을 보여주었다. 통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얼마나 유용한지 알게 되어 기쁘다. 무엇보다 이 책을 읽고 나니 내가 무척 똑똑한 사람이 된 것만 같아서 뿌듯하다.

- 경성중학교 3학년 이호

세상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방법은 참 여러 가지인 것 같다. 통계 역시 그 방법 중의 하나이겠지만 그 어느 방법보다 포괄적이고 분석적이라는 사실을 '통계 속의 재미있는 세상 이야기'를 통해 알게 되었다. 통계를 잘 활용하면 내가 살고 있는 사회와 국가의 오늘을 이해하고 내일을 예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우쳐 준 고마운 책이다.

- 서울예술고등학교 2학년 임보영

막연히 그럴 것이라고 생각해왔던 각종 사회 현상들을 정확한 통계를 보면서 확인할 수 있어서 무척 유익했다. 현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는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할 수도 없다고 믿는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단순히 통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위한 교양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내일을 고민하는 모든 이들의 필수 교양서라고 생각한다.

- 회사원 박준찬

아이들이 작성한 논술문을 보면 막연히 추상적인 개념이나 선언만으로 완성된 글이나 동일한 사례를 쓴 글들이 허다하다. 아마도 천편일률적인 논술 서적들의 폐해일 것이다. '통계 속의 재미있는 세상 이야기'는 논술에 꼭 필요한 사회문제를 보는 시각과 방법론을 제시해 주고 있는 훌륭한 책이다. 또 기존의 논술서적에서는 볼 수 없는 정확한 데이터를 제시하고 있다. 논술 지침서로도 손색이 없는 이 책이 많은 학생들에게 일독되기를 희망한다.

- 하이리직 논술학원장 서중



9 788958 012849

값 12,000원

ISBN 978-89-5801-284-9